

연구보고서 2005-2-1

대졸 청년층의 대학교육 만족도

채창균 최지희 옥준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본연구 05-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인적자원개발(I) - 대졸 청년층의 대학교육 만족도

연구책임자: 채창균

공동연구자: 최지희

육준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머 리 말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80.7%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일부 선진국들이 대학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고학력화 자체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자산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이 질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에 있다는 사실이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실태를 졸업생의 평가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의도로 출발한 이 연구의 의의는 자못 크다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교육의 실태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태와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간의 관계를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다. 또 대학교육과 노동시장 요구간의 간극을 메워주는 계속교육훈련의 실태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로 추진된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인적자원개발(I)'(기본연구 2005-4-1번)으로 진행되었으며, 채창균 박사가 책임자로서 최지희, 옥준필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위과제 중 하나로 진행된 것인데, 이번 연구를 통해 발견된 주요 사실들(facts)들이 정부의 대학개혁과 청년층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크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성실히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를 치하하며 아울러 연구진을 도와 통계분석 등 여러 지원 작업을 성실히 수행해 준 이성재 위촉연구원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5년 11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院長 金 章 鎬

목 차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 3

제2장 이용자료

제1절 조사개요 · 5

제2절 조사 자료의 분포 · 9

제3장 청년층의 대학 재학 중 교육경험과 대학교육 평가

제1절 대학 재학 중 교육 경험 · 14

1. 대학 재학 중 활동 · 14
2. 계열(또는 학부) 입학 · 17
3. 복수전공(또는 다전공) 이수 · 18
4. 현장학습(또는 인턴십) 경험 · 20
5. 자격증 취득 · 24
6. 해외 교육연수 경험 · 30
7. 아르바이트 등의 취업 경험 · 36

제2절 대학 교육 평가 · 38

1. 대학의 교육 충실도 · 38
2.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 · 40
3. 대학 졸업 당시의 능력 수준 · 43
4. 대학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53

제3절 대학교육에 대한 요구 · 59

1. 대학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 · 59
2. 대학교육 중 강화해야 할 내용 · 61
3. 직업기초능력의 직업에서 중요도와 괴리 정도 · 63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 75

제4장 대학교육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제1절 정규직으로의 취업 · 80

제2절 하향취업 · 94

제3절 전공취업 · 104

제4절 임금수준 · 113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22

제5장 대학졸업 후의 계속교육훈련

제1절 대학 졸업 후 계속교육훈련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126

제2절 계속교육훈련의 내용 · 134

1. 이수기관 및 이수과정의 내용 · 134
2. 재정부담의 주체와 이수 시간 · 138
3. 이수의 목적 및 효과 · 141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 145

제6장 결론

SUMMARY · 157

<부록 1> 부표 · 163

<부록 2> 대졸 청년층의 대학교육 만족도와 직업에 관한 조사 · 171

참고문헌 · 209

<표목차>

- <표 II-1> 조사 설문의 주요 영역과 항목 · 8
- <표 II-2> 모집단과 표본 대학 및 졸업생의 분포 · 10
- <표 II-3> 조사 졸업생의 경제활동상태 · 11

- <표 III-1> 학기 중 활동(주당 평균 시간) · 15
- <표 III-2> 방학 중 활동(주당 평균 시간) · 16
- <표 III-3> 계열(또는 학부) 입학 여부 · 17
- <표 III-4> 계열(또는 학부)로 입학하여 대학과정을 이수한 것의 취업과 직장생활에의 도움도 · 18
- <표 III-5> 복수전공(또는 다전공) 이수 여부 · 19
- <표 III-6> 복수전공(또는 다전공)을 이수한 것의 취업과 직장생활에의 도움도 · 20
- <표 III-7> 현장실습(또는 인턴십) 경험 유무 · 21
- <표 III-8> 현장실습(또는 인턴십)을 위해 보낸 기간 · 22
- <표 III-9> 현장실습(또는 인턴십)의 대학 전공과의 관련성 · 23
- <표 III-10> 현장실습(또는 인턴십)의 취업과 직장생활에의 도움도 · 24
- <표 III-11>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 여부 · 25
- <표 III-12> 자격증 취득 준비 방법 · 26
- <표 III-13> 자격증 취득 준비를 위해 보낸 기간 · 27
- <표 III-14> 자격증 취득 여부 · 28
- <표 III-15> 취득 자격증 수 · 29
- <표 III-16> 취득 자격증의 취업과 직장생활에의 도움도 · 30
- <표 III-17> 해외 교육연수 경험 유무 · 31
- <표 III-18> 주요 해외 교육연수 국가 · 32
- <표 III-19> 해외 교육연수를 위해 보낸 기간 · 33
- <표 III-20> 해외 교육연수 목적(복수응답) · 34
- <표 III-21> 해외 교육연수의 대학 전공 관련성 · 35
- <표 III-22> 해외 교육연수의 취업과 직장생활에의 도움도 · 36

- <표 III-23> 아르바이트 등의 취업 경험 유무 · 37
- <표 III-24> 아르바이트 등의 취업 경험을 위해 보낸 기간 · 38
- <표 III-25> 대학의 교육 충실도 · 39
- <표 III-26>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 · 40
- <표 III-27> 대학졸업 당시의 직업기초능력 수준(성별, 대학소재지별) · 44
- <표 III-28> 대학졸업 당시의 직업기초능력 수준(전공계열별) · 46
- <표 III-29> 대학졸업 당시의 컴퓨터 활용능력 수준(성별, 대학소재지별) · 49
- <표 III-30> 대학졸업 당시의 컴퓨터 활용능력 수준(전공계열별) · 50
- <표 III-31> 대학졸업 당시의 외국어 능력 수준(성별, 대학소재지별) · 51
- <표 III-32> 대학졸업 당시의 외국어 능력 수준(전공계열별) · 52
- <표 III-33> 전공 재선택 · 54
- <표 III-34> 대학 재선택 · 55
- <표 III-35> 선택할 대학 유형 · 56
- <표 III-36> 대학교육의 학문기초능력과 직업능력 형성에의 도움도 · 57
- <표 III-37> 대학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 58
- <표 III-38> 대학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 · 60
- <표 III-39> 대학교육 중 강화해야 할 내용(전공계열별) · 61
- <표 III-40> 대학교육 중 강화해야 할 내용(업종별) · 62
- <표 III-41> 직업기초능력의 직업에서 중요도(전공계열별) · 64
- <표 III-42> 직업기초능력의 직업에서 중요도(업종별) · 67
- <표 III-43> 직업기초능력의 괴리정도 · 71

- <표 IV-1> 성별 정규직 취업 여부 · 81
- <표 IV-2> 대학특성과 정규직 취업 여부 · 82
- <표 IV-3> 전공특성과 정규직 취업 여부 · 82
- <표 IV-4> 졸업생의 능력 또는 노력과 정규직 여부 · 83
- <표 IV-5> 변수의 정의와 기초통계 · 87
- <표 IV-6> 정규직취업, 비정규직취업 및 미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로짓분석
결과(식(1)) · 91

- <표 IV-7> 정규직취업, 비정규직취업 및 미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로짓분석 결과(식(2)) · 91
- <표 IV-8> 정규직취업, 비정규직취업 및 미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로짓분석 결과(식(3)) · 93
- <표 IV-9> 성별 하향 취업 여부 · 95
- <표 IV-10> 대학특성과 하향취업 · 96
- <표 IV-11> 전공특성과 하향취업 · 97
- <표 IV-12> 졸업생의 능력 또는 노력과 하향취업 · 99
- <표 IV-13> 하향취업,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 및 미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결과(식(1)) · 102
- <표 IV-14> 하향취업,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 및 미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결과(식(2)) · 102
- <표 IV-15> 하향취업,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 및 미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결과(식(3)) · 103
- <표 IV-16> 성별 전공 취업 여부 · 105
- <표 IV-17> 대학특성과 전공취업 · 106
- <표 IV-18> 전공특성과 전공취업 · 106
- <표 IV-19> 졸업생의 능력 또는 노력과 전공취업 · 108
- <표 IV-20> 전공취업, 비전공취업 및 미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결과(식(1)) · 111
- <표 IV-21> 전공취업, 비전공취업 및 미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결과(식(2)) · 111
- <표 IV-22> 전공취업, 비전공취업 및 미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결과(식(3)) · 112
- <표 IV-23> 성별에 따른 임금수준 · 113
- <표 IV-24> 대학특성과 임금수준 · 114
- <표 IV-25> 전공특성과 임금수준 · 114
- <표 IV-26> 졸업생의 능력 또는 노력과 임금수준 · 116
- <표 IV-27> 임금함수 추정(1) · 119
- <표 IV-28> 취업의 질과 임금수준 · 120
- <표 IV-29> 임금함수 추정(2) · 121

- <표 V-1> 배경변인과 졸업 후 계속교육훈련 참여 · 127
- <표 V-2> 취업상태와 계속교육훈련 참여 · 128
- <표 V-3> 대학교육 만족도 및 별도교육훈련의 필요성과 교육훈련 참여 · 130
- <표 V-4> 로짓분석을 위한 변수의 정의 · 131
- <표 V-5> 계속교육훈련참여 결정요인에 대한 이항로짓 분석결과 · 133
- <표 V-6> 계속교육훈련 이수기관 · 136
- <표 V-7> 계속교육훈련 과정의 주요내용 · 137
- <표 V-8> 계속교육훈련 비용부담의 주체 · 139
- <표 V-9> 계속교육훈련의 근무시간 중 이수여부 · 141
- <표 V-10> 계속교육훈련의 이수목적 · 142
- <표 V-11> 계속교육훈련 이수의 효과 · 144

[그림목차]

[그림 Ⅱ-1] 조사의 기본틀 · 7

[그림 Ⅲ-1] 대학교육 만족도 국제비교 · 42

[그림 Ⅲ-2] 직업기초능력의 괴리정도 국제비교 · 74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졸업생의 대학교육 이수 실태를 대학교육을 받은 당사자인 졸업생의 평가를 기초로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대학교육 실태와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간의 관계를 다각도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 대학교육과 노동시장 요구간의 괴리가 졸업후의 계속교육훈련을 통해 메워지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도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1년 2월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특정 코호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학교육 만족도와 노동시장 이행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최초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대졸 청년층의 교육-직업 이행 경로에 따라 대학 재학 중의 교육, 대학 졸업 전후의 구직활동, 첫 일자리, 현재의 일자리, 대학교육과 직업간의 관계, 그리고 대학 졸업 후의 계속교육훈련에 관한 내용이 심층적으로 파악되었는데, 표집 규모는 약 2,000명 수준이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졸업 후 4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되어 졸업생의 추적이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에, 졸업생 명단을 다 소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성의 경우 모집단과 표본의 분포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고, 이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먼저 3장에서는 대학교육의 실태를 졸업생의 평가에 기초하여 살펴 보았는데, 주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전체적인 대학의 교육 충실도는 5점 만점 중에 평균 3.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수업 출석, 이론이나 개념에 대한 학습, 전공분야나 과목을 선택할 자유, 자기주도학습,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학습이나 문제해결학습 등은 대학의 교육 충실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재학 중의 일 체험과 수업시간의 교수와 학생간의 커뮤니케이션, 졸업논문이나 졸업과제물의 작성, 의사소통능력의 습득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대학의 교육 충실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둘째, 전체적인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 중에 평균 3.1 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는 학교 친구와의 접촉 기회, 도서관 시설 및 장서 보유, 전공 수업 내용, 수업의 질, 전공분야나 과목을 선택할 자유 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일 체험 기회의 제공,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 수업시간 이외에 교수와 접촉할 기회, 대학의 의사결정에 대한 학생의 참여 기회, 졸업논문이나 과제물·시험에 대한 교수의 지도 조언, 수업에서 실용적 내용의 중시 등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국제비교 관점에서 볼 경우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만족도는 비교대상 국가 중 중간수준에 해당된다. 영국이나 네덜란드에 비해 크게 낮고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의 만족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독일이나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중부 유럽국가나 일본에 비해 다소 높고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국가에 비해서는 크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발견은 조사 시점과 조사 대상의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상대적 수준이 과대평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교육 충실도나 만족도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도 예상되는 것처럼, 대학교육에 대한 요구와 관련하여 대졸 청년층들은 향후 대학교육이 학문지향보다는 좀더 직업능력을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대학교육 중에서 향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내용은 실험·실습교육, 현장실습이나 인턴십과 같은 직업현장체험교육, 정보활용교육, 인성교육 등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기초교양교육이나 진로상담 및 지도는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 졸업 당시 대졸 청년층들의 전체적인 직업기초능력 수준은 5점 만점 중에 평균 3.4점이었다. 비교적 높게 나타난 직업기초능력들은 성실성, 책임감, 일에 대한 적응 능력, 일에 몰입하는 능력, 학습능력, 다른 의견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융통성, 어떤 제약 하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팀워크 능력 등이었다. 반면에 외국어능력과 복잡한 사회조직·기술체계를 이해하는 능력, 경제적 사고능력, 창의력, 폭넓은 일반적 지식·소양, 계획을 세우고 조정하고 조직화하는 능력, 지식·기술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능력 등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직업에서 비교적 중요도가 높은 직업기초능력은 시간관리능력, 성실성, 책임감, 문제해결능력, 정확하고 면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일에 대한 적응능력, 언어구사능력, 분석능력, 융통성, 어떤 제약 하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계획을 세우고 조정하고 조직화하는 능력, 정보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능력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직업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직업기초능력은 외국어 능력, 전공분야의 이론적 지식, 전공분야의 분석 방법에 대한 지식, 수작업 능력, 작문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폭넓은 일반적 지식·소양, 여러 전공분야를 포괄하는 사고·지식, 복잡한 사회조직·기술체계를 이해하는 능력 등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대학 졸업 당시의 수준간의 괴리 정도를 국제비교 관점에서 살펴보면, 직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우리나라의 경우 스페인이나 프랑스보다는 높지만 북유럽국가들과 영국보다는 크게 낮고 그밖의 다른 나라들과는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대학 졸업 당시 직업기초능력의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일본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직업능력과 대학에서 육성되는 능력간의

격차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가장 크다. 국제비교 관점에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확인된다 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은 향후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능력과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학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무엇보다 대학교육이 직업능력을 육성하는 보다 실용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대학의 교육 충실도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교육 활동, 현 직업에서 중요도가 높지만 실제 대학 졸업생들이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직업기초능력, 그리고 대학교육 중에서 향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교육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육과 노동시장 이행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4장에서는 대학교육의 특성(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구분, 대학교육에 대한 졸업생의 만족도, 대학교육이 직업능력 형성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졸업생의 응답, 재학생의 취업능력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계열 또는 학부입학제, 복수전공제도, 인턴십 등 주요 프로그램 등)과 졸업생의 취업능력(컴퓨터 활용 능력 및 영어능력과 더불어 주요 직업기초능력으로서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등과 그밖에 졸업생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대학성적이나 대학입학 당시의 수능성적 등), 또 취업을 위한 졸업생의 노력(2001년 2월 대학 졸업이후의 학부 및 대학원 수준의 계속고등교육경험, 졸업후 미취업 상태에서의 직업훈련경험, 자격증 취득과 해외연수경험 등)이 취업여부 및 정규직으로의 취업이나 하향취업, 전공취업 여부와 더불어 취업했을 경우의 임금수준 등 취업의 질에 미친 영향을 주로 분석하였다. 4장의 주된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경우 미취업이나 비정규직(하향취업) 상태에 있기보다 정규직에 취업(교육수준에 맞게 취업)해 있을 가능성이 지방대학 졸업생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등 취업성고가 지방대학 졸업생에 비해 보다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대학교육이 직업능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 경우 취업성고가 유의하게 좋게 나타나는 등 대학교육이 직업능력 형성 중심으로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대학교육이 직업능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 경우 졸업생이 미취업 상태에 있기보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에 취업해 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또 미취업이나 하향취업(비전공취업) 상태에 있기보다는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전공취업)을 하게 될 가능성도 높았다. 대학교육 만족도도 정도는 다소 약하지만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계열 또는 학부입학제도나 복수전공제, 인턴십 등 대학졸업생의 취업능력제고를 염두에 두고 도입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제도는 충분히 기능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 자체가 취업능력 제고와 연관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라 할 것이다.

넷째, 졸업생의 취업능력으로 취업성가에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체로 컴퓨터 활용 능력, 영어 능력, 기술능력(지식·기술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능력)으로 나타났다. 직업기초능력으로서 중요시되는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등의 경우 평균적인 비교에서는 대체로 취업성고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조건을 통제한 로짓분석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이들 능력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컴퓨터나 영어능력과 기술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이 직원 선발

과정에서 그 수준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다섯째, 대학성적은 취업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호기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학재학생의 입장에서는 대학생활에 충실히 임해 학점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그러나 졸업이후 새로운 학부에 편입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은 그다지 취업여부나 취업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만큼(학부 편입의 경우 하향취업에 비해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을 할 가능성이 다소 높아지고, 대학원 진학이 비전공취업에 비해 전공취업의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유일한 긍정적 측면이다), 무분별한 진학은 자제될 필요가 있다. 또 자격증 취득이나 해외연수 경험, 또 졸업후 미취업 상태에서의 직업훈련 경험도 취업성과를 높이는 데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의 신호기제로서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임이 재차 확인되며, 무분별한 해외연수도 자제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직업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여섯째, 다른 조건이 통제된 경우 정규직 취업자는 비정규직 취업자보다 20% 정도 임금을 더 받고, 전공취업자의 경우 비전공취업자에 비해 4%의 임금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다. 반면 하향취업자는 교육수준에 맞게 취업한 졸업생에 비해 10% 정도 임금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공취업보다는 하향취업, 하향취업보다는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경우 임금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크다 할 것이다.

한편, 5장에서는 계속교육훈련이 과연 대학교육과 노동시장 요구간의 간격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취업능력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대학교육을 충실하게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의 계속교육훈련 참여 여부 및 참여 방식을 비교분석하였다. 대졸

자의 계속교육훈련 참여는 이들이 졸업 후 계속교육훈련에 참여함으로써 학교를 통해서 또는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취득한 직업능력과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간의 격차(gap)를 메울 주요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학생 때 직업세계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집단의 경우 준비를 잘 한 집단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육훈련에 참여함으로써 학교교육과 일터와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도 생겨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훈련참여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수들에 대한 분석결과는 이와는 상반된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

첫째, 학교 때 성적이 좋거나 수능점수가 높은 졸업생과 같이 우수한 취업능력을 가졌을 것으로 간주되는 집단이나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수준과의 괴리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계속교육훈련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이들 취업능력이 높은 졸업생이 먼저 취업함으로써 기업이 제공하는 교육훈련의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된 것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로짓 분석 결과 졸업생의 취업상태를 통제한 후에도 동일한 결과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능력이 높은 집단이 교육훈련에 더 많이 참여하는 성향이 취업전후로 동일하게 존재함을 의미한다. 다만 취업능력이 동일할 경우 계속교육훈련 참여가 취업을 촉진하였는지에 대한 분석, 즉 계속교육훈련 참여의 실효성과 효과에 대한 분석은 본 조사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불가능하며 이것은 본 분석의 한계로 남는다.

둘째, 이 같은 격차는 이들 계속교육훈련참여자들 간의 참여 형태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출신대학의 소재지, 학부성적 및 수능점수를 중심으로 비용부담, 이수시간대, 이수기관, 이수목적과(스스로 평가한) 교육훈련의 효과 등의 차이를 살펴보

았는데, 여자 졸업생과 비수도권 대학 졸업생, 그리고 학부성적이 좋지 못하거나 수능성적이 낮은 졸업생이 남자 졸업생과 수도권 대학 졸업생, 그리고 학부성적이 좋거나 수능성적이 높은 졸업생에 비해, 같은 취업자라고 하더라도 자비로 근무시간이외에 취업/창업/전직을 목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훈련의 효과성에 대한 부정적인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취업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집단의 경우 교육훈련에 참여하더라도 보다 제약된 여건속에 놓여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 같은 4년제 대학 졸업생이라고 하더라도 교육훈련의 부익부 빈익빈 조짐이 일차적으로는 참여 여부에서,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교육훈련에 참여하더라도 참여방식이나 내용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할 것이다. 대학교육과 직업의 요구간의 괴리를 메워줄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교육훈련이, 상대적으로 취업능력이 취약한 계층에게 보다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청된다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졸업 후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층에게 제공되는 교육훈련의 양과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기업에 의한 훈련의 배분이 취약 청년층의 직업능력개발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취업한 청년층의 자기주도적 직업능력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적 장치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80.7%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가 대량 배출되는 고학력화 덕분에 그간 우리 경제의 고성장이 뒷받침되어 온 측면도 있다. 특히 일부 선진국들의 경우 대학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고학력화 자체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자산일 수 있다.

그런데 급속한 고학력화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가 이들 고학력자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에 수급불균형에 따른 청년실업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학교육의 양적 확대가 질의 저하를 수반하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교육의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교원 1인당 학생수 추이를 보면 이런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다. 4년제 대학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수가 1975년의 20.7명에서 2003년에는 39.9명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 또 대학교육이 노동시장과 연계되지 못한 채 공급자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도 큰 문제다. 전경련(200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기업 현장에서의 불신의 소리가 높아,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산업

2 대졸 청년층의 대학교육 만족도

계에서 원하는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질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전체의 7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간 시장논리(대학졸업자의 임금프리미엄)과 비시장논리(지나친 교육열)의 동시적 작용으로 대학 교육 희망자가 대학 정원을 초과하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었기 때문에, 대학이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을 시킬 유인이 별로 없었던 탓이다. 교육공급자의 편의 위주로 밀어내기식 인력배출이 진행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대학 입학 자원의 감소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대학이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그 성과가 충분히 가시화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대학은 현재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그 구조를 개혁해가려고 하는 과도기적 위치에 놓여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론에 대한 다수의 공감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의 내부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바가 없다. 그간 대학교육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몇 차례 있었지만, 그 내용이 심층적이지 못하고 소규모 표집 조사에 지나지 않아 일반화되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의 실태가 어떠한지를 대학교육을 받은 졸업생의 평가를 기초로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졸업 청년층의 대학교육 만족도와 노동시장 이행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최초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조사에서는 대졸 청년층의 교육-직업 이행 경로에 따라 대학 재학 중의 교육, 대학 졸업 전후의 구직활동, 첫 일자리, 현재의 일자리, 대학교육과 직업 간의 관계, 그리고 대학 졸업 후의 계속교육훈련에 관한 내용이 심층적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대학교육의 내용이나 수준과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또 대학교육과 노동시장의 요구간의 괴리를 메우기 위한 계속직업교육훈련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먼저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된 ‘대졸 청년층의 대학교육 만족도와 직업에 관한 조사’에 대해 개략적으로 서술한다. 이 조사는 2001년 2월 4년제 대학 졸업생 명단으로부터 무작위로 추출한 약 2,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장에서는 이 조사가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기본틀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는지, 또 주된 설문 영역과 항목은 무엇인지에 대해 기술할 것이다. 또 주요 변수를 중심으로 조사 자료와 모집단을 비교함으로써, 이 자료의 대표성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언급할 ‘대졸 청년층의 대학교육 만족도와 직업에 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4년제 대학 졸업생의 대학에서의 교육경험과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 대학교육에 대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나아가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처해 있는 현실을 대학교육 만족도 등 몇 가지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국제비교 해 본다. 이러한 비교는 흔히 인용되는 기존 IMD 보고서 상의 비교보다 훨씬 구체화된 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의의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4장에서는 대학교육과 노동시장 이행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대학교육의 특성이나 재학생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 또 대학교육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별개일 수도 있는 대학 졸업생의 취업능력이나 취업을 위한 노력 등이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대학교육의 특성으로는 대학교육에 대한 졸업생의 만족도와 대학교육이 직업능력 형성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졸업생의 응답 등이 고려된다.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성과와 관련해서는 취업여부와 더불어 정규직 취업,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 전공취업 여부 및 임금 수준 등 취업의 질적 측면도 고려될 것이다.

5장에서는 4년제 대졸 청년층의 졸업후 계속교육훈련 참여 실태를 분석한다. 이 장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계속교육훈련이 과연 대학교육과 노동시장

4 대졸 청년층의 대학교육 만족도

요구간의 간격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 취업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대학교육을 충실하게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의 계속교육훈련 참여 여부 및 참여 방식을 비교분석한다.

6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요약·정리하며, 분석 결과로부터 도출되는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 2 장 이용자료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4년제 대졸 청년층의 대학교육 이수 실태 및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실태와 연관지워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대졸 청년층의 대학교육 만족도와 직업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주로 활용하여 분석이 진행되었다.

제1절 조사개요

이 조사의 모집단은 2001년 2월 시점에 4년제 대학을 마친 졸업생들이다.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 확보된 졸업생 명단에서 무작위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졸업생 명단이 전수는 아니며, 명단 제출은 전적으로 학교측의 자의에 맡겨졌다. 194개 대학 중 25개 대학(12.9%)이 명단을 제출하였고, 학생수 기준으로는 21.8%의 명단이 확보되었다. 명단제출의 거절이 무작위로 발생한 것인지가 명단의 대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방 국립대학이 다소 과소하다는 측면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대표성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기업의 대학교육 만족도에 관한 조사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 왔

으나 대개 소규모로 기업의 인사 담당자나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설문내용도 대단히 제한적이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대학을 졸업한 대졸 청년층이 실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체험하면서 반성적(反省的)으로 평가하게 되는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노동시장 이행 실태에 관한 자료는 대졸 청년층의 고용 촉진과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대학교육의 개선을 위해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조사는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 조사는 우리나라 대졸 청년층의 대학교육 만족도와 노동시장 이행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최초의 조사라 할 것이다.¹⁾ 구체적으로 이 조사에서는 대졸 청년층의 교육-직업 이행 경로에 따라 대학 재학 중의 교육, 대학 졸업 전후의 구직활동, 첫 일자리, 현재의 일자리, 대학교육과 직업 간의 관계, 그리고 대학 졸업 후의 계속교육훈련에 관한 내용이 심층적으로 파악되었다.

이 조사를 위해 개발된 설문은 「유럽의 고등교육과 졸업생 취업(Higher Education & Graduate Employment in Europe)」 연구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 연구는 EU-TSER 프로그램 지원으로 유럽 11개국(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노르웨이, 체코)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고등교육 졸업생의 고용과 일에 대해 조사 분석하여 국제적으로 상호 비교하기 위해 수행된 것으로, 이 조사 연구에서는 고등교육 졸업생의 사회적 이력 배경, 교육 경로, 고등교육-고용 이행, 초기 경력, 교육과 고용 연계, 직무 만족, 그리고 졸업 후 현재 시점에서 되돌아보게 되는 고등교육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하여 폭넓게 파악되고 있다. 이 조사는 1994/95학년도에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졸업생(졸업 후 4년)들을 대상으로 1999년 12월 1일부터 2000년 7월 31일까지 약 8개월 동안 수행되었는데, 이들 중에서 약 40,000명에 관한 응답 결과를 면접 조사 방법을 통해 수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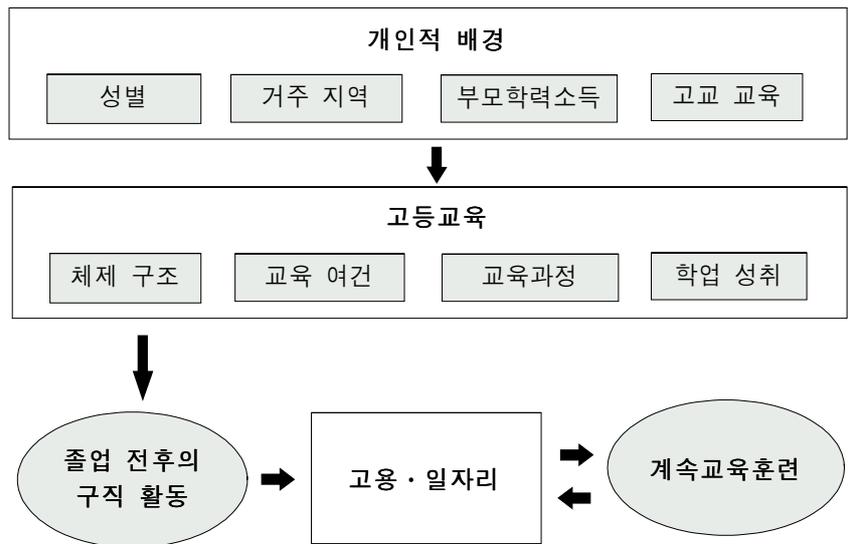
본 연구진은 이 조사가 본 연구의 주제인 ‘대졸 청년층의 대학교육 만족도

1) 당초에는 취업자의 경우 그들의 슈퍼바이저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제약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포기하였다. 이 점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와 직업 실태 조사'와 기본적인 시각과 관심,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 등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많이 있고, 또 국제 비교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하여, 가능한 경우 최대한 이 조사와 내용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대졸 청년층의 대학교육 만족도와 직업에 관한 조사'의 기본틀은 [그림 II-1]과 같다. 이 조사를 통해 성별, 거주 지역, 부모의 학력과 소득, 고교 교육 등 개인적인 배경과 더불어 체제 구조, 교육 여건, 교육과정, 학업성취 등 고등교육 실태가 파악되고, 졸업전후의 구직활동과 고용 실태, 계속교육훈련 실태가 분석될 수 있도록 설문지가 구성되었다.

[그림 II-1] 조사의 기본틀



보다 구체적인 주된 설문 영역과 항목 내용은 <표 II-1>에 제시되어 있다.²⁾

2) 설문 전문은 <부록 2>를 참조.

<표 II-1> 조사 설문지의 주요 영역과 항목

영역	항목	문항수	비고
대학 재학 중의 교육	고등교육 이력에 관한 사항	9~27	공통
	대학 재학 중 여러 활동에 할애한 시간	12	공통
	대학 재학 중 취업 관련 활동에 할애한 기간	5	공통
	계열 또는 학부 입학	1~3	공통
	복수전공 또는 다전공 이수	1~3	공통
	현장실습이나 인턴십 경험	1~3	공통
	자격증 취득 준비	1~6	공통
	외국에서의 교육이나 연수 경험	1~7	공통
	대학교육의 학문기초능력과 직업능력 형성에의 도움 정도	2	공통
	여러 교육활동에 대한 대학의 중시도	12	공통
	대학의 교육활동이나 교육여건에 대한 만족도	18	공통
	대학 졸업 당시 컴퓨터 활용 능력	6	공통
	대학 졸업 당시 외국어 능력 및 공인 시험 성적	4~8	공통
	직업기초능력: 현재 직업에서의 중요도와 대학 졸업 당시의 수준	35	공통
	공학기초능력: 현재 직업에서의 중요도와 대학 졸업 당시의 수준	13	공학계열
동일 전공 및 대학 재선택 여부	2~3	공통	
대학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1	공통	
대학교육이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	1	공통	
대학교육 내용 중에서 향후 강화해야 필요성	10	공통	
졸업전후의 구직활동	대학 졸업 전후에 한 구직활동	1~6	공통
	기업이 채용시 고려한 여러 항목별 중요도	15	취업경험자
첫 일자리	첫 일자리에 관한 사항	3~12	취업경험자
	현재 일자리가 있는지 여부와 갖고 있는 일자리 수, 고용형태	1~3	취업경험자
현재의 일자리	현재 일자리에 관한 사항: 임금근로자용	11	현 임금근로자
	현재 일자리에 관한 사항: 자영업자용	10	현 자영업자
	현재 일자리에 관한 사항: 무급가족종사자용	7	현 무급가족 종사자
	대학교육과 현재 일 간의 관계	5	현 취업자
	미취업자에 관한 사항	4~5	현 미취업자
계속교육 훈련	대학 졸업 후의 계속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19	공통
	향후 계속교육훈련의 필요성	1	공통
	대학 졸업 후 계속교육훈련의 필요성	2	공통
개인 사항	개인사항	9	공통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2005년 7월부터 2달여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전문조사기관 소속의 전문 면접원이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자계식과 타계식을 병행하는 조사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즉, 전문조사기관 소속의 전문 면접원이 조사 대상자에게 전화하여 응답 여부를 확인한 후(조사에 협조하면 사례를 제공할 것을 공지), 조사에 응하기로 하면 이메일로 조사 설문지를 발송하여 1차로 응답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받아 확인한 후, 미흡한 내용은 2차로 전화 면접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조사를 위해 전문조사기관에 대졸 청년층의 출신학교와 학과명, 입학년도, 출생년도, 성별, 이름, 전화번호 등이 제공되었다.

제2절 조사 자료의 분포

모집단과 본 연구에서 활용된 표본의 구성을 비교해보면 <표 II-2>와 같다. 우선 표본에서의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수 및 졸업생수 분포를 모집단의 분포와 비교하면, 수도권 대학 및 수도권 대학의 졸업생이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표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남녀 졸업생의 구성을 보면, 여자 졸업생에 비해 남자 졸업생이 상대적으로 많이 표집되어 있음도 확인된다. 전공 계열별로 보면, 공학계열이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표집되었고, 대신 공학계열을 제외한 여타 계열 졸업생들이 상대적으로 과소하게 표집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조사 자료의 분포 특성은 추후의 분석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문제라 할 것이다. 하나의 예로 수도권 대학이나 남자 졸업생이 과다하게 표집되어 있기 때문에,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성과가 실제보다 더 양호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 노동시장 이행 성과가 양호할수록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변한다면,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실제보다 더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표 II-2> 모집단과 표본 대학 및 졸업생의 분포

(단위: 개교(%))

	학교수		학생수	
	모집단	표본	모집단	표본
수도권대학	71 (36.6)	9 (47.4)	105,412 (39.1)	1,064 (54.5)
지방대학	123 (63.4)	10 (52.6)	163,874 (60.9)	887 (45.5)
남자			148,662 (55.2)	1,325 (67.9)
여자			120,624 (44.8)	626 (32.1)
인문계열			37,750 (14.0)	230 (11.8)
사회계열			66,024 (24.5)	446 (22.9)
교육계열			18,527 (6.9)	112 (5.7)
공학계열			74,259 (27.6)	807 (41.4)
자연계열			39,787 (14.8)	244 (12.5)
의약계열			10,535 (3.9)	43 (2.2)
예체능계열			22,404 (8.3)	69 (3.5)
전체	194 (100.0)	25 (100.0)	269,286 (100.0)	1,951 (10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1). 『교육통계연보』.

한편, 조사된 졸업생의 경제활동상태는 <표 II-3>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경제활동상태의 구분을 2가지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기준 (1)은 미취업자중 지난 1주일간 수입을 목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를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한 것이다. 기준 (2)는 지난 1주일 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직장에 취업할 기회가 생긴다면 바로 취업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 ‘아무 직장이라도 취업할 생각’이라고 응답하거나 ‘현재 나의 상태(학력, 능력 등)와 맞는 직장이라면 취업할 생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실업자로 간주하고 취업할 생각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답한 경우에만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시킨 것이다. 기준 (1)은 공식 통계상에서 실업자를 계산하는 기준이며,³⁾ 기준 (2)의 경우 실망노동자를 실업자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체감하는 경제활동상태에 더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은 주로 기준 (2)를 적용해서 진행되었다. 기준 (1)에 의할 경우 남자 졸업생의 실업률은 2.6%, 여자 졸업생은 4.5%로 나타나며, 기준 (2)에 따를 경우 남자는 9.2%, 여자는 16.0%로 실업률 수치가 크게 높아지게 된다.

<표 II-3> 조사 졸업생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

	기준(1)			기준(2)		
	취업률	실업률	조사 졸업생 대비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	취업률	실업률	조사 졸업생 대비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
남자	97.4	2.6	9.9	91.8	9.2	3.4
여자	95.5	4.5	18.6	84.0	16.0	7.4
전체	96.9	3.1	12.8	88.7	11.3	4.7

3) 이 기준은 2005년 6월부터 구직기간이 1주에서 4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기준이 되어 버렸다.

제 3 장

대졸 청년층의 대학 재학 중 교육 경험과 대학교육 평가

대학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얼마나 질 높은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금까지 기업의 대학교육 만족도에 관한 조사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주로 대학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나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대부분이 소규모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내용만을 조사한 것이어서 제한점이 많았다. 물론 이러한 조사 결과들이 기업에서 대학교육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줌으로써 대학교육 개선의 필요성이나 방향성을 시사해 주었음은 모르지만 향후 대학교육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보다 차별성 있는 조사를 위해 대학교육의 1차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대졸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를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대학을 졸업한 대졸 청년층이 실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반성적(反省的)으로 되돌아보게 되는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에 관한 자료는 향후 대학 졸업생들의 고용 촉진과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대학교육의 개선을 위해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 이 장에서는 대졸 청년층이 대학 재학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 경험을 하였고, 대학교육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

지, 그리고 향후 대학교육에 대한 요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절에서는 대학 재학 중의 교육 경험으로 대학 재학 중 여러 활동에 할애한 시간, 계열 또는 학부 입학, 복수전공 또는 다전공 이수, 현장실습 또는 인턴십 경험, 자격증 취득, 해외 교육연수 경험, 그리고 아르바이트 등의 취업 경험에 대하여 살펴본다. 2절에서는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것으로 대학의 교육 충실도와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여 대학 졸업 당시 자신의 능력 수준에 대한 평가 등을 분석한다. 3절에서는 대학교육에 대한 요구와 관련한 것으로 향후 대학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대학교육 중 강화해야 할 내용, 직업기초능력의 직업에서의 중요도와 괴리 정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마지막 4절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들을 요약, 정리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모색해 볼 것이다.

제1절 대학 재학 중 교육 경험

1. 대학 재학 중 활동

대학 재학 중의 교육 경험과 관련하여 우선 대학 재학 중에 전체적으로 어떤 활동에 시간을 보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기 중에는 대학 교과 수업 출석에 주당 평균 22.0시간, 수업 준비·과제물 작성·시험 준비 등의 교과 수업관련 학습 활동에 13.7시간, 외국어·컴퓨터 등의 교과 수업이외의 학습 활동에 8.1시간, 동아리·스포츠·학생회 등의 교과 수업이외의 활동에 8.0시간,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위해 4.9시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 졸업생들은 대학 교과 수업 출석에 22.4시간, 교과 수업 관련 학습 활동에 14.4시간, 교과 수업이외의 학습 활동에 9.1시간, 교과 수업이외의 활동에 8.5시간, 아르바이트에 4.4시간을 보냈고, 여자 졸업생들은 대

학 교과 수업 출석에 21.0시간, 교과 수업관련 학습 활동에 12.1시간, 교과 수업이외의 학습 활동에 6.2시간, 교과 수업이외의 활동에 6.8시간, 아르바이트에 6.1시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나 학기 중 활동에 따라 할애한 시간이 약간씩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전공 계열별로도 약간씩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 학기 중 활동(주당 평균 시간)

(단위: 시간)

구 분	교과 수업 출석	교과 수업관련 학습 활동	교과 수업이외 학습 활동	교과 수업이외 활동	아르바이트	기타
전 체	22.0 (7.43)	13.7 (10.79)	8.1 (7.58)	8.0 (8.83)	4.9 (8.63)	4.4 (9.10)
성 별						
남 자	22.4** (7.60)	14.4** (11.58)	9.1** (8.29)	8.5** (9.39)	4.4 (8.40)	4.6 (9.61)
여 자	21.1** (6.99)	12.1** (8.68)	6.2** (5.30)	6.8** (7.36)	6.1 (9.01)	4.0 (7.88)
대학 지역별						
수도권	22.2 (7.45)	14.2 (10.81)	7.3** (6.49)	7.5 (7.76)	5.7** (8.11)	4.6 (8.91)
지 방	21.8 (7.41)	13.3 (10.77)	8.7** (8.13)	8.2 (9.41)	4.4** (8.91)	4.3 (9.21)
전공 계열별						
인문계열	21.1** (6.38)	12.1** (9.15)	7.8** (6.35)	8.6 (9.41)	6.6** (9.83)	4.9 (10.09)
사회계열	20.9** (6.62)	11.6** (9.29)	9.4** (9.05)	8.7 (10.34)	5.6** (9.85)	5.0 (10.36)
자연계열	20.1** (5.61)	13.0** (8.51)	6.4** (5.05)	7.9 (7.27)	4.8** (6.56)	3.2 (4.98)
공학계열	22.6** (7.53)	15.5** (11.93)	8.7** (7.73)	7.9 (8.02)	3.8** (7.22)	4.2 (8.55)
의약계열	21.8** (8.22)	12.2** (9.79)	6.4** (6.36)	7.1 (7.92)	5.8** (9.65)	4.7 (9.99)
사범계열	29.9** (9.53)	14.9** (9.72)	4.9** (4.77)	7.8 (9.98)	2.4** (3.53)	3.7 (6.21)
예체능계열	22.6** (8.94)	15.7** (4.03)	5.5** (4.23)	5.8 (9.32)	6.2** (10.57)	2.8 (5.32)

주: * p<0.05, ** p<0.01

한편, 방학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위해 주당 평균 14.2시간, 외국어·컴퓨터 등 대학 교과 수업이외의 활동에 13.5시간, 동아리·스포츠·학생회 등 교과 수업이외의 활동에 8.5시간을 보낸 반면에, 계절 학기의 대학 교과 수업 출석에는 1.8시간, 계절 학기의 교과 수업관련 학습 활동에는 5.9시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나 방학 중에는 대학 교과 수업이외의 각종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 방학 중 활동(주당 평균 시간)

(단위: 시간)

구 분	교과 수업 출석	교과 수업관련 학습 활동	교과 수업이외 학습 활동	교과 수업이외 활동	아르바이트	기타
전 체	1.8 (4.85)	5.9 (10.57)	13.5 (12.98)	8.5 (10.96)	14.2 (17.18)	4.9 (10.19)
성 별						
남 자	2.0** (5.22)	6.4** (11.59)	14.8** (13.89)	9.2** (11.44)	14.6 (17.73)	5.1 (10.32)
여 자	1.3** (3.85)	4.8** (7.88)	10.9** (10.30)	7.0** (9.73)	13.2 (15.95)	4.6 (9.91)
대학교제지별						
수도권	2.3** (5.46)	6.1 (10.79)	12.5** (11.30)	8.1 (9.75)	12.9* (15.12)	5.5 (10.48)
지 방	1.4** (4.41)	5.8 (10.44)	14.2** (13.86)	8.8 (11.64)	14.9* (18.29)	4.6 (1.00)
전공계열별						
인문계열	1.4** (3.72)	4.8* (8.56)	12.4** (11.54)	8.6 (11.40)	14.1 (16.56)	5.2 (11.58)
사회계열	1.4** (3.70)	6.2* (12.15)	14.8** (13.61)	8.6 (11.06)	13.2 (16.36)	5.3 (11.09)
자연계열	0.9** (2.43)	6.0* (19.51)	12.1** (13.60)	9.00 (12.20)	15.0 (17.65)	4.0 (6.89)
공학계열	2.3** (5.92)	6.0* (10.13)	14.5** (13.43)	8.5 (10.45)	14.2 (17.21)	4.8 (9.72)
의약계열	1.8** (5.21)	5.4* (10.02)	11.5** (11.81)	8.1 (10.63)	15.3 (18.09)	5.3 (10.87)
사범계열	1.5** (3.18)	3.5* 5(5.01)	10.1** (11.27)	11.1 (13.24)	11.5 (16.45)	5.4 (10.16)
예체능계열	0.8** (2.11)	10.37* (14.95)	8.1** (7.91)	7.4 (12.36)	15.7 (20.59)	3.0 (5.35)

주: * p<0.05, ** p<0.01

2. 계열(또는 학부) 입학

대학들은 학생들의 진로에 있어서 유연한 선택을 보장하고 폭 넓게 전공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열별로 신입생을 선발하거나 학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계열(또는 학부) 입학 여부와 계열로 입학하여 대학과정을 이수한 것이 취업과 직업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III-3>은 계열(또는 학부) 입학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 보는 바와 같이 계열 입학이 33.9%인 반면에 학과 입학은 66.1%로 나타나 계열 입학보다는 종전과 같은 학과 입학이 많았다. 계열 입학 여부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전공계열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범계열과 예체능계열, 사회계열 등의 계열별 입학이 다른 전공계열들보다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 계열(또는 학부) 입학 여부

(단위: 명(%))

구 분	계열 입학	학과 입학	전 체	비 고
전 체	643 (33.9)	1256 (66.1)	1889 (100)	
대학소재지별				$\chi^2=0.555$, df=1, p=0.484
수도권	236 (32.8)	486 (67.2)	719 (100)	
지 방	407 (34.5)	773 (65.5)	1180 (100)	
전공계열별				$\chi^2=30.403$, df=6, p=0.000
인문계열	62 (27.9)	160 (72.1)	222 (100)	
사회계열	158 (35.8)	283 (64.2)	441 (100)	
자연계열	19 (17.4)	90 (82.6)	109 (100)	
공학계열	267 (34.0)	518 (66.0)	785 (100)	
의약계열	83 (35.0)	151 (64.5)	234 (100)	
사범계열	22 (52.4)	20 (47.6)	42 (100)	
예체능계열	32 (48.5)	34 (51.5)	66 (100)	

한편, 취업과 직업생활에의 도움도에 있어서는 취업에 도움된 정도가 5점 만점 중에 평균 3.0점, 직업생활에 도움된 정도는 평균 2.9점으로 나타나 계열(또는 학부)로 입학하여 대학과정을 이수한 것이 취업과 직업생활 모두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간에 취업과 직업생활에의 도움도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전공계열별로는 직업생활에의 도움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사범계열, 사회계열 졸업생들의 경우에는 계열(또는 학부)로 입학하여 대학과정을 이수한 것이 직업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표 III-4> 계열(또는 학부)로 입학하여 대학과정을 이수한 것의 취업과 직업생활에의 도움도

구 분	취업에의 도움도			직업생활에의 도움도		
	평균	표준편차	비고	평균	표준편차	비고
전 체	3.0	1.21		2.9	1.19	
대학소재지별						
수도권	2.9	1.21	t=0.776, df=1,	2.9	1.14	t=1.699, df=1,
지방	3.0	1.22	p=0.379	3.0	1.22	p=0.193
전공계열별						
인문계열	2.7	1.21		2.6	1.24	
사회계열	3.1	1.06		3.0	1.06	
자연계열	3.6	1.17	F=2.979, df=6,	3.6	1.12	F=3.659, df=6,
공학계열	3.0	1.20	p=0.07	2.9	1.15	p=0.01
의약계열	2.7	1.28		2.6	1.29	
사범계열	3.2	1.29		3.1	1.50	
예체능계열	3.4	1.21		3.4	1.26	

주: 도움도 5=매우 도움, 4=도움, 3=보통, 2=도움 안됨, 1=전혀 도움 안됨

3. 복수전공(또는 다전공) 이수

또한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대학 재학 중 여러 전공 이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해 복수전공(또는 다전공) 이수제를 시

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 재학 중 복수전공(또는 다전공) 이수 여부와 복수전공(또는 다전공)을 이수한 것이 취업과 직업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III-5>는 복수전공(또는 다전공) 이수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복수전공(또는 다전공)을 이수한 졸업생들은 14.4%에 불과한 반면에 이수하지 않은 졸업생은 85.6%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 졸업생들이 남자 졸업생들보다 복수전공을 많이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소재지별로 보면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이 지방 대학 졸업생들보다 복수전공을 많이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 자연계열과 인문계열, 의약계열, 사회계열 졸업생들이 복수전공을 비교적 많이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 복수전공(또는 다전공) 이수 여부

(단위: 명(%))

구 분	복수전공 이수	복수전공 비이수	전 체	비 고
전 체	274 (14.4)	1625 (85.6)	1889 (100)	
성 별				$\chi^2=94.033$, df=1, p=0.000
남 자	117 (9.1)	1174 (90.9)	1291 (100)	
여 자	157 (25.8)	451 (74.2)	608 (100)	
대학소재지별				$\chi^2=4.792$, df=1, p=0.031
수도권	120 (16.7)	599 (83.3)	719 (100)	
지 방	154 (13.1)	1026 (86.9)	1180 (100)	
전공계열별				$\chi^2=138.567$, df=6, p=0.000
인문계열	64 (28.8)	158 (71.2)	222 (100)	
사회계열	72 (16.3)	369 (83.7)	441 (100)	
자연계열	42 (38.5)	67 (61.5)	109 (100)	
공학계열	50 (6.4)	735 (93.6)	785 (100)	
의약계열	39 (16.7)	195 (83.3)	234 (100)	
사범계열	1 (2.4)	41 (97.6)	42 (100)	
예체능계열	6 (9.1)	66 (90.9)	66 (100)	

한편, 복수전공을 이수한 것의 취업과 직업생활에의 도움도에서는 취업에 도움된 정도가 5점 만점 중에 평균 3.3점, 직업생활에 도움된 정도는 평균

3.4점으로 나타나 복수전공을 이수한 것이 취업과 직업생활 모두에서 약간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성별로는 여자 졸업생들이 남자 졸업생들보다 복수전공을 이수한 것이 취업과 직업생활 모두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 더 많았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전공계열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III-6> 복수전공(또는 다전공)을 이수한 것의 취업과 직업생활에의 도움도

구 분	취업에의 도움도			직업생활에의 도움도		
	평균	표준편차	비고	평균	표준편차	비고
전 체	3.3	1.12		3.4	1.03	
성 별						
남 자	3.2	1.32	t=8.394, df=1, p=0.04	3.3	1.26	t=10.995, df=1, p=0.01
여 자	3.4	1.16		3.4	1.17	
대학소재지별						
수도권	3.4	1.29	t=0.776, df=1, p=0.379	3.4	1.31	t=1.699, df=1, p=0.193
지 방	3.3	1.19		3.4	1.13	
전공계열별						
인문계열	3.3	1.20	F=0.727, df=6, p=0.628	3.4	1.19	F=0.949, df=6, p=0.460
사회계열	3.4	1.21		3.5	1.15	
자연계열	3.6	1.31		3.6	1.25	
공학계열	3.0	1.28		3.1	1.22	
의약계열	3.3	1.26		3.3	1.32	
사범계열	3.0	.		2.0	.	
예체능계열	3.3	0.82	3.7	0.82		

주: 도움도 5=매우 도움, 4=도움, 3=보통, 2=도움 안됨, 1=전혀 도움 안됨

4. 현장실습(또는 인턴십) 경험

현장실습이나 인턴십은 학생들이 대학 재학 중에 미리 관련 직업세계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능력 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향후 직업에서의 적응 능력을 제고하도록 하

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실습의 경험 유무, 현장실습을 위해 보낸 기간, 대학 전공과의 관련성, 그리고 취업과 직업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현장실습(또는 인턴십) 경험 유무를 보면 대학 재학 중 현장실습을 경험한 대학 졸업생들이 31.6%인 반면에, 전혀 경험하지 않은 졸업생들은 68.4%였다. 성별로 보면 여자 졸업생들이 남자 졸업생들보다 현장실습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소재지별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 지방 대학 졸업생들이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보다 현장실습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계열별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사범계열과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의약계열 졸업생들이 비교적 현장실습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 현장실습(또는 인턴십) 경험 유무

(단위: 명(%))

구 분	현장실습 경험	현장실습 무경험	전 체	비 고
전 체	600 (31.6)	1299 (68.4)	1899 (100.0)	
성 별				$\chi^2=23.582$, df=1, p=0.000
남 자	362 (28.0)	929 (72.0)	1291 (100.0)	
여 자	238 (39.1)	370 (60.9)	608 (100.0)	
대학소재지별				$\chi^2=6.051$, df=1, p=0.015
수도권	203 (28.2)	516 (71.8)	719 (100.0)	
지 방	397 (33.6)	783 (66.4)	1180 (100.0)	
전공계열별				$\chi^2=173.976$, df=6, p=0.000
인문계열	59 (25.2)	166 (74.8)	222 (100.0)	
사회계열	99 (22.4)	342 (77.6)	441 (100.0)	
자연계열	78 (71.6)	31 (28.4)	109 (100.0)	
공학계열	215 (27.4)	570 (72.6)	785 (100.0)	
의약계열	83 (35.5)	151 (64.5)	234 (100.0)	
사범계열	35 (83.3)	7 (16.7)	42 (100.0)	
예체능계열	34 (51.5)	32 (48.5)	66 (100.0)	

다음으로 대학 재학 중 현장실습을 위해 보낸 기간은 평균 4.1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성별과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간에는 현장실습을 위해 보낸 기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전공계열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문계열과 사범계열, 예체능계열 졸업생들이 비교적 현장실습을 위해 보낸 기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 현장실습(또는 인턴십)을 위해 보낸 기간

(단위: 개월)

구 분	평균	표준편차	비고
전 체	4.1	6.30	
성 별			
남 자	4.1	6.40	t=0.048, df=1, p=0.827
여 자	4.2	6.16	
대학소재지별			
수도권	4.5	6.97	t=0.852, df=1, p=0.356
지 방	4.0	5.89	
전공계열별			
인문계열	6.9	10.38	F=43.877 df=6 p=0.000
사회계열	4.1	6.10	
자연계열	1.9	1.85	
공학계열	3.6	5.48	
의약계열	3.8	5.64	
사범계열	6.7	6.44	
예체능계열	6.2	8.14	

대학 전공과의 관련성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 4.0점으로 나타나 현장실습(또는 인턴십)이 대체로 대학 전공과 관련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대학 전공과의 관련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자 졸업생들이 남자 졸업생들보다 현장실습이 대학 전공과 보다 관련성이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학소재지별로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졸업생들

간에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전공계열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특히 사범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의약계열 졸업생들이 현장실습의 대학 전공 관련성에서 비교적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표 III-9> 현장실습(또는 인턴십)의 대학 전공과의 관련성

구 분	평균	표준편차	비고
전 체	4.0	0.98	
성 별			
남 자	3.9	0.98	t=7.068, df=1, p=0.008
여 자	4.1	0.98	
대학소재지별			
수도권	4.0	1.02	t=0.315, df=1, p=0.575
지 방	4.0	0.97	
전공계열별			
인문계열	3.8	1.15	F=10.428 df=6 p=0.000
사회계열	3.9	0.95	
자연계열	4.5	0.62	
공학계열	3.7	1.01	
의약계열	4.1	0.95	
사범계열	4.7	0.64	
예체능계열	4.2	0.89	

주: 관련성 5=매우 관련, 4=대체로 관련, 3=보통, 2=대체로 무관, 1=전혀 무관

한편, 현장실습(또는 인턴십)을 경험한 것이 취업과 직업생활에 도움된 정도에서는 취업에 도움된 정도가 5점 만점에 평균 3.4점, 직업생활에 도움된 정도는 평균 3.5점인 것으로 나타나 현장실습을 경험한 것이 대체로 취업과 직업생활 모두에서 약간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성별과 수도권·지방 대학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전공계열별로는 차이를 보여 특히 사범계열과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인문계열 졸업생들이 취업과 직업생활 모두에서 비교적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 현장실습(또는 인턴십)의 취업과 직업생활에의 도움도

구 분	취업에의 도움도			직업생활에의 도움도		
	평균	표준편차	비고	평균	표준편차	비고
전 체	3.4	1.17		3.5	1.16	
성 별						
남 자	3.4	1.13	t=0.384, df=1,	3.5	1.10	t=0.026, df=1,
여 자	3.5	1.23	p=0.536	3.5	1.24	p=0.872
대 학 소 재 지 별						
수 도 권	3.5	1.19	t=0.197, df=1,	3.6	1.17	t=1.721, df=1,
지 방	3.4	1.16	p=0.657	3.4	1.15	p=0.190
전 공 계 열 별						
인 문 계 열	3.6	1.27	F=3.798, df=6, p=0.01	3.7	1.25	F=5.408 df=6, p=0.000
사 회 계 열	3.2	1.24		3.3	1.23	
자 연 계 열	3.7	1.10		3.9	0.91	
공 학 계 열	3.3	1.13		3.3	1.12	
의 약 계 열	3.4	1.14		3.3	1.23	
사 범 계 열	4.0	1.04		4.1	0.92	
예 체 능 계 열	3.7	1.03		3.7	1.11	

주: 도움도 5=매우 도움, 4=도움, 3=보통, 2=도움 안됨, 1=전혀 도움 안됨

5. 자격증 취득

자격증을 취득하는 목적은 주로 자신이 갖추고 있는 능력을 공신력있는 기관의 인증서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 재학 중 자격증 취득 준비 여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 방법, 자격증 취득을 위해 보낸 기간, 자격증 취득 여부, 취득 자격증 수, 그리고 취업과 직업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 여부를 보면, 대학 재학 중 자격증 취득 준비를 한 졸업생들이 70.6%인 반면에, 전혀 취득 준비를 하지 않은 졸업생들은 29.4%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대학 졸업생들이 졸업 후의 수월한 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 준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데 있어 성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대학

소재지와 전공계열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대학소재지별로는 지방 대학 졸업생들이 수도권 대학 졸업들보다 자격증 취득 준비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 대학 졸업생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또한 전공계열별로는 자연계열과 공학계열, 사회계열 졸업생들이 비교적 자격증 취득 준비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 여부

(단위: 명(%))

구 분	자격증 취득 준비	자격증 취득 미준비	전 체	비 고
전 체	1340 (70.6)	559 (29.4)	1899 (100)	
성 별				$\chi^2=0.575$, df=1, p=0.450
남 자	918 (71.1)	373 (28.9)	1290 (100)	
여 자	422 (69.4)	186 (30.6)	608 (100)	
대학소재지별				$\chi^2=27.319$, df=1, p=0.000
수도권	457 (63.6)	262 (36.4)	719 (100)	
지 방	883 (74.8)	297 (25.2)	1180 (100)	
전공계열별				$\chi^2=41.627$, df=6, p=0.000
인문계열	142 (64.0)	80 (36.0)	222 (100)	
사회계열	326 (73.9)	115 (26.1)	441 (100)	
자연계열	82 (75.2)	27 (24.8)	109 (100)	
공학계열	587 (74.8)	198 (25.2)	785 (100)	
의약계열	146 (62.4)	88 (37.6)	234 (100)	
사범계열	26 (61.9)	16 (38.1)	42 (100)	
예체능계열	31 (47.0)	35 (53.0)	66 (100)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 방법으로는 독학이 4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원 수강이 39.7%, 대학 정규 교육을 통해서가 11.4%로 나타나 자격증 취득을 위해 주로 독학이나 학원 수강을 통해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 졸업생들은 주로 독학을 통해 자격증 취득 준비를 가장

많이 한 반면에 여자 졸업생들은 독학보다는 학원 수강을 통해 자격증 취득 준비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소재지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의 경우 학원 수강을 통해서가 가장 많았으나 지방 대학 졸업생들의 경우에는 독학을 통해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졸업생들은 학원 수강을 통해서 자격증 취득 준비를 가장 많이 한 반면에, 자연계열과 공학계열, 의약계열 졸업생들은 독학으로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범계열 졸업생들은 대학 정규 교육을 통해서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독학, 학원 수강 순이었다.

<표 III-12> 자격증 취득 준비 방법

(단위: 명(%))

구 분	대학 정규 교육	학원 수강	독학	기타	전체	비고
전 체	153 (11.4)	533 (39.7)	637 (47.4)	20 (1.5)	1343 (100)	
성 별						$\chi^2=11.254$, df=1, p=0.010
남 자	94 (10.2)	348 (37.9)	463 (50.4)	14 (1.5)	919 (100)	
여 자	59 (13.9)	185 (43.6)	174 (41.0)	6 (1.4)	424 (100)	
대학소재지별						$\chi^2=12.816$, df=1, p=0.005
수도권	55 (12.0)	209 (45.6)	187 (40.8)	7 (1.5)	458 (100)	
지 방	98 (11.1)	324 (36.6)	450 (50.8)	13 (1.5)	885 (100)	
전공계열별						$\chi^2=151.565$, df=6, p=0.000
인문계열	13 (9.1)	81 (56.6)	41 (28.7)	8 (5.6)	143 (100)	
사회계열	24 (7.4)	153 (46.9)	143 (43.9)	6 (1.8)	326 (100)	
자연계열	12 (14.6)	24 (29.3)	43 (56.1)	0 (0)	82 (100)	
공학계열	58 (9.9)	208 (35.4)	319 (54.3)	3 (0.5)	588 (100)	
의약계열	22 (15.1)	51 (34.9)	72 (49.3)	1 (0.7)	146 (100)	
사범계열	17 (63.0)	4 (14.8)	6 (22.2)	0 (0)	27 (100)	
예체능계열	7 (22.6)	12 (38.7)	10 (32.3)	2 (6.5)	31 (100)	

다음으로 대학 재학 중 자격증 취득 준비를 위해 보낸 기간은 평균 13.6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 준비를 위해 보낸 기간이 평균 9.2개월, 전공과 무관한 자격증의 경우에는 평균 4.3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대학소재지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전공계열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표 III-13> 자격증 취득 준비를 위해 보낸 기간

(단위: 개월)

구 분	전공관련 자격증	전공무관 자격증	전체	비고
전 체	9.2 (10.07)	4.3 (4.80)	13.6 (11.73)	
성 별				
남 자	9.0 (9.38)	4.3 (4.35)	13.4 (10.78)	t=0.297, df=1, p=0.586
여 자	9.8 (11.35)	4.1 (5.54)	14.0 (13.29)	
대학소재지별				
수도권	9.6 (11.21)	4.3 (5.20)	14.4 (14.48)	t=0.993, df=1, p=0.320
지 방	8.9 (9.36)	4.2 (4.61)	13.2 (10.11)	
전공계열별				
인문계열	11.8 (10.29)	5.0 (4.74)	17.8 (12.10)	F=4.451, df=6, p=0.000
사회계열	11.4 (11.61)	4.5 (5.21)	14.7 (13.96)	
자연계열	10.8 (10.66)	3.0 (2.44)	14.9 (12.78)	
공학계열	6.2 (5.49)	3.8 (4.20)	10.3 (6.86)	
의약계열	8.3 (8.26)	5.0 (6.34)	14.6 (11.60)	
사범계열	17.8 (19.20)	4.0 (3.30)	20.8 (19.50)	
예체능계열	15.0 (19.73)	2.9 (2.16)	11.8 (12.71)	

이 같은 자격증 취득 준비를 통해 65.0%의 졸업생들이 대학 재학 중에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 졸업생들이 남자 졸업생들보다 자격증을 더 많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 특히 자연계열과 인문계열, 사범계열 졸업생들이 자격증 취득을 비교적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학생들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III-14> 자격증 취득 여부

(단위: 명(%))

구 분	자격증 취득	자격증 미취득	전 체	비 고
전 체	873 (65.0)	470 (35.0)	1343 (100)	
성 별				$\chi^2=12.206$, df=1, p=0.000
남 자	569 (61.9)	350 (38.1)	919 (100)	
여 자	304 (71.7)	120 (28.3)	424 (100)	
대학소재지별				$\chi^2=1.673$, df=1, p=0.205
수도권	287 (62.7)	171 (37.3)	458 (100)	
지 방	586 (66.2)	299 (33.8)	885 (100)	
전공계열별				$\chi^2=25.828$, df=6, p=0.000
인문계열	105 (73.4)	38 (26.6)	143 (100)	
사회계열	211 (64.7)	155 (35.3)	326 (100)	
자연계열	69 (84.1)	13 (15.9)	82 (100)	
공학계열	353 (60.0)	235 (40.0)	588 (100)	
의약계열	97 (66.4)	49 (33.6)	146 (100)	
사범계열	20 (74.1)	7 (25.9)	27 (100)	
예체능계열	18 (58.1)	13 (41.9)	31 (100)	

대학 재학 중 취득한 자격증 수는 평균 2.5개로 이 중 전공관련 자격증과 전공과 무관한 자격증이 각각 1.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대학소재지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전공계열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예체능계열과 사회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졸업생들이 취득한 자격증 수가 비교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5> 취득 자격증 수

(단위: 개)

구 분	전공관련 자격증	전공무관 자격증	전 체	비 고
전 체	1.3 (1.07)	1.3 (1.10)	2.5 (1.50)	
성 별				
남 자	1.4 (1.11)	1.2 (1.12)	2.5 (1.57)	t=0.619, df=1, p=0.432
여 자	1.2 (0.98)	1.32 (1.05)	2.4 (1.37)	
대학소재지별				
수도권	1.3 (1.00)	1.2 (1.06)	2.4 (1.35)	t=2.153, df=1, p=0.143
지 방	1.4 (1.11)	1.3 (1.12)	2.6 (1.56)	
전공계열별				
인문계열	1.0 (0.80)	1.3 (1.16)	2.2 (1.42)	F=5.251, df=6,p=0.000
사회계열	1.3 (1.17)	1.6 (1.14)	2.8 (1.54)	
자연계열	1.5 (1.36)	1.3 (0.94)	2.8 (1.84)	
공학계열	1.4 (0.91)	0.9 (1.00)	2.2 (1.31)	
의약계열	1.2 (1.03)	1.5 (1.09)	2.7 (1.52)	
사범계열	1.1 (0.33)	0.9 (0.90)	1.8 (0.87)	
예체능계열	2.72 (1.934)	1.2 (1.32)	4.0 (1.89)	

한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자격증이 취업과 직업생활에 도움된 정도에서 취업에 도움된 정도가 5점 만점 중에 평균 3.3점, 직업생활에 도움된 정도는 평균 3.2점인 것으로 나타나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대체로 취업과 직업생활 모두에서 약간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성별과 수도권·지방 대학 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전공계열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사범계열과 예체능계열, 자연계열 졸업생들이 취업과 직업생활 모두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비교적 더 많이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6> 취득 자격증의 취업과 직업생활에의 도움도

구 분	취업에의 도움도			직업생활에의 도움도		
	평균	표준편차	비고	평균	표준편차	비고
전 체	3.3	1.19		3.2	1.14	
성 별			t=0.222, df=1, p=0.638			t=0.001, df=1, p=0.976
남 자	3.3	1.78		3.2	1.12	
여 자	3.3	1.22		3.2	1.18	
대학소재지별			t=0.145, df=1, p=0.703			t=0.004, df=1, p=0.952
수도권	3.4	1.29		3.2	1.21	
지 방	3.3	1.14		3.2	1.10	
전공계열별			F=5.518, df=6, p=0.000			F=7.348, df=6, p=0.000
인문계열	3.3	1.17		3.2	1.12	
사회계열	3.2	1.16		3.2	1.11	
자연계열	3.6	1.23		3.3	1.07	
공학계열	3.3	1.18		3.0	1.09	
의약계열	3.3	1.19		3.1	1.26	
사범계열	4.7	0.58		4.6	0.60	
예체능계열	3.7	1.28		3.6	1.42	

주: 도움도 5=매우 도움, 4=도움, 3=보통, 2=도움 안됨, 1=전혀 도움 안됨

6. 해외 교육연수 경험

대학 재학 중 해외 교육연수는 1988년 외국 여행 자율화 조치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이는 대학 재학 중 해외 교육연수를 통해 외국어 회화능력을 배양하고 보다 폭넓은 국제 경험을 하여 졸업 후 취업과 직업생활에 있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대학 재학 중 해외 교육연수 경험 유무, 주요 해외 교육연수 국가, 해외 교육연수를 위해 보낸 기간, 해외 교육연수의 목적, 대학 전공 관련성, 그리고 취업과 직업생활에 도움된 정도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대학 재학 중 해외 교육연수 경험 유무를 보면 <표 III-17>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대학 졸업생들 중에서 13.3%가 대학 재학 중 해외 교육연수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대학소재지에 따라 해외

교육연수 경험 유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전공계열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졸업생들이 비교적 해외 교육연수 경험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7> 해외 교육연수 경험 유무

(단위: 명(%))

구 분	해외 교육 연수 경험	해외 교육 연수 무경험	전 체	비 고
전 체	252 (13.3)	1647 (86.7)	1899 (100)	
성 별				
남 자	169 (13.1)	1122 (86.9)	1291 (100)	$\chi^2=0.113,$ $df=1, p=0.772$
여 자	83 (13.7)	525 (86.3)	608 (100)	
대학소재지별				
수도권	103 (14.3)	616 (85.7)	719 (100)	$\chi^2=1.120,$ $df=1, p=0.296$
지 방	149 (12.6)	1031 (87.4)	1180 (100)	
전공계열별				
인문계열	64 (28.8)	158 (71.2)	222 (100)	$\chi^2=63.543,$ $df=6, p=0.000$
사회계열	64 (14.5)	377 (85.5)	441 (100)	
자연계열	7 (6.4)	102 (93.6)	109 (100)	
공학계열	89 (11.3)	696 (88.7)	785 (100)	
의약계열	20 (8.5)	214 (91.5)	234 (100)	
사범계열	1 (2.4)	41 (97.6)	42 (100)	
예체능계열	7 (10.6)	59 (89.4)	66 (100)	

다음으로 대학 재학 중에 해외 교육연수를 다녀 온 주요 국가들로는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주 지역이 전체의 4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15.1%, 중국 9.1%, 유럽 지역 8.7%, 일본 8.7%, 동남아 지역 6.3% 순이었다. 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자 졸업생들의 경우에는 북미주,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 동남아, 중국, 유럽 순으로 많이 다녀 온 반면에, 여자 졸업생들은 북미주, 중국, 호주와 뉴질랜드, 유럽, 일본, 동남아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도 해외 교육연수 국가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III-18> 주요 해외 교육연수 국가

구 분	북미주	유럽	일본	중국	동남아	호주, 뉴질랜드	기타	전체	비고
전 체	124 (49.2)	22 (8.7)	22 (8.7)	23 (9.1)	16 (6.3)	38 (15.1)	7 (0.4)	252 (100)	
성 별									$\chi^2=24.547$, df=6, p=0.000
남 자	93 (55.5)	11 (6.5)	16 (9.5)	7 (4.1)	14 (8.3)	2 3(13.6)	5 (3.0)	169 (100)	
여 자	31 (37.3)	11 (13.3)	6 (7.2)	16 (19.3)	2 (2.4)	15 (18.1)	2 (2.4)	83 (100)	
대학소재지별									$\chi^2=12.484$, df=6, p=0.052
수도권	58 (56.3)	9 (8.7)	3 (2.9)	9 (8.7)	3 (2.9)	18 (17.5)	3 (2.9)	103 (100)	
지 방	66 (44.3)	13 (8.7)	19 (12.8)	14 (9.4)	13 (8.7)	20 (13.4)	4 (2.7)	149 (100)	
전공계열별									$\chi^2=70.777$, df=36, p=0.01
인문계열	24 (37.5)	7 (10.9)	8 (12.5)	17 (26.6)	2 (3.1)	5 (7.8)	1 (1.6)	64 (100)	
사회계열	32 (50.0)	7 (10.9)	4 (6.3)	3 (4.7)	5 (7.8)	11 (17.2)	2 (3.1)	64 (100)	
자연계열	4 (57.1)	0 (0)	0 (0)	0 (0)	0 (0)	3 (42.9)	0 (0)	7 (100)	
공학계열	48 (53.9)	5 (5.6)	6 (6.7)	3 (3.4)	9 (10.1)	16 (18.0)	2 (2.2)	89 (100)	
의약계열	12 (60.0)	2 (10.0)	3 (15.0)	0 (0)	0 (0)	3 (15.0)	0 (0)	20 (100)	
사범계열	1 (100)	0 (0)	0 (0)	0 (0)	0 (0)	0 (0)	0 (0)	1 (100)	
예체능계열	3 (42.9)	1 (14.3)	1 (14.3)	0 (0)	0 (0)	0 (0)	2 (28.6)	7 (100)	

한편, 대학 재학 중에 해외 교육연수를 위해 보낸 기간은 평균 7.6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대학소재지별, 전공계열별로 해외 교육연수를 위해 보낸 기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III-19> 해외 교육연수를 위해 보낸 기간

(단위: 개월)

구 분	평균	표준편차	비고
전 체	7.6	5.0	
성 별			
남 자	8.0	5.11	t=2.355, df=1, p=0.126
여 자	6.9	4.65	
대학소재지별			
수도권	7.6	5.64	t=0.063, df=1. p=0.803
지 방	7.5	4.52	
전공계열별			
인문계열	8.7	5.10	F=1.952 df=6, p=0.073
사회계열	7.8	5.72	
자연계열	7.4	4.83	
공학계열	7.4	4.83	
의약계열	5.9	3.37	
사범계열	1.0	0	
예체능계열	3.7	5.91	

<표 III-20>은 대학 재학 중 해외 교육연수를 다녀온 목적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외 교육연수를 다녀온 목적으로 현지 외국어 연수가 6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전공 관련 교육 10.5%, 전공이외 교육 4.9%, 현장실습이나 인턴십 3.8% 순으로 주로 현지 외국어 연수가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대학소재지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전공계열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0> 해외 교육연수 목적(복수응답)

(단위: 명(%))

구 분	전공관련 교육	전공이외 교육	현지외국어 연수	현장실습 · 인턴십	기타	전체	비고
전 체	30 (10.5)	14 (4.9)	197 (68.9)	11 (3.8)	34 (11.9)	286 (100)	
성 별							
남 자	11 (5.8)	9 (4.8)	135 (71.4)	9 (4.8)	25 (13.2)	189 (100)	$\chi^2=9.910$, df=4, p=0.057
여 자	19 (19.6)	5 (5.2)	62 (63.9)	2 (2.1)	9 (9.3)	97 (100)	
대학소재지별							
수도권	16 (13.3)	6 (5.0)	80 (66.7)	4 (3.3)	14 (11.7)	120 (100)	$\chi^2=1.041$, df=4, p=0.904
지 방	14 (8.4)	8 (4.8)	117 (70.5)	7 (7.2)	20 (12.0)	166 (100)	
전공계열별							
인문계열	17 (22.7)	2 (2.7)	51 (68.0)	1 (1.3)	4 (5.3)	75 (100)	$\chi^2=41.954$, df=24, p=0.013
사회계열	5 (6.4)	4 (5.1)	50 (64.1)	6 (7.7)	13 (16.7)	78 (100)	
자연계열	0 (0)	0 (0)	7 (100)	0 (0)	0 (0)	7 (100)	
공학계열	3 (3.1)	7 (7.3)	70 (72.9)	3 (3.1)	13 (13.5)	96 (100)	
의약계열	1 (4.5)	1 (4.5)	16 (72.)	1 (4.5)	3 (13.6)	22 (100)	
사범계열	0 (0)	0 (0)	1 (100)	0 (0)	0 (0)	1 (100)	
예체능계열	4 (57.1)	0 (0)	2 (28.6)	0 (0)	1 (14.3)	7 (100)	

다음으로 <표 III-21>은 대학 재학 중 해외 교육연수가 과연 어느 정도 대학 전공과 관련성이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대학 전공 관련성에 있어서 5점 만점에 평균 3.3점으로 나타나 해외 교육연수가 어느 정도는 대학 전공과 관련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대학 전공과의 관련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자 졸업생들이 남자 졸업생들보다 더 해외 교육연수가 대학 전공과 관련성이 있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대학소재지별로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졸업생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전공계열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 졸업생들이 비교적 해외 교육연수가 대학 전공과 관련성이 많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 해외 교육연수의 대학 전공 관련성

구 분	평균	표준편차	비고
진 체	3.3	1.23	
성 별			
남 자	2.9	1.19	t=9.892, df=1, p=0.002
여 자	3.4	1.26	
대학소재지별			
수도권	3.2	1.19	t=2.055, df=1, p=0.153
지 방	2.9	1.25	
전공계열별			
인문계열	3.8	1.16	F=8.493, df=6, p=0.000
사회계열	2.8	1.17	
자연계열	2.7	0.95	
공학계열	2.6	1.10	
의약계열	2.9	1.14	
사범계열	2.0	0.00	
예체능계열	3.7	1.11	

주: 관련성 5=매우 관련, 4=대체로 관련, 3=보통, 2=대체로 무관, 1=전혀 무관

한편, 대학 재학 중 해외 교육연수가 취업과 직업생활에 도움된 정도에서 취업에 도움된 정도가 5점 만점 중에 평균 3.7점, 직업생활에 도움된 정도는 평균 3.6점인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해외 교육연수가 취업과 직업생활 모두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성별과 대학소재지별, 연수목적별로는 취업과 직업생활 도움도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에 반해 전공계열별로는 두 측면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사회계열, 인문계열 졸업생들이 취업과 직업생활에 도움된 정도 모두에서 비교적 더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표 III-22> 해외 교육연수의 취업과 직업생활에의 도움도

구 분	취업에의 도움도			직업생활에의 도움도		
	평균	표준편차	비고	평균	표준편차	비고
전 체	3.7	1.05		3.6	1.07	
성 별			t=0.088, df=1,			t=0.013, df=1,
남 자	3.7	0.98		3.6	1.03	
여 자	3.6	1.20	p=0.767	3.6	1.16	p=0.908
대학소재지별			t=0.080, df=1,			t=0.000, df=1,
수도권	3.7	1.13		3.6	1.07	
지 방	3.7	1.00	p=0.777	3.6	1.07	p=0.991
전공계열별			F=4.445, df=6, p=0.000			F=3.264, df=6, p=0.004
인문계열	3.8	1.10		3.8	1.02	
사회계열	4.0	0.83		3.8	0.97	
자연계열	3.0	0.82		3.0	0.82	
공학계열	3.6	0.91		3.6	0.94	
의약계열	3.1	1.52		3.0	1.54	
사범계열	2.0	.		2.0	.	
예체능계열	2.7	1.38		2.9	1.57	
연수목적별			t=2.586, df=3, p=0.057			t=1.424, df=3, p=0.240
전공관련 교육	3.7	1.66		3.6	1.60	
전공이외 교육	3.4	1.14		3.6	1.14	
현지 외국어 연수	3.2	1.09		2.9	0.99	
현장실습·인턴십	
기타	4.1	0.76		3.0	1.47	

주: 도움도 5=매우 도움, 4=도움, 3=보통, 2=도움 안됨, 1=전혀 도움안됨

7. 아르바이트 등의 취업 경험

끝으로 대학 재학 중의 교육 경험과 관련하여 아르바이트 등의 취업 경험 유무와 보낸 기간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표 III-23>에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졸업생들 중에 84.9%가 대학 재학 중에 아르바이트 등의 취업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자 졸업생들이 남자 졸업생들에 비해 대학 재학 중 아르바이트 등의 취업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소재지와 전공계열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23> 아르바이트 등의 취업 경험 유무

(단위: 명(%))

구 분	아르바이트 경험	아르바이트 무경험	전 체	비 고
전 체	1613 (84.9)	286 (15.1)	1899 (100)	
성 별				$\chi^2=5.192$, df=1, p=0.023
남 자	1080 (83.7)	211 (16.3)	1291 (100)	
여 자	533 (87.7)	75 (12.3)	608 (100)	
대학소재지별				$\chi^2=2.829$, df=1, p=0.098
수도권	598 (83.2)	121 (16.8)	719 (100)	
지 방	1015 (86.0)	165 (14.0)	1180 (100)	
전공계열별				$\chi^2=7.570$, df=6, p=0.271
인문계열	195 (87.8)	27 (12.2)	222 (100)	
사회계열	368 (83.4)	73 (16.6)	441 (100)	
자연계열	93 (85.3)	16 (14.7)	109 (100)	
공학계열	677 (86.2)	108 (13.8)	785 (100)	
의약계열	191 (83.6)	43 (18.4)	234 (100)	
사범계열	37 (88.1)	5 (11.9)	42 (100)	
예체능계열	52 (78.8)	14 (21.2)	66 (100)	

한편, 대학 재학 중에 아르바이트 등의 취업 경험을 위해 보낸 기간은 평균 19.6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전공관련 아르바이트를 위해 보낸 기간이 평균 10.3개월, 전공과 관련없는 아르바이트를 위해 평균 12.0개월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 졸업생들이 남자 졸업생들보다 아르바이트 등의 취업 경험을 위해 더 많은 기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소재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이 지방 대학 졸업생들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 등의 취업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사범계열과 인문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졸업생들이 비교적 오랫동안 아르바이트 등의 취업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4> 아르바이트 등의 취업 경험을 위해 보낸 기간

(단위: 개월)

구 분	전공관련 아르바이트	전공무관 아르바이트	전체	비고
전 체	10.3 (11.87)	12.0 (11.98)	19.6 (15.65)	
성 별				
남 자	9.2 (10.61)	11.0 (10.84)	17.7 (14.05)	t=16.878, df=1, p=0.000
여 자	12.2 (13.70)	13.9 (13.80)	23.3 (17.81)	
대학소재지별				
수도권	1.6 (0.49)	14.3 (14.16)	23.3 (17.74)	t=18.530, df=1, p=0.000
지 방	1.6 (0.49)	10.8 (10.40)	17.5 (13.86)	
전공계열별				
인문계열	13.4 (14.54)	14.0 (13.07)	25.2 (19.50)	F=4.566, df=6, p=0.000
사회계열	8.0 (8.6)	12.4 (11.61)	19.3 (16.40)	
자연계열	13.7 (11.71)	10.5 (11.34)	23.1 (16.23)	
공학계열	7.8 (9.77)	10.8 (10.58)	16.3 (12.38)	
의약계열	12.7 (13.136)	15.2 (15.80)	22.8 (16.24)	
사범계열	14.2 (17.24)	12.3 (11.41)	27.0 (15.26)	
예체능계열	15.1 (17.10)	6.2 (5.82)	18.3 (17.08)	

제2절 대학교육 평가

1. 대학의 교육 충실도

<표 III-25>는 대학 재학 중에 대학이 교육과 관련한 여러 활동들에 대하여 얼마나 충실하였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인 대학의 교육 충실도는 5

점 만점 중에 평균 3.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보다 비교적 높은 충실도를 나타낸 교육 활동으로는 수업 출석, 이론이나 개념에 대한 학습, 전공 분야나 과목을 선택할 자유, 자기주도학습,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학습이나 문제해결학습 등이었다. 반면에 재학 중의 일 체험과 수업시간외 교수와 학생간의 커뮤니케이션, 졸업논문이나 졸업과제물의 작성, 의사소통능력의 습득 등은 상대적으로 충실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성별과 대학소재지별로는 대학의 교육 충실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대학성적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대학성적이 좋았던 졸업생일수록 전체적인 대학의 교육 충실도가 높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표 III-25> 대학의 교육 충실도

구분	전체	성별			대학소재지별			대학성적별			
		남자	여자	비교	수도권	지방	비교	상위	중위	하위	비교
사실이나 분석 방법의 습득	3.3 (0.87)	3.4 (0.87)	3.3 (0.84)	p=0.019	3.4 (0.86)	3.3 (0.87)	p=0.007	3.5 (0.85)	3.3 (0.86)	3.1 (0.94)	p=0.000
이론이나 개념에 대한 학습	3.9 (0.69)	3.9 (0.71)	3.9 (0.65)	p=0.456	4.0 (0.68)	3.9 (0.70)	p=0.004	4.0 (0.69)	3.9 (0.68)	3.7 (0.77)	p=0.000
의사소통능력의 습득	3.2 (0.89)	3.1 (0.89)	3.2 (0.89)	p=0.73	3.2 (0.88)	3.1 (0.89)	p=0.033	3.3 (0.89)	3.1 (0.87)	3.1 (0.98)	p=0.002
자기주도 학습	3.4 (0.92)	3.4 (0.91)	3.4 (0.94)	p=0.455	3.5 (0.93)	3.4 (0.91)	p=0.008	3.6 (0.92)	3.4 (0.91)	3.2 (0.95)	p=0.000
수업 출석	4.0 (0.73)	4.0 (0.74)	4.1 (0.70)	p=0.000	4.0 (0.74)	4.0 (0.72)	p=0.890	4.1 (0.75)	4.0 (0.71)	4.0 (0.83)	p=0.289
교수의 적극적 학습 정보 제공	3.4 (0.84)	3.4 (0.83)	3.4 (0.85)	p=0.065	3.4 (0.84)	3.4 (0.84)	p=0.501	3.5 (0.84)	3.4 (0.82)	3.2 (0.94)	p=0.000
전공분야나 과목을 선택할 자유	3.5 (0.88)	3.5 (0.89)	3.4 (0.85)	p=0.073	3.4 (0.88)	3.5 (0.88)	p=0.749	3.5 (0.86)	3.5 (0.88)	3.2 (0.94)	p=0.003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학습이나 문제해결학습	3.4 (0.96)	3.4 (0.97)	3.5 (0.94)	p=0.003	3.5 (0.93)	3.4 (0.97)	p=0.001	3.6 (0.94)	3.4 (0.95)	3.3 (1.05)	p=0.007
재학 중 일 체험	2.6 (0.95)	2.6 (0.97)	2.6 (0.92)	p=0.663	2.6 (0.94)	2.6 (0.96)	p=0.546	2.7 (0.96)	2.6 (0.94)	2.5 (0.98)	p=0.016
수업 시간 외 교수와 학생간의 커뮤니케이션	2.8 (0.94)	2.8 (0.95)	2.8 (0.92)	p=0.509	2.8 (0.93)	2.8 (0.94)	p=0.117	2.9 (0.98)	2.8 (0.92)	2.7 (0.98)	p=0.011
졸업 논문이나 졸업 과제물의 작성	3.1 (1.01)	3.1 (1.01)	3.1 (1.01)	p=0.457	3.0 (1.07)	3.2 (0.97)	p=0.001	3.2 (1.01)	3.1 (1.00)	3.0 (1.03)	p=0.022
학업성취도 평가	3.3 (0.90)	3.3 (0.92)	3.4 (0.86)	p=0.07	3.3 (0.90)	3.3 (0.90)	p=0.060	3.4 (0.89)	3.3 (0.89)	3.0 (0.97)	p=0.000
전 체	3.3 (0.53)	3.3 (0.53)	3.3 (0.52)	p=0.824	3.4 (0.52)	3.2 (0.53)	p=0.178	3.4 (0.55)	3.3 (0.51)	3.2 (0.54)	p=0.000

주: 교육충실도 5=매우 충실, 4=대체로 충실, 3=보통, 2=대체로 충실하지 않음, 1=전혀 충실하지 않음

2.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

<표 III-26>은 대학 재학 중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 것이다.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교과과정, 수업, 수업이외의 학습기회, 교수의 지도, 교육 시설 여건, 그리고 그 외에 대학의 의사결정에 대한 학생의 참여 기회, 학교 친구와의 접촉 기회로 영역을 구분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인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 중에 평균 3.1점으로 보통 정도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체적인 대학교육 만족도보다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인 항목으로는 학교 친구와의 접촉 기회, 도서관 시설 및 장서 보유, 전공 수업 내용, 수업의 질, 전공분야나 과목을 선택할 자유 등이었다. 반면에 일 체험 기회의 제공,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 수업시간 이외에 교수와 접촉할 기회, 대학의 의사결정에 대한 학생의 참여 기회, 졸업논문이나 과제물·시험에 대한 교수의 지도 조언, 수업에서 실용적 내용의 중시 등의 항목에 있어서는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성별로 보면 전체적인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성적별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 대학성적이 좋았던 졸업생일수록 전체적인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III-26>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

구 분	전체	성별			대학소재지별			대학성적별				
		남자	여자	비고	수도권	지방	비고	상위	중위	하위	비고	
교과과정												
교과과정의 체계성	3.2 (0.84)	3.3 (0.84)	3.2 (0.84)	p=0.082	3.3 (0.84)	3.2 (0.84)	p=0.046	3.3 (0.85)	3.2 (0.82)	2.9 (0.93)	p=0.000	
교과목의 다양성	3.2 (0.91)	3.2 (0.92)	3.1 (0.88)	p=0.023	3.2 (0.90)	3.2 (0.91)	p=0.807	3.2 (0.90)	3.1 (0.90)	3.1 (0.97)	p=0.080	
전공분야나 과목을 선택할 자유	3.3 (0.88)	3.4 (0.90)	3.3 (0.84)	p=0.73	3.3 (0.89)	3.3 (0.88)	p=0.604	3.4 (0.87)	3.3 (0.87)	3.0 (0.99)	p=0.000	
계	3.2 (0.73)	3.3 (0.74)	3.2 (0.70)	p=0.019	3.3 (0.72)	3.2 (0.73)	p=0.282	3.3 (0.72)	3.2 (0.71)	3.0 (0.81)	p=0.000	

<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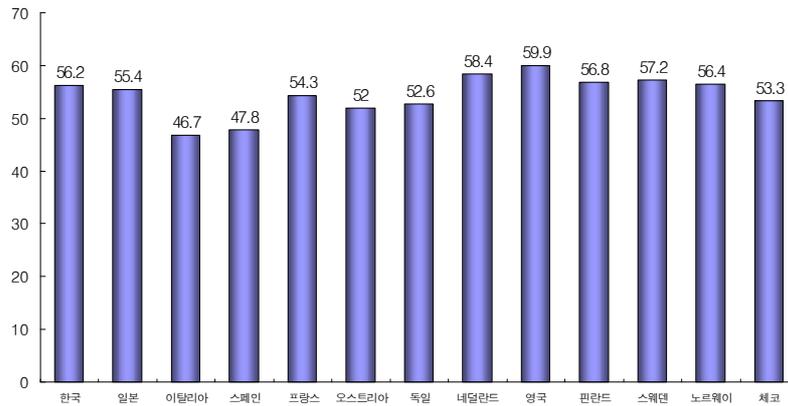
제3장 대졸 청년층의 대학 재학 중 교육 경험과 대학교육 평가 41

구 분	전체	성별			대학소재지별			대학성적별			
		남자	여자	비교	수도권	지방	비교	상위	중위	하위	비교
수업											
전공 수업 내용	3.5 (0.80)	3.5 (0.76)	3.4 (0.81)	p=0.010	3.5 (0.79)	3.5 (0.81)	p=0.357	3.6 (0.82)	3.5 (0.77)	3.2 (0.93)	p=0.000
수업의 질	3.3 (0.80)	3.4 (0.80)	3.3 (0.80)	p=0.027	3.4 (0.80)	3.3 (0.79)	p=0.001	3.4 (0.83)	3.3 (0.78)	3.2 (0.81)	p=0.001
수업에서 실용적 내용의 증시	3.0 (0.90)	3.1 (0.90)	2.9 (0.89)	p=0.003	3.0 (0.91)	3.0 (0.89)	p=0.400	3.1 (0.92)	3.0 (0.89)	2.8 (0.89)	p=0.001
수업에서 학문적 내용의 증시	3.1 (0.85)	3.1 (0.87)	3.0 (0.82)	p=0.130	3.3 (0.85)	3.0 (0.84)	p=0.000	3.2 (0.85)	3.1 (0.84)	2.9 (0.90)	p=0.000
시험이나 성적 등의 평가 방법	3.2 (0.80)	3.2 (0.81)	3.3 (0.76)	p=0.652	3.3 (0.79)	3.2 (0.80)	p=0.043	3.4 (0.77)	3.2 (0.78)	3.0 (0.85)	p=0.000
계	3.2 (0.69)	3.3 (0.69)	3.2 (0.67)	p=0.005	3.3 (0.68)	3.2 (0.69)	p=0.000	3.3 (0.70)	3.2 (0.67)	3.0 (0.74)	p=0.000
수업이외의 학습기회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	2.6 (0.96)	2.7 (1.00)	2.6 (0.89)	p=0.029	2.7 (0.94)	2.6 (0.97)	p=0.039	2.8 (1.00)	2.6 (0.95)	2.5 (0.98)	p=0.000
일 체험 기회의 제공	2.4 (0.92)	2.4 (0.93)	2.3 (0.90)	p=0.074	2.4 (0.94)	2.3 (0.91)	p=0.380	2.5 (0.91)	2.3 (0.92)	2.2 (0.93)	p=0.000
계	2.5 (0.84)	2.5 (0.87)	2.4 (0.78)	p=0.026	2.5 (0.84)	2.5 (0.84)	p=0.097	2.6 (0.83)	2.4 (0.84)	2.4 (0.85)	p=0.000
교수의 지도											
교수·학습 자료의 제공	3.2 (0.87)	3.3 (0.86)	3.2 (0.90)	p=0.017	3.2 (0.89)	3.2 (0.86)	p=0.792	3.3 (0.92)	3.2 (0.84)	3.0 (0.92)	p=0.000
학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	3.2 (0.82)	3.3 (0.80)	3.1 (0.83)	p=0.000	3.3 (0.82)	3.2 (0.82)	p=0.017	3.3 (0.85)	3.2 (0.80)	2.9 (0.88)	p=0.000
졸업 논문이나 과제물, 시험에 대한 지도·조언	2.9 (0.90)	2.9 (0.91)	2.8 (0.87)	p=0.002	2.9 (0.91)	2.9 (0.90)	p=0.611	3.0 (0.94)	2.9 (0.88)	2.6 (0.90)	p=0.000
수업 시간 이외에 교수와 접촉할 기회	2.7 (0.97)	2.7 (0.97)	2.7 (0.97)	p=0.692	2.7 (0.98)	2.7 (0.97)	p=0.054	2.8 (0.98)	2.7 (0.97)	2.5 (1.01)	p=0.002
계	3.0 (0.70)	3.0 (0.70)	2.9 (0.70)	p=0.001	3.0 (0.71)	3.0 (0.70)	p=0.786	3.1 (0.73)	3.0 (0.67)	2.8 (0.76)	p=0.000
교육 시설 여건											
도서관 시설 및 장서 보유	3.6 (0.95)	3.6 (0.94)	3.5 (0.98)	p=0.090	3.5 (0.99)	3.6 (0.92)	p=0.000	3.6 (0.99)	3.6 (0.93)	3.5 (1.00)	p=0.920
교육 시설 및 기자재	3.2 (0.96)	3.14 (0.97)	3.2 (0.95)	p=0.243	3.2 (0.99)	3.2 (0.94)	p=0.936	3.2 (0.99)	3.2 (0.94)	3.0 (1.00)	p=0.007
계	3.4 (0.84)	3.4 (0.84)	3.4 (0.86)	p=0.771	3.3 (0.89)	3.4 (0.82)	p=0.041	3.4 (0.89)	3.4 (0.82)	3.2 (0.88)	p=0.141
대학의 의사결정에 대한 학생의 참여 기회											
대학의 의사결정에 대한 학생의 참여 기회	2.8 (0.89)	2.8 (0.91)	2.8 (0.86)	p=0.927	2.7 (0.88)	2.8 (0.90)	p=0.261	2.9 (0.88)	2.7 (0.89)	2.6 (0.94)	p=0.001
학교 친구와 접촉할 기회	3.8 (0.75)	3.8 (0.75)	3.7 (0.76)	p=0.000	3.8 (0.78)	3.8 (0.74)	p=0.487	3.8 (0.76)	3.8 (0.75)	3.7 (0.76)	p=0.205
전 체	3.11 (0.58)	3.14 (0.59)	3.06 (0.57)	p=0.005	3.14 (0.59)	3.10 (0.58)	p=0.204	3.22 (0.59)	3.09 (0.57)	2.92 (0.63)	p=0.000

주: 교육 만족도 5=매우 만족, 4=대체로 만족, 3=보통, 2=대체로 불만족, 1=매우 불만족

대학교육 만족도를 국제비교한 결과는 [그림 III-1]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대학교육 만족도는 <표 III-26>에 제시된 각 항목의 총점이다. 주지하다시피 항목은 모두 1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한 만족 정도를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비교분석의 대상이 된 국가에서는 동일한 설문문항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림 III-1]을 해석하면,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만족도는 비교대상 국가 중 중간수준에 해당된다. 영국이나 네덜란드에 비해 크게 낮고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의 만족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독일이나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중부 유럽국가나 일본에 비해 다소 높고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국가에 비해서는 크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III-1] 대학교육 만족도 국제비교



주: 일본과 유럽 각국의 자료는 調査研究報告書(2001). 『日歐の大學と職業 - 高等教育と職業に關する 12カ國比較調査結果』, 日本労働研究機構, No. 143에서 인용한 것임.

다만 직접적인 국제비교가 곤란한 측면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의 경우 94년과 95년에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98년부터 99년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었다. 다시 말해 우리보다 조사시점이 6~7년 정도 빠르다. 또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나라들

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4년제 대학만이 아닌 모든 고등교육기관이 조사되었다는 점이 상이하다. 모든 나라에서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비교대상이 된 다른 나라들의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과거보다 현재시점에 더 높아졌을 것이다. 또 4년제 대학 졸업생의 만족도가 기타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에 비해 높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모두 감안한다면, [그림 III-1]에 제시된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의 상대적 수준이 다소 과대하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3. 대학 졸업 당시의 능력 수준

대학 졸업 당시의 능력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직업기초능력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특히 직업기초능력 중에서도 도구적 기초능력으로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컴퓨터 활용능력과 외국어 능력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대학 졸업 당시의 직업기초능력 수준을 살펴보면 <표 III-27>과 같다. 직업기초능력이란 모든 직업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으로, 그 수준을 통해 대학 졸업생들이 졸업 후에 취업과 직업에서의 능력 발휘를 위해 어느 정도 준비하였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직업기초능력 수준은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 능력,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등에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되어 분석하였다⁴⁾.

그 결과 대학 졸업 당시의 전체적인 직업기초능력 수준은 5점 만점 중에서 평균 3.4점이었다. 전체적인 직업기초능력 수준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난 직업기초능력 요소들은 성실성, 책임감, 일에 대한 적응 능력, 일에 몰입하는

4) 정철영 외(1998)는 각 국가별 직업기초능력을 비교 분석하고 산업계의 현장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직업기초능력을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 능력,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제 비교 분석을 위해 수리능력은 제외하였다.

능력, 학습능력, 다른 의견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융통성, 어떤 제약 하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팀워크 능력 등이었다. 반면에 외국어능력과 복잡한 사회조직·기술체계를 이해하는 능력, 경제적 사고능력, 창의력, 폭넓은 일반적 지식·소양, 계획을 세우고 조정하고 조직화하는 능력, 지식·기술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능력 등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기초능력 수준을 성별로 보면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자 졸업생들이 여자 졸업생들보다 전체적인 직업기초능력 수준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소재지별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이 지방 대학 졸업생들보다 직업기초능력 수준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7> 대학 졸업 당시의 직업기초능력 수준(성별, 대학소재지별)

구 분	전체	성별			대학소재지별		
		남자	여자	비교	수도권	지방	비교
의사소통능력							
작문 능력	3.3 (0.79)	3.2 (0.79)	3.3 (0.77)	p=0.234	3.4 (0.79)	3.2 (0.78)	p=0.000
언어 구사 능력	3.4 (0.81)	3.4 (0.82)	3.43 (0.79)	p=0.259	3.5 (0.82)	3.3 (0.80)	p=0.000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주장할 수 있는 능력	3.4 (0.86)	3.4 (0.86)	3.3 (0.84)	p=0.020	3.4 (0.88)	3.3 (0.84)	p=0.020
외국어 능력	2.8 (0.82)	2.9 (0.82)	2.8 (0.83)	p=0.268	3.0 (0.84)	2.8 (0.80)	p=0.000
계	3.2 (0.61)	3.2 (0.61)	3.2 (0.59)	p=0.659	3.3 (0.63)	2.2 (0.59)	p=0.000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	3.4 (0.71)	3.4 (0.71)	3.4 (0.70)	p=0.094	3.5 (0.74)	3.4 (0.68)	p=0.004
분석능력	3.4 (0.73)	3.4 (0.75)	3.3 (0.68)	p=0.052	3.5 (0.75)	3.3 (0.71)	p=0.000
창의력	3.2 (0.81)	3.3 (0.82)	3.1 (0.76)	p=0.000	3.3 (0.81)	3.2 (0.80)	p=0.405
비판적 사고 능력	3.4 (0.80)	3.5 (0.82)	3.4 (0.78)	p=0.086	3.5 (0.85)	3.4 (0.78)	p=0.010
경제적 사고 능력	3.1 (0.87)	3.1 (0.88)	3.1 (0.84)	p=0.137	3.1 (0.90)	3.1 (0.85)	p=0.296
융통성	3.5 (0.77)	3.6 (0.79)	3.5 (0.72)	p=0.005	3.6 (0.75)	3.5 (0.77)	p=0.030
계	3.3 (0.55)	3.4 (0.57)	3.3 (0.51)	p=0.002	3.4 (0.63)	3.3 (0.59)	p=0.001

<표 계속>

구분	전체	성별			대학소재지별		
		남자	여자	비교	수도권	지방	비교
자기 관리 및 개발 능력							
자신의 일에 대한 객관적 평가능력	3.3 (0.73)	3.3 (0.75)	3.3 (0.70)	p=0.824	3.3 (0.77)	3.2 (0.71)	p=0.034
어떤 제약 하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정신력	3.5 (0.90)	3.5 (0.89)	3.4 (0.92)	p=0.002	3.5 (0.93)	3.5 (0.89)	p=0.276
정확하고 면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3.4 (0.80)	3.4 (0.81)	3.4 (0.79)	p=0.467	3.5 (0.80)	3.4 (0.80)	p=0.003
시간 관리 능력	3.3 (0.87)	3.3 (0.89)	3.4 (0.83)	p=0.001	3.4 (0.88)	3.3 (0.87)	p=0.015
일에 대한 적응 능력	3.6 (0.83)	3.6 (0.85)	3.6 (0.77)	p=0.831	3.6 (0.80)	3.6 (0.84)	p=0.066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3.4 (0.82)	3.4 (0.83)	3.4 (0.80)	p=0.297	3.4 (0.83)	3.4 (0.81)	p=0.239
자발성·자주성	3.4 (0.76)	3.4 (0.75)	3.3 (0.79)	p=0.009	3.4 (0.78)	3.4 (0.75)	p=0.363
일에 몰입하는 능력	3.6 (0.79)	3.6 (0.81)	3.7 (0.77)	p=0.674	3.7 (0.80)	3.6 (0.79)	p=0.291
성실성	3.9 (0.82)	3.9 (0.84)	3.9 (0.78)	p=0.112	3.9 (0.83)	3.9 (0.82)	p=0.058
책임감	3.9 (0.81)	3.9 (0.82)	3.9 (0.80)	p=0.690	3.9 (0.81)	3.8 (0.81)	p=0.07
폭넓은 일반적 지식·소양	3.2 (0.74)	3.2 (0.76)	3.1 (0.69)	p=0.000	3.3 (0.77)	3.2 (0.72)	p=0.067
여러 전공 분야를 포괄하는 사고·지식	3.1 (0.76)	3.2 (0.77)	3.0 (0.72)	p=0.000	3.2 (0.77)	3.1 (0.75)	p=0.003
전공 분야의 이론적 지식	3.4 (0.74)	3.4 (0.76)	3.4 (0.71)	p=0.493	3.5 (0.75)	3.4 (0.74)	p=0.057
전공 분야의 분석 방법에 대한 지식	3.3 (0.78)	3.3 (0.81)	3.2 (0.70)	p=0.059	3.3 (0.79)	3.2 (0.76)	p=0.009
학습능력	3.6 (0.69)	3.6 (0.71)	3.6 (0.65)	p=0.251	3.7 (0.71)	3.5 (0.68)	p=0.000
계	3.5 (0.52)	3.5 (0.54)	3.4 (0.48)	p=0.272	3.5 (0.53)	2.4 (0.52)	p=0.002
자원활용능력							
계획을 세우고 조정하고 조직화 하는 능력	3.2 (0.86)	3.2 (0.89)	3.2 (0.79)	p=0.576	3.2 (0.86)	3.2 (0.85)	p=0.018
대인관계능력							
협상 능력	3.1 (0.81)	3.1 (0.89)	3.0 (0.85)	p=0.000	3.1 (0.91)	3.1 (0.86)	p=0.441
팀워크 능력	3.5 (0.83)	3.5 (0.87)	3.5 (0.76)	p=0.470	3.5 (0.86)	3.5 (0.82)	p=0.070
다른 의견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능력	3.6 (0.78)	3.6 (0.79)	3.6 (0.75)	p=0.854	3.6 (0.76)	3.5 (0.79)	p=0.125
리더십	3.3 (0.86)	3.4 (0.85)	3.2 (0.87)	p=0.000	3.3 (0.89)	3.3 (0.85)	p=0.712
계	3.3 (0.65)	3.4 (0.67)	3.3 (0.61)	p=0.003	3.4 (0.66)	3.3 (0.64)	p=0.243

<표 계속>

구분	전체	성별			대학교소재지별		
		남자	여자	비교	수도권	지방	비교
정보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3.6 (0.87)	3.6 (0.90)	3.4 (0.78)	p=0.000	3.6 (0.87)	3.5 (0.87)	p=0.185
정보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능력	3.4 (0.83)	3.4 (0.86)	3.4 (0.77)	p=0.861	3.4 (0.84)	3.3 (0.82)	p=0.012
계	3.5 (0.71)	3.5 (0.74)	3.4 (0.64)	p=0.000	3.5 (0.71)	3.4 (0.70)	p=0.023
기술 능력							
수작업 능력	3.3 (0.83)	3.3 (0.83)	3.3 (0.83)	p=0.328	3.3 (0.85)	3.3 (0.82)	p=0.970
지식·기술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능력	3.2 (0.792)	3.2 (0.82)	3.1 (0.72)	p=0.000	3.2 (0.78)	3.1 (0.80)	p=0.051
계	3.2 (0.61)	3.2 (0.61)	3.2 (0.59)	p=0.659	3.3 (0.63)	2.2 (0.59)	p=0.000
조직이해능력							
복잡한 사회조직·기술체계를 이해하는 능력	3.0 (0.82)	3.0 (0.84)	2.8 (0.75)	p=0.000	3.0 (0.83)	2.9 (0.81)	p=0.113
전체	3.4 (0.50)	3.4 (0.52)	3.3 (0.45)	p=0.020	3.4 (0.52)	3.3 (0.49)	p=0.001

주: 능력수준 5=매우 잘 갖추, 4=대체로 잘 갖추, 3=보통, 2=대체로 갖추지 않음, 1=전혀 갖추지 않음

한편, 대학 졸업 당시의 직업기초능력 수준을 전공계열별로 보면 <표 III-28>과 같다. 표에 보는 바와 같이 대학 졸업 당시의 직업기초능력 수준이 전공계열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계열, 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인문계열 졸업생들은 전체 평균 수준과 비교하여 높았던 반면에, 사범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졸업생들은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8> 대학 졸업 당시의 직업기초능력 수준(전공계열별)

구분	전체	전공계열별							비교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사범계열	예·체능계열	
의사소통능력									
작문 능력	3.3 (0.79)	3.5 (0.78)	3.4 (0.78)	3.5 (0.78)	3.1 (0.78)	3.1 (0.72)	2.9 (0.71)	3.2 (0.63)	p=0.000
언어 구사 능력	3.4 (0.81)	3.7 (0.74)	3.6 (0.84)	3.5 (0.79)	3.3 (0.82)	3.3 (0.69)	3.4 (0.76)	3.3 (0.76)	p=0.000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주장할 수 있는 능력	3.4 (0.86)	3.4 (0.88)	3.4 (0.87)	3.5 (0.83)	3.3 (0.85)	3.3 (0.84)	3.3 (0.86)	3.4 (0.88)	p=0.120
외국어 능력	2.8 (0.82)	3.2 (0.92)	2.9 (0.83)	2.7 (0.84)	2.8 (0.78)	2.7 (0.77)	2.6 (0.85)	2.4 (0.66)	p=0.000
계	3.2 (0.61)	3.5 (0.59)	3.3 (0.62)	3.3 (0.59)	3.1 (0.60)	3.1 (0.55)	3.0 (0.56)	3.1 (0.53)	p=0.000

<표 계속>

구분	전체	전공계열별							비고
		인문 계열	사회 계열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의약 계열	사범 계열	예·체능 계열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	3.4 (0.71)	3.4 (0.67)	3.4 (0.71)	3.5 (0.66)	3.3 (0.71)	3.4 (0.69)	3.3 (0.77)	3.5 (0.77)	p=0.031
분석능력	3.4 (0.73)	3.3 (0.68)	3.4 (0.73)	3.5 (0.66)	3.3 (0.75)	3.4 (0.71)	3.3 (0.69)	3.4 (0.75)	p=0.365
창의력	3.2 (0.81)	3.3 (0.84)	3.2 (0.83)	3.3 (0.82)	3.2 (0.80)	3.2 (0.74)	3.0 (0.81)	3.6 (0.76)	p=0.003
비판적 사고 능력	3.4 (0.80)	3.5 (0.79)	3.5 (0.82)	3.5 (0.79)	3.4 (0.80)	3.4 (0.81)	3.3 (0.75)	3.4 (0.74)	p=0.005
경제적 사고 능력	3.1 (0.87)	3.0 (0.89)	3.4 (0.88)	3.0 (0.79)	3.0 (0.86)	3.0 (0.81)	2.6 (0.76)	3.0 (0.82)	p=0.000
융통성	3.5 (0.77)	3.5 (0.79)	3.6 (0.79)	3.6 (0.75)	3.5 (0.76)	3.5 (0.73)	3.3 (0.71)	3.5 (0.77)	p=0.224
계	3.3 (0.55)	3.3 (0.50)	3.4 (0.59)	3.4 (0.51)	3.3 (0.56)	3.3 (0.51)	3.2 (0.50)	3.4 (0.52)	p=0.001
자기 관리 및 개발 능력									
자신의 일에 대한 객관적 평가능력	3.3 (0.73)	3.3 (0.68)	3.4 (0.75)	3.3 (0.73)	3.2 (0.75)	3.2 (0.70)	3.1 (0.61)	3.5 (0.79)	p=0.002
어떤 제약 하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정신력	3.5 (0.90)	3.5 (0.92)	3.5 (0.89)	3.5 (0.88)	3.4 (0.91)	3.4 (0.88)	3.6 (0.89)	3.6 (0.93)	p=0.559
정확하고 면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3.4 (0.80)	3.5 (0.75)	3.5 (0.83)	3.4 (0.78)	3.4 (0.81)	3.5 (0.75)	3.5 (0.83)	3.4 (0.79)	p=0.224
시간 관리 능력	3.3 (0.87)	3.3 (0.83)	3.4 (0.91)	3.4 (0.82)	3.2 (0.87)	3.3 (0.84)	3.3 (0.86)	3.3 (0.92)	p=0.082
일에 대한 적응 능력	3.6 (0.83)	3.6 (0.77)	3.7 (0.85)	3.7 (0.76)	3.6 (0.85)	3.6 (0.80)	3.6 (0.77)	3.7 (0.77)	p=0.310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3.4 (0.82)	3.4 (0.86)	3.4 (0.83)	3.5 (0.74)	3.3 (0.83)	3.4 (0.76)	3.3 (0.87)	3.6 (0.74)	p=0.133
자발성·자주성	3.4 (0.76)	3.4 (0.77)	3.4 (0.78)	3.4 (0.71)	3.3 (0.76)	3.3 (0.75)	3.4 (0.79)	3.4 (0.73)	p=0.346
일에 몰입하는 능력	3.6 (0.79)	3.7 (0.81)	3.7 (0.82)	3.7 (0.74)	3.6 (0.80)	3.7 (0.72)	3.6 (0.91)	3.8 (0.80)	p=0.047
성실성	3.9 (0.82)	3.9 (0.78)	3.9 (0.81)	4.0 (0.78)	3.8 (0.84)	3.9 (0.81)	4.0 (0.91)	4.0 (0.78)	p=0.171
책임감	3.9 (0.81)	3.9 (0.78)	3.9 (0.83)	3.9 (0.80)	3.8 (0.81)	3.8 (0.77)	4.0 (0.75)	4.0 (0.81)	p=0.065
폭넓은 일반적 지식·소양	3.2 (0.74)	3.3 (0.76)	3.4 (0.75)	3.3 (0.73)	3.2 (0.76)	3.2 (0.67)	3.1 (0.70)	3.2 (0.56)	p=0.002
여러 전공 분야를 포괄하는 사고·지식	3.1 (0.76)	3.1 (0.79)	3.2 (0.78)	3.1 (0.69)	3.1 (0.76)	3.0 (0.73)	3.1 (0.76)	3.1 (0.66)	p=0.015
전공 분야의 이론적 지식	3.4 (0.74)	3.4 (0.77)	3.4 (0.76)	3.6 (0.66)	3.4 (0.74)	3.4 (0.71)	3.5 (0.74)	3.6 (0.74)	p=0.034
전공 분야의 분석 방법에 대한 지식	3.3 (0.78)	3.3 (0.77)	3.2 (0.78)	3.4 (0.72)	3.2 (0.80)	3.3 (0.74)	3.4 (0.66)	3.5 (0.79)	p=0.046
학습능력	3.6 (0.69)	3.6 (0.61)	3.6 (0.73)	3.6 (0.66)	3.5 (0.71)	3.5 (0.66)	3.7 (0.67)	3.6 (0.61)	p=0.016
계	3.5 (0.52)	3.5 (0.51)	3.5 (0.54)	3.5 (0.47)	3.4 (0.53)	3.4 (0.47)	3.5 (0.53)	3.5 (0.50)	p=0.006

<표 계속>

구분	전체	전공계열별							비고
		인문 계열	사회 계열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의약 계열	사범 계열	예·체능 계열	
자원활용능력									
계획을 세우고 조정하고 조직화 하는 능력	3.2 (0.86)	3.2 (0.82)	3.3 (0.86)	3.4 (0.76)	3.1 (0.89)	3.2 (0.82)	3.0 (0.81)	3.1 (0.73)	p=0.000
대인관계능력									
협상 능력	3.1 (0.88)	3.0 (0.88)	3.2 (0.88)	3.2 (0.83)	3.0 (0.91)	3.0 (0.77)	2.8 (0.73)	3.1 (0.91)	p=0.154
팀워크 능력	3.5 (0.83)	3.5 (0.82)	3.6 (0.84)	3.5 (0.73)	3.4 (0.86)	3.4 (0.73)	3.4 (0.91)	3.4 (0.94)	p=0.212
다른 의견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능력	3.6 (0.78)	3.6 (0.74)	3.6 (0.79)	3.7 (0.77)	3.5 (0.78)	3.5 (0.74)	3.3 (0.72)	3.5 (0.88)	p=0.026
리더십	3.3 (0.86)	3.4 (0.88)	3.4 (0.85)	3.3 (0.81)	3.3 (0.86)	3.2 (0.87)	3.2 (0.79)	3.4 (0.96)	p=0.086
계	3.3 (0.65)	3.4 (0.64)	3.4 (0.66)	3.4 (0.58)	3.3 (0.67)	3.3 (0.57)	3.2 (0.58)	3.4 (0.74)	p=0.035
정보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3.6 (0.87)	3.3 (0.85)	3.5 (0.87)	3.4 (0.83)	3.7 (0.85)	3.5 (0.87)	3.2 (0.83)	3.3 (0.92)	p=0.000
정보나 아이디어를 수집 하고 정리하는 능력	3.4 (0.83)	3.3 (0.76)	3.5 (0.86)	3.5 (0.71)	3.3 (0.85)	3.3 (0.81)	3.2 (0.83)	3.5 (0.77)	p=0.041
계	3.5 (0.71)	3.3 (0.66)	3.5 (0.72)	3.4 (0.65)	3.5 (0.71)	3.4 (0.70)	3.2 (0.72)	3.4(0.74)	p=0.002
기술 능력									
수작업 능력	3.3 (0.83)	3.2 (0.79)	3.3 (0.84)	3.3 (0.87)	3.3 (0.83)	3.4 (0.82)	3.1 (0.84)	3.7 (0.82)	p=0.000
지식·기술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능력	3.2 (0.79)	3.1 (0.77)	3.2 (0.79)	3.4 (0.66)	3.2 (0.84)	3.1 (0.74)	3.1 (0.75)	3.2 (0.71)	p=0.112
계	3.2 (0.68)	3.1 (0.65)	3.2 (0.69)	3.3 (0.61)	3.2 (0.69)	3.3 (0.64)	3.1 (0.69)	3.4 (0.64)	p=0.025
조직이해능력									
복잡한 사회조직·기술 체계를 이해하는 능력	3.0 (0.82)	2.9 (0.78)	3.1 (0.81)	3.0 (0.81)	3.0 (0.85)	2.9 (0.77)	2.6 (0.54)	2.7 (0.83)	p=0.000
전 체	3.36 (0.50)	3.39 (0.48)	3.42 (0.53)	3.43 (0.45)	3.32 (0.52)	3.33 (0.44)	3.26 (0.46)	3.40 (0.47)	p=0.005

주: 능력수준 5=매우 잘 갖추, 4=대체로 잘 갖추, 3=보통, 2=대체로 갖추지 않음, 1=전혀 갖추지 않음

<표 III-29>는 대학 졸업 당시의 컴퓨터 활용능력 수준을 성별과 대학소재지별로 나타낸 것이다. 컴퓨터 활용능력 수준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래밍, 엑셀 등과 같은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CAD·SPSS 등과 같은 전공관련 소프트웨어, 인터넷 검색으로 구분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학 졸업 당시의 전체적인 컴퓨터 활용능력 수준은 5점 만점 중에 평균 2.8점이었다. 전체적인 직업기초능력 수준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난 컴퓨터 활용능력 요소들은 인터넷 검색 능력, 워드프로세서 활용능력, 스프레드시트 활용능력 등이었다. 반면에 전공관련 소프트웨어 활용능력, 프로그래밍 능

력, 데이터베이스 활용능력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전체적인 컴퓨터 활용능력 수준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학생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9> 대학 졸업 당시의 컴퓨터 활용능력 수준(성별, 대학소재지별)

구분	전체	성별			대학소재지별		
		남자	여자	비교	수도권	지방	비교
워드프로세서	3.8 (1.00)	3.9 (1.00)	3.7 (0.98)	t=11.179, df=1, p=0.001	3.9 (0.97)	3.8 (1.01)	t=5.241, df=1, p=0.022
프로그래밍	1.9 (1.51)	2.2 (1.51)	1.4 (1.37)	t=114.717, df=1, p=0.000	1.8 (1.56)	2.0 (1.47)	t=5.331, df=1, p=0.021
스프레드시트	3.0 (1.33)	3.1 (1.30)	2.7 (1.35)	t=47.021, df=1, p=0.000	3.0 (1.35)	3.0 (1.32)	t=0.480, df=1, p=0.489
데이터베이스	1.9 (1.50)	2.0 (1.51)	1.4 (1.39)	t=68.872, df=1, p=0.000	1.8 (1.54)	1.9 (1.47)	t=0.363, df=1, p=0.547
전공 관련 소프트웨어	1.8 (1.64)	2.0 (1.65)	1.2 (1.46)	t=111.360, df=1, p=0.000	1.7 (1.67)	1.8 (1.62)	t=0.504, df=1, p=0.651
인터넷 검색	4.1 (0.85)	4.2 (0.86)	4.1 (0.84)	t=5.814, df=1, p=0.016	4.2 (0.83)	4.1 (0.86)	t=9.270, df=1, p=0.002
전체	2.8 (0.98)	2.9 (0.99)	2.4 (0.88)	t=106.279, df=1, p=0.000	2.8 (0.99)	2.8 (0.97)	t=0.013, df=1, p=0.910

주: 능력수준 5=상, 4=중상, 3=중, 2=중하, 1=하, 0=전혀 모름

한편, 대학 졸업 당시의 컴퓨터 활용능력 수준을 전공계열별로 보면 <표 III-30>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 전공계열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공학계열 대학 학생들이 전체적인 컴퓨터 활용능력 수준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의약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 사범계열 순이었다. 각 컴퓨터 활용능력 요소별로도 전공계열 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0> 대학 졸업 당시의 컴퓨터 활용능력 수준(전공계열별)

구분	전체	전공계열별							비고
		인문 계열	사회 계열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의약 계열	사범 계열	예체능 계열	
워드프로세서	3.8 (1.00)	3.7 (0.99)	3.8 (1.01)	3.9 (0.99)	4.0 (0.93)	3.9 (0.97)	3.3 (0.89)	3.0 (1.289)	F=12.010 df=6, p=0.000
프로그래밍	1.9 (1.51)	1.2 (1.29)	1.4 (1.35)	1.5 (1.41)	2.6 (1.47)	1.9 (1.46)	1.0 (1.08)	1.4 (1.29)	F=50.738, df=6, p=0.000
스프레드시트	3.0 (1.33)	2.4 (1.42)	3.0 (1.37)	2.5 (1.42)	3.3 (1.16)	3.1 (1.23)	2.2 (1.22)	2.0 (1.37)	F=29.603, df=6, p=0.000
데이터베이스	1.9 (1.50)	1.4 (1.32)	1.6 (1.46)	1.4 (1.48)	2.3 (1.50)	1.9 (1.48)	0.9 (1.03)	1.2 (1.25)	F=23.033, df=6, p=0.000
전공 관련 소프트웨어	1.8 (1.64)	0.74 (1.22)	1.2 (1.40)	1.2 (1.49)	2.5 (1.53)	1.6 (1.56)	0.8 (1.10)	2.3 (1.92)	F=71.492, df=6, p=0.000
인터넷 검색	4.1 (0.85)	4.2 (0.84)	4.1 (0.85)	4.1 (0.87)	4.2 (0.82)	4.1 (0.86)	3.8 (0.94)	3.7 (1.07)	F=3.866, df=6, p=0.001
전체	2.8 (0.98)	2.3 (0.83)	2.5 (0.93)	2.4 (0.97)	3.1 (0.93)	2.7 (0.91)	2.0 (0.76)	2.3 (1.01)	F=47.571, df=6, p=0.000

주: 능력수준 5=상, 4=중상, 3=중, 2=중하, 1=하, 0=전혀 모름

다음으로 <표 III-31>은 대학 졸업 당시의 외국어 능력 수준을 성별과 대학소재지별로 나타낸 것이다. 외국어 능력 수준은 독해능력, 작문능력, 회화능력으로 구분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외국어는 영어, 그리고 제2외국어로 일본어와 독일어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제2외국어로 일본어와 독일어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이 두 외국어를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이다.

대학 졸업 당시의 외국어 능력 수준을 보면, 우선 영어의 경우 전체적인 능력 수준이 5점 만점 중에서 평균 2.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어 능력 중에서도 독해능력 수준이 평균 3.3점으로 높은 반면에, 작문능력은 2.5점, 회화능력은 2.4점으로 전체 평균 점수보다 낮았다. 성별로는 영어 능력 수준에 있어서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대학소재지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수도권 대학 학생들이 지방 대학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일본어 능력 수준에서는 전체적인 평균 점수가 5점 만점 중에서 1.6점인 것으로 나타나 영어 능력 수준보다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다른 제2외국어인 독일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어의 경우에도 독해능력

수준이 평균 1.8점으로 높은 반면에, 작문능력과 회화능력은 각각 1.5점으로 전체 평균 점수보다 낮았다. 성별로 보면 일본어의 경우에도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대학소재지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수도권 대학 학생들이 지방 대학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독일어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능력 수준이 5점 만점 중에서 1.0점인 것으로 나타나 영어나 일본어에 비해 가장 낮았다. 독일어의 경우에도 역시 독해능력 수준이 평균 1.3점으로 높은 반면에, 작문능력과 회화능력은 각각 0.9점으로 전체 평균 점수보다 낮았다. 독일어의 경우 성별로는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자가 남자보다 독일어 능력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소재지별로는 수도권 대학 학생들과 지방 대학 학생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 대학 졸업 당시의 외국어 능력 수준(성별, 대학소재지별)

구분	전체	성별			대학소재지별			
		남자	여자	비교	수도권	지방	비교	
영어	독해 능력	3.3 (1.05)	3.3 (1.07)	3.3 (1.01)	t=0.416, df=1, p=0.519	3.6 (0.99)	3.2 (1.05)	t=68.871, df=1, p=0.000
	작문 능력	2.5 (1.10)	2.5 (1.11)	2.5 (1.07)	t=0.256, df=1, p=0.613	2.7 (1.11)	2.3 (1.11)	t=57.910, df=1, p=0.000
	회화 능력	2.4 (1.14)	2.4 (1.17)	2.4 (1.08)	t=0.029, df=1, p=0.866	2.6 (1.17)	2.3 (1.12)	t=21.041, df=1, p=0.000
	전체	2.8 (0.97)	2.6 (0.99)	2.7 (0.92)	t=0.128, df=1, p=0.720	3.0 (0.95)	2.6 (0.95)	t=59.298, df=1, p=0.000
제2외국어 (일본어)	독해 능력	1.8 (1.45)	1.8 (1.44)	1.8 (1.46)	t=0.056, df=1, p=0.813	1.9 (1.50)	1.7 (1.41)	t=11.051, df=1, p=0.001
	작문 능력	1.5 (1.35)	1.5 (1.34)	1.4 (1.36)	t=0.200, df=1, p=0.655	1.5 (1.39)	1.4 (1.33)	t=11.172, df=1, p=0.001
	회화 능력	1.5 (1.4)	1.6 (1.38)	1.5 (1.33)	t=0.099, df=1, p=0.753	1.7 (1.41)	1.5 (1.34)	t=7.393, df=1, p=0.007
	전체	1.6 (1.3)	1.6 (1.33)	1.6 (1.33)	t=0.030, df=1, p=0.862	1.7 (1.38)	1.6 (1.31)	t=10.806, df=1, p=0.001
제2외국어 (독일어)	독해 능력	1.3 (1.3)	1.1 (1.25)	1.7 (1.29)	t=11.051, df=1, p=0.001	1.4 (1.39)	1.1 (1.190)	t=3.900, df=1, p=0.09
	작문 능력	0.9 (1.08)	0.8 (1.03)	1.3 (1.14)	t=11.172, df=1, p=0.001	1.0 (1.13)	0.9 (1.04)	t=0.776, df=1, p=0.379
	회화 능력	0.9 (1.07)	0.8 (1.06)	1.1 (1.05)	t=7.393, df=1, p=0.007	0.9 (1.10)	0.8 (1.05)	t=0.425, df=1, p=0.515
	전체	1.0 (1.09)	0.9 (1.06)	1.4 (1.10)	t=10.806, df=1, p=0.001	1.1 (1.15)	0.9 (1.05)	t=1.615, df=1, p=0.205

주: 능력수준 5=상, 4=중상, 3=중, 2=중하, 1=하, 0=전혀 모름

한편, <표 III-32>는 대학 졸업 당시의 외국어 능력 수준을 전공계열별로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어와 일본어, 독일어 모두 대학 전공계열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학생들이 자연계열이나 공학계열 학생들보다 영어 능력 수준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일본어와 독일어의 경우에도 영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표 III-32> 대학 졸업 당시의 외국어 능력 수준(전공계열별)

구분		전체	전공계열별						비고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사범계열		예체능계열
영어	독해 능력	3.3 (1.05)	3.6 (1.05)	3.5 (1.07)	3.3 (1.20)	3.3 (0.99)	3.3 (0.96)	3.5 (1.07)	2.4 (0.99)	F=14.095, df=6, p=0.000
	작문 능력	2.5 (1.10)	2.8 (1.21)	2.6 (1.13)	2.4 (1.14)	2.4 (1.05)	2.3 (1.03)	2.4 (1.19)	1.9 (0.91)	F=8.591, df=6, p=0.000
	회화 능력	2.4 (1.14)	2.8 (1.23)	2.5 (1.18)	2.3 (1.13)	2.4 (1.11)	2.3 (1.05)	2.3 (1.29)	2.2 (1.01)	F=6.603, df=6, p=0.000
	전체	2.8 (0.97)	3.1 (1.05)	2.9 (0.99)	2.7 (1.03)	2.7 (0.92)	2.6 (0.87)	2.7 (1.03)	2.2 (0.85)	F=10.837, df=6, p=0.000
제2외국어 (일본어)	독해 능력	1.7 (1.44)	2.5 (1.79)	1.7 (1.3)	1.4 (1.36)	1.6 (1.38)	1.8 (1.36)	2.3 (1.37)	1.3 (1.30)	F=5.072, df=6, p=0.000
	작문 능력	1.5 (1.35)	2.3 (1.81)	1.4 (1.23)	0.9 (1.26)	1.3 (1.23)	1.4 (1.28)	1.7 (1.35)	1.2 (1.25)	F=6.012, df=6, p=0.000
	회화 능력	1.5 (1.37)	2.4 (1.71)	1.5 (1.29)	1.2 (1.17)	1.4 (1.27)	1.5 (1.28)	1.9 (1.31)	1.6 (1.24)	F=6.314, df=6, p=0.000
	전체	1.6 (1.33)	2.0 (1.73)	1.5 (1.22)	1.2 (1.19)	1.5 (1.24)	1.6 (1.25)	2.0 (1.27)	1.4 (1.21)	F=6.135, df=6, p=0.000
제2외국어 (독일어)	독해 능력	1.3 (1.28)	2.2 (1.30)	1.7 (1.33)	1.2 (1.13)	1.0 (1.17)	1.1 (1.15)	1.7 (1.50)	1.0 (0.85)	F=6.777, df=6, p=0.000
	작문 능력	1.0 (1.08)	1.8 (1.10)	1.1 (1.14)	0.9 (0.86)	0.7 (1.01)	0.9 (1.08)	1.1 (1.07)	0.9 (0.90)	F=4.834, df=6, p=0.000
	회화 능력	0.9 (1.07)	1.6 (1.15)	1.0 (1.18)	0.8 (0.83)	0.7 (1.00)	0.9 (1.04)	1.0 (1.00)	1.0 (0.85)	F=3.683, df=6, p=0.000
	전체	1.1 (1.09)	1.9 (1.09)	1.3 (1.15)	0.9 (0.90)	0.8 (1.03)	1.0 (1.07)	1.3 (1.11)	0.9 (0.82)	F=5.471, df=6, p=0.000

주: 능력수준 5=상, 4=중상, 3=중, 2=중하, 1=하, 0=전혀 모름

4. 대학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앞서 살펴 본 대학의 교육 충실도와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 자신에 대한 평가로서 대학 졸업 당시의 능력 수준 이외에, 대학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대학을 다시 다닌다면 동일 전공과 대학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와 대학교육이 학문기초능력과 직업능력 형성에 도움된 정도, 대학이 전반적으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표 III-33>은 대학을 다시 다닌다면 동일한 전공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 졸업생들의 대학 재학 중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을 다시 다닌다면 동일한 전공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17.3%에 불과한 반면에 다른 전공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53.7%로 가장 많았고, 유사 전공은 29.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대학 졸업생들의 대학 재학 중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동일 전공을 선택하기보다 다른 전공이나 유사 전공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 비율에 있어서는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자 졸업생들이 남자 졸업생들보다 다른 전공이나 유사 전공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대학소재지별로는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과 지방 대학 졸업생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공계열별로도 전공 재선택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대학 졸업생들은 동일한 전공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다른 전공이나 유사 전공을 선택하겠다는 응답보다 상당히 적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의약계열 졸업생들의 경우 동일한 전공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범계열 대학 졸업생들은 오히려 동일한 전공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다른 전공을 선택하겠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또한 대학성적별로도 전공 재선택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여 하위권 성적의 졸업생들일 수록 다른 전공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I-33> 전공 재선택

(단위: 명(%))

구 분	동일 전공	유사 전공	다른 전공	전 체	비 고
전 체	328 (17.3)	552 (29.1)	1019 (53.7)	1899 (100.0)	
성 별					$\chi^2=6.009$, df=2, p=0.050
남 자	240 (18.6)	360 (27.9)	691 (53.5)	1291 (100)	
여 자	88 (14.5)	192 (31.6)	328 (53.9)	608 (100)	
대학소재지별					$\chi^2=0.545$, df=2, p=0.761
수도권	125 (17.4)	202 (28.1)	392 (54.5)	719 (100)	
지 방	203 (17.2)	350 (29.7)	627 (53.1)	1180 (100)	
전공계열별					$\chi^2=76.514$, df=12, p=0.000
인문계열	38 (17.1)	60 (27.0)	124 (55.9)	222 (100)	
사회계열	96 (21.8)	138 (31.3)	207 (46.9)	441 (100)	
자연계열	24 (22.0)	43 (39.4)	42 (38.5)	109 (100)	
공학계열	115 (14.6)	201 (25.6)	469 (59.7)	785 (100)	
의약계열	24 (10.3)	62 (26.5)	148 (63.2)	234 (100)	
사범계열	14 (33.3)	16 (38.1)	12 (28.6)	42 (100)	
예체능계열	17 (25.8)	32 (48.5)	17 (25.8)	66 (100)	
대학성적별					$\chi^2=24.301$, df=4, p=0.000
상위	113 (23.5)	141 (29.3)	227 (47.2)	481 (100)	
중위	200 (15.6)	378 (29.5)	704 (54.9)	1282 (100)	
하위	15 (11.0)	33 (24.3)	88 (64.7)	136 (100)	

한편, <표 III-34>는 대학을 다시 다닌다면 동일한 대학을 재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전공 재선택과 마찬가지로 이 또한 졸업생들의 다닌 대학에 대한 만족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을 다시 다닌다면 동일한 대학을 다시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22.3%에 불과한 반면에 다른 대학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7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대학 졸업생들의 다닌 대학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녀 모두 동일한 대학을 선택하기보다 다른 대학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응답 비율에 있어서는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여자 졸업생들이 남자 졸업생들보다 다른 대학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소재지별로도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졸업생들 모두 다른 대학을 선택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많

았지만, 지방 대학 졸업생들이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보다 다른 대학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계열별로도 전반적으로 동일한 대학을 선택하기보다 다른 대학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많은 가운데 응답 비율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학성적별로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지만 응답 비율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III-34> 대학 재선택

(단위: 명(%))

구 분	동일 대학	다른 대학	전 체	비 고
전 체	424 (22.3)	1475 (77.7)	1899 (100.0)	
성 별				
남 자	327 (25.3)	964 (74.7)	1291 (100)	$\chi^2=20.949$, df=1, p=0.000
여 자	97 (16.0)	511 (84.0)	608 (100)	
대학소재지별				
수도권	237 (33.0)	482 (67.0)	719 (100)	$\chi^2=75.463$, df=1, p=0.000
지 방	187 (15.8)	993 (84.2)	1180 (100)	
전공계열별				
인문계열	54 (24.3)	168 (75.7)	222 (100)	$\chi^2=16.897$, df=6, p=0.010
사회계열	104 (23.6)	337 (76.4)	441 (100)	
자연계열	39 (35.8)	70 (64.2)	109 (100)	
공학계열	159 (20.3)	626 (79.7)	785 (100)	
의약계열	46 (19.7)	188 (80.3)	234 (100)	
사범계열	6 (14.3)	36 (85.7)	42 (100)	
예체능계열	16 (24.2)	50 (75.8)	66 (100)	
대학성적별				
상위	109 (22.7)	372 (77.3)	481 (100)	$\chi^2=0.110$, df=2, p=0.946
중위	286 (22.3)	996 (77.7)	1282 (100)	
하위	29 (21.3)	107 (78.7)	136 (100)	

<표 III-35>는 다른 대학을 선택하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을 선택할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일반대학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7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육대학 12.7%, 기타 5.3% 순이었다. 또한 전문대학과 기능대학을 선택하겠다는 응답도 각각 3.2%와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대학소재지별, 전공계열별, 대학성적별로도

전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 가운데, 대학 유형별 선택 비율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자 졸업생들의 경우에는 남자 대학생들에 비해 다른 일반대학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적은 반면에 교육대학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5> 선택할 대학 유형

(단위: 명(%))

구 분	다른 일반대학	다른 산업대학	교육 대학	전문 대학	기능 대학	방송통신대학	기타	전 체	비 고
전 체	1101 (74.6)	16 (1.1)	188 (12.7)	47 (3.2)	32 (2.2)	13 (0.9)	78 (5.3)	1475 (100)	
성 별									
남 자	759 (78.7)	12 (1.2)	80 (8.3)	31 (3.2)	20 (2.1)	8 (0.8)	54 (5.6)	964 (100)	$\chi^2=50.792,$ df=6, p=0.000
여 자	342 (66.9)	4 (0.8)	108 (21.1)	16 (3.1)	12 (2.3)	5 (1.0)	24 (4.7)	511 (100)	
대학소재지별									
수도권	377 (78.2)	9 (1.9)	46 (9.5)	8 (1.7)	9 (1.9)	3 (0.6)	30 (6.2)	482 (100)	$\chi^2=18.294,$ df=6, p=0.006
지 방	724 (72.9)	7 (0.7)	142 (14.3)	39 (3.9)	23 (2.3)	10 (1.0)	48 (4.8)	993 (100)	
전공계열별									
인문계열	177 (69.6)	2 (1.2)	28 (16.7)	4 (2.4)	5 (3.0)	3 (1.8)	9 (5.4)	168 (100)	$\chi^2=60.329,$ df=36,p=0.007
사회계열	252 (74.8)	2 (0.6)	37 (11.0)	18 (5.3)	10 (3.0)	4 (1.2)	14 (4.2)	337 (100)	
자연계열	48 (68.6)	1 (1.4)	18 (25.7)	2 (2.9)	0 (0)	0 (0)	1 (1.4)	70 (100)	
공학계열	490 (38.3)	9 (1.4)	63 (10.1)	12 (1.9)	12 (1.9)	5 (0.8)	35 (5.6)	626 (100)	
의약계열	128 (68.1)	2 (1.1)	31 (16.5)	11 (5.9)	5 (2.7)	1 (0.5)	10 (5.3)	188 (100)	
사범계열	27 (75.0)	0 (0)	3 (8.3)	0 (0)	0 (0)	0 (0)	6 (16.7)	36 (100)	
예체능계열	39 (78.0)	0 (0)	8 (16.0)	0 (0)	0 (0)	0 (0)	3 (6.0)	50 (100)	
대학성적별									
상위	279 (75.0)	3 (0.8)	53 (14.2)	7 (1.9)	6 (1.6)	2 (0.5)	22 (5.9)	372 (100)	$\chi^2=34.735,$ df=12, p=0.001
중위	752 (75.5)	11 (1.1)	121 (12.1)	27 (2.7)	24 (2.4)	10 (1.0)	51 (5.1)	996 (100)	
하위	70 (65.4)	2 (1.9)	14 (13.1)	13 (12.1)	2 (1.9)	1 (0.9)	5 (4.7)	107 (100)	

다음으로 <표 III-36>은 대학교육이 학문기초능력과 직업능력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그 결과를 보면 대학교육이 학문기초능력의 형성을 위해 도움된 정도는 5점 만점 중에서 평균 3.4점이었다. 반면에 직업능력의 형성을 위해 도움된 정도는 평균 3.0점인 것으로 나타나 대학교육이 직업능력의 형성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직업능력보다는 학문기초능력에 치중한 결과로 보인다.

성별로 반응 차이를 보면, 대학교육이 학문기초능력 형성에 도움된 정도에서는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직업능력 형성에 도움된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대학소재지별로는 학문기초능력 형성에 도움된 정도에서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졸업생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직업능력 형성에 도움된 정도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계열별로는 학문기초능력 형성에 도움된 정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직업능력 형성에 도움된 정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6> 대학교육의 학문기초능력과 직업능력 형성에의 도움도

구 분	학문기초능력 형성에의 도움도			직업능력 형성에의 도움도		
	평균	표준편차	비고	평균	표준편차	비고
전 체	3.4	0.78		3.0	0.88	
성 별						
남 자	3.4	0.79	t=2.780,	3.0	0.87	t=6.572,
여 자	3.4	0.76	df=1, p=0.096	2.9	0.89	df=1, p=0.010
대학소재지별						
수도권	3.5	0.78	t=5.875,	3.0	0.88	t=1.206,
지 방	3.4	0.79	df=1, p=0.015	3.0	0.87	df=1, p=0.272
전공계열별						
인문계열	3.4	0.77		2.7	0.89	
사회계열	3.4	0.81		3.0	0.87	
자연계열	3.5	0.84	F=1.902,	3.3	0.94	F=9.983,
공학계열	3.4	0.77	df=6, p=0.077	3.0	0.83	df=6, p=0.000
의약계열	3.4	0.76		2.9	0.90	
사범계열	3.7	0.89		3.6	1.04	
예체능계열	3.4	0.76		3.1	0.74	

주: 도움도 5=매우 도움, 4=도움, 3=보통, 2=도움 안됨, 1=전혀 도움 안됨

끝으로 우리나라 대학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한 결과, 표에서 보듯이 5점 만점 중에서 평균 2.5점으로 평가하여 대체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대학소재지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 지방 대학 졸업생들이 수도권 대학생들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또한 전공계열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III-37> 대학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구 분	평균	표준편차	비 고
전 체	2.5	0.78	
성 별			
남 자	2.5	0.80	t=2.355,
여 자	2.4	0.73	df=1, p=0.125
대학소재지별			
수도권	2.6	0.80	t=17.575,
지 방	2.4	0.76	df=1, p=0.000
전공계열별			
인문계열	2.4	0.82	
사회계열	2.4	0.77	
자연계열	2.6	0.82	F=3.071,
공학계열	2.5	0.77	df=6, p=0.005
의약계열	2.4	0.75	
사범계열	2.6	0.76	
예체능계열	2.7	0.71	

주: 5=매우 그렇다, 4=그런 편이다, 3=보통이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1=전혀 그렇지 않다

제3절 대학교육에 대한 요구

1. 대학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

<표 III-38>은 대학을 졸업한 청년층들이 향후 대학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관련한 설문 문항은 학문지향과 직업능력 지향을 양극단으로 하여 7단계 척도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평균값이 1에 가까울수록 대학교육이 학문지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내고, 7에 가까울수록 직업능력지향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 결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평균값이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대학을 실제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층들은 향후 대학교육이 학문지향보다는 좀 더 직업능력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대학소재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지방 대학 졸업생들이 수도권 대학 졸업생들보다 더 직업능력을 지향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공계열별로도 전반적으로 학문지향보다는 직업능력을 지향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고 전공계열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현재 직업의 업종별로도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으나 업종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III-38> 대학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

구 분	대학교육이 지향해야할 방향		
	평균	표준편차	비고
전 체	4.5	1.67	
대학소재지별			
수도권	4.3	1.64	t=18.241, df=1, p=0.000
지 방	4.6	1.68	
전공계열별			
인문계열	4.2	1.60	F=2.655, df=6, p=0.140
사회계열	4.6	1.63	
자연계열	4.2	1.59	
공학계열	4.5	1.74	
의약계열	4.5	1.66	
사범계열	4.5	1.44	
예체능계열	4.9	1.62	
업 종 별			
농업 및 임업	4.0	2.00	F=1.316, df=17, p=0.173
어업	·	·	
광업	·	·	
제조업	4.6	1.70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4.5	1.56	
건설업	4.5	1.75	
도매 및 소매업	4.6	1.50	
숙박 및 음식점업	5.6	1.33	
운수업	4.3	1.60	
통신업	4.4	1.57	
금융 및 보험업	4.3	1.56	
부동산 및 임대업	4.0	0.89	
사업 서비스업	4.6	1.7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4.4	1.73	
교육서비스업	4.3	1.6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4	1.5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5.0	1.62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4.6	1.67	
가사 서비스업	6.0	·	
국제 및 외국기관	3.3	1.89	

주: 대학교육이 지향해야할 방향에 대한 평균값은 1점에 가까울수록 학문지향적이고, 7점에 가까울수록 직업능력지향적이어야 함을 나타냄.

2. 대학교육 중 강화해야 할 내용

다음으로 <표 III-39>와 <표 III-40>은 대졸 청년층들을 대상으로 향후 대학교육 중에서 강화해야 할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 결과 대학교육 중에서 향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내용은 실험·실습교육, 현장실습이나 인턴십과 같은 직업현장체험교육, 정보활용교육, 인성교육 등으로 나타났다. 기초교양교육이나 진로상담 및 지도는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는 대학교육 내용 항목에 따라 향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또한 현 직업의 업종별로도 대학교육 내용 항목에 따라 향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서 약간씩 차이를 보였다.

<표 III-39> 대학교육 중 강화해야 할 내용(전공계열별)

구분	전 체	전공계열별							비고
		인문 계열	사회 계열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의학 계열	사범 계열	예체능 계열	
기초교양교육	3.9 (0.85)	4.1 (0.74)	4.0 (0.81)	4.3 (0.81)	3.8 (0.88)	3.9 (0.89)	3.7 (1.00)	3.9 (0.76)	F=7.619, df=6, p=0.000
전공기초교육	4.3 (0.67)	4.3 (0.68)	4.2 (0.69)	4.5 (0.62)	4.4 (0.65)	4.2 (0.70)	4.3 (0.64)	4.4 (0.66)	F=4.817, df=6, p=0.000
전공심화교육	4.3 (0.75)	4.2 (0.74)	4.2 (0.75)	4.4 (0.73)	4.3 (0.74)	4.2 (0.77)	4.6 (0.58)	4.5 (0.66)	F=3.994, df=6, p=0.001
실험·실습교육	4.6 (0.63)	4.5 (0.62)	4.5 (0.65)	4.6 (0.64)	4.6 (0.60)	4.6 (0.65)	4.7 (0.52)	4.6 (0.59)	F=2.517, df=6, p=0.020
직업현장체험 교육	4.5 (0.72)	4.5 (0.64)	4.5 (0.72)	4.5 (0.68)	4.4 (0.76)	4.5 (0.71)	4.7 (0.57)	4.6 (0.61)	F=1.81, df=6, p=0.099
외국어교육	4.3 (0.78)	4.5 (0.68)	4.4 (0.74)	4.4 (0.72)	4.2 (0.84)	4.4 (0.74)	4.1 (0.85)	4.4 (0.66)	F=5.593, df=6, p=0.000
국제화교육	4.3 (0.78)	4.5 (0.68)	4.4 (0.73)	4.2 (0.73)	4.1 (0.82)	4.3 (0.72)	4.1 (0.84)	4.4 (0.68)	F=12.549, df=6, p=0.000
정보활용교육	4.4 (0.70)	4.5 (0.64)	4.5 (0.66)	4.5 (0.63)	4.3 (0.76)	4.5 (0.64)	4.2 (0.65)	4.5 (0.59)	F=4.913, df=6, p=0.000
인성교육	4.4 (0.80)	4.5 (0.72)	4.4 (0.76)	4.6 (0.68)	4.2 (0.83)	4.4 (0.86)	4.3 (0.78)	4.5 (0.71)	F=7.566, df=6, p=0.000
진로상담 및 지도	4.2 (0.80)	4.3 (0.76)	4.2 (0.77)	4.3 (0.80)	4.1 (0.82)	4.3 (0.78)	4.1 (0.69)	4.3 (0.83)	F=3.329, df=6, p=0.003
전체	4.3 (0.41)	4.4 (0.38)	4.3 (0.41)	4.4 (0.38)	4.2 (0.42)	4.3 (0.42)	4.3 (0.33)	4.4 (0.40)	F=7.008, df=6, p=0.000

주: 필요성 5=매우 필요, 4=대체로 필요, 3=보통, 2=대체로 불필요, 1=매우 불필요

<표 III-40> 대학교육 증 강화해야 할 내용(업종별)

구분	전 체	업종별								
		1	4	5	6	7	8	9	10	11
기초교양교육	3.9 (0.86)	4.0 (1.00)	3.8 (0.87)	4.2 (0.69)	4.0 (0.82)	4.0 (0.92)	3.6 (0.88)	3.9 (0.52)	3.9 (0.95)	4.0 (0.80)
전공기초교육	4.3 (0.66)	3.7 (0.16)	4.3 (0.64)	4.6 (0.52)	4.4 (0.64)	4.3 (0.65)	4.1 (0.78)	3.9 (0.59)	4.3 (0.73)	4.4 (0.57)
전공심화교육	4.3 (0.74)	4.3 (1.16)	4.2 (0.76)	4.3 (0.75)	4.4 (0.70)	4.3 (0.80)	4.3 (0.71)	3.9 (0.88)	4.3 (0.66)	4.3 (0.70)
실험·실습교육	4.6 (0.62)	4.7 (0.58)	4.6 (0.61)	4.3 (0.95)	4.6 (0.58)	4.5 (0.63)	4.6 (0.53)	4.1 (0.74)	4.7 (0.50)	4.5 (0.60)
직업현장체험 교육	4.5 (0.73)	3.7 (1.16)	4.4 (0.75)	4.6 (0.65)	4.6 (0.75)	4.5 (0.71)	4.4 (0.53)	4.5 (0.64)	4.5 (0.68)	4.5 (0.72)
외국어교육	4.3 (0.77)	4.0 (1.00)	4.4 (0.74)	4.4 (0.65)	4.1 (0.94)	4.4 (0.74)	4.4 (0.73)	4.7 (0.62)	4.4 (0.63)	4.4 (0.84)
국제화교육	4.3 (0.77)	4.3 (0.58)	4.2 (0.80)	4.4 (0.65)	4.1 (0.82)	4.3 (0.75)	4.0 (0.71)	4.5 (0.52)	4.1 (0.77)	4.4 (0.70)
정보활용교육	4.4 (0.71)	4.3 (0.58)	4.3 (0.78)	4.5 (0.66)	4.3 (0.68)	4.5 (0.65)	4.4 (0.53)	4.5 (0.52)	4.4 (0.65)	4.5 (0.64)
인성교육	4.3 (0.79)	4.7 (0.58)	4.2 (0.82)	4.4 (0.77)	4.3 (0.83)	4.4 (0.74)	4.2 (1.09)	4.1 (0.96)	4.4 (0.71)	4.6 (0.65)
진로상담 및 지도	4.1 (0.81)	4.0 (1.00)	4.0 (0.85)	4.4 (0.77)	4.1 (0.90)	4.1 (0.75)	4.3 (0.50)	4.3 (0.62)	4.3 (0.73)	4.2 (0.80)
전체	4.3 (0.40)	4.2 (0.35)	4.2 (0.41)	4.4 (0.25)	4.3 (0.41)	4.3 (0.39)	4.2 (0.41)	4.2 (0.38)	4.3 (0.35)	4.4 (0.35)

<표 계속>

구분	전 체	업종별										비고
		12	13	14	15	16	17	18	19	20		
기초교양교육	3.9 (0.86)	4.0 (1.10)	3.8 (0.91)	3.9 (0.74)	4.1 (0.79)	3.9 (0.92)	4.0 (0.90)	4.0 (0.85)	4.0 (.)	4.3 (0.82)	p=0.093	
전공기초교육	4.3 (0.66)	4.5 (0.55)	4.2 (0.68)	4.2 (0.64)	4.4 (0.66)	4.4 (0.68)	4.0 (0.82)	4.2 (0.64)	5.0 (.)	4.3 (0.68)	p=0.029	
전공심화교육	4.3 (0.74)	4.7 (0.52)	4.2 (0.77)	4.2 (0.65)	4.3 (0.74)	4.4 (0.75)	4.0 (0.82)	4.2 (0.72)	5.0 (.)	4.3 (0.82)	p=0.155	
실험·실습교육	4.6 (0.62)	4.7 (0.52)	4.6 (0.62)	4.6 (0.53)	4.6 (0.66)	4.5 (0.62)	4.5 (0.64)	4.4 (0.69)	5.0 (.)	4.6 (0.70)	p=0.274	
직업현장체험 교육	4.5 (0.73)	4.2 (0.75)	4.4 (0.81)	4.4 (0.81)	4.5 (0.68)	4.6 (0.61)	4.5 (0.58)	4.4 (0.66)	5.0 (.)	4.4 (0.97)	p=0.515	
외국어교육	4.3 (0.77)	4.3 (0.82)	4.3 (0.80)	4.3 (0.81)	4.3 (0.70)	4.5 (0.62)	4.5 (0.64)	4.2 (0.87)	4.0 (.)	4.7 (0.48)	p=0.044	
국제화교육	4.3 (0.77)	4.5 (0.84)	4.2 (0.84)	4.2 (0.78)	4.3 (0.70)	4.2 (0.73)	4.4 (0.83)	4.2 (0.78)	3.0 (.)	4.8 (0.42)	p=0.141	
정보활용교육	4.4 (0.71)	5.0 (0.00)	4.4 (0.78)	4.5 (0.71)	4.5 (0.66)	4.5 (0.62)	4.5 (0.64)	4.4 (0.78)	3.0 (.)	4.8 (0.42)	p=0.033	
인성교육	4.3 (0.79)	5.0 (0.00)	4.2 (0.88)	4.4 (0.78)	4.5 (0.76)	4.5 (0.69)	4.5 (0.58)	4.3 (0.85)	4.0 (.)	4.7 (0.48)	p=0.003	
진로상담 및 지도	4.1 (0.81)	4.8 (0.41)	4.1 (0.88)	4.1 (0.74)	4.4 (0.73)	4.3 (0.71)	4.2 (0.82)	4.0 (0.84)	5.0 (.)	4.7 (0.81)	p=0.001	
전체	4.3 (0.40)	4.6 (0.24)	4.2 (0.42)	4.3 (0.36)	4.4 (0.39)	4.4 (0.36)	4.3 (0.42)	4.2 (0.43)	4.3 (.)	4.6 (0.38)	p=0.009	

주: 1) 업종별 분류는 1. 농업 및 임업, 2. 어업, 3. 광업, 4. 제조업, 5.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숙박 및 음식점업, 9. 통신업, 10. 금융 및 보험업, 11. 부동산 및 임대업, 13. 사업 서비스업, 1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5. 교육서비스업, 1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7.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8.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20. 국제 및 외국기관.

2) 필요성 5=매우 필요, 4=대체로 필요, 3=보통, 2=대체로 불필요, 1=매우 불필요

3. 직업기초능력의 직업에서 중요도와 괴리 정도

<표 III-41>과 <표 III-42>는 현재 직업생활을 하고 있는 대졸 청년층들을 대상으로 모든 직업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직업기초능력이라고 알려진 능력 요소들에 대한 현재 직업에서의 중요도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는 여러 직업기초능력들 중에서 특히 실제 직업세계에서 중요한 능력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해 봄으로써 향후 대학교육의 개선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각 직업기초능력별 중요도 평균값이 전체 평균값 4.0보다 높은 항목들은 현재 직업에서 비교적 중요도

가 높은 직업기초능력들이라고 판단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직업에서 비교적 중요도가 높은 직업기초능력은 시간관리능력, 성실성, 책임감, 문제해결능력, 정확하고 면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일에 대한 적응능력, 언어구사능력, 분석능력, 융통성, 어떤 제약 하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계획을 세우고 조정하고 조직화하는 능력, 정보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능력 등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현재 직업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직업기초능력은 외국어 능력, 전공분야의 이론적 지식, 전공분야의 분석 방법에 대한 지식, 수작업 능력, 작문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폭넓은 일반적 지식·소양, 여러 전공분야를 포괄하는 사고·지식, 복잡한 사회조직·기술체계를 이해하는 능력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전공계열별로 보면 각 직업기초능력 항목에 따라 현재 직업에서의 중요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41> 참조). 또한 현 직업의 업종별로도 각 직업기초능력 항목에 따라 현재 직업에서의 중요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42> 참조).

<표 III-41> 직업기초능력의 직업에서 중요도(전공계열별)

구분	전체	전공계열별							비고
		인문 계열	사회 계열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의학 계열	사범 계열	예체능 계열	
의사소통능력									
작문 능력	3.7 (0.92)	3.9 (0.94)	3.7 (0.91)	4.0 (0.83)	3.7 (0.91)	3.7 (0.92)	3.0 (1.05)	3.6 (0.84)	p=0.000
언어 구사 능력	4.2 (0.80)	4.3 (0.75)	4.2 (0.81)	4.3 (0.72)	4.1 (0.81)	4.1 (0.81)	4.2 (0.74)	4.3 (0.74)	p=0.022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주장할 수 있는 능력	4.0 (0.85)	4.0 (0.87)	4.0 (0.87)	4.0 (0.95)	4.0 (0.84)	4.1 (0.79)	3.6 (0.96)	4.4 (0.71)	p=0.004
외국어 능력	3.4 (1.18)	3.5 (1.17)	3.4 (1.15)	3.3 (1.34)	3.5 (1.17)	3.4 (1.20)	3.1 (1.24)	3.3 (1.02)	p=0.242
계	3.8 (0.7)	3.9 (0.63)	3.8 (0.66)	4.0 (0.58)	3.8 (0.68)	3.8 (0.64)	3.5 (0.69)	3.9 (0.55)	p=0.011

<표 계속>

구분	전체	전공계열별							비고
		인문 계열	사회 계열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의학 계열	사범 계열	예체능 계열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	4.3 (0.70)	4.3 (0.68)	4.3 (0.71)	4.3 (0.60)	4.3 (0.72)	4.2 (0.69)	4.2 (0.71)	4.2 (0.74)	p=0.716
분석능력	4.2 (0.74)	4.1 (0.74)	4.2 (0.78)	4.2 (0.64)	4.3 (0.75)	4.2 (0.71)	4.0 (0.66)	4.1 (0.721)	p=0.098
창의력	4.0 (0.95)	3.8 (1.02)	3.9 (0.95)	4.1 (0.86)	4.0 (0.95)	4.0 (0.90)	3.4 (0.86)	4.3 (0.79)	p=0.000
비판적 사고 능력	3.7 (0.90)	3.7 (0.94)	3.7 (0.94)	3.8 (0.91)	3.7 (0.89)	3.6 (0.90)	3.3 (0.99)	3.9 (0.75)	p=0.019
경제적 사고 능력	4.0 (0.86)	4.0 (0.86)	4.1 (0.84)	3.9 (0.86)	4.0 (0.87)	3.9 (0.85)	3.8 (0.93)	4.1 (0.81)	p=0.182
융통성	4.2 (0.72)	4.2 (0.71)	4.2 (0.75)	4.2 (0.62)	4.2 (0.74)	4.2 (0.68)	4.0 (0.62)	4.4 (0.63)	p=0.150
계	4.0 (0.57)	4.0 (0.57)	4.0 (0.59)	4.1 (0.46)	4.1 (0.4)	4.0 (0.54)	3.8 (0.51)	4.2 (0.50)	p=0.047
자기 관리 및 개발 능력									
자신의 일에 대한 객관 적 평가능력	3.9 (0.78)	4.0 (0.79)	3.9 (0.77)	4.0 (0.78)	4.0 (0.78)	3.9 (0.78)	3.8 (0.76)	4.3 (0.67)	p=0.018
어떤 제약 하에서도 일 을 할 수 있는 정신력	4.2 (0.78)	4.2 (0.76)	4.2 (0.77)	4.2 (0.79)	4.2 (0.81)	4.2 (0.73)	4.3 (0.65)	4.3 (0.72)	p=0.719
정확하고 면밀하게 일 을 할 수 있는 능력	4.3 (0.72)	4.3 (0.71)	4.3 (0.73)	4.2 (0.62)	4.3 (0.74)	4.3 (0.67)	4.4 (0.64)	4.3 (0.69)	p=0.752
시간 관리 능력	4.4 (0.73)	4.3 (0.70)	4.3 (0.73)	4.4 (0.63)	4.4 (0.75)	4.4 (0.74)	4.1 (0.84)	4.4 (0.75)	p=0.392
일에 대한 적응 능력	4.3 (0.72)	4.4 (0.71)	4.3 (0.71)	4.3 (0.65)	4.3 (0.75)	4.3 (0.68)	4.3 (0.67)	4.4 (0.66)	p=0.743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	4.1 (0.81)	4.1 (0.78)	4.0 (0.83)	4.1 (0.83)	4.1 (0.80)	4.1 (0.78)	3.9 (0.97)	4.1 (0.80)	p=0.523
자발성·자주성	3.9 (0.77)	3.9 (0.80)	3.9 (0.81)	4.0 (0.68)	3.9 (0.76)	4.0 (0.73)	3.7 (0.88)	4.0 (0.74)	p=0.395
일에 몰입하는 능력	4.1 (0.76)	4.2 (0.77)	4.1 (0.79)	4.1 (0.74)	4.1 (0.75)	4.2 (0.74)	4.0 (0.78)	4.3 (0.72)	p=0.314
성실성	4.4 (0.70)	4.5 (0.66)	4.3 (0.72)	4.4 (0.67)	4.3 (0.73)	4.4 (0.66)	4.5 (0.65)	4.4 (0.64)	p=0.221
책임감	4.4 (0.68)	4.5 (0.60)	4.4 (0.71)	4.6 (0.62)	4.4 (0.69)	4.4 (0.65)	4.5 (0.65)	4.5 (0.64)	p=0.080
폭넓은 일반적 지식· 소양	3.7 (0.84)	3.7 (0.87)	3.7 (0.84)	4.0 (0.74)	3.7 (0.84)	3.7 (0.91)	3.9 (0.77)	4.0 (0.66)	p=0.002
여러 전공 분야를 포괄 하는 사고·지식	3.7 (0.88)	3.6 (0.92)	3.7 (0.86)	3.9 (0.89)	3.8 (0.87)	3.7 (0.87)	3.8 (0.95)	3.9 (0.78)	p=0.010
전공 분야의 이론적 지 식	3.4 (1.16)	3.0 (1.21)	3.2 (1.11)	3.9 (1.14)	3.6 (1.12)	3.3 (1.22)	4.5 (0.56)	4.0 (0.89)	p=0.000
전공 분야의 분석 방법 에 대한 지식	3.5 (1.11)	3.0 (1.17)	3.3 (1.06)	3.8 (0.99)	3.6 (1.06)	3.4 (1.18)	4.2 (0.87)	3.8 (0.99)	p=0.000
학습능력	3.9 (0.79)	3.8 (0.85)	3.8 (0.81)	4.0 (0.68)	3.9 (0.78)	3.8 (0.81)	4.0 (0.76)	3.9 (0.68)	p=0.062
계	4.0 (0.51)	4.0 (0.48)	4.0 (0.53)	4.1 (0.39)	4.0 (0.53)	4.0 (0.50)	4.1 (0.45)	4.2 (0.50)	p=0.010

<표 계속>

구분	전체	전공계열별							비고
		인문 계열	사회 계열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의학 계열	사범 계열	예체능 계열	
자원활용능력 계획을 세우고 조정하 고 조직화 하는 능력	4.2 (0.81)	4.2 (0.77)	4.2 (0.85)	4.2 (0.67)	4.3 (0.81)	4.2 (0.70)	3.7 (1.05)	4.3 (0.84)	p=0.005
대인관계능력 협상 능력	4.2 (0.85)	4.1 (0.85)	4.2 (0.84)	4.0 (0.93)	4.2 (0.86)	4.1 (0.76)	3.8 (0.99)	4.2 (0.85)	p=0.051
팀워크 능력	4.3 (0.80)	4.2 (0.82)	4.2 (0.82)	4.1 (0.80)	4.3 (0.79)	4.3 (0.76)	4.0 (0.90)	4.2 (0.80)	p=0.021
다른 의견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능력	4.1 (0.77)	4.2 (0.75)	4.0 (0.81)	4.3 (0.71)	4.1 (0.76)	4.1 (0.74)	4.0 (0.88)	4.1 (0.76)	p=0.047
리더십	4.1 (0.87)	4.0 (0.90)	4.0 (0.90)	4.3 (0.78)	4.1 (0.85)	4.1 (0.86)	3.8 (0.85)	4.2 (0.78)	p=0.028
계	4.1 (0.65)	4.1 (0.64)	4.1 (0.68)	4.2 (0.58)	4.2 (0.66)	4.1 (0.60)	3.9 (0.64)	4.2 (0.65)	p=0.259
정보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4.1 (0.83)	3.9 (0.85)	4.0 (0.81)	4.0 (0.86)	4.2 (0.77)	4.1 (0.85)	3.3 (1.06)	4.0 (1.07)	p=0.000
정보나 아이디어를 수 집하고 정리하는 능력	4.2 (0.78)	4.2 (0.78)	4.2 (0.79)	4.3 (0.67)	4.2 (0.79)	4.2 (0.73)	3.8 (0.86)	4.3 (0.79)	p=0.014
계	4.2 (0.69)	4.1 (0.68)	4.1 (0.69)	4.1 (0.61)	4.2 (0.67)	4.1 (0.66)	3.5 (0.82)	4.2 (0.83)	p=0.000
기술 능력 수작업 능력	3.5 (0.94)	3.3 (0.95)	3.4 (0.90)	3.4 (1.07)	3.5 (0.92)	3.5 (0.95)	4.0 (0.90)	3.9 (0.80)	p=0.000
지식· 기술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능력	4.0 (0.85)	4.0 (0.85)	4.0 (0.87)	4.0 (0.72)	4.0 (0.87)	3.9 (0.83)	4.1 (0.71)	4.1 (0.74)	p=0.471
계	3.7 (0.71)	3.6 (0.73)	3.7 (0.71)	3.7 (0.69)	3.8 (0.71)	4.1 (0.89)	4.0 (0.63)	3.7 (0.71)	p=0.000
조직이해능력 복잡한 사회조직· 기술 체계를 이해하는 능력	3.8 (0.89)	3.8 (0.88)	3.7 (0.87)	3.8 (0.94)	3.8 (0.87)	3.8 (0.87)	3.3 (1.08)	3.8 (1.03)	p=0.019
전 체	4.0 (0.50)	4.0 (0.48)	4.0 (0.5)	4.1 (0.37)	4.0 (0.52)	4.0 (0.47)	4.0 (0.44)	4.1 (0.48)	p=0.125

주: 중요도 5=매우 중요함, 4=중요함, 3=보통, 2=중요하지 않음, 1=전혀 중요하지 않음

<표 III-42> 직업기초능력의 직업에서 중요도(업종별)

구분	전체	업종별									
		1	4	5	6	7	8	9	10	11	
의사소통능력											
작문 능력	3.7 (0.90)	4.3 (0.58)	3.7 (0.87)	3.9 (0.76)	3.6 (0.94)	3.7 (0.99)	3.8 (0.83)	4.1 (0.83)	3.7 (0.83)	3.7 (0.86)	
언어 구사 능력	4.2 (0.76)	4.0 (1.00)	4.2 (0.79)	4.2 (0.60)	4.0 (0.80)	4.3 (0.78)	4.1 (0.60)	4.1 (0.66)	4.1 (0.71)	4.2 (0.74)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주장할 수 있는 능력	4.1 (0.81)	4.0 (1.00)	4.1 (0.82)	4.0 (0.82)	4.1 (0.79)	3.9 (0.83)	4.2 (0.83)	3.9 (0.73)	4.1 (0.81)	4.0 (0.86)	
외국어 능력	3.5 (1.58)	2.7 (0.58)	3.8 (1.10)	3.7 (0.86)	2.9 (1.18)	3.3 (1.28)	2.7 (0.87)	4.1 (0.77)	3.7 (1.06)	3.2 (1.10)	
계	3.86 (0.63)	3.8 (0.43)	3.9 (0.65)	4.0 (0.44)	3.6 (0.68)	3.8 (0.66)	3.7 (0.48)	4.1 (0.57)	3.9 (0.58)	3.8 (0.65)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	4.3 (0.64)	4.0 (1.00)	4.4 (0.62)	4.3 (0.75)	4.3 (0.65)	4.4 (0.60)	4.3 (0.71)	4.4 (0.50)	4.4 (0.63)	4.4 (0.59)	
분석능력	4.3 (0.68)	4.3 (0.58)	4.3 (0.66)	4.2 (0.73)	4.2 (0.71)	4.3 (0.67)	4.3 (1.12)	4.1 (0.77)	4.4 (0.59)	4.3 (0.59)	
창의력	4.0 (0.92)	3.7 (0.58)	4.2 (0.83)	3.9 (0.86)	3.9 (1.03)	3.9 (1.01)	4.2 (0.83)	3.6 (0.84)	3.9 (0.96)	3.9 (1.07)	
비판적 사고 능력	3.7 (0.87)	3.0 (0.00)	3.7 (0.84)	3.7 (0.75)	3.6 (0.89)	3.66 (0.89)	3.7 (1.00)	3.4 (0.94)	3.7 (0.76)	3.6 (0.94)	
경제적 사고 능력	4.0 (0.81)	4.3 (1.16)	4.0 (0.80)	4.2 (0.69)	4.0 (0.81)	4.3 (0.79)	4.2 (1.09)	3.8 (0.43)	4.0 (0.77)	4.4 (0.64)	
융통성	4.2 (0.68)	4.0 (1.00)	4.1 (0.66)	4.2 (0.56)	4.2 (0.65)	4.1 (0.66)	4.3 (0.71)	3.9 (0.54)	4.2 (0.73)	4.3 (0.70)	
계	4.1 (0.51)	3.9 (0.67)	4.1 (0.49)	4.1 (0.60)	4.0 (0.56)	4.1 (0.54)	4.2 (0.69)	3.9 (0.48)	4.1 (0.46)	4.1 (0.49)	
자기 관리 및 개발 능력											
자신의 일에 대한 객관 적 평가능력	4.0 (0.72)	3.7 (0.58)	4.0 (0.74)	4.2 (0.6)	3.9 (0.72)	3.9 (0.78)	4.3 (0.71)	3.9 (0.36)	4.1 (0.63)	4.0 (0.73)	
어떤 제약 하에서도 일 을 할 수 있는 정신력	4.2 (0.73)	4.0 (1.00)	4.2 (0.71)	4.0 (0.82)	4.2 (0.70)	4.3 (0.70)	4.7 (0.71)	4.0 (0.39)	4.3 (0.78)	4.2 (0.73)	
정확하고 면밀하게 일 을 할 수 있는 능력	4.3 (0.68)	4.3 (0.58)	4.3 (0.67)	3.9 (0.99)	4.3 (0.65)	4.4 (0.62)	4.6 (0.53)	4.1 (0.36)	4.3 (0.68)	4.4 (0.62)	
시간 관리 능력	4.4 (0.69)	4.3 (0.58)	4.4 (0.59)	4.2 (0.80)	4.4 (0.70)	4.4 (0.71)	4.4 (0.73)	4.1 (0.36)	4.4 (0.64)	4.5 (0.59)	
일에 대한 적응 능력	4.4 (0.65)	4.3 (0.58)	4.3 (0.68)	4.3 (0.63)	4.4 (0.62)	4.4 (0.70)	4.8 (0.44)	4.1 (0.27)	4.4 (0.61)	4.4 (0.56)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	4.1 (0.78)	4.0 (1.00)	4.1 (0.77)	4.1 (0.76)	4.1 (0.75)	4.0 (0.81)	4.6 (1.01)	3.8 (0.58)	4.3 (0.72)	4.1 (0.79)	
자발성·자주성	3.9 (0.73)	3.3 (0.58)	4.0 (0.70)	3.8 (0.44)	3.9 (0.78)	0.9 (0.78)	4.3 (0.50)	3.7 (0.83)	3.9 (0.70)	4.0 (0.75)	
일에 몰입하는 능력	4.2 (0.72)	3.7 (0.58)	4.2 (0.66)	3.9 (0.64)	4.2 (0.39)	4.1 (0.77)	4.4 (0.73)	4.1 (0.54)	4.2 (0.67)	4.2 (0.75)	
성실성	4.4 (0.66)	4.7 (0.58)	4.3 (0.70)	4.1 (0.86)	4.5 (0.58)	4.4 (0.60)	4.7 (0.50)	4.7 (0.47)	4.4 (0.64)	4.5 (0.63)	
책임감	4.5 (0.63)	4.7 (0.58)	4.4 (0.63)	4.4 (0.51)	4.4 (0.60)	4.5 (0.56)	4.3 (1.00)	4.5 (0.65)	4.5 (0.58)	4.5 (0.57)	

<표 계속>

구분	전체	업종별								
		1	4	5	6	7	8	9	10	11
폭넓은 일반적 지식· 소양	3.8 (0.80)	4.3 (0.58)	3.7 (0.77)	4.1 (0.76)	3.7 (0.77)	3.7 (0.96)	3.6 (1.13)	3.7 (0.61)	3.6 (0.89)	3.8 (0.75)
여러 전공 분야를 포괄 하는 사고·지식	3.8 (0.84)	4.0 (0.00)	3.8 (0.82)	4.1 (0.76)	3.7 (0.90)	3.6 (0.96)	3.8 (0.83)	3.7 (0.73)	3.7 (0.92)	3.8 (0.79)
전공 분야의 이론적 지 식	3.5 (1.15)	4.3 (0.58)	3.6 (1.11)	3.9 (1.07)	3.8 (1.03)	3.1 (1.08)	3.2 (0.30)	3.0 (0.88)	3.3 (1.14)	3.0 (0.16)
전공 분야의 분석 방법 에 대한 지식	3.5 (1.10)	3.7 (0.58)	3.7 (1.04)	3.8 (0.93)	3.9 (1.02)	3.2 (1.08)	2.9 (1.27)	2.9 (0.95)	3.6 (1.02)	3.2 (1.14)
학습능력	3.9 (0.75)	4.0 (0.00)	3.8 (0.75)	4.0 (0.91)	3.9 (0.73)	3.7 (0.73)	3.8 (1.20)	3.9 (0.62)	4.1 (0.72)	3.9 (0.73)
계	4.0 (0.46)	4.1 (0.41)	4.1 (0.46)	4.0 (0.51)	4.1 (0.48)	4.0 (0.45)	4.2 (0.52)	3.9 (0.23)	4.1 (0.43)	4.0 (0.42)
자원활용능력										
계획을 세우고 조정하 고 조직화 하는 능력	4.3 (0.78)	4.3 (1.6)	4.3 (0.71)	4.5 (0.66)	4.1 (0.84)	4.3 (0.82)	4.6 (0.53)	4.0 (0.68)	4.4 (0.70)	4.3 (0.78)
대인관계능력										
협상 능력	4.2 (0.80)	4.0 (0.00)	4.3 (0.80)	3.9 (0.76)	4.2 (0.79)	4.4 (0.83)	4.6 (0.73)	3.9 (0.73)	4.2 (0.77)	4.3 (0.69)
팀워크 능력	4.3 (0.75)	4.3 (1.16)	4.4 (0.67)	4.3 (0.75)	4.4 (0.66)	4.2 (0.83)	4.3 (0.87)	4.4 (0.50)	4.6 (0.66)	4.3 (0.82)
다른 의견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능력	4.1 (0.72)	4.0 (1.00)	4.0 (0.69)	4.4 (0.65)	4.0 (0.77)	4.1 (0.72)	4.3 (0.71)	4.1 (0.62)	4.1 (0.70)	4.0 (0.75)
리더십	4.1 (0.83)	4.3 (0.58)	4.1 (0.80)	4.2 (0.60)	4.2 (0.82)	4.1 (0.92)	3.9 (0.93)	4.2 (0.58)	4.1 (0.81)	4.1 (0.79)
계	4.2 (0.60)	4.2 (0.63)	4.2 (0.58)	4.2 (0.55)	4.2 (0.63)	4.2 (0.62)	4.3 (0.62)	4.1 (0.35)	4.2 (0.56)	4.1 (0.56)
정보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4.1 (0.78)	4.7 (0.58)	4.2 (0.72)	4.0 (0.58)	4.2 (0.83)	4.1 (0.90)	4.1 (0.78)	4.1 (0.54)	4.2 (0.70)	4.2 (0.71)
정보나 아이디어를 수 집하고 정리하는 능력	4.3 (0.73)	4.3 (0.58)	4.3 (0.68)	4.0 (0.82)	4.1 (0.88)	4.3 (0.71)	4.1 (1.05)	4.1 (0.73)	4.3 (0.68)	4.3 (0.73)
계	4.2 (0.63)	4.5 (0.50)	4.2 (0.58)	4.0 (0.65)	4.1 (0.74)	4.2 (0.69)	4.1 (0.74)	4.1 (0.53)	4.3 (0.57)	4.2 (0.61)
기술 능력										
수작업 능력	3.5 (0.91)	3.7 (0.58)	3.5 (0.87)	3.4 (1.04)	3.7 (0.90)	3.3 (0.90)	3.7 (1.32)	3.4 (0.75)	3.6 (1.09)	3.5 (0.80)
지식·기술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능력	4.0 (0.80)	4.3 (0.58)	4.0 (0.76)	4.1 (0.86)	3.9 (0.86)	3.9 (0.90)	4.0 (1.00)	4.1 (0.83)	4.1 (0.76)	4.1 (0.76)
계	3.8 (0.67)	4.0 (5.0)	3.7 (0.64)	3.7 (0.70)	3.8 (0.70)	3.6 (0.72)	3.8 (1.03)	3.7 (0.54)	3.9 (0.72)	3.8 (0.61)
조직이해능력										
복잡한 사회조직·기술 체계를 이해하는 능력	3.8 (0.87)	4.3 (1.6)	3.9 (0.82)	3.9 (0.76)	3.7 (0.83)	3.8 (0.96)	3.6 (1.42)	3.8 (0.70)	4.0 (0.72)	3.8 (0.93)
전 체	4.0 (0.45)	4.0 (0.49)	4.1 (0.45)	4.0 (0.48)	4.0 (0.51)	4.0 (0.46)	4.1 (0.49)	3.9 (0.30)	4.1 (0.40)	4.0 (0.42)

<표 계속>

구분	전체	업종별								비고
		12	13	14	15	16	17	18	20	
의사소통능력										
작문 능력	3.7 (0.90)	3.7 (1.75)	3.8 (0.86)	3.9 (0.86)	3.8 (0.90)	3.3 (1.11)	3.4 (0.79)	3.9 (0.80)	4.0 (0.82)	p=0.020
언어 구사 능력	4.2 (0.76)	4.7 (0.82)	4.1 (0.74)	4.1 (0.81)	4.4 (0.70)	4.2 (0.83)	4.0 (0.81)	4.2 (0.71)	4.3 (0.82)	p=0.132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주장할 수 있는 능력	4.1 (0.81)	4.2 (1.33)	4.1 (0.77)	4.0 (0.88)	4.2 (0.82)	3.8 (0.97)	4.1 (0.70)	4.0 (0.75)	4.2 (0.79)	p=0.815
외국어 능력	3.5 (1.58)	3.0 (1.67)	3.5 (1.06)	3.3 (0.99)	3.3 (1.22)	3.1 (1.25)	3.7 (1.14)	3.3 (0.99)	4.7 (0.68)	p=0.000
계	3.86 (0.63)	3.9 (1.15)	3.9 (0.56)	3.8 (0.66)	3.9 (0.60)	3.6 (0.69)	3.8 (0.62)	3.8 (0.47)	4.3 (0.48)	p=0.004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	4.3 (0.64)	4.8 (0.41)	4.3 (0.61)	4.2 (0.66)	4.3 (0.66)	4.2 (0.73)	4.3 (0.68)	4.2 (0.69)	4.7 (0.48)	p=0.200
분석능력	4.3 (0.68)	4.5 (0.55)	4.3 (0.65)	4.2 (0.70)	4.2 (0.66)	4.0 (0.73)	4.2 (0.66)	4.2 (0.77)	4.6 (0.52)	p=0.152
창의력	4.0 (0.92)	3.8 (1.48)	4.0 (0.84)	3.8 (0.95)	4.0 (0.90)	3.6 (0.8)	4.2 (0.93)	4.0 (0.85)	4.6 (0.70)	p=0.000
비판적 사고 능력	3.7 (0.87)	3.5 (1.23)	3.7 (0.78)	3.7 (0.94)	3.9 (0.90)	3.4 (0.97)	3.7 (0.81)	3.7 (0.78)	3.7 (1.42)	p=0.401
경제적 사고 능력	4.0 (0.81)	4.5 (0.55)	4.0 (0.80)	3.9 (0.83)	3.9 (0.89)	3.7 (0.93)	4.1 (0.85)	3.9 (0.63)	4.7 (0.48)	p=0.000
융통성	4.2 (0.68)	3.8 (0.47)	4.2 (0.56)	4.1 (0.79)	4.3 (0.68)	4.0 (0.79)	4.1 (0.75)	4.2 (0.63)	4.4 (0.97)	p=0.460
계	4.1 (0.51)	4.2 (0.63)	4.1 (0.46)	4.0 (0.56)	4.1 (0.53)	3.8 (0.50)	4.1 (0.56)	4.0 (4.7)	4.5 (0.37)	p=0.059
자기 관리 및 개발 능력										
자신의 일에 대한 객관적 평가능력	4.0 (0.72)	4.2 (0.75)	3.9 (0.68)	3.8 (0.74)	4.1 (0.75)	3.7 (0.77)	3.8 (0.80)	3.9 (0.59)	4.4 (0.70)	p=0.049
어떤 제약 하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정신력	4.2 (0.73)	4.5 (0.84)	4.2 (0.73)	4.1 (0.80)	4.2 (0.75)	4.3 (0.67)	4.2 (0.74)	4.3 (0.80)	4.8 (0.42)	p=0.507
정확하고 면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4.3 (0.68)	4.5 (0.55)	4.3 (0.61)	4.1 (0.73)	4.3 (0.67)	4.3 (0.74)	4.2 (0.82)	4.4 (0.78)	4.7 (0.48)	p=0.066
시간 관리 능력	4.4 (0.69)	4.5 (0.84)	4.5 (0.65)	4.3 (0.70)	4.4 (0.67)	4.1 (0.80)	4.2 (0.91)	4.3 (0.73)	4.8 (0.42)	p=0.102
일에 대한 적응 능력	4.4 (0.65)	4.3 (1.21)	4.3 (0.62)	4.3 (0.68)	4.4 (0.68)	4.4 (0.69)	4.4 (0.69)	4.4 (0.67)	4.8 (0.42)	p=0.545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4.1 (0.78)	4.3 (0.82)	4.1 (0.74)	4.0 (0.83)	4.1 (0.78)	4.0 (0.90)	4.0 (0.68)	4.0 (0.78)	4.8 (0.42)	p=0.091
자발성·자주성	3.9 (0.73)	3.7 (1.37)	4.0 (0.66)	4.0 (0.76)	4.0 (0.71)	3.6 (0.90)	3.8 (0.70)	3.8 (0.65)	4.0 (0.1.05)	p=0.051
일에 몰입하는 능력	4.2 (0.72)	4.7 (0.82)	4.2 (0.72)	4.1 (0.84)	4.2 (0.75)	4.1 (0.81)	3.8 (0.88)	4.2 (0.65)	4.2 (0.79)	p=0.269
성실성	4.4 (0.66)	4.7 (0.52)	4.4 (0.65)	4.4 (0.67)	4.5 (0.61)	4.4 (0.66)	4.4 (0.69)	4.3 (0.70)	4.7 (0.68)	p=0.070
책임감	4.5 (0.63)	4.7 (0.52)	4.4 (0.61)	4.3 (0.74)	4.6 (0.60)	4.5 (0.70)	4.3 (0.76)	4.3 (0.63)	4.6 (0.70)	p=0.279

<표 계속>

70 대졸 청년층의 대학교육 만족도

구분	전체	업종별								비고
		12	13	14	15	16	17	18	20	
폭넓은 일반적 지식·소양	3.8 (0.80)	4.0 (0.63)	3.7 (0.82)	3.8 (0.70)	4.0 (0.71)	3.8 (0.87)	3.7 (0.81)	3.8 (0.84)	3.6 (0.97)	p=0.101
여러 전공 분야를 포괄하는 사고·지식	3.8 (0.84)	4.0 (0.63)	3.8 (0.78)	3.8 (0.80)	3.9 (0.76)	3.6 (0.97)	3.6 (0.84)	3.8 (0.93)	3.6 (0.70)	p=0.548
전공 분야의 이론적 지식	3.5 (1.15)	3.0 (0.89)	3.4 (1.2)	3.4 (1.18)	3.8 (1.08)	3.8 (1.20)	2.7 (1.10)	3.5 (1.07)	2.9 (1.29)	p=0.000
전공 분야의 분석 방법에 대한 지식	3.5 (1.10)	3.0 (1.10)	3.5 (1.15)	3.5 (1.08)	3.7 (1.11)	3.7 (1.18)	2.7 (1.04)	3.4 (1.03)	3.0 (1.33)	p=0.000
학습능력	3.9 (0.75)	3.8 (0.75)	4.0 (0.63)	3.8 (0.62)	4.1 (0.77)	3.8 (0.81)	3.5 (0.80)	3.9 (0.86)	4.3 (0.95)	p=0.006
계	4.0 (0.46)	4.1 (0.65)	4.0 (0.43)	4.0 (0.50)	4.1 (0.46)	4.0 (0.46)	3.8 (0.44)	4.0 (0.50)	4.2 (0.40)	p=0.126
자원활용능력										
계획을 세우고 조정하고 조직화 하는 능력	4.3 (0.78)	4.7 (0.52)	4.4 (0.67)	4.1 (0.78)	4.2 (0.76)	3.7 (1.07)	4.2 (0.97)	4.1 (0.87)	4.7 (0.8)	p=0.000
대인관계능력										
협상 능력	4.2 (0.80)	4.5 (0.84)	4.3 (0.77)	4.0 (0.88)	4.1 (0.82)	4.0 (0.95)	4.3 (0.66)	4.2 (0.85)	4.7 (0.48)	p=0.031
팀워크 능력	4.3 (0.75)	4.5 (0.84)	4.5 (0.59)	4.2 (0.75)	4.1 (0.82)	3.9 (1.10)	4.30 (0.78)	4.3 (0.80)	4.7 (0.8)	p=0.000
다른 의견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능력	4.1 (0.72)	4.0 (1.10)	4.1 (0.61)	4.2 (0.67)	4.2 (0.74)	3.9 (0.94)	3.9 (0.83)	4.1 (0.71)	3.9 (1.10)	p=0.089
리더십	4.1 (0.83)	3.8 (1.47)	4.1 (0.78)	4.0 (0.94)	4.2 (0.85)	3.7 (1.02)	4.2 (0.83)	4.0 (0.79)	4.2 (0.92)	p=0.291
계	4.2 (0.60)	4.2 (1.03)	4.2 (0.52)	4.1 (0.66)	4.2 (0.61)	3.9 (0.75)	4.2 (0.60)	4.1 (0.65)	4.4 (0.58)	p=0.443
정보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4.1 (0.78)	4.2 (0.41)	4.3 (0.73)	4.2 (0.67)	4.0 (0.78)	3.6 (1.02)	4.1 (0.89)	4.0 (0.88)	4.5 (0.71)	p=0.000
정보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능력	4.3 (0.73)	4.8 (0.41)	4.3 (0.69)	4.3 (0.77)	4.3 (0.72)	4.0 (0.76)	4.3 (0.96)	4.3 (0.71)	4.7 (0.48)	p=0.228
계	4.2 (0.63)	4.5 (0.32)	4.3 (0.58)	4.2 (0.58)	4.1 (0.62)	3.8 (0.77)	4.2 (0.82)	4.1 (0.66)	4.6 (0.46)	p=0.004
기술 능력										
수작업 능력	3.5 (0.91)	3.2 (1.17)	3.4 (0.84)	3.4 (0.89)	3.5 (0.96)	3.7 (1.05)	3.2 (0.92)	3.6 (0.92)	3.5 (0.85)	p=0.253
지식·기술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능력	4.0 (0.80)	4.2 (0.98)	4.1 (0.72)	4.0 (0.86)	4.1 (0.76)	3.9 (0.87)	3.8 (1.12)	4.1 (0.80)	4.6 (0.70)	p=0.381
계	3.8 (0.67)	3.7 (0.88)	3.7 (0.56)	3.7 (0.71)	3.8 (0.68)	3.8 (0.72)	3.5 (0.77)	3.8 (0.69)	4.1 (0.64)	p=0.406
조직이해능력										
복잡한 사회조직·기술체계를 이해하는 능력	3.8 (0.87)	4.0 (0.63)	4.0 (0.78)	3.8 (0.85)	3.7 (0.87)	3.5 (1.07)	3.4 (0.89)	3.8 (0.90)	4.5 (0.71)	p=0.005
전 체	4.0 (0.45)	4.1 (0.65)	4.1 (0.40)	4.0 (0.49)	4.1 (0.45)	3.9 (0.46)	3.9 (0.47)	4.0 (0.44)	4.3 (0.35)	p=0.270

주: 1) 업종별 분류는 1. 농업 및 임업, 2. 어업, 3.광업, 4. 제조업, 5.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숙박 및 음식점업, 9. 통신업, 10. 금융 및 보험업, 11. 부동산 및 임대업, 13. 사업 서비스업, 1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5. 교육서비스업, 1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7.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8.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20. 국제 및 외국기관.

2) 중요도 5=매우 중요함, 4=중요함, 3=보통, 2=중요하지 않음, 1=전혀 중요하지 않음

한편, <표 III-43>은 직업기초능력의 직업에서 중요도와 대학 졸업 당시 수준 간의 괴리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직업기초능력의 괴리 정도가 5점 중에 평균 0.6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특히 괴리 정도가 전체 평균보다 큰 항목은 시간 관리 능력, 협상 능력, 계획을 세우고 조정하고 조직화 하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경제적 사고 능력, 정확하고 면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언어 구사 능력, 분석 능력, 창의력, 팀워크 능력, 리더십, 정보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능력, 지식·기술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능력, 복잡한 사회조직·기술체계를 이해하는 능력 등이므로 나타났다.

이 능력들은 직업에서 중요하지만 대학 재학 중에 대학에서 교육 활동이나 자기 스스로의 학습 활동 등을 통해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능력들이 향후 대학교육의 개선과 관련하여 요구도가 높은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I-43> 직업기초능력의 괴리 정도

구분	직업기초능력의 직업에서 중요도	대학 졸업 당시 직업기초능력 수준	직업기초능력의 괴리 정도
의사소통능력			
작문 능력	3.7 (0.92)	3.3 (0.79)	0.4 (1.05)
언어 구사 능력	4.2 (0.80)	3.4 (0.81)	0.8* (1.05)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주장할 수 있는 능력	4.0 (0.85)	3.4 (0.86)	0.6 (1.17)
외국어 능력	3.4 (1.18)	2.8 (0.82)	0.6 (1.28)
계	3.8 (0.7)	3.2 (0.61)	0.6 (0.81)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	4.3 (0.70)	3.4 (0.71)	0.9* (0.88)
분석능력	4.2 (0.74)	3.4 (0.73)	0.8* (0.94)
창의력	4.0 (0.95)	3.2 (0.81)	0.8* (1.16)
비판적 사고 능력	3.7 (0.90)	3.4 (0.80)	0.3 (1.15)

<표 계속>

구분	직업기초능력의 직업에서 중요도	대학 졸업 당시 직업기초능력 수준	직업기초능력의 괴리 정도
경제적 사고 능력	4.0 (0.86)	3.1 (0.87)	0.9* (0.19)
융통성	4.2 (0.72)	3.5 (0.77)	0.7* (0.95)
계	4.0 (0.57)	3.3 (0.55)	0.7 (0.71)
자기 관리 및 개발 능력			
자신의 일에 대한 객관 적 평가능력	3.9 (0.78)	3.3 (0.73)	0.6 (0.98)
어떤 제약 하에서도 일 을 할 수 있는 정신력	4.2 (0.78)	3.5 (0.90)	0.7* (1.06)
정확하고 면밀하게 일 을 할 수 있는 능력	4.3 (0.72)	3.4 (0.80)	0.9* (0.96)
시간 관리 능력	4.4 (0.73)	3.30 (0.87)	1.1* (1.08)
일에 대한 적응 능력	4.3 (0.72)	3.6 (0.83)	0.7* (0.96)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	4.1 (0.81)	3.4 (0.82)	0.7* (1.08)
자발성·자주성	3.9 (0.77)	3.4 (0.76)	0.5 (0.98)
일에 몰입하는 능력	4.1 (0.76)	3.6 (0.79)	0.5 (0.99)
성실성	4.4 (0.70)	3.9 (0.82)	0.5 (0.95)
책임감	4.4 (0.68)	3.9 (0.81)	0.5 (0.91)
폭넓은 일반적 지식· 소양	3.7 (0.84)	3.2 (0.74)	0.5 (1.03)
여러 전공 분야를 포괄 하는 사고·지식	3.7 (0.88)	3.1 (0.76)	0.6 (1.03)
전공 분야의 이론적 지식	3.4 (1.16)	3.4 (0.74)	0.0 (1.21)
전공 분야의 분석 방법 에 대한 지식	3.5 (1.11)	3.3 (0.78)	0.2 (1.17)
학습능력	3.9 (0.79)	3.6 (0.69)	0.3 (0.95)
계	4.0 (0.51)	3.5 (0.52)	0.5 (0.61)

<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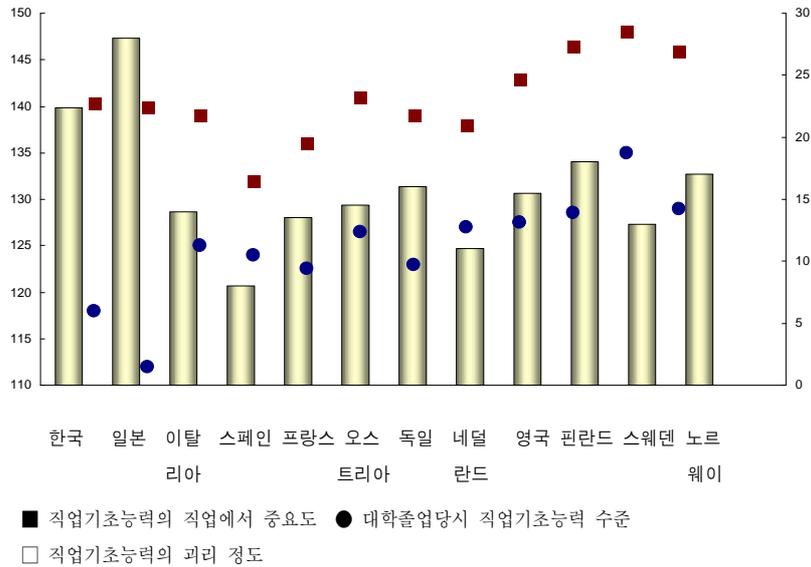
구분	직업기초능력의 직업에서 중요도	대학 졸업 당시 직업기초능력 수준	직업기초능력의 괴리 정도
자원활용능력 계획을 세우고 조정하 고 조직화 하는 능력	4.2 (0.81)	3.2 (0.86)	1.0* (1.09)
대인관계능력 협상 능력	4.2 (0.85)	3.1 (0.81)	1.1* (1.12)
팀워크 능력 다른 의견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능력	4.3 (0.80) 4.1 (0.77)	3.5 (0.83) 3.6 (0.78)	0.8* (1.03) 0.5 (0.99)
리더십	4.1 (0.87)	3.3 (0.86)	0.8* (1.10)
계	4.1 (0.65)	3.3 (0.65)	0.8* (0.80)
정보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4.1 (0.83)	3.6 (0.87)	0.5 (1.03)
정보나 아이디어를 수 집하고 정리하는 능력	4.2 (0.78)	3.4 (0.83)	0.8* (1.05)
계	4.2 (0.69)	3.5 (0.71)	0.7* (0.86)
기술 능력 수작업 능력	3.5 (0.94)	3.3 (0.83)	0.2 (1.04)
지식·기술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능력	4.0 (0.85)	3.2 (0.792)	0.8* (1.04)
계	3.7 (0.71)	3.2 (0.68)	0.5 (0.83)
조직이해능력 복잡한 사회조직·기술 체계를 이해하는 능력	3.8 (0.89)	3.0 (0.82)	0.8 (1.11)
전 체	4.0 (0.50)	3.4 (0.50)	0.6 (0.61)

주: * 표시한 것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항목을 나타냄.

끝으로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대학 졸업 당시의 수준간의 괴리 정도를 국제비교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림 III-2]와 같다.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대학 졸업 당시의 수준 모두 동일한 35가지 개별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의 총점이다. 먼저 직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경우,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와 영국에서 높게 나타났고, 우리나라는 스

페인이나 프랑스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그밖의 다른 나라들과는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대학 졸업 당시의 직업기초능력의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대학 졸업 당시의 직업기초능력이 낮은 나라는 일본 한 곳 뿐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직업능력과 대학에서 육성되는 능력간의 격차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가장 크다. 국제비교 관점에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확인된다 할 것이다.

[그림 III-2] 직업기초능력의 괴리 정도 국제비교



주: 일본과 유럽 각국의 자료는 調査研究報告書(2001). 『日歐の大學と職業 -高等教育と職業に關する12カ國比較調査結果』, 日本勞働研究機構, No. 143에서 인용한 것임.

특히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조사시점 및 대상의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상황이 보다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상대적인 국제적 위치는 [그림 III-2]에 제시되어 있는 것보다 더 낮은 수준일 가능성이 있다.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대졸 청년층이 실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현재 직업에 이르기까지 적응하는 과정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반성적(反省的)으로 되돌아보게 되는 대학에서의 교육 경험과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 대학교육에 대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이러한 분석 자료가 향후 대학 졸업생들의 고용촉진과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대학교육을 개선하는 데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 장에서는 우선 대학 재학 중의 교육 경험으로 대학 재학 중 여러 활동에 할애한 시간, 계열 또는 학부 입학, 복수전공 또는 다전공 이수, 현장실습 또는 인턴십 경험, 자격증 취득, 해외 교육연수 경험, 그리고 아르바이트 등의 취업 경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것으로 대학의 교육 충실도와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여 대학 졸업 당시 자신의 능력 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대학교육에 대한 요구와 관련하여 향후 대학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대학 교육 중 강화해야 할 내용, 직업에서 중요한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재학 중의 교육 경험으로 취업과 직업생활에 도움 정도가 비교적 높은 것은 해외 교육연수, 현장실습이나 인턴십, 복수전공이나 다전공 이수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이나 학부로 입학하여 대학 과정을 이수한 것은 취업과 직업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적인 대학의 교육 충실도는 5점 만점 중에 평균 3.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교육 충실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교육 활동은 수업 출석, 이론이나 개념에 대한 학습, 전공분야나 과목을 선택할 자유, 자기주도학습,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학습이나 문제해결학습 등이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대학의 교육 충실도가 낮게 나타난 교육 활동은 재학 중의 일 체험과 수업

시간외 교수와 학생간의 커뮤니케이션, 졸업논문이나 졸업과제물의 작성, 의사소통능력의 습득 등이었다.

셋째, 전체적인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 중에 평균 3.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항목은 학교 친구와의 접촉 기회, 도서관 시설 및 장서 보유, 전공 수업 내용, 수업의 질, 전공분야나 과목을 선택할 자유 등이었다. 반면에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항목은 일 체험 기회의 제공,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 수업시간 이외에 교수와 접촉할 기회, 대학의 의사결정에 대한 학생의 참여 기회, 졸업논문이나 과제물·시험에 대한 교수의 지도 조언, 수업에서 실용적 내용의 중시 등이었다.

국제비교 관점에서 볼 경우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만족도는 비교대상 국가 중 중간수준에 해당된다. 영국이나 네덜란드에 비해 크게 낮고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의 만족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독일이나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중부 유럽국가나 일본에 비해 다소 높고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국가에 비해서는 크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발견은 조사 시점과 조사 대상의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상대적 수준이 과대평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학 졸업 당시 대졸 청년층들의 전체적인 직업기초능력 수준은 5점 만점 중에 평균 3.4점이었다. 비교적 높게 나타난 직업기초능력들은 성실성, 책임감, 일에 대한 적응 능력, 일에 몰입하는 능력, 학습능력, 다른 의견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융통성, 어떤 제약 하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팀워크 능력 등이었다. 반면에 외국어능력과 복잡한 사회조직·기술체계를 이해하는 능력, 경제적 사고능력, 창의력, 폭넓은 일반적 지식·소양, 계획을 세우고 조정하고 조직화하는 능력, 지식·기술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능력 등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대학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서 대학을 다시 다닌다면 동일한 전공과 대학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다른 전공과 대학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현저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 졸업생들의 대학 재학 중 전공과 다

닌 대학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대학교육에 대한 요구와 관련하여 대졸 청년층들은 향후 대학교육이 학문지향보다는 좀 더 직업능력을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대학교육 중에서 향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내용은 실험·실습교육, 현장실습이나 인턴십과 같은 직업현장체험교육, 정보활용교육, 인성교육 등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초교양교육이나 진로상담 및 지도는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직업에서 비교적 중요도가 높은 직업기초능력은 시간관리능력, 성실성, 책임감, 문제해결능력, 정확하고 면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일에 대한 적응능력, 언어구사능력, 분석능력, 융통성, 어떤 제약 하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계획을 세우고 조정하고 조직화하는 능력, 정보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능력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직업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직업기초능력은 외국어 능력, 전공분야의 이론적 지식, 전공분야의 분석 방법에 대한 지식, 수작업 능력, 작문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폭넓은 일반적 지식·소양, 여러 전공분야를 포괄하는 사고·지식, 복잡한 사회조직·기술체계를 이해하는 능력 등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직업기초능력의 직업에서 중요도와 대학 졸업 당시 수준 간의 괴리 정도는 전체적으로 5점 중에 평균 0.6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특히 괴리 정도가 전체 평균보다 큰 항목은 시간 관리 능력, 협상 능력, 계획을 세우고 조정하고 조직화 하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경제적 사고 능력, 정확하고 면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언어 구사 능력, 분석 능력, 창의력, 팀워크 능력, 리더십, 정보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능력, 지식·기술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능력, 복잡한 사회조직·기술체계를 이해하는 능력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능력들은 직업에서 중요하지만 대학 재학 중에 대학에서 교육 활동이나 자기 스스로의 학습 활동 등을 통해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대학 졸업 당시의 수준간의 괴리 정도를 국제 비교 관점에서 살펴보면, 직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우리나라의 경우 스페인이나 프랑스보다는 높지만 북유럽국가들과 영국보다는 크게 낮고 그밖의 다른 나라들과는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대학 졸업 당시 직업기초능력의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일본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직업능력과 대학에서 육성되는 능력간의 격차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가장 크다. 국제비교 관점에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확인된다 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은 향후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능력과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학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무엇보다 대학교육이 직업능력을 육성하는 보다 실용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대학의 교육 충실도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교육 활동, 현 직업에서 중요도가 높지만 실제 대학 졸업생들이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직업기초능력, 그리고 대학교육 중에서 향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교육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 4 장 대학교육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지체나 청년실업 문제를 초래하는 주된 원인의 하나로 흔히 부적절한 대학교육이 거론된다. 대학교육의 현장적합성이 떨어지거나 재학생의 취업능력(employability) 제고를 위한 대학측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다수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보편적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내부로 조금만 들어가면 상황은 달라진다. 특정한 대학교육의 내용이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 교육의 개혁이 구체성을 갖기 힘든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 졸업생의 취업능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실증적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대학교육의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어려웠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장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있다. 대학교육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이를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와 연관지어 분석해 봄으로써, 대학교육의 개혁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 마련의 단초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장에서는 3장에서 분석된 대학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예를 들어 대학의 특성이나 재학생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대학교육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받은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별개일 수도 있는 대학생의 취업능력이나 취업을 위한 노력이

실제 대졸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성과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지표가 활용된다. 흔히 사용되는 취업여부와 더불어, 취업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정규직으로의 취업 여부, 하향취업 여부, 전공취업 여부 및 취업자의 임금 수준 등을 동시에 고려할 것이다.

먼저 1절에서는 대학의 어떤 특성이나 노력이 졸업생의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을 촉진하는지, 또 졸업생의 취업능력이나 취업을 위한 노력이 정규직 취업과 어떻게 관련되지를 분석한다. 2절에서는 어떤 요인들이 졸업생의 하향취업이나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과 연결되는지 분석한다. 3절에서는 유사한 분석을 전공취업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것이다. 4절에서는 대졸 취업자의 임금수준을 대학과 졸업생의 특성 및 취업을 위한 노력과 연관지어 분석한다. 마지막 6절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모색해본다.

제1절 정규직으로의 취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고용형태를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으로 구분하였는데, 상용직 임금근로자나 종업원을 둔 고용주,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비상용직 임금근로자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간주하였다. 이렇게 구분할 경우 미취업자는 13.1%⁵⁾, 정규직 취업자는 79.7%, 비정규직 취업자는 7.3%로 나타났다.⁶⁾

5) 여기에서의 미취업자는 통상적인 통계상의 실업자와 실망노동자(구직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의 합계로 정의될 수 있다. 미취업자의 계산시 지난 1주일 동안 구직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사람들이 모두 제외된 것은 아니며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직장에 취업할 기회가 생긴다면 취업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제시된 13.1%의 수치는 통상적인 청년실업률의 2배 정도에 달하는 것이지만, 체감상의 청년실업 정도와 더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성별로 취업여부와 취업자중 정규직, 비정규직 구성 비율을 보면, 여자 졸업생의 경우 남자 졸업생보다 미취업자와 비정규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남자 졸업생의 경우 89.4%가 취업해 있으며, 83.9%가 정규직에 취업해 있는 반면, 여자 졸업생의 경우 그 비율이 각각 81.8%와 70.6%로 나타났다.

<표 IV-1> 성별 정규직 취업 여부

(단위: 명(%))

	정규직	비정규직	미취업	계
남	920(83.9)	60(5.5)	116(10.6)	1096(100.0)
여	368(70.6)	58(11.2)	95(18.2)	521(100.0)

대학특성에 따른 정규직 취업자와 비정규직 취업자의 비율은 <표 IV-2>에 제시되어 있다.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미취업률(또는 실업률)이 낮고 정규직 취업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정규직 취업 비율은 83.5%로 지방대학 졸업생의 75.1%에 비해 크게 높다. 대학교육에 만족할수록⁷⁾ 미취업자의 비율이 줄어들며 정규직 취업비율이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나며, 마찬가지로 대학교육이 직업능력의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졸업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졸업생에 비해 취업률이 크게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계열 또는 학부입학제도나 복수전공제, 인턴십제도 등의 취업률 제고나 취업의 질 제고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학졸업생의 취업능력제고를 위해 도입된 이들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 6) 취업자 중 정규직의 비중이 91.6%로 나타났는데, 비정규직의 비율이 50%를 넘어섰다는 일부의 지적을 감안할 때, 다소 높은 수치로 보인다. 그러나 2003년 2월 졸업생을 대상으로 2년뒤에 실시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전문대·대학교 졸업생의 경제활동상태 추적조사' 결과, 정규직 취업자 비율이 82.4%로 나타났다는 점과 우리의 조사 대상 대졸자의 경우 졸업이후 4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다는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취업능력이 높은 남자와 수도권대학 졸업생이 모집단보다 다소 많이 조사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여기에서 제시된 정규직 취업 비율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 7) 여기에서 대학교육 만족도는 교과과정의 체계성, 전공 수업 내용 등 18개 항목에 대한 5점척도로 된 만족도의 평균값으로 파악하였는데, 평균값이 4이상인 경우를 만족하는 것으로 4미만인 경우는 보통이거나 불만족인 경우로 간주하였다.

<표 IV-2> 대학특성과 정규직 취업 여부

(단위: 명(%))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미취업	계
수도권여부	수도권	734(83.5)	47(5.4)	98(11.1)	879(100.0)
	비수도권	554(75.1)	71(9.6)	113(15.3)	738(100.0)
대학교육 만족도	만족함	87(82.9)	10(9.5)	8(7.6)	105(100.0)
	보통 이하	1201(79.5)	108(7.1)	202(13.4)	1511(100.0)
직업능력 형성여부	도움됨 보통 이하	355(80.5)	46(10.4)	40(9.1)	441(100.0)
<td>933(79.3)</td> <td>72(6.1)</td> <td>171(14.6)</td> <td>1176(100.0)</td>	933(79.3)	72(6.1)	171(14.6)	1176(100.0)	
학부입학 여부	예 아니오	405(76.0)	40(7.5)	88(16.5)	533(100.0)
	883(81.5)	78(7.2)	123(11.3)	1084(100.0)	
복수전공 여부	예 아니오	176(73.9)	25(10.5)	37(15.6)	238(100.0)
	1112(80.6)	93(6.8)	174(12.6)	1379(100.0)	
인턴십 여부	예 아니오	409(79.1)	48(9.3)	60(11.6)	517(100.0)
	879(79.9)	70(6.4)	151(13.7)	1100(100.0)	

전공계열별로 보면, 예체능계열 졸업생의 미취업률이 가장 높아 무려 2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사회계열의 미취업률도 15%에 달한다. 의약계열의 경우 미취업률이 5%로 가장 낮고 공학계열과 교육계열도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규직 비율은 이공계열이나 의약계열, 사회계열의 경우 다른 계열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다.

<표 IV-3> 전공특성과 정규직 취업 여부

(단위: 명(%))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미취업	계
인문계열	131(69.4)	29(15.3)	29(15.3)	189(100.0)
사회계열	295(79.5)	20(5.4)	56(15.1)	371(100.0)
교육계열	68(76.4)	11(12.4)	10(11.2)	89(100.0)
공학계열	585(86.0)	25(3.7)	70(10.3)	680(100.0)
자연계열	140(72.9)	22(11.5)	30(15.6)	192(100.0)
의약계열	32(82.1)	5(12.8)	2(5.1)	39(100.0)
예체능계열	37(64.9)	6(10.5)	17(24.6)	57(100.0)

<표 계속>

<표 IV-4> 졸업생의 능력 또는 노력과 정규직 취업

(단위: 명(%))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미취업	계
수능성적	하위 30%	303(73.2)	38(9.2)	73(17.6)	414(100.0)
	중위 40%	452(78.6)	46(8.0)	76(13.2)	574(100.0)
	상위 30%	365(84.9)	22(5.1)	43(10.0)	430(100.0)
계속교육 경험	없다	1015(81.7)	76(6.1)	152(12.2)	1243(100.0)
	다른 대학	63(76.8)	9(11.0)	10(12.2)	82(100.0)
	대학원	21(71.9)	33(11.3)	49(16.8)	292(100.0)
대학성적	C이하	79(69.9)	11(9.7)	23(20.4)	113(100.0)
	B	886(80.3)	83(7.5)	134(12.2)	1103(100.0)
	A	323(80.5)	24(6.0)	54(13.5)	401(100.0)
자격증 취득여부	예	607(79.1)	61(8.0)	99(12.9)	767(100.0)
	아니오	681(80.1)	57(6.7)	112(13.2)	850(100.0)
해외연수 경험	있다	182(83.9)	16(7.4)	19(8.7)	217(100.0)
	없다	1106(79.0)	102(7.3)	192(13.7)	1400(100.0)
컴퓨터 활용능력	잘 갖추	173(86.1)	5(2.5)	23(11.4)	201(100.0)
	보통 이하	1115(78.7)	113(8.0)	188(13.3)	1416(100.0)
영어능력 (토익)	미응시	520(74.3)	74(10.6)	106(15.1)	700(100.0)
	700 미만	349(79.0)	26(5.9)	67(15.1)	442(27.3)
	700 이상	227(87.3)	8(3.1)	25(9.6)	260(100.0)
	800 미만	192(89.3)	10(4.6)	13(6.1)	215(100.0)
의사소통 능력	잘 갖추	311(78.1)	37(9.3)	50(12.6)	398(100.0)
	보통 이하	976(80.1)	81(6.7)	161(13.2)	1218(100.0)
문제해결 능력	잘 갖추	177(77.6)	18(7.9)	33(14.5)	228(100.0)
	보통 이하	1109(80.0)	100(7.2)	178(12.8)	1387(100.0)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잘 갖추	177(78.3)	23(10.2)	26(11.5)	226(100.0)
	보통 이하	1109(79.8)	95(6.8)	185(13.3)	1389(100.0)
자원활용 능력	잘 갖추	434(79.8)	43(7.9)	67(12.3)	544(100.0)
	보통 이하	854(79.6)	75(7.0)	144(13.4)	1073(100.0)
대인관계 능력	잘 갖추	270(80.1)	24(7.1)	43(12.8)	337(100.0)
	보통 이하	1016(79.5)	94(7.4)	168(13.1)	1278(100.0)
정보능력	잘 갖추	500(78.5)	55(7.9)	95(13.6)	700(100.0)
	보통 이하	738(80.5)	63(6.9)	116(12.6)	917(100.0)
기술능력	잘 갖추	412(80.6)	42(8.2)	57(11.2)	511(100.0)
	보통 이하	876(79.2)	76(6.9)	154(13.9)	1106(100.0)
조직이해 능력	잘 갖추	289(80.3)	24(6.7)	47(13.0)	360(100.0)
	보통 이하	999(79.5)	94(7.5)	164(13.0)	1257(100.0)
직업훈련 경험	있다	98(66.2)	13(8.8)	37(25.0)	148(100.0)
	없다	1190(81.0)	105(7.2)	174(11.8)	1469(100.0)

졸업생의 능력과 관련해서 우선 수능성적에 따른 취업성과의 차이를 보면, 수능성적이 좋을수록 미취업률이 낮아지며 정규직 비율은 높아지는 양상이 확인된다. 2001년 2월 대학 졸업 이후의 추가적인 고등교육 경험이 취업성과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교육 경험이 없는 졸업생과 비교하여 오히려 미취업률이 높거나 정규직 취업 비율이 낮은 편이다. 여기에는 아마도 졸업이후의 구직활동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학원교육의 취업성과가 오히려 부정적으로 나온 측면도 있는데, 이는 졸업후 경과기간이 길지 않다는 앞서 언급한 측면과 더불어, 학부졸업후 취업이 곤란한 졸업생들이 대학원 진학을 택했을 가능성과 교수요원을 희망하는 경우에 단적으로 확인되는 것처럼 대학원 졸업생들의 노동시장이 일정 기간의 비정규직 과정을 거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거나, 또는 다른 요인들이 통제되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다. 대학성적도 취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학점이 C이하인 졸업생에 비해 B이상인 졸업생의 취업성과가 보다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학성적이 B인 졸업생과 A인 졸업생간에는 별다른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자격증 취득의 취업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외연수 경험이 있는 졸업생은 그렇지 않은 졸업생에 비해 미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일정한 취업성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컴퓨터 활용 능력⁸⁾이 우수한 졸업생의 경우 미취업률이 다소 낮아지고 정규직 취업비중은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나, 컴퓨터 활용 능력의 중요성이 새삼 확인된다. 영어 능력의 중요성도 분명히 확인되는데, 토익점수 700점 미만 졸업생에 비해 특히 800점 이상 졸업생의 경우 취업성과가 확연히 좋아진다.

컴퓨터 활용 능력과 영어능력을 제외하고 대학졸업 당시의 직업과 관련된 능력의 수준에 대한 졸업생 스스로의 주관적 평가를 토대로 이를 의사소통능

8) 여기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래밍,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전공 관련 소프트웨어, 인터넷 검색 등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졸업생들의 응답에 대해 점수를 부여(상=5, 중상=4, 중=3, 중하=2, 하=1, 전혀 못함=0)한 후 계산한 5점 만점 대비로 계산한 값이며, 4점 이상일 경우 컴퓨터 활용 능력을 잘 갖춘 것으로 보았고 4점 미만을 보통이하로 간주하였다.

력⁹⁾, 문제해결능력, 자기 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¹⁰⁾,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의 8개로 범주화하고 이들 능력의 취업효과를 살펴보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체로 이들 능력이 좋을수록 미취업자의 비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그러나 정규직 비율을 보면 일관된 경향을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대학 졸업후 미취업 상태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졸업생과 그렇지 않은 졸업생간의 취업 성과를 비교해보면, 직업훈련 경험자의 미취업률이 오히려 높고 정규직 취업비율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미취업 상태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업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직업훈련이수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간의 이런 취업능력의 격차가 크게 좁혀지지 못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4년제 대학 졸업생이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거나 정규직에 취업하는 것 또는 비정규직에 취업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3가지 다항로짓모형을 추정해보았다.

먼저 식 (1)에는 성더미 및 연령과 같은 노동시장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인적 특성과 더불어 대학 특성을 주된 설명변수로 고려하였다. 대학 특성을 나타내는 설명변수로는 우선 대학의 소재지가 수도권 또는 지방인지의 여부(수도권대학=1, 지방대학=0), '대학교육이 직업능력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졸업생의 응답(보통이거나 도움이 되지 않다는 응답=0,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1)¹¹⁾과 더불어 졸업생의 취업률

9) 이 장에서의 의사소통능력에는 앞장의 분석에서와 달리 외국어 능력이 배제된 것이다. 외국어 능력은 입사시 특히 중요시되는 측면도 있고 토익점수라는 객관적 지표가 있는 만큼 별도로 독립시켜 분석을 진행한다.

10) 이 장에서의 정보능력에는 앞장에서의 분석과 달리 컴퓨터 활용 능력이 배제된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컴퓨터 스킬이 중요하고 컴퓨터 스킬을 보다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별도의 문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컴퓨터 활용 능력을 별도로 독립시켜 분석을 진행한다.

11) 이 변수 대신 대학교육 만족도를 포함한 분석도 이루어졌는데,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일반적인 대학교육 만족도보다는 대학이 직업능력 형성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취업 성과에 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 또 취업지향적인 대학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본문에는 후자를 설명변수로 포함시킨 경우만 보고한다. 대학교육 만족도를 포함시킨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부표에 제시한다.

제고를 염두에 두고 실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제도와 프로그램(계열 또는 학부입학제, 복수전공제, 인턴십 등)의 실시 여부가 포함되었다.

식 (2)에는 식 (1)의 설명변수와 더불어 대학에서의 전공을 7개 대분류로 나누어 설명변수로 고려하였다(기준=인문계열).

끝으로 식 (3)에는 식 (2)에서 고려된 설명변수와 더불어, 졸업생의 취업능력이나 취업을 위한 노력과 관련되는 변수들이 추가되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설명변수로는 2001년 2월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후 다른 대학에 편입학하였거나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2001년 2월 졸업 후 추가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갖지 않은 경우가 기준), 대학성적(대학평균학점이 C이하인 경우가 기준), 자격증 취득여부 및 해외연수 경험, 스스로 평가한 대학 졸업 시점의 컴퓨터 활용 능력(보통이하의 능력을 갖춘 경우를 기준으로 이 능력을 잘 갖춘 경우가 1)과 토익점수(토익점수 700점 미만을 기준으로 미응시와 700점 이상 800점 미만, 800점 이상의 3개 범주로 구분), 그밖에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이들 능력 모두 보통이하의 능력을 갖춘 경우를 기준으로 이들 능력을 잘 갖춘 경우가 1) 등 직업기초능력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고려된다. 또 졸업 후 미취업 상태에서의 직업훈련 이수 경험(미경험이 기준)도 설명변수로 포함되었다. 한편, 이러한 취업능력을 나타내는 변수만으로 통제되기 힘든 개개인의 능력의 차이는 수능점수(연속변수)를 설명변수로 고려하여 통제한다.

이들 설명변수에 대한 정의와 기초통계의 추정 결과는 <표 IV-5>에 제시되어 있다. 남자의 비율이 68%로 모집단에 비해 다소 많은 편이다. 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비율 역시 54%로 모집단에 비해 많다. 대학교육 만족도는 56.04점으로 총점(90점) 대비로 약 60% 수준이다. 예상했던 대로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별로 높지 못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대학교육이 직업능력형성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의 평균값은 5점만점에 3점으로 나타났고, 계열 또는 학부입학제 경험자 비율은 33%, 복수전공제 경험자는 15%, 인턴십 경험자는 33%였다. 계열별 구성을 보면 공학계열이 42%로 가장 많고 사회계열 23%, 인문계열 12%의 수준으로, 모집단에 비해 공학계열이 많은 편이다. 설문

응답한 졸업생의 평균수능점수는 200점 만점에 137.4점이고, 2001년 2월 대학 졸업이후의 계속교육 경험자는 다른 대학이 5%, 대학원이 18%로 나타났다. 대학 평균학점을 보면 A가 25%, B 68%, C이하가 7%였다. 자격증 취득자는 전체의 절반 정도이며, 해외연수 경험자는 13%였고,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우수한 졸업생의 비율은 12% 수준이었다. 토익시험의 경우 미응시자가 43%로 다수였고, 토익성적 700점미만자가 28%, 700점 이상 800점 미만자가 16%, 800점 이상이 13%로 나타났다. 컴퓨터 활용 능력과 영어능력을 제외한 8개의 직업기초능력 중 정보능력과 자원활용능력, 기술능력의 경우 우수한 능력의 소유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 문제해결능력이나 자기관리 및 개발 능력의 경우 우수한 능력의 소유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그리고 졸업 후 미취업 상태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졸업생의 비율은 전체의 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변수의 정의와 기초통계

변수	정의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자면 1; 그렇지 않으면 0;	0.68
대학교재지	수도권 대학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0.54
대학교육 만족도	5점 척도로 구성된 대학교육 만족도 관련 18개 항목을 합산	56.04(10.37)
직업능력	대학교육이 직업능력형성에 도움이 되었는가를 5점 척도로 측정	3.00(0.87)
학부입학	계열입학 또는 학부입학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0.33
복수전공	복수전공을 이수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0.15
인턴십	인턴십 경험있으면 1; 아니면 0	0.33
전공계열	인문계열(기준)	0.12
	사회계열	0.23
	교육계열	0.05
	공학계열	0.42
	자연계열	0.12
	의약계열	0.02
	예체능계열	0.04
수능성적	대학 입학 시 수능점수(200점 만점으로 환산)	137.4(24.08)

<표 계속>

변수	정의	평균(표준편차)
계속교육	계속교육 경험이 없음(기준)	0.77
	다른 대학 경험	0.05
	대학원 경험	0.18
대학성적	졸업 평점이 C이하이면 0;	0.07
	졸업 평점이 B면 1;	0.68
	졸업 평점이 A면 2	0.25
자격증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0.47
해외연수	해외연수 경험이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0.13
컴퓨터 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래밍,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전공관련 소프트웨어, 인터넷 검색의 5개 항목을 5점 만점으로 평균하여 4점 이상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0.12
영어능력	토익에 응시한 적 없음	0.43
	토익성적이 700 미만(기준)	0.28
	토익성적이 700 이상 800 미만	0.16
	토익성적이 800 이상	0.13
의사소통 능력	작문능력, 언어 구사 능력,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5점 만점으로 평균하여 4점 이상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0.25
문제해결 능력	문제해결능력 분석능력 등 6개 관련항목을 5점만점으로 평균하여 4점 이상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0.14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신의 일에 대한 객관적 평가능력 등 16개 관련항목을 5점 만점으로 평균하여 4점 이상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0.14
자원활용 능력	5점 척도로 평가하여 4점 이상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0.34
대인관계 능력	협상능력, 팀워크 능력, 다른 의견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능력, 리더십을 5점 만점으로 평균하여 4점 이상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0.21
정보능력	5점 척도로 평가하여 4점 이상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0.43
기술능력	5점 척도로 평가하여 4점 이상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0.32
조직이해 능력	5점 척도로 평가하여 4점 이상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0.22
직업훈련 경험	졸업후 미취업 상태에서의 직업훈련경험이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0.09

<표 계속>

3가지 다항로짓모형에 대한 추정 결과는 <표 IV-6> ~ <표 IV-8>에 제시되어 있다. 추정 결과로부터 확인되는 몇 가지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졸업생에 비해 남자졸업생의 경우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에 취업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반면(1.4~1.9배 수준), 비정규직에 취업하기보다는 미취업상태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미취업 상태에 남아있기보다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여성의 60% 내외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과 여성간의 안정적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이나 필요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연령이 높을수록 미취업상태에 있기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취업해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연령증대에 따라 직장탐색기술(job search skill)이 좋아지는 한편으로, 유보임금(reservation wage)은 낮아지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간의 차이도 크다. 식(1)과 식(2)에 의할 경우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경우 미취업 상태에 있기보다 정규직에 취업해 있을 가능성이 지방대학 졸업생에 비해 20% 정도 높고,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에 취업해 있을 가능성 역시 50% 정도 높게 나타난다. 반면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경우 지방대학 졸업생에 비해 비정규직에 취업하기보다는 미취업 상태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미취업 상태에 있기보다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지방대학 졸업생의 80%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간의 차이는 졸업생의 취업능력이나 취업을 위한 노력을 나타내는 주요 변수들이 포함되면 다소 약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미취업 상태에 있기보다 정규직에 취업해 있을 가능성이 지방대학 졸업생의 17%,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에 취업할 가능성은 31%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수도권대학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노동시장 성과가 졸업생이 보유하고 있는 취업능력이 우수하거나 성실성이 높기 때문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넷째, 대학교육이 졸업생의 직업능력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취업성도가 좋았다. 이 경우 미취업 상태에 있기보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에 취업해 있을 가능성이 각각 30~40%, 70~80% 정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에 취업해있을 가능성은 오히려 다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직업능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학교육이 직업교육 중심의 실용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용적인 교육은 상대적으로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학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들 학교 출신 졸업생의 경우 실용적인 대학교육을 통해 취업에 도움을 얻기도 하지만, 유보임금 자체도 낮아 상대적으로 기꺼이 비정규직 취업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어찌되었건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직업능력 형성 위주의 대학교육은 취업률 제고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대학졸업생의 취업능력제고를 염두에 두고 도입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제도는 충분히 기능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계열 또는 학부입학제도나 복수전공제, 인턴십 모두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자체가 취업능력 제고와 연관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라 할 것이다. 계열 또는 학부입학제의 경우 노동시장 상황이나 학생들의 적성 등에 부합하게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나, 학과별 교수요원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정원조정이 그렇게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복수전공의 경우에도 학업성취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두 전공 모두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는 형편이다. 인턴십의 경우에도 취업능력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형식화되어 있는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여섯째, 전공계열별로도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인문계열에 비해 사회계열과 공학계열 졸업생의 경우 비정규직에 취업하기보다는 미취업 상태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고,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에 취업해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이들 계열 졸업생의 경우 인문계열 졸업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수요가 커서 유보임금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예체능계열 졸업생의 경우 인문계열 졸업생에 비해 정규직에 취업해있기보다는 미취업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정규직취업, 비정규직취업 및 미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로짓분
석결과식(1))

변수	정규직취업/ 미취업		비정규직취업/ 미취업		정규직취업/ 비정규직취업	
	β 값	s.e	β 값	s.e	β 값	s.e
상수항	-6.56 ***	1.67	-12.83 ***	2.50	6.27 ***	2.03
성별	0.03	0.10	-0.59 ***	0.16	0.62 ***	0.14
연령	0.26 ***	0.06	0.37 ***	0.09	-0.11	0.07
수도권	0.20 ***	0.08	-0.21 *	0.12	0.42 ***	0.10
직업능력	0.32 ***	0.09	0.61	0.14	-0.28 **	0.11
학부입학	-0.13	0.08	-0.20	0.12	0.07	0.11
복수전공	-0.07	0.10	0.03	0.15	-0.011	0.13
인턴십	0.12	0.09	0.19	0.13	-0.07	0.10
Log likelihood	826.14					

<표 IV-7> 정규직취업, 비정규직취업 및 미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로짓분
석결과식(2))

변수	정규직취업/ 미취업		비정규직취업/ 미취업		정규직취업/ 비정규직취업	
	β 값	s.e	β 값	s.e	β 값	s.e
상수항	-6.55 ***	1.68	-12.67 ***	2.54	6.12 ***	2.08
성별	-0.02	0.11	-0.43 **	0.17	0.40 ***	0.15
연령	0.26 ***	0.16	0.37 ***	0.09	-0.11	0.07
수도권	0.18 **	0.08	-0.21 *	0.12	0.40 ***	0.10
직업능력	0.32 ***	0.09	0.62 ***	0.14	-0.30 ***	0.12
학부입학	-0.14 *	0.08	-0.13	0.13	-0.00	0.11
복수전공	-0.06	0.11	-0.04	0.16	-0.02	0.13
인턴십	0.11	0.09	0.15	0.13	-0.04	0.11
전공계열 인문계열=0						
사회계열	-0.14	0.19	-0.66 **	0.29	0.52 **	0.24
교육계열	-0.03	0.34	0.29	0.44	-0.32	0.33
공학계열	0.14	0.19	-0.65 **	0.29	0.79 ***	0.23
자연계열	-0.06	0.22	0.22	0.30	-0.28	0.23
의약계열	0.90	0.65	0.84	0.75	0.07	0.45
예체능계열	-0.70 **	0.31	-0.55	0.46	-0.15	0.40
Log likelihood	1299.53					

일곱째, 졸업생의 능력과 관련된 변수로 수능성적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¹²⁾, 이는 졸업생의 능력과 관련된 다른 여러 변수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2001년 2월 대학졸업이후의 학부나 대학원 수준의 계속교육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성적을 보면 평균학점이 B인 졸업생이 C이하인 졸업생에 비해 미취업 상태에 있기보다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에 취업해있을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평균학점이 A인 졸업생은 C이하인 졸업생에 비해 취업해있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취업해있다면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으로 취업해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유보임금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자격증 취득이 별다른 취업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격증의 사회적 통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수공이 가는 결과로 생각된다.

또 해외연수 경험의 취업효과 역시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영어능력이 설명변수로 포함되어 있고 후술하듯이 취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전제하면, 영어능력과 연결되지 않는 해외연수는 아무런 취업효과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졸업하고 난 후 취업하기 전에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취업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졸업후 미취업 상태에서 훈련을 받은 졸업생은 그렇지 않은 졸업생에 비해 취업능력이 부족하고 직업훈련이 이러한 취업능력의 격차를 좁히는데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지 못한 때문으로 생각된다.

12)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부호는 기대대로이다. 다시 말해 수능성적이 높을수록 미취업이나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에 취업해 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표 IV-8> 정규직취업, 비정규직취업 및 미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로짓분 석결과(식(3))

변수	정규직취업/ 미취업		비정규직취업/ 미취업		정규직취업/ 비정규직취업	
	β 값	s.e	β 값	s.e	β 값	s.e
상수항	-7.07 ***	1.90	-11.40 ***	2.84	5.33 **	2.34
성별	-0.01	0.12	-0.42 **	0.19	0.32 **	0.16
연령	0.26 ***	0.06	0.36 ***	0.10	-0.10	0.08
수도권	0.16 *	0.09	-0.11	0.14	0.27 **	0.12
직업능력	0.28 ***	0.10	0.51 ***	0.15	-0.23 *	0.13
학부입학	-0.12	0.09	-0.09	0.14	-0.03	0.12
복수전공	-0.05	0.12	-0.10	0.18	0.05	0.15
인턴십	0.10	0.10	0.09	0.15	0.01	0.13
인문계열=0						
사회계열	-0.21	0.21	-0.52 *	0.31	0.31	0.26
교육계열	-0.28	0.35	0.10	0.48	-0.38	0.37
공학계열	0.35 *	0.21	-0.26	0.31	0.61 **	0.26
자연계열	0.22	0.24	0.38	0.33	-0.16	0.26
의약계열	0.88	0.66	0.73	0.78	0.16	0.48
예체능계열	-0.56 *	0.33	-0.68	0.51	0.12	0.45
수능점수	0.00	0.00	-0.00	0.00	0.00	0.00
계속교육 경험없음=0						
다른 대학	-0.11	0.27	0.19	0.35	-0.30	0.28
대학원	-0.28	0.18	0.05	0.25	-0.33	0.21
대학성적 C이하=0						
B	0.29 **	0.13	0.39 **	0.20	-0.11	0.17
A	0.12	0.16	-0.43 *	0.25	0.55 **	0.22
자격증	0.03	0.09	0.15	0.13	-0.11	0.11
해외연수	0.19	0.15	0.26	0.22	-0.07	0.17
컴퓨터 활용 능력	0.12	0.15	-0.29	0.28	0.41 *	0.25
영어능력 700미만=0						
미응시	-0.26 *	0.15	0.35	0.23	-0.61 ***	0.19
700이상 800미만	0.15	0.20	-0.43	0.37	0.58 *	0.32
800이상	0.57 **	0.25	0.19	0.40	0.38	0.33
의사소통능력	0.16	0.13	0.29	0.18	-0.14	0.15
문제해결능력	-0.17	0.16	-0.22	0.25	0.06	0.21
자기관리능력	-0.01	0.16	0.27	0.23	-0.28	0.18
자원활용능력	0.09	0.12	0.11	0.17	-0.02	0.14
대인관계능력	-0.13	0.13	-0.28	0.21	0.15	0.17
정보능력	-0.13	0.10	-0.05	0.15	-0.08	0.13
기술능력	0.21 *	0.12	0.13	0.18	0.08	0.15
조직이해능력	-0.13	0.12	-0.25	0.19	0.12	0.16
직업훈련	-0.43 ***	0.12	-0.22	0.20	-0.21	0.18
Log likelihood	1638.27					

여덟째, 컴퓨터 활용 능력이 높으면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에 취업할 가능성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영어능력 역시 취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토익 미응시자의 경우 토익 응시자에 비해 취업성과가 크게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토익점수가 800점 이상인 경우 700점 미만인 졸업생에 비해 미취업 상태에 있기보다 정규직에 취업해 있을 가능성이 80%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많은 대학생들이 영어공부에 전력하고 있는 상황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컴퓨터 활용 능력과 영어 능력을 제외하고 취업에 유의하게 기능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기술능력, 다시 말해 지식이나 기술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능력 정도이다. 이는 의사소통능력이나 문제해결능력 등 다른 능력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컴퓨터나 영어능력, 기술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이 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된다. 즉, 이들 능력은 심층면접 등을 통하더라도 제한적으로밖에 파악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2절 하향취업

하향취업 여부는 ‘현 일자리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대한 응답을 기초로 구분되었다.¹³⁾ 4년제 대학 졸업생에 대해서는 현 일자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등학교나 전문대학(또는 기능대학) 졸업이면 충분하다고 응답하였거나 기타로 응답한 경우 하향취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대학원에 진학한 경험이 있는 졸업생의 경우 현 일자리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대학원 석사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하향취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13) 이렇게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하여 하향취업을 정의할 경우 그 비율이 과다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직무에 대한 불만을 하향취업으로 응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Hartog, 2000)

이렇게 구분할 경우 전체 취업자의 약 45.7%가 하향취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지나친 고학력화로 인해 4년제 대졸 인력이 자신의 교육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인 것이다. 하향 취업한 4년제 대학 졸업생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 수준만 요구하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그 비율이 21%에 이른다.¹⁴⁾

성별로 보면 여자 졸업생의 미취업 비율이 남자 졸업생에 비해 크게 높다는 점을 제외하고, 하향취업 비율에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용이한 남성의 경우에도 하향취업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표 IV-9> 성별 하향 취업 여부

(단위: 명(%))

	하향취업	비하향취업	미취업	계
남	448(40.9)	532(48.5)	116(10.6)	1096(100.0)
여	194(37.2)	230(44.2)	97(18.6)	521(100.0)

수도권 대학 졸업생과 지방대학 졸업생을 비교할 경우 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하향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경우 전체 졸업생의 35.1%(취업자의 39.6%)가 하향취업 상태에 있는가 하면, 지방대학 졸업생의 경우 그 비율이 45.1%(취업자의 53.4%)에 달한다.

대학교육 만족도가 높을수록 미취업비율이 줄어들고, 하향취업의 가능성도 작아진다. 대학교육에 만족하는 졸업생의 경우 하향취업자의 비율이 전체 취

14) 여기에서 추정된 하향취업의 비율은 기존 연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처럼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한 기존의 국내 연구를 보면, 어수봉(1994) 35.4%, 김주섭(2005) 22.8%로 나타났다. 또 본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채창균·김안국·오호영(2005)에서의 오호영의 논문에 의하더라도 그 비율은 4년제 대학 졸업생의 경우 19.0%로 나타났다. 이는 묻는 문항의 뉘앙스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 평가가 지닌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조사에서 하향취업자의 비율이 기존 연구에 비해 높게 나온 것은 상대적으로 취업능력이 좋다고 볼 수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 일자리에 대해 불만이 높을 수 있는 남자나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비율이 모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 또 대학원 졸업생이 적지 않았다는 점(18.1%) 등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업자의 33.3%에 불과한 반면,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경우 그 비율은 40.2%에 달한다. 대학교육이 직업능력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졸업생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졸업생에 비해 미취업률도 낮고 하향취업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이 직업능력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자의 경우 하향취업자는 전체 졸업생의 34.7%인 반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졸업생의 경우 그 비율이 41.7%이다. 이는 대학교육이 아카데미즘을 지향하는 것보다 직업능력 형성에 주력할 때 졸업생의 취업성고가 더 좋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대학교육의 초점이 보다 실용적인 직업교육 중심으로 변화될 필요성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한편, 계열 또는 학부입학제나 인턴십제도의 경우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복수전공제의 경우 하향취업의 여지를 줄이는 측면이 있으나 미취업률은 높게 나타나, 이들 제도의 성과가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당초 졸업생들의 취업능력 제고를 목표로 추진되었던 이들 제도가 실제 노동시장 성과와 연결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인 셈이다.

<표 IV-10> 대학특성과 하향취업

(단위: 명(%))

구분		하향취업	비하향취업	미취업	계
수도권여부	수도권	309(35.1)	471(53.6)	99(11.3)	879(100.0)
	비수도권	333(45.1)	291(39.4)	114(15.5)	738(100.0)
대학교육 만족도	만족함	35(33.3)	62(59.1)	8(9.6)	105(100.0)
	보통 이하	607(40.2)	700(46.3)	204(13.5)	1511(100.0)
직업능력 형성여부	도움됨	153(34.7)	248(56.2)	40(9.1)	441(100.0)
	보통 이하	489(41.6)	514(43.7)	173(14.7)	1176(100.0)
학부입학 여부	예	223(41.8)	220(41.3)	90(16.9)	533(100.0)
	아니오	419(38.7)	542(50.0)	123(11.3)	1084(100.0)
복수전공 여부	예	73(30.7)	127(53.3)	38(16.0)	238(100.0)
	아니오	569(41.3)	635(46.0)	175(12.7)	1379(100.0)
인턴십 여부	예	220(42.6)	237(45.8)	60(11.6)	517(100.0)
	아니오	422(38.4)	525(47.7)	153(13.9)	1100(100.0)

전공별로 보면 취업자 중 하향취업자의 비율은 예체능계열이나 공학계열, 사회계열에서 높게 나타났고, 교육계열의 경우 하향취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¹⁵⁾

<표 IV-11> 전공특성과 하향취업

(단위: 명(%))

구분	하향취업	비하향취업	미취업	계
인문계열	56(29.6)	102(54.0)	31(16.4)	189(100.0)
사회계열	144(38.8)	171(46.1)	56(15.1)	371(100.0)
교육계열	16(18.0)	63(70.8)	10(11.2)	89(100.0)
공학계열	314(46.2)	296(43.5)	70(10.3)	680(100.0)
자연계열	73(38.0)	89(46.4)	30(15.6)	192(100.0)
의약계열	14(35.9)	23(57.0)	2(5.1)	39(100.0)
예체능계열	25(43.8)	18(31.6)	14(24.6)	57(100.0)

한편, 수능성적이 높을수록 하향취업자의 비율이 줄어드는 양상이 분명히 확인된다. 수능성적이 높을수록 소위 ‘좋은 대학, 좋은 과’를 졸업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간판’이 양질의 취업과 밀접히 연계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계속교육 이수가 하향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유형의 계속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다른 대학에 편입하는 것은 하향취업을 낮추고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오히려 하향취업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진다. 이는 앞서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취업에 어려움을 겪은 졸업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했을 가능성, 다시 말해 대학원 진학자의 취업능력이 학부졸업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대학원을 졸업하고 학부 정도의 교육수준을 요구하는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도 우리

15) 특히 사회계열이나 공학계열의 하향취업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다소 의외라 할 것이며, 그 이유에 대한 보다 깊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추후의 과제로 돌리기로 한다.

의 정의상 하향취업으로 포착되기 때문에 하향취업자의 비율이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다 할 것이다.

또 대학성적이 우수할수록 하향취업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중 하향취업자의 비율은 대학성적 C이하 졸업생의 경우 55.6%(졸업생 대비로는 44.3%)에 달하나, 평균학점이 B인 경우에는 그 비율이 47.6%(졸업생 대비 41.8%)로 낮아지고, 평균학점이 A인 졸업생은 37.6%(졸업생 대비 32.7%)로 낮아진다.

한편, 자격증이 하향취업을 낮추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자격증의 사회적 통용성에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해외연수 경험자의 경우 경험하지 않은 졸업생에 비해 미취업률도 낮아지고 하향취업하는 비율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해외연수가 기업에서 중시하는 영어능력 향상에 일정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 높을수록 미취업률이 떨어지고 하향취업자의 비율도 소폭이나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어능력 역시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 IV-12>에 따르면, 토익점수가 높을수록 미취업률이 높아지고 하향취업자의 비율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등의 직업기초능력을 잘 갖춘 졸업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졸업생에 비해 일관되게 하향취업 비율이 낮아지는 양상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졸업후 미취업 상태에서의 직업훈련이 하향취업을 낮추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졸업 후 미취업 상태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졸업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졸업생에 비해 취업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고, 또 직업훈련이 기대와 달리 취업 능력 제고에 크게 기여를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IV-12> 졸업생의 능력 또는 노력과 하향취업

(단위: 명(%))

구분		하향취업	비하향취업	미취업	계
수능성적	하위 30%	187(45.2)	153(36.9)	74(17.9)	414(100.0)
	중위 40%	235(40.9)	263(45.8)	76(13.3)	574(100.0)
	상위 30%	147(34.2)	239(55.6)	44(10.2)	430(100.0)
계속교육 경험	없다	458(36.9)	632(50.8)	153(12.3)	1243(100.0)
	다른 대학	23(28.1)	48(58.5)	11(13.4)	82(100.0)
	대학원	161(55.1)	82(28.1)	49(16.8)	292(100.0)
대학성적	C이하	50(44.3)	40(35.4)	23(20.3)	113(100.0)
	B	461(41.8)	507(46.0)	135(12.2)	1103(100.0)
	A	131(32.7)	215(53.6)	55(13.7)	401(100.0)
자격증 취득여부	예	315(41.1)	351(45.7)	101(13.2)	767(100.0)
	아니오	327(38.5)	411(48.3)	112(13.2)	850(100.0)
해외연수 경험	있다	77(35.5)	121(55.7)	19(8.8)	217(100.0)
	없다	565(40.4)	641(45.8)	194(13.8)	1400(100.0)
컴퓨터 활용능력	잘 갖춤	78(38.8)	100(49.8)	23(11.4)	201(100.0)
	보통 이하	546(39.8)	662(46.8)	190(13.4)	1416(100.0)
영어능력 (토익)	미응시	273(39.0)	320(45.7)	107(15.3)	700(100.0)
	700 미만	205(46.4)	170(38.4)	67(15.2)	442(100.0)
	700 이상 800 미만	104(40.0)	130(50.0)	26(10.0)	260(100.0)
	800 이상	60(27.9)	142(66.0)	13(6.1)	215(100.0)
의사소통 능력	잘 갖춤	120(30.2)	227(57.0)	51(12.8)	398(100.0)
	보통 이하	522(42.9)	534(43.8)	162(13.3)	1218(100.0)
문제해결 능력	잘 갖춤	69(30.3)	126(55.2)	33(14.5)	228(100.0)
	보통 이하	572(41.2)	635(45.8)	180(13.0)	1387(100.0)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잘 갖춤	72(31.9)	128(56.6)	26(11.5)	226(100.0)
	보통 이하	569(41.0)	633(45.6)	187(13.4)	1389(100.0)
자원활용 능력	잘 갖춤	183(33.6)	293(53.9)	68(12.5)	544(100.0)
	보통 이하	459(42.8)	469(43.7)	145(13.5)	1073(100.0)
대인관계 능력	잘 갖춤	109(32.3)	184(54.6)	44(13.1)	337(100.0)
	보통 이하	532(41.6)	577(45.2)	169(13.2)	1278(100.0)
정보능력	잘 갖춤	255(36.4)	350(50.0)	95(13.6)	700(100.0)
	보통 이하	387(42.2)	412(44.9)	118(12.9)	917(100.0)
기술능력	잘 갖춤	160(31.3)	293(57.3)	58(11.4)	511(100.0)
	보통 이하	482(43.6)	469(42.4)	155(14.0)	1106(100.0)
조직이해 능력	잘 갖춤	120(33.3)	193(53.6)	47(13.1)	360(100.0)
	보통 이하	522(41.5)	569(45.3)	166(13.2)	1257(100.0)
직업훈련 경험	있다	55(37.2)	56(37.8)	37(25.0)	148(100.0)
	없다	587(40.0)	706(48.0)	176(12.0)	1469(100.0)

위에서 언급한 주요 변수들이 다른 조건이 통제된 상태에서 미취업과 하향취업,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으로의 이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지분분석을 시도해본 결과는 <표 IV-13> ~ <표 IV-15>에 제시되어 있다. 주된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성별로는 남자 졸업생이 여자졸업생에 비해 하향취업하기보다는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 남자졸업생의 경우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보다 하향취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여자 졸업생의 84% 수준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미취업보다는 하향취업이나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모두 높아지는데, 특별히 하향취업이 줄어들고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이 늘어나는 양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직장탐색기술(job search skill)이 좋아지는 한편으로, 유보임금(reservation wage)은 낮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경우 지방대학 졸업생에 비해 미취업이나 하향취업보다는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경우 지방대학 졸업생에 비해 미취업보다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30% 정도 더 높은 반면,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보다 하향취업을 하게 될 가능성은 오히려 지방대학 졸업생의 8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교육이 직업능력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경우 졸업생들이 미취업이나 하향취업보다는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이 직업능력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미취업보다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50%에서 60% 정도 더 높으며,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보다 하향취업을 하게 될 가능성은 오히려 대학교육이 직업능력 형성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의 74~7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대학교육이 직업능력 형성에 도움이 되었을 경우의 취업효과가 통상적으로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도권 대학 출신'이라는 것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사실이다. 다시금 대학이 재학생의 직업능력 제고를 위해 노

력을 기울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할 것이다.

넷째, 계열 또는 학부입학제나 복수전공제도, 인턴십과 같이 재학생의 취업 능력 제고를 염두에 두고 실시된 프로그램의 경우 일관된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들 제도가 당초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다섯째, 전공계열별로도 일정한 차이가 확인된다. 교육계열 졸업생의 경우 인문계열 졸업생에 비해 하향취업보다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을 하거나 미취업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학계열 졸업생의 경우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보다 하향취업할 가능성이 높은가 하면 미취업보다는 하향취업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계열과 예체능계열 졸업생의 경우 인문계열 졸업생에 비해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보다는 하향취업하거나 미취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사회계열과 공학계열 졸업생이 인문계열 졸업생에 비해 하향취업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개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수능성적이 높을수록 하향취업보다는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교육의 경우 학부수준인지 대학원 수준인지에 따라 하향취업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다. 2001년 2월 대학 졸업후 다른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 하향취업보다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아진다. 반면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에는 하향취업 가능성과 미취업 상태에 있게 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대학원 진학자의 경우 취업이 쉽지 않아 대학원에 진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더불어 학부 수준의 업무에 종사해도 하향취업으로 포착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대학 평균학점이 A인 졸업생의 경우 C이하인 졸업생에 비해 하향취업보다는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다. 그러나 자격증이나 해외연수의 경우 하향취업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 하향취업,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 및 미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결과(식(1))

변수	하향취업/ 미취업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 미취업		하향취업/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	
	β 값	s.e	β 값	s.e	β 값	s.e
상수항	-6.86 ***	1.80	-7.27 ***	1.74	0.41	1.15
성별	-0.01	0.11	0.02	0.11	-0.03	0.08
연령	0.26 ***	0.06	0.25 ***	0.06	0.01	0.04
수도권	0.03	0.08	0.30 ***	0.08	-0.27 ***	0.06
직업능력	0.19 *	0.10	0.49 ***	0.10	-0.30 ***	0.07
학부입학	-0.09	0.08	-0.21 **	0.08	0.12 **	0.06
복수전공	-0.21 *	0.11	0.04	0.11	-0.25 ***	0.08
인턴십	0.19 **	0.09	0.09	0.09	0.10	0.06
Log likelihood	1017.75					

<표 IV-14> 하향취업,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 및 미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결과(식(2))

변수	하향취업/ 미취업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 미취업		하향취업/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	
	β 값	s.e	β 값	s.e	β 값	s.e
상수항	-7.06 ***	1.78	-7.13 ***	1.75	0.07	1.18
성별	-0.12	0.12	0.04	0.12	-0.17 *	0.09
연령	0.27 ***	0.06	0.25 ***	0.06	0.02	0.04
수도권	0.01	0.08	0.29 ***	0.08	-0.28 ***	0.06
직업능력	0.19 *	0.10	0.48 ***	0.10	-0.30 ***	0.07
학부입학	-0.12	0.09	-0.19 **	0.09	0.07	0.06
복수전공	-0.15	0.12	0.01	0.11	-0.16 *	0.09
인턴십	0.20 **	0.09	0.05	0.09	0.14 **	0.06
전공계열						
인문계열=0						
사회계열	-0.04	0.20	-0.26	0.20	0.22	0.14
교육계열	-0.56	0.39	0.28	0.34	-0.84 ***	0.26
공학계열	0.40 **	0.20	-0.15	0.20	0.55 ***	0.12
자연계열	0.05	0.24	-0.05	0.23	0.10	0.16
의약계열	0.80	0.67	1.05	0.66	-0.25	0.31
예체능계열	-0.39	0.32	-0.92 ***	0.34	0.53 *	0.27
Log likelihood	1715.03					

<표 IV-15> 하향취업,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 및 미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 로짓 분석결과(식(3))

변수	하향취업/ 미취업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 미취업		하향취업/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	
	β 값	s.e	β 값	s.e	β 값	s.e
상수항	-8.21 ***	2.01	-7.13 ***	2.00	-1.07	1.41
성별	0.20	0.13	-0.01	0.13	-0.18 *	0.10
연령	0.30 ***	0.07	0.21 ***	0.07	0.09 *	0.05
수도권	0.02	0.09	0.26 ***	0.10	-0.23 ***	0.07
직업능력	0.17	0.11	0.42 ***	0.11	-0.25 ***	0.08
학부입학	-0.11	0.09	-0.15 *	0.09	0.04	0.07
복수전공	-0.13	0.13	0.00	0.12	-0.14	0.10
인턴십	0.18 *	0.10	0.02	0.10	0.16 **	0.07
인문계열=0						
사회계열	-0.02	0.22	-0.39 *	0.22	0.37 **	0.16
교육계열	-0.90 **	0.42	0.09	0.36	-0.98 ***	0.31
공학계열	0.55 **	0.22	0.10	0.22	0.46 ***	0.15
자연계열	0.28	0.26	0.27	0.26	0.01	0.18
의약계열	0.82	0.68	1.04	0.68	-0.22	0.35
예체능계열	-0.30	0.35	-0.82 **	0.37	0.53 *	0.31
수능점수	-0.00	0.00	0.01	0.00	-0.01 ***	0.00
계속교육 경험없음=0						
다른 대학	-0.44	0.28	0.18	0.27	-0.62 ***	0.20
대학원	0.25	0.19	-0.76 ***	0.19	1.00 ***	0.15
대학성적 C이하=0						
B	0.33 **	0.13	0.26 *	0.14	0.06	0.10
A	-0.13	0.17	0.24	0.17	-0.37 ***	0.13
자격증	0.06	0.09	-0.00	0.09	0.06	0.06
해외연수	0.23	0.16	0.21	0.16	0.02	0.10
컴퓨터 활용 능력	0.08	0.15	0.10	0.15	-0.02	0.10
영어능력 700미만=0						
미응시	-0.19	0.16	-0.19	0.15	0.00	0.11
700이상 800미만	0.12	0.21	0.09	0.20	0.04	0.13
800이상	0.36	0.27	0.67 ***	0.26	-0.31 **	0.16
의사소통능력	0.08	0.13	0.20	0.13	-0.12	0.09
문제해결능력	-0.17	0.18	-0.14	0.17	-0.03	0.13
자기관리능력	0.02	0.17	0.07	0.17	-0.04	0.12
자원활용능력	0.10	0.12	0.09	0.12	0.01	0.09
대인관계능력	-0.22	0.14	-0.13	0.14	-0.09	0.10
정보능력	-0.09	0.10	-0.13	0.11	0.04	0.08
기술능력	0.06	0.13	0.31 **	0.13	-0.25 ***	0.09
조직이해능력	-0.14	0.12	-0.13	0.12	-0.01	0.09
직업훈련	-0.34 ***	0.13	-0.46 ***	0.14	0.12	0.12
Log likelihood	2496.50					

대학 졸업 후 미취업 상태에서 받는 직업훈련의 경우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하향취업해있거나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을 하고 있다가 미취업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대학졸업후 미취업 상태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졸업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업능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부족한 취업능력을 직업훈련으로 보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일곱째, 주요 직업능력중 하나로 간주되는 컴퓨터 활용 능력의 경우 하향취업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영어 능력이 우수할 경우 하향취업이나 미취업 상태에 있기보다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토익 점수 고득점자의 경우에 분명하게 확인된다. 다른 조건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컴퓨터 능력과 영어 능력을 제외하고 직업기초능력으로 중요시되는 여러 다른 능력 중 하향취업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술능력, 다시 말해 지식·기술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능력이다. 기술능력이 높을수록 하향취업이나 미취업 상태에 있기보다는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제3절 전공취업

전공취업 여부는 졸업생의 주관적 응답에 기초하여 파악되었다. ‘현 일자리의 업무와 대학 때 전공이 어떻게 관련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일을 하기 위한 유일한(또는 가장 적합한) 전공분야이다’라고 응답한 경우와 ‘내 전공 이외에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전공 분야가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를 전공취업으로 간주하였고, ‘내전공보다 다른 전공 분야가 더 유용하다’거나 ‘특별한 전공이 필요없다’, ‘이 일을 하기 위해 대학교육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 또는 ‘기타’로 응답한 경우에는 비전공취업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구분에 근거할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생 10명 중 3명은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분야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 졸업생의 경우 여자 졸업생에 비해 미취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공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표 IV-16> 참조).

<표 IV-16> 성별 전공 취업 여부

				(단위: 명(%))
	전공취업	비전공취업	미취업	계
남	625(57.0)	255(32.4)	116(10.6)	1096(100.0)
여	261(50.1)	163(31.3)	97(18.6)	521(100.0)

대학특성별로 전공취업 여부를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 졸업생이 지방대학 졸업생에 비해 전공취업자의 비중이 다소 높다. 그러나 그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반면, 대학교육 만족도가 높은 졸업생과 그렇지 않은 졸업생간에 전공취업자의 비중 격차가 현저하다. 대학교육 만족도가 높은 졸업생 중 74.3%가 전공분야에 취업에 있는 반면, 만족도가 낮은 졸업생의 경우 그 비중이 53.5%에 불과하다. 또 대학이 졸업생의 직업능력에 형성에 도움이 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간의 전공취업자의 비중은 현저히 차이를 보인다. 대학교육이 직업능력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졸업생의 71.7%(취업자의 78.8%)가 전공분야에 취업한 반면, 대학교육이 직업능력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졸업생의 경우 그 비율이 48.5%(취업자의 56.8%)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계열 또는 학부입학 여부나 인턴십 제도가 전공취업의 비중을 높이는 데 다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복수전공제도는 전공취업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취업이나 정규직으로의 취업 또는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들 제도가 그다지 긍정적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다소 대비된다 할 것이다.

<표 IV-17> 대학특성과 전공취업

(단위: 명(%))

구분		전공취업	비전공취업	미취업	계
수도권여부	수도권	502(57.1)	278(31.6)	99(11.3)	879(100.0)
	비수도권	348(52.0)	240(32.5)	114(15.5)	738(100.0)
대학교육 만족도	만족함	78(74.3)	19(18.1)	8(7.6)	105(100.0)
	보통 이하	808(53.5)	499(33.0)	204(13.5)	1511(100.0)
직업능력 형성여부	도움됨	316(71.6)	58(19.3)	40(9.1)	441(100.0)
	보통 이하	570(48.5)	433(36.8)	173(14.7)	1176(100.0)
학부입학 여부	예	304(57.0)	139(26.1)	90(16.9)	533(100.0)
	아니오	582(53.7)	379(35.0)	123(11.3)	1084(100.0)
복수전공 여부	예	126(52.9)	74(31.1)	38(16.0)	238(100.0)
	아니오	760(55.1)	444(32.2)	175(12.7)	1379(100.0)
인턴십 여부	예	320(61.9)	137(26.5)	60(11.6)	517(100.0)
	아니오	566(51.5)	381(34.6)	153(13.9)	1100(100.0)

<표 IV-18> 전공특성과 전공취업

(단위: 명(%))

구분	전공취업	비전공취업	미취업	계
인문계열	78(41.3)	80(42.3)	31(16.4)	189(100.0)
사회계열	172(46.4)	143(38.5)	56(15.1)	371(100.0)
교육계열	60(67.4)	19(21.4)	10(11.2)	89(100.0)
공학계열	405(59.6)	205(30.1)	70(10.3)	680(100.0)
자연계열	99(51.6)	63(32.8)	30(15.6)	192(100.0)
의약계열	37(94.9)	0(00.0)	2(5.1)	39(100.0)
예체능계열	35(61.4)	8(14.0)	14(24.6)	57(100.0)

전공별로도 전공취업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취업자 중 전공취업자의 비중을 보면 인문계열이 가장 낮고, 사회계열도 낮은 편에 속한다. 공학계열의 경우 인문계열이나 사회계열보다는 전공취업자의 비중이 크게 높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졸업생의 59.6%(취업자의 66.4%)만이 전공분야에 취업해 있

는 상황이다. 자연계열 졸업생 중 전공취업자의 비율은 51.6%로 공학계열 졸업생보다는 낮지만, 인문사회계열 졸업생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반면 교육계열이나 예체능계열 취업자 중 전공취업자의 비중은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하며, 의약계열의 경우 취업자의 100%가 전공분야에 취업한 상태에 있다.

졸업생의 능력과 관련하여, 우선 수능성적이 높을수록 전공취업자의 비중이 커진다. 수능성적이 하위 30%에 해당되는 경우 취업자의 55.0%가 전공분야에 취업해 있는 반면, 수능성적 상위 30%에 해당되는 졸업생의 경우 취업자의 65.1%가 전공분야에 취업해 있다. 2001년 2월 대학 졸업이후의 계속교육 경험도 전공취업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2월 대학 졸업이후 다른 대학을 다녔거나 대학원에 다닌 경우 취업자의 각각 69.0%와 83.5%가 전공분야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계속교육의 경험이 없는 졸업생 취업자의 58.2%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가장 최근에 교육받은 전공분야가 본인의 취업희망 분야와 더 일치한다고 본다면, 계속교육을 받은 고등교육 분야로의 취업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대학성적이 좋을수록 미취업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한편으로 전공취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도 확인된다. 대학성적이 C이하인 졸업생의 미취업률이 20.3%, 전공취업자의 비중이 35.4%인 반면, 대학성적이 B인 경우 미취업률은 12.2%로 낮아지고 전공취업률은 54.6%로 높아지며, 대학성적이 A인 경우에는 그 비율이 각각 13.7%, 60.9%로 나타났다.

자격증 취득이 미취업률을 낮추는 것은 아니지만, 전공취업은 일정 정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중 전공취업자의 비율은 자격증 취득자의 경우 65.4%로 미취업자의 61.0%보다 약간 높다. 그러나 해외연수 경험은 전공취업률 제고와는 큰 관련이 없어 보인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 높아질수록 미취업률은 줄어들고 전공취업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 졸업생중 전공취업자의 비율을 보면 컴퓨터 활용 능력이 보통수준 이하인 졸업생의 경우 54.0%인 반면, 컴퓨터 활용 능력을 잘 갖춘 졸업생의 경우 그 비율이 60.7%로 높아진다. 영어능력을 보면 토익점수가 높을수록 미취업이 줄고 전공취업이 높아지는 양상이 명확히 확인된다.

<표 IV-19> 졸업생의 능력 또는 노력과 전공취업

(단위: 명(%))

구분		전공취업	비전공취업	미취업	계
수능성적	하위 30%	187(45.2)	153(36.9)	74(17.9)	414(100.0)
	중위 40%	324(56.5)	174(30.3)	76(13.3)	574(100.0)
	상위 30%	264(61.4)	122(28.4)	44(10.2)	430(100.0)
계속교육 경험	없다	634(51.0)	456(36.7)	153(12.3)	1243(100.0)
	다른 대학	49(59.8)	22(26.8)	11(13.4)	82(100.0)
	대학원	203(69.5)	40(13.7)	49(16.8)	292(100.0)
대학성적	C이하	40(35.4)	50(44.3)	23(20.3)	113(100.0)
	B	602(54.6)	366(33.2)	135(12.2)	1103(100.0)
	A	244(60.9)	102(25.4)	55(13.7)	401(100.0)
자격증 취득여부	예	436(56.8)	230(30.0)	101(13.2)	767(100.0)
	아니오	450(52.9)	288(33.9)	112(13.2)	850(100.0)
해외연수 경험	있다	115(53.0)	83(38.2)	19(8.8)	217(100.0)
	없다	771(55.1)	435(31.1)	194(13.8)	1400(100.0)
컴퓨터 활용능력	잘 갖춤	122(60.7)	56(27.9)	23(11.4)	201(100.0)
	보통 이하	764(54.0)	462(32.6)	190(13.4)	1416(100.0)
영어능력 (토익)	미응시	364(52.0)	229(32.7)	107(15.3)	700(100.0)
	700 미만	235(53.2)	140(31.7)	67(15.2)	442(100.0)
	700-800 미만	157(60.4)	77(29.6)	26(10.0)	260(100.0)
	800 이상	130(60.5)	72(33.5)	13(6.1)	215(100.0)
의사소통 능력	잘 갖춤	231(58.0)	116(29.2)	51(12.8)	398(100.0)
	보통 이하	655(53.8)	401(32.9)	162(13.3)	1218(100.0)
문제해결 능력	잘 갖춤	141(61.8)	54(23.7)	33(14.5)	228(100.0)
	보통 이하	745(53.7)	462(33.3)	180(13.0)	1387(100.0)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잘 갖춤	150(66.4)	50(22.1)	26(11.5)	226(100.0)
	보통 이하	736(53.0)	466(33.5)	187(13.5)	1389(100.0)
자원활용 능력	잘 갖춤	315(57.9)	161(29.6)	68(12.5)	544(100.0)
	보통 이하	571(53.2)	357(33.3)	145(13.5)	1073(100.0)
대인관계 능력	잘 갖춤	204(60.5)	89(26.4)	44(13.1)	337(100.0)
	보통 이하	682(53.4)	427(33.4)	169(13.2)	1278(100.0)
정보능력	잘 갖춤	400(57.1)	205(29.3)	95(13.6)	700(100.0)
	보통 이하	486(53.0)	313(34.1)	118(12.9)	917(100.0)
기술능력	잘 갖춤	315(61.6)	138(27.0)	58(11.4)	511(100.0)
	보통 이하	571(51.6)	380(34.4)	155(14.0)	1106(100.0)
조직이해 능력	잘 갖춤	198(55.0)	115(31.9)	47(13.1)	360(100.0)
	보통 이하	688(54.7)	403(32.1)	166(13.2)	1257(100.0)
직업훈련 경험	있다	57(38.5)	54(36.5)	37(25.0)	148(100.0)
	없다	829(56.4)	464(31.6)	176(12.0)	1469(100.0)

한편 졸업 후 미취업 상태에서의 교육훈련이 전공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는 전공과 다른 분야의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직업훈련을 경험한 졸업생이 그렇지 않은 졸업생보다 상대적으로 취업능력이 낮은 가능성이 있는데다 취업능력 제고와 관련한 직업훈련 자체의 효과가 그다지 높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제 위에서 언급한 주요 변수들이 다른 조건이 통제된 상태에서 미취업과 전공취업, 비전공취업으로의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지분분석을 시도해보자. 분석 결과는 <표 IV-20>~<표 IV-22>에 제시되어 있는데, 주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조건들이 통제된 상태에서는 성별로 전공취업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연령이 높아질수록 미취업 상태에 있기보다는 전공분야와 비전공분야를 불문하고 취업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 졸업생의 능력을 통제한 식(3)의 경우에는 비전공취업에 비해 전공취업이 유의하게 줄어드는 경향도 확인된다. 이는 연령이 높아갈수록 유보임금이 낮아지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경우 지방대학 졸업생에 비해 미취업 상태에 있기 보다는 전공취업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졸업생의 여러 능력들이 통제될 경우 사라진다. 반면 대학교육이 직업능력 형성에 도움이 될 경우 졸업생들의 능력이 통제된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대단히 강력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학교육이 직업능력 형성에 도움이 된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미취업보다 전공취업 상태에 있게 될 가능성이 60%에서 80% 정도 높아지며, 비전공취업 상태에 있기보다 전공취업 상태에 있을 가능성도 60%에서 90% 정도 더 높다. 대학교육이 직업능력 형성 중심으로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재차 확인된다 할 것이다.

셋째, 졸업생의 능력까지 모두 통제된 경우 복수전공제도나 인턴십의 전공취업 제고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계열 또는 학부입학제의 경우 비전공취업에 비해 전공취업을 높이지만, 또한 비전공취업보다는 미취업 상

태에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된다.

넷째, 다른 조건이 모두 통제된 상태에서 전공계열별 차이를 보면, 의약계열과 예체능계열을 제외한 여타 계열 졸업생의 경우 인문계열 졸업생에 비해 미취업보다는 비전공 취업, 또 전공취업보다는 비전공취업의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인문계열 졸업생의 경우 전공취업비율이 가장 낮고 미취업률은 높게 나온 <표 IV-18>의 결과와 대조적이다.

다섯째, 수능점수가 높은 졸업생일수록 비전공취업보다는 전공취업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학원에 진학한 졸업생의 경우 비전공취업 상태에 있기보다는 전공취업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 한편 대학 평균학점이 A인 졸업생의 경우 C이하인 졸업생에 비해 유의하게 비전공취업보다 전공취업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조건이 통제된 상태에서는 자격증의 경우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외연수의 경험은 미취업이나 전공취업보다 비전공취업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연수를 통해 어학실력이 향상된 경우 전공과 무관하게 어학실력을 활용하는 분야로 취업하는 등 취업의 폭이 확대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대학 졸업후 직업훈련의 효과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다. 이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대학 때의 전공과 다른 분야의 직업훈련을 받았을 가능성, 직업훈련 이수 졸업생의 취업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 그리고 직업훈련의 취업 효과가 미흡할 가능성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여섯째, 컴퓨터 활용 능력의 전공취업 강화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반면, 영어 실력이 좋을수록 미취업보다는 비전공취업과 전공취업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모두 높아진다. 토익점수가 800점 이상인 졸업생의 경우 700점 미만인 졸업생에 비해 미취업상태에 있기보다 전공분야에 취업해 있을 가능성이 80% 이상 높게 나타나며, 비전공분야에 취업해 있을 가능성도 60% 정도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직업기초능력 중에서는 기술능력, 즉 지식·기술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능력이 우수할 경우 미취업보다 전공취업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IV-20> 전공취업, 비전공취업 및 미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
결과(식(1))

변수	전공취업/ 미취업		비전공취업/ 미취업		전공취업/ 비전공취업	
	β 값	s.e	β 값	s.e	β 값	s.e
상수항	-6.83 ***	1.71	-7.67 ***	1.81	0.84	1.22
성별	0.06	0.11	-0.09	0.11	0.15 *	0.08
연령	0.23 ***	0.06	0.30 ***	0.06	-0.08	0.04
수도권	0.21 ***	0.08	0.11	0.08	0.10 *	0.06
직업능력	0.59 ***	0.10	-0.04	0.10	0.63 ***	0.07
학부입학	-0.08	0.08	-0.25 ***	0.09	0.17 ***	0.06
복수전공	-0.08	0.11	-0.05	0.11	-0.04	0.08
인턴십	0.19 ***	0.09	0.05	0.09	0.14 **	0.06
Log likelihood	1024.60					

<표 IV-21> 전공취업, 비전공취업 및 미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
결과(식(2))

변수	전공취업/ 미취업		비전공취업/ 미취업		전공취업/ 비전공취업	
	β 값	s.e	β 값	s.e	β 값	s.e
상수항	-6.87 ***	1.73	-9.18 ***	1.83	2.31 *	1.25
성별	0.00	0.12	-0.11	0.12	0.11	0.09
연령	0.24 ***	0.06	0.30 ***	0.06	-0.06	0.04
수도권	0.19 **	0.08	0.10	0.09	0.08	0.06
직업능력	0.58 ***	0.10	-0.02	0.10	0.60 ***	0.07
학부입학	-0.09	0.08	-0.25 ***	0.09	0.15 **	0.07
복수전공	-0.05	0.11	-0.07	0.12	0.02	0.09
인턴십	0.14	0.09	0.09	0.10	0.06	0.07
전공계열						
인문계열=0						
사회계열	-0.39 **	0.20	1.59 ***	0.18	-1.98 ***	0.14
교육계열	0.04	0.34	1.31 ***	0.36	-1.27 ***	0.25
공학계열	0.07	0.19	1.61 ***	0.18	-1.54 ***	0.13
자연계열	-0.11	0.23	1.59 ***	0.22	-1.70 ***	0.17
의약계열	1.26 *	0.65	-	-	-	-
예체능계열	-0.51	0.31	0.29	0.39	-0.80 **	0.34
Log likelihood	1677.15					

<표 IV-22> 전공취업, 비전공취업 및 미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 결과(식(3))

변수	전공취업/ 미취업		비전공취업/ 미취업		전공취업/ 비전공취업	
	β 값	s.e	β 값	s.e	β 값	s.e
상수항	-7.60 ***	1.96	-9.91 ***	2.09	2.31	1.48
성별	-0.08	0.12	-0.18	0.13	0.10	0.10
연령	0.23 ***	0.07	0.32 ***	0.07	-0.09 *	0.05
수도권	0.13	0.09	0.14	0.10	-0.01	0.07
직업능력	0.48 ***	0.11	0.02	0.11	0.46 ***	0.08
학부입학	-0.06	0.09	-0.25 **	0.10	0.19 ***	0.07
복수전공	-0.07	0.12	-0.06	0.13	-0.01	0.10
인턴십	0.12	0.10	0.09	0.11	0.03	0.08
인문계열=0						
사회계열	-0.49 **	0.21	1.61 ***	0.20	-2.10 ***	0.15
교육계열	-0.10	0.36	0.87 **	0.39	-0.97 ***	0.29
공학계열	0.23	0.22	1.87 ***	0.21	-1.64 ***	0.15
자연계열	0.09	0.25	2.01 ***	0.25	-1.92 ***	0.18
의약계열	1.25 *	0.66	-	-	-	-
예체능계열	-0.31	0.33	0.21	0.43	-0.52	0.37
수능점수	0.01	0.00	-0.01	0.00	0.01 ***	0.00
계속교육 경험없음=0						
다른 대학	-0.15	0.26	0.05	0.29	-0.19	0.21
대학원	-0.02	0.18	-0.74 ***	0.22	0.72 ***	0.17
대학성적 C이하=0						
B	0.38 ***	0.13	0.24 *	0.14	0.13	0.11
A	0.19	0.16	-0.10	0.17	0.29 **	0.13
자격증	0.06	0.09	-0.02	0.09	0.07	0.07
해외연수	0.15	0.16	0.32 **	0.16	-0.16 *	0.10
컴퓨터 활용 능력	0.11	0.15	0.05	0.16	0.06	0.11
영어능력 700미만=0						
미응시	-0.28 *	0.15	-0.12	0.16	-0.16	0.11
700이상 800미만	0.09	0.20	0.05	0.21	0.04	0.14
800이상	0.62 **	0.26	0.49 *	0.27	0.12	0.16
의사소통능력	0.16	0.13	0.12	0.14	0.04	0.09
문제해결능력	-0.10	0.17	-0.26	0.19	0.15	0.13
자기관리능력	0.03	0.16	0.03	0.18	-0.00	0.13
자원활용능력	0.07	0.12	0.12	0.13	-0.05	0.09
대인관계능력	-0.15	0.14	-0.20	0.15	0.05	0.11
정보능력	-0.12	0.10	-0.07	0.11	-0.05	0.08
기술능력	0.23 *	0.13	0.11	0.13	0.12	0.09
조직이해능력	-0.18	0.12	-0.05	0.13	-0.12	0.09
직업훈련	-0.44 ***	0.13	-0.34 **	0.13	-0.10	0.11
Log likelihood	2399.44					

제4절 임금수준

이 절에서는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졸업생의 임금수준을 졸업생의 인적 속성이나 능력의 차이, 졸업한 대학의 특성 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먼저 성별로 보면 남자 졸업생의 임금이 여자 졸업생에 비해 27.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 졸업이라는 비교적 동질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남녀간에 상당한 임금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IV-23> 성별에 따른 임금수준

(단위: 만 원)

	평균임금	기준비
남	222.0	127.1
여	174.6	100.0

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임금수준은 지방대학 졸업생보다 약 13.3% 높다. 또 대학교육 만족도가 높은 졸업생과 대학이 직업능력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졸업생의 임금수준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졸업생보다 18% 가까이 높다.

그런데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던 계열 또는 학부입학제, 복수전공제도, 인턴십 등이 노동시장 성과를 높이는데 별로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제도를 경험한 졸업생의 임금수준이 그렇지 않은 졸업생에 비해 오히려 10%이상 낮다. 이는 이런 제도가 내실있게 실시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런 제도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졸업생이나 학교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표 IV-24> 대학특성과 임금수준

(단위: 만 원)

구분		평균임금	기준비
수도권여부	수도권	218.7	113.3
	비수도권	193.1	100.0
대학교육 만족도	만족함	241.3	117.7
	보통 이하	205.0	100.0
직업능력	도움됨	232.5	117.8
형성여부	보통 이하	197.4	100.0
학부입학 여부	예	195.8	91.9
	아니오	213.0	100.0
복수전공 여부	예	181.9	85.9
	아니오	211.8	100.0
인턴십 여부	예	189.6	87.8
	아니오	216.0	100.0

<표 IV-25> 전공특성과 임금수준

(단위: 만 원)

구분	평균임금	기준비
인문계열	186.5	100.0
사회계열	215.0	115.3
교육계열	198.1	106.2
공학계열	216.6	116.1
자연계열	194.1	104.1
의약계열	203.7	109.2
예체능계열	166.3	89.2

전공별로는 공학계열이나 사회계열의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계열의 임금수준이 기대와 달리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은 아마도 의과대학 졸업생의 상당 정도가 수습기간에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교육계열이나 자연계열 졸업생의 경우 인문계열 졸업생에 비해 5% 내외 정도의 임금을 더 받고 있고, 예체능계열 졸업생의 임금수준이 가장 낮아 인문계열 졸업생에 비해 10%이상 낮다.

한편, 수능성적에 따른 임금격차가 현저하다. 수능성적이 상위 30%에 속하

는 졸업생의 경우 하위 30%에 속하는 졸업생보다 임금 수준이 35.3%나 높다. 수능성적이 높다는 것은 소위 ‘좋은 대학, 좋은 과’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이들의 임금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계속교육 경험 여부도 임금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2001년 2월 대학 졸업 후 추가적인 대학교육을 받은 졸업생의 경우 임금수준이 계속교육의 경험이 없는 졸업생에 비해 8.2%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들 졸업생의 하향취업이나 비전공취업이 다소 줄어드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원교육 경험자의 경우 오히려 임금수준이 10% 정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대학원교육 경험자의 인적속성이나 노동시장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대학원교육 경험자가 비경험자에 비해 하향취업이나 비정규직 취업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대학성적도 임금수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평균 학점이 C이하인 졸업생과 비교할 때 B이상인 졸업생의 임금수준이 10% 이상 더 높다. 대학 평균학점이 B이상인 경우에는 임금수준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는 임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정규직으로의 취업 여부가 평균학점 A인 졸업생과 B인 졸업생간에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자격증 취득여부가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그다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자격증이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외연수 경험자의 경우 비경험자에 비해 임금이 약간 높게 나타났는데, 그 차이는 별로 크지 않다.

<표 IV-26> 졸업생의 능력 또는 노력과 임금수준

(단위: 만 원)

구분		평균임금	기준비
수능성적	하위 30%	172.5	100.0
	중위 40%	207.2	120.3
	상위 30%	233.4	135.3
계속교육 경험	없다	210.3	100.0
	다른 대학	227.6	108.2
	대학원	188.7	89.7
대학성적	C이하	184.7	100.0
	B	209.7	113.5
	A	207.3	112.2
자격증 취득여부	예	197.6	91.2
	아니오	216.7	100.0
해외연수 경험	있다	215.2	104.3
	없다	206.3	100.0
컴퓨터 활용능력	잘 갖추	237.4	116.8
	보통 이하	203.2	100.0
영어능력 (토익)	미응시	201.4	98.7
	700 미만	204.1	100.0
	700-800미만	215.5	105.6
	800 이상	221.8	108.7
의사소통 능력	잘 갖추	204.8	98.3
	보통 이하	208.3	100.0
문제해결 능력	잘 갖추	230.0	110.4
	보통 이하	203.9	100.0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잘 갖추	212.9	103.0
	보통 이하	206.6	100.0
자원활용 능력	잘 갖추	213.9	104.7
	보통 이하	204.3	100.0
대인관계 능력	잘 갖추	220.9	108.3
	보통 이하	204.0	100.0
정보능력	잘 갖추	212.6	104.4
	보통 이하	203.6	100.0
기술능력	잘 갖추	218.3	107.9
	보통 이하	202.4	100.0
조직이해 능력	잘 갖추	232.6	116.0
	보통 이하	200.5	100.0
교육훈련 경험	있다	196.8	94.4
	없다	208.4	100.0

컴퓨터 활용 능력과 영어능력은 취업자의 임금수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을 잘 갖춘 졸업생은 그렇지 못한 졸업생에 비해 임금수준이 17% 정도 높다. 또 토익점수가 800점 이상인 졸업생의 경우 토익 미응시자에 비해 임금수준이 10%정도 높다. 컴퓨터 활용 능력과 영어능력이 노동시장에서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된다.

컴퓨터 활용 능력과 영어능력을 제외한 다른 직업기초능력의 경우에도 대체로 임금 수준을 높이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직이해능력이 잘 갖추어진 졸업생의 경우 그렇지 못한 졸업생에 비해 임금수준이 16% 정도 높고 문제해결능력의 경우 10% 정도의 임금프리미엄을 가져다준다. 대인관계능력이나 기술능력도 8% 내외의 임금프리미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졸업 후 미취업 상태에서 받은 직업훈련은 취업후의 임금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이 취업능력제고에 별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특히 오히려 교육훈련 경험자의 임금수준이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은 취업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졸업생이 훈련 후 미취업 상태에서 직업훈련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임금수준 비교는 다른 조건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평균적인 비교이기 때문에, 엄밀한 분석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다 엄밀한 비교를 위해 앞에서 언급한 여러 요인들이 설명변수로 고려된 임금함수를 추정해보았다. <표 IV-27>에 제시되어 있는 임금함수의 추정결과¹⁶⁾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남자 졸업생은 여자 졸업생에 비해 11.6% 정도 임금을 더 받고 있다. 다른 조건들이 다 통제되었음에도 남녀간에 여전히 상당 정도의 임금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할 것이다. 또 연령이 높아지면 대체로 임금수준도 높아진다.

둘째, 수도권 대학 졸업생이 지방대학 졸업생들에 비해 10.5%에서 13.9%

16) 표에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임금함수의 추정시 산업더미(제조업 기준)와 기업규모더미(종업원수 10인 이하 기준)가 포함되었다.

정도 임금을 더 받고 있다. 또 대학이 직업능력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4.1%에서 5.1% 정도 임금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계열 또는 학부입학제도나 복수전공제, 인턴십과 같은 프로그램은 졸업생의 임금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조건들이 통제될 경우 의약계열이나 교육계열의 임금수준이 인문계열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는 점을 제외하고, 전공별로 별다른 임금격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셋째, 졸업생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 수능점수의 경우 임금수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 평균학점이 A인 졸업생의 임금수준이 C이하인 졸업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2001년 2월 대학 졸업이후의 추가적인 고등교육이수나 자격증 취득, 또는 해외연수가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의 경우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대학 졸업 후 미취업 상태에서 이수한 직업훈련의 임금효과도 거의 없었다.

넷째, 컴퓨터 활용 능력과 영어능력은 임금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활용 능력을 잘 갖춘 졸업생은 그렇지 못한 졸업생에 비해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임금수준이 7.3% 정도 더 높았고, 토익점수가 800점 이상인 졸업생은 700점 미만인 졸업생보다 역시 7.3% 임금을 더 받고 있다. 이들 능력 이외의 다른 직업기초능력의 경우 추정계수가 대체로 양의 부호를 보이고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IV-27> 임금함수 추정(1)

변수	식(1)		식(2)		식(3)	
	β 값	s.e	β 값	s.e	β 값	s.e
상수항	4.12 ***	0.21	4.14 ***	0.21	4.10 ***	0.24
성별	0.13 ***	0.03	0.13 ***	0.03	0.11 ***	0.03
연령	0.02 ***	0.01	0.02 **	0.01	0.01	0.01
수도권	0.13 ***	0.02	0.13 ***	0.02	0.10 ***	0.02
직업능력	0.05 ***	0.01	0.05 ***	0.01	0.04 ***	0.01
학부입학	-0.01	0.02	-0.01	0.02	-0.00	0.02
복수전공	-0.01	0.03	-0.01	0.03	-0.01	0.03
인턴십	-0.01	0.02	-0.02	0.02	-0.02	0.02
전공계열						
인문계열기준						
사회계열			0.04	0.04	0.03	0.04
교육계열			0.08	0.05	0.10 *	0.05
공학계열			0.02	0.04	0.03	0.04
자연계열			-0.03	0.04	-0.01	0.04
의약계열			0.21 ***	0.07	0.19 **	0.08
예체능계열			-0.01	0.06	0.02	0.07
수능점수					0.00 ***	0.00
계속교육						
경험없음기준						
다른 대학					0.07	0.05
대학원					-0.04	0.03
대학성적						
C이하기준						
B					0.05	0.04
A					0.08 *	0.05
자격증취득					-0.04 *	0.02
해외연수					0.01	0.03
컴퓨터 활용					0.07 **	0.03
영어능력						
700미만기준						
미응시					0.02	0.03
700이상 800미만					0.03	0.03
800 이상					0.07 **	0.04
의사소통능력					-0.00	0.03
문제해결능력					0.02	0.04
자기관리능력					0.01	0.04
자원활용능력					0.01	0.03
대인관계능력					0.03	0.03
정보능력					-0.02	0.02
기술능력					0.02	0.03
조직이해능력					-0.01	0.03
직업훈련					0.02	0.04
주당근무시간	0.00 **	0.00	0.00 **	0.00	0.00	0.00
Adj R-SQ	0.2306		0.2358		0.2395	

한편, 취업의 질과 임금수준의 관계를 보면, <표 IV-28>와 같다. 평균적으로 정규직 취업자는 비정규직 취업자에 비해 40% 가까이 임금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향취업자는 교육수준에 맞게 취업한 사람에 비해 8% 정도 임금을 덜 받고 있다. 하지만 전공분야 취업자와 비전공분야 취업자간에는 별다른 임금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평균적인 비교일 뿐이며, 두 집단의 인적속성이나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특성들이 상이할 경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표 IV-28> 취업의 질과 임금수준

(단위: 만 원)

구분		평균임금	기준비
정규직여부	예	212.4	139.4
	아니오	152.4	100.0
하향취업 여부	예	197.7	92.7
	아니오	213.2	100.0
전공취업 여부	예	208.3	100.6
	아니오	207.0	100.0

기본적인 인적특성과 전공계열, 산업 및 기업규모를 통제해 준 상태에서 정규직 취업이나 하향취업, 전공취업이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IV-29>에 제시되어 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성, 연령, 전공계열이 동일하고 취업한 기업의 규모 및 업종이 같다고 하더라도 정규직은 비정규직보다 20% 정도 임금을 더 받고, 전공취업자의 경우 비전공취업자에 비해 4%의 임금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다. 반면 하향취업자는 교육수준에 맞게 취업한 졸업생에 비해 10% 정도 임금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이하의 저학력자에 비해 전문대학 졸업생의 임금수준이 4.5% 높고, 4년제 대학 졸업생의 경우 23.0% 높다는 채창균 외(2004)의 임금함수 추정결과에 비추어본다면, 하향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때의 임금수준이 실제 고교나 전문대학 졸업후 그 교육수준에 맞는 일을 했을 때보다는 높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인적자본이론의 주장처럼 기업내에서 교육수준에 일정 정도 부합하게 하향취업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¹⁷⁾을 시사한다 할 것이다.

하향취업이나 비전공취업보다 임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이며, 비전공취업과 하향취업중에서 임금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하향취업임이 확인된다. 특히 비전공분야에 취업한 졸업생의 경우 전공취업 졸업생과의 임금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표 IV-29> 임금함수 추정(2)

변수	β 값	s.e
상수항	4.03 ***	0.20
성별	0.10 ***	0.03
연령	0.03 ***	0.01
정규직 더미	0.18 ***	0.03
하향취업 더미	-0.11 ***	0.02
전공취업 더미	0.04 *	0.02
사회계열	0.04	0.04
교육계열	0.09 *	0.05
공학계열	0.04	0.04
자연계열	-0.03	0.04
의약계열	0.18 **	0.07
예체능계열	-0.00	0.06
주당근무시간	0.00 **	0.00
Adj R-SQ	0.2392	

주: 산업더미와 기업규모더미가 포함됨.
산업더미는 제조업 기준, 기업규모는 10인 이하 기준임.

17) 결과적으로 통상적으로 고졸자나 전문대학 졸업생이 하던 일을 4년제 대학 졸업생이 하게 되면, 4년제 대학 졸업생의 능력이 보다 적극 활용되는 형태로 직무내용에 다소의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다.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이 장에서는 대학교육의 특성과 졸업생의 취업능력이나 취업을 위한 노력이 취업여부와 더불어 취업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는 대학교육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통상적인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구분만이 아니라, 대학교육에 대한 졸업생의 만족도와 대학교육이 직업능력 형성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졸업생의 응답, 재학생의 취업능력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주요 프로그램들(계열 또는 학부 입학제, 복수전공제도, 인턴십 등)이 고려되었다. 또 졸업생의 취업능력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 및 영어능력과 더불어 주요 직업기초능력으로서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등이 분석되었다. 그밖에 졸업생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대학성적이나 대학입학 당시의 수능성적을 고려하였다. 또 취업을 위한 졸업생의 노력은 2001년 2월 대학 졸업이후의 계속고등교육경험(학부 수준 및 대학원 수준), 졸업후 미취업 상태에서의 직업훈련경험, 자격증 취득과 해외연수경험 등이 고려되었다.

한편, 취업의 질은 정규직으로의 취업이나 하향취업, 전공취업 여부와 더불어 취업했을 경우의 임금수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된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대학은 지방대학에 비해 졸업생의 취업성고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경우 미취업이나 비정규직(하향취업) 상태에 있기보다 정규직에 취업(교육수준에 맞게 취업)해 있을 가능성이 지방대학 졸업생에 비해 높다.

둘째, 대학교육이 직업능력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 경우에도 취업성고가 유의하게 좋았다. 이 경우 미취업 상태에 있기보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에 취업해 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 미취업이나 하향취업(비전공취업) 상태에 있기보다는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전공취업)을 하게 될 가능성도 높

았다. 대학교육이 직업능력 형성 중심으로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본문에 그 결과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학교육 만족도도 정도는 다소 약하지만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참조).

셋째, 대학졸업생의 취업능력제고를 염두에 두고 도입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제도는 충분히 기능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계열 또는 학부 입학제도나 복수전공제, 인턴십 모두 대체로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⁸⁾ 제도 자체가 취업능력 제고와 연관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라 할 것이다.

넷째, 졸업생의 취업능력으로 취업성가에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체로 컴퓨터 활용 능력, 영어 능력, 기술능력(지식·기술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능력)으로 나타났다. 직업기초능력으로서 중요시되는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등의 경우 평균적인 비교에서는 대체로 취업성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조건을 통제한 로짓분석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이들 능력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컴퓨터나 영어능력과 기술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이 직원 선발시 이들 수준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다섯째, 대학성적은 취업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호기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졸업이후 새로운 학부에 편입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은 그다지 취업여부나 취업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학부 편입의 경우 하향취업에 비해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을 할 가능성이 다소 높아지고, 대학원 진학이 비전공취업에 비해 전공취업의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유일한 긍정적 측면이다). 또 자격증 취득이나

18) 이는 3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복수전공제나 인턴십 등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취업과 직업생활에의 도움 정도에 대한 졸업생의 주관적 평가가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왔던 것과 대비되는데, 이는 서로 모순된 결과가 아니다. 주관적 만족도와 객관적 사실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평균적으로 이들 제도가 실제의 노동시장 이행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이들 제도를 경험하고 노동시장 이행에 성공한 졸업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표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외연수 경험¹⁹⁾, 또 졸업후 미취업 상태에서의 직업훈련 경험도 취업성과를 높이는데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의 신호기체로서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임이 재차 확인되며, 무분별한 해외연수나 진학이 자제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직업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대학재학생의 입장에서는 대학생활에 충실히 임해 학점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도 얻을 수 있다.

19) 해외연수나 자격증의 경우에도 3장에서의 논의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이 역시 각주 16과 마찬가지로의 논리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제 5 장 대학졸업 후의 계속교육훈련

흔히들 말하는 평생학습의 시대에 최근 대졸자들은 과연 취업을 위해 그리고 취업 전후로 교육훈련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궁금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평생교육훈련참여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고등교육 이수자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에서 교육훈련참여의 정도(magnitude)와 질(quality)은 과연 개인이 또는 국가가 학교교육의 부족한 점을 어떠한 방식으로 메워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대학졸업 후의 계속교육훈련 참여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일터에서 요구하는 능력간의 격차를 메울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대학이 졸업생들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가르쳐주지 못할 경우 또는 대학이 학생들에게 노동시장과의 격차를 메울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학생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러한 계속교육훈련참여는 학교에서 습득한 능력의 수준,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능력의 수준 등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장에서는 본 연구과정에서 실시한 2001년도 대졸자의 대학교육 만족도 조사 중 졸업 후 계속교육훈련 참여에 관한 문항을 중심으로 이들의 졸업 후 계속교육훈련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이며, 참여한 교육훈련 과정의 주요 특성과 내용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들의 계속교육훈련에 대한 요구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대학 졸업 후 계속교육훈련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먼저 대학졸업 후의 계속교육훈련이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계속교육훈련참여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1>은 2001년 졸업자의 성별, 출신대학 소재지 및 전공계열 등 기초 배경변인에 따른 졸업 후 계속교육훈련참여율을 보여주고 있다. 2001년 졸업자 중 졸업 후 취업이나 창업, 또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답한 비율은 전체적으로 25.6%에 이른다.²⁰⁾ 이들 졸업생의 기본적 배경에 따라 참여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교육훈련이수경험이 높다. 또 학부성적을 기준으로 볼 경우 대학평균학점이 C이하인 졸업생들의 교육훈련 참여율이 B나 A인 학생들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출신 고등학교의 계열에 따라 참여율을 살펴보면 실업계고 출신이 일반계고 출신보다 교육훈련이수경험이 훨씬 더 높다. 한편, 이같은 결과는 대체로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하거나 혹은 통계적 차별에 의해 그렇게 간주되는 특성을 지닌 청년층의 교육훈련 참여가 더 높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같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훈련 참여를 통해 취업능력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출신대학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대학 출신자가 비수도권 대학 출신자보다 참여율이 높으며 수능성적이 높을수록 두드러지게 교육훈련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의 결과와 반대로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거나 혹은 통계적 차별에 의해 그렇게 간주되는 특성을 지닌 청년층의 교육훈련 참여가 더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 청년층의 경우 4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미취업 상태에 있기보다는 취업상태

20) 여기에는 교양을 목적으로 한 교육훈련 이수가 제외되므로 계속직업교육훈련 이수율로 볼 수 있다.

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취업의 질도 상대적으로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직장에서 제공되는 훈련의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1> 배경변인과 졸업 후 계속교육훈련 참여

구분		참여	불참	계	비고
전체		486(25.6)	1413(74.4)	1899(100)	
성별	남자	325(25.2)	966(74.8)	1291(100)	$\chi^2=0.370$, df=1, p=0.543
	여자	161(26.5)	447(73.5)	608(100)	
출신대학 소재지	수도권	279(27.1)	752(72.9)	1031(100)	$\chi^2=2.555$, df=1, p=0.110
	비수도권	207(23.8)	661(76.2)	868(100)	
전공계열	인문	59(26.6)	163(73.4)	222(100)	$\chi^2=2.789$, df=6, p=0.835
	사회	112(25.4)	329(74.6)	441(100)	
	교육	23(21.1)	86(78.9)	109(100)	
	공학	206(26.2)	579(73.8)	785(100)	
	자연	57(24.4)	177(75.6)	234(100)	
	의약	9(21.4)	33(78.6)	42(100)	
	예체능	20(30.3)	46(69.7)	66(100)	
학부성적	C 이하	40(29.4)	96(70.6)	136(100)	$\chi^2=1.287$, df=2, p=0.525
	B	321(25.0)	961(75.0)	1282(100)	
	A	125(26.0)	356(74.0)	481(100)	
수능성적	하위 30%	106(21.2)	395(78.8)	501(100)	$\chi^2=6.423$, df=2, p=0.040
	중위 40%	171(25.7)	495(74.3)	666(100)	
	상위 30%	140(27.9)	361(72.1)	501(100)	
출신 고등학교	일반계	471(25.5)	1375(74.5)	1846(100)	$\chi^2=0.178$, df=1, p=0.673
	실업계	13(28.3)	33(71.7)	46(100)	

물론 단순 빈도의 비교만으로는 상대적으로 취업능력이 부족한 청년층이 대학 졸업 후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교육훈련이 오히려 취업능력이 높은 청년층에 더 집중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는 후술하는 로짓분석에서 시도될

것이다. 한편, 대학 때 전공계열별로는 예체능계열, 인문계열, 공학계열의 참여율이 높고, 교육계열과 의약계열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는 현재 취업여부 및 형태에 따라 교육훈련참여율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준다. 먼저 현재의 취업상태에 따른 교육훈련참여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현재 취업자의 참여율은 27.7%로서 현재 미취업자보다 참여율이 높다. 보다 흥미 있는 것은 현재 미취업자 중 과거 취업경험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의 비교 결과이다. 현재 미취업자 중 과거 취업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참여율이 26.6%로 취업자에 비해 약간 낮은 반면, 과거 취업경험이 전혀 없는 집단의 경우 참여율이 11.4%로 현재 취업자의 참여율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이 취업경험이 있는 집단의 높은 교육훈련 참여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즉 취업능력이 높아 빨리 취업한 집단이 기업이 제공하는 교육훈련의 기회가 많아 더 많이 교육훈련에 참여했다고 볼 수도 있고, 다른 한 가지 해석은 교육훈련참여가 높은 집단이 취업능력이 높아져 그 결과로 취업에 성공했다고 보는 것이다. 혹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했을 수도 있다.

이같은 해석에 대한 결론은 다음에 기술할 로짓분석에서 논의될 것이다. 한편, 일단 취업한 경우에는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의 교육훈련 참여율이 높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노동시장 경험이 일천한 청년층의 경우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격차가 그렇게 현저한 것은 아니다.

<표 V-2> 취업상태와 계속교육훈련참여

		참여	불참	계	비고
현재 취업상태 (과거 취업경험)	취업	391(27.7)	1020(72.3)	1411(100)	$\chi^2=27.856,$ $df=2, p=0.000$
	미취업(취업경험 유)	69(26.6)	190(73.4)	259(100)	
	미취업(취업경험 무)	26(11.4)	203(88.6)	229(100)	
현재 취업형태	정규직	359(27.8)	932(72.2)	1291(100)	$\chi^2=0.487,$ $df=2, p=0.784$
	비정규직	31(26.3)	87(73.7)	118(100)	
첫직장 이행기간	6개월 미만	246(28.7)	612(71.3)	858(100)	$\chi^2=0.497,$ $df=1, p=0.481$
	6개월 이상	204(27.1)	549(72.9)	753(100)	

첫직장 이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와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비교하면, 6개월 미만인 졸업생의 교육훈련 참여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첫직장 이행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취업능력이 더 높다고 한다면, 훈련이 취업능력이 높은 계층에게 더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혹은 앞서와 유사한 해석도 가능하다. 첫직장 이행기간이 짧다는 것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취업기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기업에서 제공되는 훈련기회가 많기 때문에 교육훈련 참여율이 높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반대의 인과관계로 대학 졸업후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년층의 취업성가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표 V-3>에는 대학교육 만족도 및 졸업시 능력과 교육훈련 참여간의 관계에 대한 교차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제시하고자 한 대학교육만족도는 졸업생들이 자신들이 받은 대학교육의 질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한 것을 수치화한 것으로서, 특징적인 점은 대학교육 만족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교육훈련 참여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의 졸업시의 전반적 능력을 개인별로 평가한 값의 평균치인 ‘졸업시 능력’에 따른 교육훈련참여도를 볼 경우에도 졸업시 능력수준이 보통(=3)이상인 졸업생이 보통미만인 사람보다 교육훈련참여도가 높다.

이같은 결과는 교육훈련이 졸업생들이 받은 대학교육과 졸업시 부족한 능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와 상반된다. 대학교육 만족도와 졸업시 능력이 높을수록 졸업생의 취업능력 형성에 대학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취업능력이 우수한 청년층에게 오히려 교육훈련의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이들 청년층의 취업성가가 좋고 취업한 기업에서 제공되는 훈련기회가 많기 때문일 수도 있다. 교육훈련이 청년층 사이의 취업능력 격차를 메워주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취업능력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할 것이다.

<표 V-3> 대학교육만족도 및 별도교육훈련의 필요성과 교육훈련참여

		참여	불참	계	비고
*대학교육 만족도	보통이하	420(25.3)	1,237(74.7)	1,657(100)	$\chi^2=0.696$, df=1, p=0.404
	만족	65(27.9)	168(72.1)	185(100)	
**졸업시능력	불충분	116(24.3)	362(75.7)	1419(100)	$\chi^2=0.567$, df=1, p=0.452
	보통이상	369(26.0)	1050(74.0)	478(100)	

주: * 만족도 관련 각 항목의 5점척도 응답 점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4 미만을 보통이하, 4 이상을 만족으로 처리

** 졸업시 능력은 37개 직업능력항목(5점 척도)에 대한 각 졸업생의 능력 수준을 평균한 값으로서 평균값이 3 미만이면 불충분, 3 이상이면 보통이상으로 처리

지금까지의 기초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육훈련 참여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한 일관된 경향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교육훈련이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다 엄밀히 살펴보려면 다른 조건들을 통제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주요 변인들이 대졸자의 졸업 후 계속교육훈련이수에 미치는 요인을 로짓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취업능력이 높은 졸업생이 낮은 졸업생보다 참여율이 높은지, 또 대학교육을 잘 받은 졸업생이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참여율이 높은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 V-4>에서는 로짓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정의가 제시되어 있다. 졸업생의 성별, 연령, 출신대학 소재지, 전공계열, 고용형태 등이 통제변수로 사용되었으며 졸업생의 대학입학시의 수능성적, 학부 때 성적, 그리고 대학교육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졸업시 능력 등이 설명변수로 고려되었다.

<표 V-4> 로짓분석을 위한 변수의 정의

변수	정의	평균(표준편차)
이수여부	계속교육훈련 이수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0.26(0.436)
성별	남자면 1; 그렇지 않으면 0;	0.68(0.466)
대학소재지	수도권 대학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0.54(0.498)
수능성적	하위 30%=0(기준)	111.07(16.222)
	중위 40%	138.77(6.333)
	상위 30%	164.61(12.416)
대학성적	C학점 이하=0(기준)	0.07(0.258)
	B학점	0.67(0.468)
	A학점	0.25(0.435)
전공계열	인문계열=0(기준)	0.12(0.320)
	사회계열	0.23(0.422)
	교육계열	0.06(0.233)
	공학계열	0.41(0.493)
	자연계열	0.12(0.329)
	의약계열	0.02(0.147)
	예체능계열	0.03(0.183)
고용형태	미취업=0(기준)	0.13(0.333)
	정규직	0.80(0.400)
	비정규직	0.07(0.260)
졸업시능력	졸업당시의 직업능력(37개 항목, 각 1-5척도)에 대한 개인별 평균값	
	평균 이하=3(기준)	2.75(0.261)
	평균 초과	3.56(0.381)
대학교육만족도	대학에서 배운 교육내용 및 교육방식(16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1-5)의 평균값: 1-5사이의 값을 지님	3.33(0.528)

<표 V-5>에는 졸업생의 계속교육훈련참여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가 4가지 모델을 통해 제시되어 있다. 먼저 식 (1)에서는 졸업생의 취업상태와 대학교육만족도가 설명변수로 사용되었고, 식 (2)에서는 졸업생의 졸업시 능력과 대학교육만족도가, 식 (3)에서는 연령, 성별, 출신대학소재지, 수능성적 및 대학성적, 전공계열 등 졸업생의 취업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타 변수들과 대학교육만족도가, 그리고 식 (4)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모든 설명변수들이 모델에 포함되어 분석되었다. 식 (4)에 제시된 결과를 중심으로 계속교육훈련

참여와 주요 변수들과의 관계를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미 교차분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여자와 수도권 출신의 참여가 더 높고, 특히 수능성적이 높을수록 교육훈련 참여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진다. 한편, 학부 때 성적의 영향은 교차분석에서와 같이 대학 평균학점이 C이하인 집단이 A, B와 같이 평균이상의 성취도를 가진 집단에 비해 참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취업형태별로는 현재 취업자가 미취업자보다 참여도가 높고, 특히 정규직 취업자의 경우 비정규 취업자나 미취업자보다 참여도가 높고 통계적 유의도도 높게 나타난다. 특히 학교 때 얼마나 충실히 교육을 받았는가에 대한 척도로서 사용된 대학교육만족도의 경우 유의도는 낮지만 교육훈련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졸업 당시 졸업생의 종합적 직업능력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인 '졸업시 능력' 또한 유의도는 높지 않으나 계속교육훈련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능성적, 대학때 성적 등 취업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통제 한 후에도 역시 취업상태에 따라 교육훈련참여도에 커다란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어쨌든 취업자가 미취업자보다 교육훈련을 받을 기회와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음을 시사해 준다. 다음으로 여러 가지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수능성적과 대학교육만족도, 졸업시 능력 등의 영향이 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취업능력이 높고, 대학교육을 잘 받은 이들, 그래서 졸업시 직업능력이 높은 이들이 교육훈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특히 취업상태를 통제할 경우에도 이같은 결과가 여전히 발견된다는 사실은, 미취업상태에서도 취업능력이 높은 졸업생이 취업능력이 낮은 졸업생보다 훈련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취업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능력이 높은 집단에 상대적으로 훈련이 더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V-5> 계속교육훈련참여 결정요인에 대한 이항로짓 분석결과

변수	식1		식2		식3		식4	
	β 값	s.e	β 값	s.e	β 값	s.e	β 값	s.e
상수항	-1.481	0.351	-1.184	0.337	-1.950	1.286	-1.719	1.303
남자=1					-0.240	0.172	-0.216	0.175
연령					0.026	0.043	0.008	0.044
수도권(=1)					0.136	0.122	0.123	0.123
수능성적								
하위 30%=0								
중위 40%					0.388	0.165**	0.359	0.166**
상위 30%					0.325	0.148**	0.309	0.149**
대학성적								
C 이하=0								
B					-0.364	0.233	-0.398	0.236*
A					-0.399	0.210*	-0.453	0.212**
전공계열								
인문계열=0								
사회계열					0.056	0.210	0.055	0.212
교육계열					-0.219	0.306	-0.231	0.307
공학계열					0.103	0.204	0.072	0.207
자연계열					0.023	0.234	0.027	0.236
의약계열					-0.063	0.423	-0.129	0.425
예체능계열					0.514	0.333	0.526	0.336
고용형태								
미취업=0								
정규직	0.451	0.130***					0.522	0.143***
비정규직	0.341	0.241					0.388	0.263
졸업시능력 (평균이상=1)			0.080	0.128			0.019	0.139
대학교육만족도	0.022	0.101	0.018	0.104	0.057	0.111	0.050	0.116
n	1890		1888		1660		1658	
L-ratio	2139.412***		2148.816		1849.691		1832.790**	

주: *는10%, **는 5%, ***는 1% 수준에서 유의함.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대졸자의 교육훈련이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즉, 대졸자의 교육훈련참여의 주요 목적이 대학에서 배운 능력의 부족을 채우는데 있다고 볼 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부실할수록 그리고 졸업생의 취업 및 직업능력이 낮을수록 이들의 교육훈련참여가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본 분석결과에서는 오히려 취업능력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집단일수록, 그리고 대학에서 교육을 잘 받은 집단일수록 교육훈

련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같은 결과는 졸업 후 취업전후로 취업 및 직업능력이 높은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의 격차를 메워주어야 할 역할을 할 계속교육훈련이 오히려 취업능력이 높고, 대학교육을 잘 받은 집단을 중심으로 이뤄짐으로서 자칫 격차를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볼 수 있다.

제2절 계속교육훈련의 내용

본장의 1절에서는 대졸자의 계속교육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교육훈련참여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능력이 높은 집단이 대학교육에서 소외된 집단 그래서 교육훈련이 보다 절실히 필요한 집단보다 참여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계속교육훈련의 참여에 있어서의 이같은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가 일단 계속교육훈련에 참여한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계속교육훈련의 주요 내용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존재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이수기관 및 이수과정의 내용

먼저 이들이 교육훈련을 이수하는 기관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 V-6>에는 이들이 주로 이용한 교육훈련기관의 분포에 대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 결과에 의하면 이들 졸업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관은 주로 학원과 같은 민간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서 전체 이수자의 35.3%에 이른다. 다음으로 직업전문학교와 같이 정부의 보조를 받아 운영되는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과,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수원 이용률이 비슷하게 높게 나타나며, 4년제 대학과 같은 학교에서 계속교육훈련을 이수한 이들의 비율도 전체의 10%를 넘게

높게 나타난다.

이수기관 유형을 성별로 살펴볼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학원 등 민간훈련기관 이용률이 월등히 높고, 남자는 여자보다 기업연수원 이용률이 월등히 높으며, 공공훈련기관 이용률 또한 여자보다 높다. 또 출신대학 소재지별로 살펴볼 경우 수도권 대학 졸업자가 기업연수원이나 민간훈련기관 이용률이 높은 반면, 비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의 경우 공공훈련기관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학부성적에 따라서도 다소의 차이가 확인되는데, 학부성적이 좋은 경우 기업연수원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학부성적이 낮은 경우 민간훈련기관의 이용률이 높다. 수능점수의 경우에도 양상은 비슷하다. 수능성적이 상위 30%에 속하는 졸업생의 경우 기업연수원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수능성적이 낮을수록 민간훈련기관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난다. 교육훈련 이수당시의 취업상태는 이수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이수당시 취업자의 기업연수원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는 취업한 이들이 주로 기업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받기 때문으로 여겨지며, 미취업자의 경우는 민간기관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는 이들이 자비 또는 가외로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한편, 이 같은 성별, 대학소재지별 이수기관의 격차가 성별, 소재지별 당시 취업상태의 차이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격차를 취업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성별로 보면 공공훈련기관 이용률의 남녀격차는 별로 발견되지 않는 반면 기업 및 민간기관 이용률에 있어서는 전체를 보았을 때 나타난 남녀격차가 여전히 발견된다. 즉, 여전히 남자가 기업연수원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여자보다 높고, 여자는 민간직업훈련기관 또는 대학부설기관 이용률이 남자보다 훨씬 더 높다. 이는 취업상태에서도 남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자의 경우 자신이 비용을 투자해 교육훈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취업자들 중에서도 여전히 수도권 대학 졸업자가 기업연수원 및 민간기관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경우 보다 좋은 직장에 취

업되어 직장에서 제공하는 훈련을 받을 기회가 많은 반면, 지방대학 졸업생의 경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학부성적이 좋거나 수능점수가 높을수록 기업연수원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이들 졸업생이 훈련 기회가 보다 풍부하게 제공되는 직장에 취업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표 V-6> 계속교육훈련 이수기관

구분	이수기관							전체	비고	
	전문대	4년제	기업	공공	민간	원격	기타			
전체	6(1.2)	53(10.9)	78(16.0)	82(16.9)	172(35.4)	29(6.0)	66(13.6)	486		
전체	성별	남	3(0.9)	34(10.5)	65(20.0)	58(17.8)	106(32.6)	23(7.1)	36(11.1)	$\chi^2=19.061$, df=6, p=0.004
		녀	3(1.9)	19(11.8)	13(8.1)	24(14.9)	66(41.0)	6(3.7)	30(18.6)	
	대학 소재지	수도권	1(0.4)	20(7.2)	55(19.7)	39(14.0)	103(36.9)	17(6.1)	44(15.8)	$\chi^2=23.639$, df=6, p=0.001
		비수도권	5(2.4)	33(15.9)	23(11.1)	43(20.8)	69(33.3)	12(5.8)	22(10.6)	
	학부 성적	C이하	0(0.0)	5(12.5)	5(12.5)	7(17.5)	14(35.0)	4(10.0)	5(12.5)	$\chi^2=9.127$, df=12, p=0.692
		B	4(1.2)	33(10.3)	53(16.5)	52(16.2)	123(38.3)	19(5.9)	37(11.5)	
		A	2(1.6)	15(12.0)	20(16.0)	23(18.4)	35(28.0)	6(4.8)	24(19.2)	
	수능 점수	하위 30%	2(1.9)	16(15.1)	7(6.6)	17(16.0)	41(38.7)	3(2.8)	20(18.9)	$\chi^2=21.440$, df=12, p=0.044
		중위 40%	4(2.3)	19(11.1)	28(16.4)	24(14.0)	67(39.2)	10(5.8)	19(11.1)	
		상위 30%	0(0.0)	12(8.5)	29(20.6)	21(14.9)	46(32.6)	13(9.2)	20(14.2)	
당시 취업 상태	취업	1(0.9)	26(8.2)	71(22.4)	55(17.4)	96(30.3)	27(8.5)	41(12.9)	$\chi^2=52.001$, df=6, p=0.000	
	미취업	5(3.0)	27(16.0)	7(4.1)	27(16.0)	76(45.0)	2(1.2)	25(14.8)		
취업자 (이수 당시)	성별	남	0(0.0)	15(6.8)	60(27.4)	38(17.4)	59(26.9)	22(10.0)	25(11.4)	$\chi^2=17.541$, df=6, p=0.007
		녀	1(1.0)	11(11.2)	11(11.2)	17(17.3)	37(37.8)	5(5.1)	16(16.3)	
	대학 소재지	수도권	1(0.5)	10(5.1)	51(26.2)	28(14.4)	63(32.3)	16(8.2)	26(13.3)	$\chi^2=13.073$, df=6, p=0.042
		비수도권	0(0.0)	16(13.1)	20(16.4)	27(22.1)	33(27.0)	11(9.0)	15(12.3)	
	학부 성적	C이하	0(0.0)	3(11.5)	5(19.2)	4(15.4)	7(26.9)	4(15.4)	3(11.5)	$\chi^2=6.863$, df=12, p=0.867
		B	1(0.5)	15(7.4)	47(23.2)	31(15.3)	67(33.0)	17(8.4)	25(12.3)	
		A	0(0.0)	8(9.1)	19(21.6)	20(22.7)	22(25.0)	6(6.8)	13(14.8)	
	수능 점수	하위 30%	0(0.0)	9(14.1)	4(6.3)	14(21.9)	21(32.8)	2(3.1)	14(21.9)	$\chi^2=24.419$, df=12, p=0.018
중위 40%		1(1.0)	9(8.7)	26(25.0)	13(12.5)	33(31.7)	10(9.6)	12(11.5)		
상위 30%		0(0.0)	5(4.7)	28(26.4)	17(16.0)	33(31.1)	12(11.3)	11(10.4)		

다음으로 <표 V-7>에는 이들이 이수한 과정의 주요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들이 이수한 교육훈련과정의 주요 내용은 ‘분석방법의 습득’, ‘전공분야의 최신지식’, ‘컴퓨터 활용능력’ 등이 1, 2, 3위로 비슷하게 높게 나타나며 ‘경영 방법의 습득’, ‘대고객 서비스’ 등 현장중심적인 내용에 대한 응답도는 매우 낮다. 이수 과정의 내용을 주요 기초변수에 따라 살펴볼 경우, 전공지식 내용에 관한 내용은 남자가 여자보다 비중이 높으며, 특히 뚜렷한 성별격차가 나타나는 것은 경영능력과 의사소통 분야이다. 즉, 경영능력에 관한 과정의 이수는 남자가 더 비율이 높고 의사소통분야 등은 여자가 더 높게 나타난다. 출신대학소재지별로는 전공지식에 관한 내용이나, 컴퓨터에 관한 내용의 경우 비수도권 대학 출신 쪽이 높고, 일과 관련된 분석방법, 의사소통에 관한 내용은 수도권 쪽이 높다. 이수당시의 취업상태에 따라 보면 당시 취업자의 경우가 ‘일과 관련된 분석방법’이라는 응답이 미취업자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나며, 컴퓨터에 관한 내용은 미취업자가 훨씬 더 높다.

<표 V-7> 계속교육훈련 과정의 주요내용

	전체	성별		대학소재지		당시 취업상태	
		남	녀	수도권	비수도권	취업	미취업
전공지식	101(20.8)	71(21.8)	30(18.6)	55(19.7)	46(22.2)	68(21.5)	33(19.5)
전공외지식	31(6.4)	20(6.2)	11(6.8)	14(5.0)	17(8.2)	21(6.6)	10(5.9)
분석방법	108(22.2)	71(21.8)	37(23.0)	70(25.1)	38(18.4)	86(27.1)	22(13.0)
경영능력	26(5.3)	21(6.5)	5(3.1)	20(7.2)	6(2.9)	21(6.6)	5(3.0)
수작업기능	5(1.0)	4(1.2)	1(0.6)	1(0.4)	4(1.9)	2(0.6)	3(1.8)
외국어	32(6.6)	20(6.2)	12(7.5)	18(6.5)	14(6.8)	23(7.3)	9(5.3)
컴퓨터	98(20.2)	69(21.2)	29(18.0)	51(18.3)	47(22.7)	49(15.5)	49(29.0)
의사소통	21(4.3)	9(2.8)	12(7.5)	15(5.4)	6(2.9)	13(4.1)	8(4.7)
고객서비스	11(2.3)	8(2.5)	3(1.9)	2(0.7)	9(4.3)	7(2.2)	4(2.4)
법률지식	5(1.0)	4(1.2)	1(0.6)	3(1.1)	2(1.0)	3(0.9)	2(1.2)
사회이슈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환경문제	1(0.2)	1(0.3)	0(0.0)	0(0.0)	1(0.5)	0(0.0)	1(0.6)
기타	47(9.7)	27(8.3)	20(12.4)	30(10.8)	17(8.2)	24(7.6)	23(13.6)
계	486(100)	325(100)	161(100)	279(100)	207(100)	317(100)	169(100)
비교		$\chi^2=12.566$, df=11, p=0.323		$\chi^2=23.533$, df=11, p=0.015		$\chi^2=31.181$, df=11, p=0.001	

2. 재정부담의 주체와 이수 시간

다음으로 교육훈련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며, 계속교육훈련의 참여가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졌는지 또는 가외의 시간을 내어 교육훈련에 참여하였는지는 교육훈련 참여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더러, 교육훈련참여가 이루어졌을 경우 참여집단 내에서의 이차적 격차를 만들어내는 요소이므로 중요하다.

<표 V-8>에는 졸업 후 교육훈련의 이수 비용을 누가 주로 부담하였는지에 대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교육훈련 참여시 비용을 본인이 주로 부담하였는가, 기업이 주로 부담하였는가, 정부 지원금으로 이뤄졌는가, 무료과정이었는가를 물어본 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주로 본인 부담’ 또는 ‘주로 회사 부담’이라는 응답이 각각 약 35%에 이르러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는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라는 응답이 높고, 남자는 회사 부담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아 교육훈련에 참여한 졸업생 집단 내에서도 성별격차가 나타남을 보여준다. 한편 이러한 격차는 출신대학 소재지별로도 발견된다. 즉, 수도권 대학 출신자가 회사 부담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비수도권 대학 출신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 또는 정부지원을 이용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다. 학부성적이 좋거나 수능점수가 높은 졸업생일수록 교육훈련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기보다는 주로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이들 졸업생의 취업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보다 좋은 직장에 취업되었을 소지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비용부담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취업상태의 영향을 받으므로 이수당시 취업자들을 중심으로 성별, 출신대학 소재지별 격차를 살펴보다도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난다. <표 V-8>에서 이수당시 취업자 중심으로 볼 경우, 여자는 여전히 본인 부담률이 훨씬 높은 반면 남자는 회사부담률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볼 때 회사에서 주어지는 교육훈련의 기회에 있어서 성별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기회에 있어서의 성별격차는 앞에서 살펴본 이수기관 유형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

또한 취업자를 중심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졸업생을 비교할 경우에도 회사 보조를 받는 비중이 수도권 대학 출신자가 비수도권 대학 출신자보다 높아 출신대학별로도 교육훈련기회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학부성적이 좋거나 수능점수가 높을수록 교육훈련 비용을 본인이 부담 하기보다는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경향이 명확히 확인되는데, 이는 이들 졸업생이 보다 좋은 직장에 취업해있거나, 이들 지표가 졸업생의 능력을 보여 준다고 전제한다면 동일 기업내에서도 우수한 종업원에게 상대적으로 교육훈련기회가 많이 부여되기 때문일 것이다.

<표 V-8> 계속교육훈련 비용부담의 주체

구분		무료	주요 본인	주요 회사	주요 정부	기타	계	비고	
전체	전체	53(10.9)	173(35.6)	170(35.0)	73(15.0)	17(3.5)	486(100)		
	성별	남	36(11.1)	98(30.2)	131(40.3)	49(15.1)	11(3.4)	325(100)	$\chi^2=16.192$, df=4, p=0.03
		녀	17(10.6)	75(46.6)	39(24.2)	24(14.9)	6(3.7)	161(100)	
	대학 소재지	수도권	33(11.8)	89(31.9)	115(41.2)	33(11.8)	9(3.2)	279(100)	$\chi^2=14.900$, df=4, p=0.005
		비수도권	20(9.7)	84(40.6)	55(26.6)	40(19.3)	8(3.9)	207(100)	
	학부 성적	C이하	7(17.5)	15(37.5)	12(30.0)	5(12.5)	1(2.5)	40(100)	$\chi^2=9.452$, df=8, p=0.306
		B	31(9.7)	123(38.3)	107(33.3)	54(16.8)	6(1.9)	321(100)	
		A	15(12.0)	35(28.0)	51(40.8)	14(11.2)	10(8.0)	125(100)	
	수능 점수	하위 30%	13(12.3)	41(38.7)	25(23.6)	22(20.8)	5(4.7)	106(100)	$\chi^2=19.144$, df=8, p=0.014
		중위 40%	19(11.1)	61(35.7)	58(33.9)	26(15.2)	7(4.1)	171(100)	
상위 30%		15(10.7)	48(34.3)	64(45.7)	9(6.4)	4(2.9)	140(100)		
당시 취업상태	취업	32(10.1)	82(25.9)	168(53.0)	30(9.5)	5(1.6)	317(100)	$\chi^2=137.747$, df=4, p=0.000	
	미취업	21(12.4)	91(53.8)	2(1.2)	43(25.4)	12(7.1)	169(100)		
취업자 (이수 당시)	성별	남	22(10.0)	43(19.6)	130(59.4)	20(9.1)	4(1.8)	219(100)	$\chi^2=16.415$, df=4, p=0.003
		녀	10(10.2)	39(39.8)	38(38.8)	10(10.2)	1(1.0)	98(100)	
	대학 소재지	수도권	20(10.3)	44(22.6)	115(59.0)	14(7.2)	2(1.0)	195(100)	$\chi^2=9.338$, df=4, p=0.053
		비수도권	12(9.8)	38(31.1)	53(43.4)	16(13.1)	3(2.5)	122(100)	
	학부 성적	C이하	3(11.5)	7(26.9)	12(46.2)	3(11.5)	1(3.8)	26(100)	$\chi^2=9.452$, df=8, p=0.306
		B	17(8.4)	58(28.6)	106(52.2)	21(10.3)	1(0.5)	203(100)	
		A	12(13.6)	17(19.3)	50(56.8)	6(6.8)	3(3.4)	88(100)	
	수능 점수	하위 30%	10(15.6)	18(28.1)	25(39.1)	9(14.1)	2(3.1)	64(100)	$\chi^2=12.137$, df=8, p=0.145
중위 40%		7(6.7)	27(26.0)	57(54.8)	11(10.6)	2(1.9)	104(100)		
상위 30%		11(10.4)	25(23.6)	64(60.4)	5(4.7)	1(0.9)	106(100)		

다음으로 계속교육훈련 과정의 이수가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면 <표 V-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 과정을 근무시간 중에 이수한 사람의 비율과, 전 과정을 근무시간의 가외로 이수한 이들의 비중이 각각 42.6% 41.6%로 동등하게 높게 나타난다. 한편 계속교육훈련참여의 근무시간 중 또는 근무시간외 이수여부에 있어서도 성별격차와 출신대학별 격차는 여전하다. 여자의 경우 ‘전 과정 근무시간외’라는 응답이 남자의 2배에 이르는 반면, 남자는 ‘전과정 근무시간중’이라는 응답이 여자의 3배에 이른다. 한편, 이 같은 결과는 앞에서 비용부담에 있어서의 성별격차와 일관성을 지니는 것으로서 남자가 근무시간 중 회사부담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하는 반면, 여자는 상대적으로 자비로 근무시간 외 교육훈련을 이수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출신대학 소재지별로 이러한 격차를 살펴볼 경우 수도권 대학 출신자는 ‘전과정 근무시간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비수도권 대학 출신자는 ‘전과정 근무시간외’ 비중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수능점수가 높은 졸업생의 경우에 그렇지 않은 졸업생에 비해 교육훈련의 전과정이나 과정의 일부를 근무시간중에 이수하는 비율이 높아지는데, 이 역시 이들 졸업생이 보다 좋은 직장에 취업해있거나 동일 기업 내에서도 회사의 배려를 보다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학부성적의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의 양상이 나타나는데, 학부성적 C이하인 취업생이 많지 않아 이 수치의 신뢰성에 한계가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V-9> 계속교육훈련의 근무시간 중 이수여부

구분		전 과정 근무시간 내	과정일부 근무시간 내	전 과정 근무시간 외	계	비고
전체		135(42.6)	50(15.8)	132(41.6)	317(100)	
성별	남	117(53.4)	29(13.2)	73(33.3)	219(100)	$\chi^2=34.155$, df=2, p=0.000
	녀	18(18.4)	21(21.4)	59(60.2)	98(100)	
대학 소재지	수도권	87(44.6)	36(18.5)	72(36.9)	195(100)	$\chi^2=5.520$, df=2, p=0.063
	비수도권	48(39.3)	14(11.5)	60(49.2)	122(100)	
학부 성적	C이하	12(46.2)	7(26.9)	7(26.9)	26(100)	$\chi^2=7.390$, df=4, p=0.117
	B	92(45.3)	31(15.3)	80(39.4)	203(100)	
	A	31(35.2)	12(13.6)	45(51.1)	88(100)	
수능 점수	하위 30%	25(39.1)	11(17.2)	28(43.8)	64(100)	$\chi^2=2.092$, df=4, p=0.719
	중위 40%	41(39.4)	17(16.3)	46(44.2)	104(100)	
	상위 30%	51(48.1)	15(14.2)	40(37.7)	106(100)	

3. 이수의 목적 및 효과

교육훈련이수의 목적과 교육훈련이수의 효과에 대한 평가 역시 교육훈련참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서 이 또한 집단 간의 차이가 드러난다. <표 V-10>에 제시된 교육훈련이수 응답결과를 보면 이수의 주요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업무능력 향상’이라는 응답이 57%로 가장 높은 반면, 취업 또는 전직을 위해서라는 응답도 28.6%에 달하고 있다. 한편, 이수목적에 있어서도 성별격차는 여전히 드러나 남자가 ‘업무능력 향상’이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 여자는 ‘취업/창업/전직’이라는 응답이 높다. 출신대학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대학 출신자의 경우 업무능력 향상이라는 응답이 높고 비수도권 대학 출신자의 경우에는 ‘취업/창업/전직’이라는 응답이 높다. 학부성적이 좋거나 수능점수가 높을수록 교육훈련의 목적이 업무능력 향상에 있는 경우가 많은 반면, 그렇지 않은 졸업생의 경우 취업/창업/전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또한 교육훈련이수의 목적은 이수당시 취업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수당시 취업자는 업무능력 향상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며, 취업/창업/전직을 위해서라는 응답도 전체

의 11%를 차지한다. 한편, 미취업자의 경우 ‘취업 또는 창업, 전직’이라는 응답이 주를 차지하고 있다.

<표 V-10> 계속교육훈련의 이수목적

구분		업무능력 향상	업무외 능력향상	승진/보수 향상	취업/창업/전직	계	비고	
전체		277(57.0)	58(11.9)	12(2.5)	139(28.6)	486(100)		
성별	남	192(59.1)	36(11.1)	8(2.5)	89(27.4)	325(100)	$\chi^2=1.857$, df=3, p=0.603	
	녀	85(52.8)	22(13.7)	4(2.5)	50(31.1)	161(100)		
대학소재지	수도권	176(63.1)	27(9.7)	6(2.2)	70(25.1)	279(100)	$\chi^2=10.146$, df=3, p=0.017	
	비수도권	101(48.8)	31(15.0)	6(2.9)	69(33.3)	207(100)		
학부 성적	C이하	18(45.0)	5(12.5)	2(5.0)	15(37.5)	40(100)	$\chi^2=13.989$, df=6, p=0.030	
	B	176(54.8)	36(11.2)	6(1.9)	103(32.1)	321(100)		
	A	83(66.4)	17(13.6)	4(3.2)	21(16.8)	125(100)		
수능 점수	하위 30%	47(44.3)	17(16.0)	2(1.9)	40(37.7)	106(100)	$\chi^2=16.611$, df=6, p=0.011	
	중위 40%	101(59.1)	19(11.1)	3(1.8)	48(28.1)	171(100)		
	상위 30%	93(66.4)	11(7.9)	6(4.3)	30(21.4)	140(100)		
당시 취업상태	취업	225(71.0)	45(14.2)	12(3.8)	35(11.0)	317(100)	$\chi^2=139.853$, df=3, p=0.000	
	미취업	52(30.8)	13(7.7)	0(0.0)	104(61.5)	169(100)		
취업자 (이수 당시)	성별	남	162(74.0)	30(13.7)	8(3.7)	19(8.7)	219(100)	$\chi^2=4.640$, df=3, p=0.200
		녀	63(64.3)	15(15.3)	4(4.1)	16(16.3)	98(100)	
	대학 소재지	수도권	147(75.4)	22(11.3)	6(3.1)	20(10.3)	195(100)	$\chi^2=5.371$, df=3, p=0.147
		비수도권	78(63.9)	23(18.9)	6(4.9)	15(12.3)	122(100)	
	학부 성적	C이하	14(53.8)	4(15.4)	2(7.7)	6(23.1)	26(100)	$\chi^2=13.226$, df=6, p=0.040
		B	140(69.0)	31(15.3)	6(3.0)	26(12.8)	203(100)	
		A	71(80.7)	10(11.4)	4(4.5)	3(3.4)	88(100)	
	수능 점수	하위 30%	34(53.1)	14(21.9)	2(3.1)	14(21.9)	64(100)	$\chi^2=18.852$, df=6, p=0.004
		중위 40%	78(75.0)	14(13.5)	3(2.9)	9(8.7)	104(100)	
		상위 30%	83(78.3)	10(9.4)	6(5.7)	7(6.6)	106(100)	

이수당시 취업자만을 살펴볼 경우는 이수목적에 있어서 성별격차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며, 대학소재지별 이수목적의 격차도 여전하다. 이러한 결과 역시 앞에서 살펴본 비용부담 및 근무시간 내/외 이수에서 나타난 결과들과 일관성을 지니는 것이다. 즉, 여성 또는 비수도권 대학 출신자의 경우 자신의 부담으로, 근무시간 외에 교육훈련에 참여할 비율이 높으며 이수 목적 역시

상대적으로 업무외 능력향상이나 전직 등이 높은 것이다. 같은 취업자라고 하더라도 학부성적이 좋거나 수능점수가 높은 졸업생과 그렇지 않은 졸업생 간에 교육훈련의 이수 목적에 확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업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훈련이 많은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취업/창업/전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는 학부성적이 좋지 못하거나 수능점수가 낮은 졸업생의 경우 취업했다 하더라도 그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이수의 효과 또한 지속적인 계속교육훈련이수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표 V-11>에 나타난 이수의 효과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3.6(3='보통')으로 나타나 교육훈련의 효과에 대해 만족하는 쪽이 더 많음을 보여주며, 주요 배경변인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높고, 비수도권대학 출신이 수도권보다 약간 높지만 큰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취업상태는 만족도에 큰 차이를 주는 요소로서 취업자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

이수당시 취업상태를 통제할 경우 성별로는 여전히 취업자와 미취업자 모두 남자의 만족도가 약간 높으나 큰 차이는 아니다. 출신대학소재지별로는 취업자 중에서는 수도권 대학 출신자의 만족도가 높고, 미취업자 중에서는 비수도권 대학 출신자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 어떤 일관된 경향을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학부성적이 좋거나 수능점수가 높은 졸업생의 경우 그렇지 못한 졸업생에 비해 교육훈련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는데, 이러한 경향은 이들의 취업 상태와 무관하게 확인된다.

<표 V-11> 계속교육훈련 이수 효과

구분		평균 (표준편차)*	응답자수 (명)	
전체	전체	3.62(0.846)	486	
	성별	남	3.63(0.827)	325
		녀	3.58(0.884)	161
	대학 소재지	수도권	3.60(0.875)	279
		비수도권	3.63(0.807)	207
	학부 성적	C이하	3.45(1.131)	40
		B	3.60(0.846)	321
		A	3.70(0.730)	125
	수능 점수	하위 30%	3.59(0.943)	125
		중위 40%	3.64(0.770)	167
상위 30%		3.63(0.840)	125	
당시 취업상태	취업	3.70(0.769)	317	
	미취업	3.46(0.957)	169	
취업자 (이수당시)	성별	남	3.71(0.788)	219
		녀	3.67(0.729)	98
	대학 소재지	수도권	3.72(0.770)	195
		비수도권	3.66(0.769)	122
	학부 성적	C이하	3.69(1.09)	26
		B	3.68(0.783)	203
		A	3.73(0.620)	88
	수능 점수	하위 30%	3.65(0.854)	81
중위 40%		3.67(0.757)	98	
상위 30%		3.77(0.736)	95	
미취업자 (이수당시)	성별	남	3.47(0.886)	106
		녀	3.44(1.074)	63
	대학 소재지	수도권	3.32(1.032)	84
		비수도권	3.60(0.862)	85
	학부 성적	C이하	3.00(1.109)	14
		B	3.458(0.930)	118
		A	3.65(0.950)	37
	수능 점수	하위 30%	3.48(1.089)	44
중위 40%		3.59(0.792)	69	
상위 30%		3.20(0.997)	30	

주: * 1. 전혀 효과 없음, 2. 대체로 효과 없음, 3. 보통, 4. 대체로 효과, 5. 매우 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교육훈련을 이수한 졸업생 내에서도 이수기관, 비용부담 및 근무시간중 이수여부, 이수목적과 (스스로 평가한) 효과 등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졸업생 집단의 특성에 따라 뚜렷한 격차가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여자와 비수도권 대학 출신자 및 학부성적이 좋지 못하거나 수능점수가 낮은 졸업생과 같이 상대적으로 취업능력이 부족하거나 통계적 차별에 의해 부족할 것으로 간주되는 집단의 경우 취업했다하더라도 회사의 지원보다는 자비로, 근무시간 외 가외시간을 투자해 교육훈련에 참여하며, 업무능력 향상보다는 취업/창업/전직을 목적으로 훈련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고 훈련의 효과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이다.²¹⁾ 1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교육훈련 참여 자체가 위에서 언급한 특성에 의해 제약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참여한 후에도 특히 취업자의 경우 회사로부터 적극적인 교육훈련에 대한 배려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대졸자의 졸업 후 계속교육훈련참여에 어떠한 요인들이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계속교육훈련에 참여한 졸업생들간에는 세부적인 이수내용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대졸자의 계속교육훈련 참여는 계속교육훈련 자체가 이들 졸업생에게 대학을 통해 또는 대학 재학 중에 취득한 직업능력과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간의 격차(gap)를 메울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대학에서 직업세계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집단 또는 취업능력이 취약한 집단의 경우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육훈련에 참여하여 학교교육과 일터와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도 생겨난다.

21) 물론 예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장의 1절에서 살펴본 졸업생의 교육훈련참여에 관한 관련변수의 분석 결과는 이와는 상반된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 수능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에서 받은 교육의 질이 높을수록, 그리고 졸업시의 전반적 직업능력이 평균 이상일수록 졸업 후 교육훈련참여가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졸업당시 취업능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계속교육훈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해 준다. 한편 이같은 결과는 이들 취업능력이 높은 졸업생이 먼저 취업함으로써 교육훈련의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된 것인지, 아니면, 취업능력이 높은 졸업생이 더 많이 교육훈련에 참여하여 더 빨리 취업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로짓분석 결과 졸업생의 취업상태를 통제 한 후에도 동일한 결과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능력이 높은 집단이 교육훈련에 더 많이 참여하는 성향이 취업전후로 동일하게 존재함을 의미한다. 다만 취업능력이 동일할 경우 계속교육훈련 참여가 통해 더 빨리 취업을 촉진하였는지에 대한 분석, 즉 계속교육훈련 참여의 실효성과 효과에 대한 분석은 본 조사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이 불가능하며 이것은 본 분석의 한계로 남는다.²²⁾

한편, 계속교육훈련 참여에 있어서의 이 같은 격차는 참여 후 이들 참여자들 간의 참여 형태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발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출신대학의 소재지, 학부성적 및 수능점수를 중심으로 교육훈련참여자들 간의 비용부담, 이수시간대, 이수기관, 이수목적과 (스스로 평가한) 교육훈련의 효과 등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여자 졸업생과 비수도권 대학 졸업생, 그리고 학부성적이 좋지 못하거나 수능성적이 낮은 졸업생이 남자 졸업생과 수도권 대학 졸업생, 그리고 학부성적이 좋거나 수능성적이 높은 졸업생에 비해, 같은 취업자라고 하더라도 자비로 근무시간이외에 취업/창업/전직을 목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훈련의 효과성에 대한 부정적인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졸업 후 계속교육훈련참여에 있어서의 집단 간 격차가 계속교육훈련에 참여한 집단내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취업자와 미취업자간의 차이, 성별 격

22) 졸업생별로 계속교육훈련을 받은 시점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다.

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그리고 대학교육 성취도와 취업능력이 높은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격차가 교육훈련에 참여한 이들 간의 교육의 질과 기회에 있어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대졸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계속교육훈련 참여에 있어서의 부익부 빈익빈의 조짐은 일차적으로는 참여 여부에서,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교육훈련에 참여한 이들 간의 참여방식이나 내용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학교육과 직업의 요구간의 괴리를 메워줄 보정 수단으로서의 교육훈련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상대적으로 취업능력이 취약한 계층에게 보다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요청됨을 시사해 준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졸업 후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층에게 제공되는 교육훈련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기업에 의한 훈련의 배분이 직업능력개발의 부익부빈익빈을 가속화시키는 측면이 있는 만큼, 취업한 청년층의 자기주도적 직업능력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적 장치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제 6 장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졸업생의 대학교육 이수 실태를 대학교육을 받은 당사자인 졸업생의 평가를 기초로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대학교육 실태와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간의 관계를 다각도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 대학교육과 노동시장 요구간의 괴리가 졸업후의 계속교육훈련을 통해 메워지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도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01년 2월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특정 코호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학교육 만족도와 노동시장 이행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최초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조사에서는 대졸 청년층의 교육-직업 이행 경로에 따라 대학 재학 중의 교육, 대학 졸업 전후의 구직활동, 첫 일자리, 현재의 일자리, 대학교육과 직업 간의 관계, 그리고 대학 졸업 후의 계속교육훈련에 관한 내용이 심층적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3장에서는 대학교육의 실태를 졸업생의 평가에 기초하여 살펴보았는데, 주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전체적인 대학의 교육 충실도는 5점 만점 중에 평균 3.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수업 출석, 이론이나 개념에 대한 학습, 전공분야나 과목을 선택할 자유, 자기주도학습,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학습이나 문제해결학습 등은 대학의 교육 충실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재학 중의 일 체험과 수업시간의 교수와 학생간의 커뮤니케이션, 졸업논문이나 졸업과

제물의 작성, 의사소통능력의 습득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대학의 교육 충실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둘째, 전체적인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 중에 평균 3.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는 학교 친구와의 접촉 기회, 도서관 시설 및 장서 보유, 전공 수업 내용, 수업의 질, 전공분야나 과목을 선택할 자유 등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일 체험 기회의 제공,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 수업시간 이외에 교수와 접촉할 기회, 대학의 의사결정에 대한 학생의 참여 기회, 졸업논문이나 과제물·시험에 대한 교수의 지도 조언, 수업에서 실용적 내용의 중시 등에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국제비교 관점에서 볼 경우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만족도는 비교 대상 국가 중 중간수준에 해당된다. 영국이나 네덜란드에 비해 크게 낮고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의 만족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독일이나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중부 유럽국가나 일본에 비해 다소 높고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국가에 비해서는 크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발견은 조사 시점과 조사 대상의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상대적 수준이 과대평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교육 충실도나 만족도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도 예상되는 것처럼, 대학교육에 대한 요구와 관련하여 대졸 청년층들은 향후 대학교육이 학문지향보다는 좀 더 직업능력을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대학교육 중에서 향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내용은 실험·실습교육, 현장실습이나 인턴십과 같은 직업현장체험교육, 정보활용교육, 인성교육 등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기초교양교육이나 진로상담 및 지도는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 졸업 당시 대졸 청년층들의 전체적인 직업기초능력 수준은 5점 만점 중에 평균 3.4점이었다. 비교적 높게 나타난 직업기초능력들은 성실성, 책임감, 일에 대한 적응 능력, 일에 몰입하는 능력, 학습능력, 다른 의견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융통성, 어떤 제약 하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팀워크 능력 등이었다. 반면에 외국어능력과 복잡한 사회조

직·기술체계를 이해하는 능력, 경제적 사고능력, 창의력, 폭넓은 일반적 지식·소양, 계획을 세우고 조정하고 조직화하는 능력, 지식·기술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능력 등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직업에서 비교적 중요도가 높은 직업기초능력은 시간관리능력, 성실성, 책임감, 문제해결능력, 정확하고 면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일에 대한 적응능력, 언어구사능력, 분석능력, 융통성, 어떤 제약 하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계획을 세우고 조정하고 조직화하는 능력, 정보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능력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직업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직업기초능력은 외국어 능력, 전공분야의 이론적 지식, 전공분야의 분석 방법에 대한 지식, 수작업 능력, 작문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폭넓은 일반적 지식·소양, 여러 전공분야를 포괄하는 사고·지식, 복잡한 사회조직·기술체계를 이해하는 능력 등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대학 졸업 당시의 수준간의 괴리 정도를 국제비교 관점에서 살펴보면, 직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우리나라의 경우 스페인이나 프랑스보다는 높지만 북유럽국가들과 영국보다는 크게 낮고 그밖의 다른 나라들과는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대학 졸업 당시 직업기초능력의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일본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직업능력과 대학에서 육성되는 능력간의 격차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가장 크다. 국제비교 관점에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확인된다 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은 향후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능력과 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학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무엇보다 대학교육이 직업능력을 육성하는 보다 실용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대학의 교육 충실도와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교육 활동, 현 직업에서 중요도가 높지만 실제 대학 졸업생들이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직업기초능력, 그리고 대학교육 중에서 향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교육 정책적으로 적

극적인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육과 노동시장 이행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4장에서는 대학교육의 특성(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구분, 대학교육에 대한 졸업생의 만족도, 대학교육이 직업능력 형성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졸업생의 응답, 재학생의 취업능력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계열 또는 학부입학제, 복수전공제도, 인턴십 등 주요 프로그램 등)과 졸업생의 취업능력(컴퓨터 활용 능력 및 영어능력과 더불어 주요 직업기초능력으로서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등과 그밖에 졸업생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대학성적이나 대학입학 당시의 수능성적 등), 또 취업을 위한 졸업생의 노력(2001년 2월 대학졸업이후의 학부 및 대학원 수준의 계속고등교육경험, 졸업후 미취업 상태에서서의 직업훈련경험, 자격증 취득과 해외연수경험 등)이 취업여부 및 정규직으로의 취업이나 하향취업, 전공취업 여부와 더불어 취업했을 경우의 임금수준 등 취업의 질에 미친 영향을 주로 분석하였다. 4장의 주된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경우 미취업이나 비정규직(하향취업) 상태에 있기보다 정규직에 취업(교육수준에 맞게 취업)해 있을 가능성이 지방대학 졸업생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등 취업성차가 지방대학 졸업생에 비해 보다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대학교육이 직업능력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 경우 취업성차가 유의하게 좋게 나타나는 등 대학교육이 직업능력 형성 중심으로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대학교육이 직업능력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 경우 졸업생이 미취업 상태에 있기보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에 취업해 있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또 미취업이나 하향취업(비전공취업) 상태에 있기보다는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전공취업)을 하게 될 가능성도 높았다. 대학교육 만족도도 정도는 다소 약하지만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참조).

셋째, 계열 또는 학부입학제도나 복수전공제, 인턴십 등 대학졸업생의 취업능력제고를 염두에 두고 도입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제도는 충분히 기능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 자체가 취업능력 제고와 연관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라 할 것이다.

넷째, 졸업생의 취업능력으로 취업성가에 긍정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체로 컴퓨터 활용 능력, 영어 능력, 기술능력(지식·기술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능력)으로 나타났다. 직업기초능력으로서 중요시되는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등의 경우 평균적인 비교에서는 대체로 취업성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조건을 통제한 로짓분석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이들 능력이 직업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컴퓨터나 영어능력과 기술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이 직원 선발 과정에서 그 수준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다섯째, 대학성적은 취업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호기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학재학생의 입장에서는 대학생활에 충실히 임해 학점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그러나 졸업이후 새로운 학부에 편입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은 그다지 취업여부나 취업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만큼(학부 편입의 경우 하향취업에 비해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을 할 가능성이 다소 높아지고, 대학원 진학이 비전공취업에 비해 전공취업의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유일한 긍정적 측면이다), 무분별한 진학은 자제될 필요가 있다. 또 자격증 취득이나 해외연수 경험, 또 졸업후 미취업 상태에서의 직업훈련 경험도 취업성가를 높이는데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의 신호기제로서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임이 재차 확인되며, 무분별한 해외연수는 자제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직업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여섯째, 다른 조건이 통제된 경우 정규직 취업자는 비정규직 취업자보다 20% 정도 임금을 더 받고, 전공취업자의 경우 비전공취업자에 비해 4%의 임금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다. 반면 하향취업자는 교육수준에 맞게 취업한 줄

업생에 비해 10% 정도 임금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공취업보다는 하향취업, 하향취업보다는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경우 임금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크다 할 것이다.

한편, 5장에서는 계속교육훈련이 과연 대학교육과 노동시장 요구간의 간격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취업능력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대학교육을 충실하게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의 계속교육훈련 참여 여부 및 참여 방식을 비교분석하였다. 대졸자의 계속교육훈련 참여는 이들이 졸업 후 계속교육훈련에 참여함으로써 학교를 통해서 또는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취득한 직업능력과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간의 격차(gap)를 메울 주요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학생 때 직업세계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집단의 경우 준비를 잘 한 집단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육훈련에 참여함으로써 학교교육과 일터와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당위성도 생겨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훈련참여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수들에 대한 분석결과는 이와는 상반된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

첫째, 학생 때 성적이 좋거나 수능점수가 높은 졸업생과 같이 우수한 취업능력을 가졌을 것으로 간주되는 집단이나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수준과의 괴리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계속교육훈련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결과는 이들 취업능력이 높은 졸업생이 먼저 취업함으로써 기업이 제공하는 교육훈련의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된 것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로짓분석 결과 졸업생의 취업상태를 통제한 후에도 동일한 결과가 발견됨으로 능력이 높은 집단이 교육훈련에 더 많이 참여하는 성향이 취업전후로 동일하게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취업능력이 동일한 집단이 계속교육훈련 참여를 통해 더 빨리 취업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 즉 계속교육훈련 참여의 실효성과 효과에 대한 분석은 본 조사 자료를 통해서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이것은 본 분석의 한계로 남는다.

둘째, 이 같은 격차는 이들 계속교육훈련참여자들 간의 참여 형태에 있어

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출신대학의 소재지, 학부성적 및 수능점수를 중심으로 비용부담, 이수시간대, 이수기관, 이수목적과 (스스로 평가한) 교육훈련의 효과 등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여자 졸업생과 비수도권 대학 졸업생, 그리고 학부성적이 좋지 못하거나 수능성적이 낮은 졸업생이 남자 졸업생과 수도권 대학 졸업생, 그리고 학부성적이 좋거나 수능성적이 높은 졸업생에 비해, 같은 취업자라고 하더라도 자비로 근무시간이외에 취업/창업/전직을 목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훈련의 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취업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집단의 경우 교육훈련에 참여하더라도 보다 제약된 여건속에 놓여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 같은 4년제 대학 졸업생이라고 하더라도 교육훈련의 부익부 빈익빈 조짐이 일차적으로는 참여 여부에서,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교육훈련에 참여하더라도 참여방식이나 내용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할 것이다. 대학교육과 직업의 요구간의 괴리를 메워줄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교육훈련이, 상대적으로 취업능력이 취약한 계층에게 보다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청된다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졸업 후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층에게 제공되는 교육훈련의 양과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기업에 의한 훈련의 배분이 취약 청년층의 직업능력개발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취업한 청년층의 자기주도적 직업능력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적 장치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SUMMARY

**College to Work Transi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of the Youth(I):
Satisfaction with College Education of the Graduates**

Chang-kyun Chae Ji-hee Choi Jun-pil Ok

1. data

Data from a survey of the cohort of 2001 Spring graduates has been used for analysis. In the survey, graduates have been surveyed with regard to their satisfaction with the quality of college education and its labor market outcomes.

In the following, we summarize major results of analyses based on these datasets.

2. Satisfaction of the Graduates with College Education

Overall satisfaction of 4-year college graduates with quality of college education scores 3.1 out of 5. Satisfaction scores are lower than the average in those area such as 'Do colleges provide chances to explore the world of work?', and 'Is there an emphasis on applications and practicality in class?'. This suggests that college education needs to be improved to strengthen the practical side, focusing more on growing the

vocational competencies of the graduates. The results also show that those who have improved their occupational skills at colleges have better chances of employment upon graduation.

From a viewpoint of international comparison,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college graduates of Korea with college education is far lower than that of those countries such as U.K., Netherland, and slightly lower than that of Nordic countries such as Sweden and Finland. It is slightly higher than Germany and France, and far above than that of Italy and Spain. However, this comparison should be taken with reservation though, because although the survey made in Korea tried to emulate the surveys made in the countries listed above, the time point and universe of the Korean survey is rather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surveys.

3. Gap between the level of skills at graduation and demand in the Labor Market

The gap between the level of skills owned by graduates at graduation and the level of skills demanded in the labour markets is an important indicator that tells how well the college education prepares the graduates for the world of work.

First, the overall level of job skills of 2001 college graduates at the time of graduation averages to 3.4 out of 5. The gap between the level of job skills owned by graduates at graduation and that demanded at work averages to 0.6.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 comparison, the level of skills owned by graduates in Korea is the lowest among the countries surveyed except for Japan. However, the level of skills demanded at work in Korea is as high as in other countries. In other words, the gap between the level of skills owned by graduates at graduation and the

level of skills demanded at work is larger in Korea than in other countries. This shows that college education in Korea needs a major improvement when it comes to preparing the graduates for the world of work.

Meanwhile, continuing education and training is expected to fill the gap between the skills owned at graduation and those demanded at work. However, this is found not to be the case among the graduates in Korea. Those who have higher skills at graduation and those who have scored higher in Student Aptitude Test to enter the college have higher probability to participate in continuing vocational training after graduation. This result holds even when other control variables are introduced into the logistic model where the possibility to take part in additional vocational training is estimated. This represents a problem since additional vocational education is supposed to fill the shortage between what they learned at school and what it is required at work. However, the result on the graduates show that a polarization is taking place in chances getting additional vocational training among the graduates, thereby continuing education and training(CET) is playing a role of widening the gap between those who have higher level of employability and those who have lower level of employability. This result suggests that a policy measure needs to be taken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continuing education and training among the youth so that it can narrow the gap between those who have and those who have not.

4. Effect of College Education on Current Employment

The skills which positively influence the employability of the graduates are found to be, among others, computer skills, English competency, and

the ability to apply what they have learned at school to work. This finding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to particularly improve the skills of the students in these areas while they are enrolled at college. These can be done in various ways. Students can improve their computer skills and English by taking additional classes offered in private institutes. Colleges also should improve the curriculum so that it can more match the need of the labor markets, thereby offering the students the chance to apply what they learn in class to work.

Academic achievements of the graduates at college are likely to positively affect their employment after graduation. However, obtaining additional schooling after graduation does not improve the employability of the graduates or the quality of employment. Also, obtaining job-related qualifications or getting additional vocational training does not improve the chances to get a job. Policy measures need to be established to improve the effect of obtaining qualifications and vocational training on getting a job.

<부 록>

<부록 1> 부표

<부록 2> 대졸 청년층의 대학교육 만족도와 직업에 관한 조사

<부록 1> 부표

<부표 IV-1> 정규직취업, 비정규직취업 및 미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결과(식(1))

변수	정규직취업/미취업		비정규직취업/미취업		정규직취업/비정규직취업	
	β 값	s.e	β 값	s.e	β 값	s.e
상수항	-6.41 ***	1.69	-12.30 ***	2.56	5.90 ***	2.10
성별	0.05	0.10	-0.56 ***	0.16	0.61 ***	0.14
연령	0.26 ***	0.06	0.37 ***	0.09	-0.11	0.07
수도권	0.20 **	0.08	-0.22 *	0.12	0.41 ***	0.10
교육만족도	0.02 **	0.01	0.03 **	0.01	-0.01	0.01
학부입학	-0.12	0.08	-0.19	0.12	0.07	0.11
복수전공	-0.07	0.10	0.06	0.15	-0.012	0.12
인턴십	0.15 *	0.09	0.26 **	0.13	-0.11	0.10
Log likelihood	1650.25					

<부표 IV-2> 정규직취업, 비정규직취업 및 미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결과(식(2))

변수	정규직취업/미취업		비정규직취업/미취업		정규직취업/비정규직취업	
	β 값	s.e	β 값	s.e	β 값	s.e
상수항	-6.51 ***	1.71	-12.18 ***	2.59	5.67 ***	2.13
성별	-0.02	0.11	-0.41 **	0.17	0.39 ***	0.15
연령	0.26 ***	0.06	0.37 ***	0.09	-0.11	0.07
수도권	0.17 **	0.08	-0.22 *	0.12	0.40 ***	0.10
교육만족도	0.02 **	0.01	0.03 **	0.01	-0.01	0.01
학부입학	-0.13	0.08	-0.13	0.13	-0.00	0.11
복수전공	-0.05	0.11	-0.01	0.16	-0.04	0.13
인턴십	0.13	0.09	0.20	0.13	-0.07	0.11
전공계열 인문계열=0						
사회계열	-0.15	0.19	-0.70 **	0.29	0.55 **	0.24
교육계열	-0.00	0.34	0.37	0.43	-0.36	0.33
공학계열	0.15	0.19	-0.66 **	0.28	0.81 ***	0.23
자연계열	-0.12	0.22	0.11	0.30	-0.23	0.23
의약계열	1.03	0.64	1.13	0.75	-0.09	0.44
예체능계열	-0.72 **	0.31	-0.57	0.46	-0.15	0.40
Log likelihood	1807.64					

<부표 IV-3> 정규직취업, 비정규직취업 및 미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결과(식(3))

변수	정규직취업/ 미취업		비정규직취업/ 미취업		정규직취업/ 비정규직취업	
	β값	s.e	β값	s.e	β값	s.e
상수항	-7.15 ***	1.93	-11.74 ***	2.90	4.59 *	2.43
성별	-0.09	0.12	-0.39 **	0.18	0.30 *	0.16
연령	0.26 ***	0.06	0.36 ***	0.10	-0.10	0.08
수도권	0.16 *	0.09	-0.11	0.14	0.27 **	0.12
교육만족도	0.02 **	0.01	0.02	0.01	0.00 *	0.01
학부입학	-0.12	0.09	-0.10	0.14	-0.02	0.12
복수전공	-0.04	0.12	-0.06	0.18	0.02	0.15
인턴십	0.11	0.10	0.15	0.15	-0.04	0.12
인문계열=0						
사회계열	-0.23	0.20	-0.57 *	0.31	0.33	0.26
교육계열	-0.27	0.35	0.14	0.48	-0.41	0.38
공학계열	0.36 *	0.21	-0.26	0.31	0.62 **	0.26
자연계열	0.19	0.24	0.33	0.33	-0.14	0.26
의약계열	0.99	0.66	0.90	0.77	0.09	0.48
예체능계열	-0.56 *	0.33	-0.69	0.51	0.12	0.45
수능점수	0.00	0.00	-0.00	0.01	0.00	0.00
계속교육 경험없음=0						
다른 대학	-0.08	0.27	0.23	0.35	-0.32	0.28
대학원	-0.30	0.18	0.05	0.25	-0.35 *	0.21
대학성적 C이하=0						
B	0.30 **	0.13	0.42 **	0.20	-0.12	0.17
A	0.13	0.15	-0.39	0.25	0.52 **	0.22
자격증	0.04	0.09	0.16	0.13	-0.12	0.11
해외연수	0.17	0.15	0.22	0.21	-0.05	0.17
컴퓨터 활용 능력	0.13	0.14	-0.28	0.28	0.41 *	0.25
영어능력 700미만=0						
미용시	-0.27 *	0.15	0.35	0.23	-0.62 ***	0.19
700-795	0.16	0.20	-0.43	0.37	0.59 *	0.32
800 이상	0.59 **	0.25	0.20	0.40	0.39	0.33
의사소통능력	0.13	0.13	0.25	0.18	-0.12	0.15
문제해결능력	-0.18	0.16	-0.26	0.25	0.08	0.21
자기관리능력	0.01	0.16	0.33	0.22	-0.31 *	0.18
자원활용능력	0.11	0.12	0.14	0.17	-0.03	0.14
대인관계능력	-0.12	0.13	-0.26	0.21	0.14	0.17
정보능력	-0.14	0.10	-0.07	0.15	-0.07	0.13
기술능력	0.20	0.12	0.15	0.18	0.04	0.15
조직이해능력	-0.14	0.12	-0.26	0.18	0.11	0.16
직업훈련	-0.46 ***	0.12	-0.28	0.20	-0.18	0.18
Log likelihood	1646.18					

<부표 IV-4> 하향취업,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 및 미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결과(식(1))

변수	하향취업/ 미취업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 미취업		하향취업/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	
	β 값	s.e	β 값	s.e	β 값	s.e
상수항	-6.66 ***	1.78	-7.35 ***	1.76	0.69	1.18
성별	-0.00	0.11	0.04	0.11	-0.03	0.08
연령	0.26 ***	0.06	0.25 ***	0.06	0.01	0.04
수도권	0.03	0.08	0.29 ***	0.08	-0.26 ***	0.06
교육만족도	0.01	0.01	0.03 ***	0.01	-0.02 ***	0.01
학부입학	-0.07	0.08	-0.20 **	0.08	0.12 **	0.06
복수전공	-0.20 *	0.11	0.05	0.11	-0.25 ***	0.08
인턴십	0.21 **	0.09	0.13	0.09	0.08	0.06
Log likelihood	2380.58					

<표 IV-5> 하향취업,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 및 미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결과(식(2))

변수	하향취업/ 미취업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 미취업		하향취업/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	
	β 값	s.e	β 값	s.e	β 값	s.e
상수항	-7.00 ***	1.81	-7.32 ***	1.78	0.32	1.21
성별	-0.12	0.12	0.04	0.12	-0.17 **	0.09
연령	0.26 ***	0.06	0.25 ***	0.06	0.01	0.04
수도권	0.00	0.08	0.27 ***	0.08	-0.26 ***	0.06
교육만족도	0.01	0.01	0.03 ***	0.01	-0.02 ***	0.01
학부입학	-0.11	0.09	-0.18 **	0.09	0.07	0.06
복수전공	-0.14	0.12	0.02	0.11	-0.17 **	0.09
인턴십	0.21 **	0.09	0.07	0.09	0.14 **	0.06
전공계열						
인문계열=0						
사회계열	-0.04	0.20	-0.28	0.20	0.25 *	0.13
교육계열	-0.53	0.39	0.32	0.34	-0.85 ***	0.26
공학계열	0.41 **	0.20	-0.15	0.20	0.56 ***	0.12
자연계열	0.02	0.24	-0.14	0.23	0.15	0.16
의약계열	0.85	0.67	1.29 **	0.65	-0.44	0.31
예체능계열	-0.40	0.32	-0.97 ***	0.34	0.57 **	0.28
Log likelihood	2713.06					

<부표 IV-6> 하향취업,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 및 미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결과(식(3))

변수	하향취업/ 미취업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 미취업		하향취업/ 교육수준에 맞는 취업	
	β값	s.e	β값	s.e	β값	s.e
상수항	-8.30 ***	2.04	-7.48 ***	2.04	-0.81	1.44
성별	-0.19	0.13	-0.00	0.13	-0.19 *	0.10
연령	0.30 ***	0.07	0.21 ***	0.07	0.09 *	0.05
수도권	0.02	0.09	0.24 **	0.09	-0.22 ***	0.07
교육만족도	0.01	0.01	0.03 ***	0.01	-0.02 **	0.01
학부입학	-0.11	0.09	-0.15 *	0.09	0.04	0.07
복수전공	-0.12	0.13	0.03	0.12	-0.15	0.10
인턴십	0.20 *	0.10	0.04	0.10	0.15 **	0.07
인문계열=0						
사회계열	-0.03	0.22	-0.42 *	0.22	0.39 **	0.16
교육계열	-0.88 **	0.42	0.09	0.36	-0.98 ***	0.31
공학계열	0.56 **	0.22	0.11	0.22	0.45 ***	0.15
자연계열	0.26	0.26	0.22	0.26	0.05	0.18
의약계열	0.88	0.69	1.22 *	0.68	-0.34	0.35
예체능계열	-0.31	0.35	-0.85 **	0.37	0.54 *	0.32
수능점수	-0.00	0.00	0.01	0.00	-0.01 ***	0.00
계속교육 경험없음=0						
다른 대학	-0.41	0.28	0.21	0.27	-0.62 ***	0.20
대학원	0.23	0.19	-0.78 ***	0.19	1.01 ***	0.15
대학성적 C이하=0						
B	0.33 **	0.13	0.27 **	0.14	0.06	0.10
A	-0.12	0.17	0.24	0.17	-0.37 ***	0.13
자격증	0.06	0.09	0.01	0.09	0.05	0.06
해외연수	0.22	0.16	0.18	0.16	0.04	0.10
컴퓨터 활용 능력	0.09	0.15	0.10	0.15	-0.01	0.10
영어능력 700미만=0						
미응시	-0.20	0.15	-0.20	0.15	0.00	0.11
700-795	0.14	0.21	0.10	0.20	0.04	0.13
800 이상	0.36	0.27	0.68 ***	0.26	-0.32 **	0.16
의사소통능력	0.06	0.13	0.17	0.13	-0.11	0.09
문제해결능력	-0.17	0.18	-0.15	0.17	-0.02	0.13
자기관리능력	0.03	0.17	0.09	0.16	-0.06	0.12
자원활용능력	0.11	0.12	0.11	0.12	0.01	0.08
대인관계능력	-0.21	0.14	-0.11	0.14	-0.10	0.10
정보능력	-0.09	0.11	-0.14	0.11	0.05	0.08
기술능력	0.05	0.13	0.29 **	0.13	-0.24 ***	0.09
조직이해능력	-0.15	0.12	-0.14	0.12	-0.01	0.09
직업훈련	-0.36 ***	0.13	-0.50 ***	0.14	0.14	0.11
Log likelihood	2507.30					

<부표 IV-7> 전공취업, 비전공취업 및 미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결과(식(1))

변수	전공취업/ 미취업		비전공취업/ 미취업		전공취업/ 비전공취업	
	β 값	s.e	β 값	s.e	β 값	s.e
상수항	-6.73 ***	1.74	-7.48 ***	1.84	0.75	1.23
성별	0.08	0.11	-0.09	0.11	0.17 **	0.08
연령	0.23 ***	0.06	0.30 ***	0.06	-0.07 *	0.04
수도권	0.19 **	0.08	0.11	0.08	0.08	0.06
교육만족도	0.03 ***	0.01	-0.00	0.01	0.03 ***	0.01
학부입학	-0.07	0.08	-0.25 ***	0.09	0.17 ***	0.06
복수전공	-0.07	0.11	-0.05	0.11	-0.02	0.08
인턴십	0.23 ***	0.09	0.05	0.09	0.18 ***	0.06
Log likelihood	2282.09					

<부표 IV-8> 전공취업, 비전공취업 및 미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결과(식(2))

변수	전공취업/ 미취업		비전공취업/ 미취업		전공취업/ 비전공취업	
	β 값	s.e	β 값	s.e	β 값	s.e
상수항	-6.88 ***	1.76	-9.04 ***	1.87	2.16 *	1.27
성별	0.01	0.11	-0.11	0.12	0.12	0.09
연령	0.23 ***	0.06	0.30 ***	0.06	-0.06	0.04
수도권	0.16 **	0.08	0.10	0.09	0.08	0.06
교육만족도	0.03 ***	0.11	-0.00	0.01	0.03 ***	0.01
학부입학	-0.09	0.08	-0.24 ***	0.09	0.16 **	0.07
복수전공	-0.04	0.11	-0.08	0.12	0.05	0.09
인턴십	0.17 *	0.09	0.10	0.10	0.07	0.07
전공계열						
인문계열=0						
사회계열	-0.40 **	0.20	1.63 ***	0.18	-2.03 ***	0.13
교육계열	0.10	0.34	1.35 ***	0.36	-1.25 ***	0.24
공학계열	0.07	0.19	1.64 ***	0.18	-1.57 ***	0.13
자연계열	-0.20	0.23	1.61 ***	0.22	-1.81 ***	0.16
의약계열	1.48 **	0.65	-	-	-	-
예체능계열	-0.55 *	0.31	0.29	0.39	-0.84 **	0.34
Log likelihood	2608.30					

<부표 IV-9> 전공취업, 비전공취업 및 미취업 결정요인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결과(식(3))

변수	전공취업/ 미취업		비전공취업/ 미취업		전공취업/ 비전공취업	
	β값	s.e	β값	s.e	β값	s.e
상수항	-7.65 ***	1.98	-9.83 ***	2.14	2.18	1.51
성별	-0.07	0.12	-0.17	0.13	0.10	0.10
연령	0.23 ***	0.07	0.32 ***	0.07	-0.09 *	0.05
수도권	0.12	0.09	0.14	0.10	-0.03	0.07
직업능력	0.03 ***	0.01	0.00	0.01	0.03 ***	0.01
학부입학	-0.06	0.09	-0.26 ***	0.10	0.19 ***	0.07
복수전공	-0.04	0.12	-0.05	0.13	0.01	0.10
인턴십	0.15	0.10	0.10	0.11	0.05	0.08
인문계열=0						
사회계열	-0.52 **	0.21	1.62 ***	0.20	-2.14 ***	0.15
교육계열	-0.09	0.36	0.89 **	0.39	-0.98 ***	0.29
공학계열	0.24	0.21	1.88 ***	0.21	-1.64 ***	0.15
자연계열	0.03	0.25	2.02 ***	0.25	-1.99 ***	0.18
의약계열	1.41 **	0.66	-	-	-	-
예체능계열	-0.33	0.33	0.19	0.43	-0.52	0.38
수능점수	0.01	0.00	-0.01	0.00	0.01 ***	0.00
계속교육 경험없음=0						
다른 대학	-0.12	0.26	0.05	0.29	-0.16	0.21
대학원	-0.05	0.18	-0.75 ***	0.22	0.70 ***	0.17
대학성적 C이하=0						
B	0.38 ***	0.13	0.24 *	0.14	0.14	0.11
A	0.18	0.16	-0.09	0.17	0.28 **	0.13
자격증	0.06	0.09	-0.03	0.09	0.09	0.07
해외연수	0.12	0.15	0.31 *	0.16	-0.19 **	0.10
컴퓨터 활용 능력	0.12	0.15	0.06	0.16	0.06	0.11
영어능력 700미만=0						
미용시	-0.29 *	0.15	-0.12	0.16	-0.17	0.11
700-795	0.11	0.20	0.07	0.21	0.04	0.14
800 이상	0.63 **	0.26	0.49 *	0.27	0.15	0.15
의사소통능력	0.13	0.13	0.10	0.14	0.03	0.09
문제해결능력	-0.13	0.17	-0.25	0.18	0.12	0.13
자기관리능력	0.07	0.16	0.04	0.18	-0.03	0.13
자원활용능력	0.10	0.12	0.13	0.13	-0.03	0.09
대인관계능력	-0.14	0.13	-0.20	0.15	0.06	0.10
정보능력	-0.13	0.10	-0.06	0.11	-0.07	0.08
기술능력	0.21 *	0.13	0.10	0.13	0.11	0.09
조직이해능력	-0.19	0.12	-0.06	0.13	-0.13	0.09
직업훈련	-0.49 ***	0.13	-0.34 **	0.13	-0.15	0.11
Log likelihood	2282.09					

<부표 IV-10> 임금함수 추정

변수	식(1)		식(2)		식(3)	
	β 값	s.e	β 값	s.e	β 값	s.e
상수항	4.14 ***	0.20	4.14 ***	0.21	4.11 ***	0.24
성별	0.14 ***	0.03	0.13 ***	0.03	0.12 ***	0.03
연령	0.02 **	0.01	0.02 **	0.01	0.01	0.01
수도권	0.13 ***	0.02	0.13 ***	0.02	0.10 ***	0.02
교육만족도	0.00 ***	0.00	0.00 ***	0.00	0.00 ***	0.00
학부입학	-0.01	0.02	-0.01	0.02	-0.01	0.02
복수전공	-0.01	0.03	-0.00	0.03	-0.01	0.03
인턴십	-0.00	0.02	-0.01	0.02	-0.01	0.02
전공계열						
인문계열기준						
사회계열			0.05	0.04	0.03	0.04
교육계열			0.09 *	0.05	0.11 **	0.05
공학계열			0.03	0.04	0.03	0.04
자연계열			-0.02	0.04	-0.01	0.04
의약계열			0.24 ***	0.07	0.21 ***	0.08
예체능계열			-0.00	0.06	0.04	0.07
수능점수					0.00 ***	0.00
계속교육						
경험없음기준						
다른 대학					0.07	0.05
대학원					-0.04	0.03
대학성적						
C이하기준						
B					0.05	0.04
A					0.08 *	0.05
자격증취득					-0.03	0.02
해외연수					0.00	0.03
컴퓨터 활용					0.07 **	0.03
영어능력						
700미만기준						
미용시					0.02	0.03
700-795					0.03	0.03
800 이상					0.08 **	0.04
의사소통능력					-0.01	0.03
문제해결능력					0.02	0.04
자기관리능력					0.02	0.04
자원활용능력					0.01	0.03
대인관계능력					0.03	0.03
정보능력					-0.02	0.02
기술능력					0.02	0.03
조직이해능력					-0.01	0.03
직업훈련					0.03	0.04
주당근무시간	0.00 **	0.00	0.00 **	0.00	0.00	0.00
Adj R-SQ	0.2229		0.2301		0.2324	

<부록 2> 대졸 청년층의 대학교육 만족도와 직업에 관한 조사

대졸 청년층의 대학교육 만족도와 직업에 관한 조사

ID				
----	--	--	--	--

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개발원(www.krivet.re.kr)은 국가 차원에서의 인적자원개발과 평생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우리나라 대졸 청년층의 대학교육 만족도와 직업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대졸 청년층의 고용 촉진과 대학교육의 개선 등을 포함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전문대학·대학 졸업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응답하여 주신 모든 내용은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절대 보장됩니다.

설문을 완성해 주시면, 약소하지만 사례비(₩5,000)를 은행계좌로 입금해드리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깐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년 7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김 장 호

■ 조사대행기관: (주)인포서치(전화 02-541-7601 / 팩스 02-541-7605)

사회여론조사실장 염동훈

1 대학 재학 중의 교육

1. 귀하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지금까지 이수했던 모든 고등교육의 이력에 관한 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정규 대학 과정뿐만 아니라 대학원 과정, 그리고 아직 수료하지 않은 과정까지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입학·졸업 시기	대학명 및 유형	전공계열 및 학과*	학위	평균학점
■입학__ , 편입__ ()년 ()월 ■졸업__ , 중퇴__ ()년 ()월 또는 현재 재학중	■대학명:() ■대학 소재지: ()시도 ()시·군 ■대학유형 ¹⁾ : ()	■전공 계열 ²⁾ () ■전공 학과 ()	■ 학위 수준 ①전문(산업)학사 ② 학사 ③ 석사 ④ 박사 ■ 학위 취득 여부 ① 취득함 ② 취득하지 않음	① A ② B ③이하
■입학__ , 편입__ ()년 ()월 ■졸업__ , 중퇴__ ()년 ()월 또는 현재 재학중	■대학명:() ■대학 소재지: ()시도 ()시·군 ■대학유형 ¹⁾ : ()	■전공 계열 ²⁾ () ■전공 학과 ()	■ 학위 수준 ①전문(산업)학사 ② 학사 ③ 석사 ④ 박사 ■ 학위 취득 여부 ① 취득함 ② 취득하지 않음	① A ② B ③이하
■입학__ , 편입__ ()년 ()월 ■졸업__ , 중퇴__ ()년 ()월 또는 현재 재학중	■대학명:() ■대학 소재지: ()시도 ()시·군 ■대학유형 ¹⁾ : ()	■전공 계열 ²⁾ () ■전공 학과 ()	■ 학위 수준 ①전문(산업)학사 ② 학사 ③ 석사 ④ 박사 ■ 학위 취득 여부 ① 취득함 ② 취득하지 않음	① A ② B ③이하

주: 1) 대학 유형

- ① 일반 4년제 대학 ② 산업대학 ③ 교육대학 ④ 전문대학
 ⑤ 기능대학 ⑥ 방송통신대학 ⑦ 기타

2) 전공 계열

- ① 인문계열 ② 사회계열 ③ 교육계열 ④ 공학계열
 ⑤ 자연계열(농수산계열, 생활과학계열 포함) ⑥ 의약계열 ⑦ 예·체능계열 ⑧ 기타

* 복수전공 또는 다전공 이수자는 자신이 주 전공 계열이나 학과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 가지만 선택하여 응답

2. 귀하는 대학 재학 중에 다음과 같은 활동에 대략 주당 몇 시간 정도를 할애 하였습니까?

※ 여기서 '대학 재학 중'이라 함은 귀하가 최근에 졸업한 대학 재학 기간을 말하며, 편입학 한 사람은 이전의 대학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이하 동일).

구분	활동	주당 평균 시간
■학기 중	•대학 교과 수업 출석	약 () 시간
	•대학 교과 수업과 관련한 학습 활동(예: 수업 준비, 과제물 작성, 시험 준비 등)	약 () 시간
	•대학 교과 이외의 학습 활동(예: 외국어, 컴퓨터 등)	약 () 시간
	•대학 교과 이외의 활동(예: 동아리, 스포츠, 학생회 등)	약 () 시간
	•아르바이트	약 () 시간
	•기타	약 () 시간
■방학 기간 중	•(계절학기) 대학 교과 수업 출석	약 () 시간
	•대학 교과 수업과 관련한 학습 활동(예: 수업 준비, 과제물 작성, 시험 준비 등)	약 () 시간
	•대학 교과 이외의 학습 활동(예: 외국어, 컴퓨터 등)	약 () 시간
	•대학 교과 이외의 활동(예: 동아리, 스포츠, 학생회 등)	약 () 시간
	•아르바이트	약 () 시간
	•기타	약 () 시간

3. 귀하는 대학 재학 중에 다음과 같은 활동에 몇 개월 정도의 기간을 보냈습니까?

활동	기간(월)	
•전공이나 장래의 직업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	약 () 개월,	해당없음
•전공이나 장래의 직업과 무관한 자격증 취득	약 () 개월,	해당없음
•전공이나 장래의 직업과 관련된 아르바이트 등의 취업 경험	약 () 개월,	해당없음
•전공이나 장래의 직업과 무관한 아르바이트 등의 취업 경험	약 () 개월,	해당없음
•현장실습이나 인턴십	약 () 개월,	해당없음

4. 귀하는 계열 또는 학부로 입학하였습니까?

- ___ ① 예
___ ② 아니오 ☞ 5번 문항으로

4-1. 귀하는 계열 또는 학부로 입학하여 대학 과정을 이수한 것이 취업을 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도움	도움	보통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해당사항 없음
5	4	3	2	1	0

4-2. 귀하는 계열 또는 학부로 입학하여 대학 과정을 이수한 것이 직업생활을 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도움	도움	보통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해당사항 없음
5	4	3	2	1	0

5. 귀하는 대학 재학 중 복수전공 또는 다전공을 이수하였습니까?

- ___ ① 예
___ ② 아니오 ☞ 6번 문항으로

5-1. 귀하는 복수전공 또는 다전공을 이수한 것이 취업을 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도움	도움	보통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해당사항 없음
5	4	3	2	1	0

5-2. 귀하는 복수전공 또는 다전공을 이수한 것이 직업생활을 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도움	도움	보통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해당사항 없음
5	4	3	2	1	0

6. 귀하는 대학 재학 중 현장실습이나 인턴십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7번 문항으로

6-1. 귀하는 현장실습이나 인턴십이 대학의 전공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관련	대체로 관련	보통	대체로 무관	전혀 무관
5	4	3	2	1

6-2. 귀하는 현장실습이나 인턴십이 취업을 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도움	도움	보통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해당사항 없음
5	4	3	2	1	0

6-3. 귀하는 현장실습이나 인턴십이 직업생활을 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도움	도움	보통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해당사항 없음
5	4	3	2	1	0

7. 귀하는 대학 재학 중 자격증 취득 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까?(운전면허는 제외)

- ___ ① 예
 ___ ② 아니오 ☞ 8번 문항으로

7-1. 귀하는 대학 재학 중 자격증 취득 준비를 주로 어떻게 하였습니까?

- ① 대학 정규 교육을 통해
- ② 대학 정규 교육 이외의 학원 수강을 통해
- ③ 독학으로
- ④ 기타

7-2. 귀하는 대학 재학 중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까?

- ___ ① 예
 ___ ② 아니오 ☞ 8번 문항으로

7-2-1. 귀하가 대학 재학 중 취득한 자격증은 몇 개입니까?

- 전공 관련 자격증 _____ 개,
- 전공 무관 자격증 _____ 개

7-2-2. 귀하가 대학 재학 중 취득한 자격증이 취업을 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도움	도움	보통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해당사항 없음
5	4	3	2	1	0

7-2-3. 귀하가 대학 재학 중 취득한 자격증이 직업생활을 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도움	도움	보통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해당사항 없음
5	4	3	2	1	0

8. 귀하는 대학 재학 중 외국에서 교육이나 연수 등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___ ① 예
___ ② 아니오 ☞ 9번 문항으로

8-1. 귀하가 대학 재학 중 외국에서 교육이나 연수 등을 받은 국가명, 기간, 주된 활동을 기재해 주십시오.

국가명	기 간	주된 활동 (복수 응답 가능)
① 북미주(미국, 캐나다) ② 유럽 ③ 일본 ④ 중국 ⑤ 동남아 ⑥ 호주, 뉴질랜드 ⑦ 기타	()년 ()개월	① 전공 관련 교육 ② 전공 이외의 교육 ③ 현지 외국어 연수 ④ 현장실습이나 인턴십 ⑤ 기타
① 북미주(미국, 캐나다) ② 유럽 ③ 일본 ④ 중국 ⑤ 동남아 ⑥ 호주, 뉴질랜드 ⑦ 기타	()년 ()개월	① 전공 관련 교육 ② 전공 이외의 교육 ③ 현지 외국어 연수 ④ 현장실습이나 인턴십 ⑤ 기타

8-2. 귀하는 외국에서의 교육이나 연수가 대학의 전공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관련	대체로 관련	보통	대체로 무관	전혀 무관
5	4	3	2	1

8-3. 귀하는 외국에서의 교육이나 연수가 취업을 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도움	도움	보통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해당사항 없음
5	4	3	2	1	0

8-4. 귀하는 외국에서의 교육이나 연수가 직업생활을 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도움	도움	보통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해당사항 없음
5	4	3	2	1	0

9.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학교육이 학문기초능력을 형성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도움	도움	보통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5	4	3	2	1

10.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학교육이 직업능력을 형성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도움	도움	보통	도움 안됨	전혀 도움 안됨
5	4	3	2	1

11. 귀하가 다닌 대학에서 다음과 같은 교육 활동을 어느 정도 중시하였다고 생각합니까?

항 목	매우 중시함	대체로 중시함	보통	대체로 중시하지 않음	전혀 중시하지 않음
•사실이나 분석 방법의 습득	5	4	3	2	1
•이론이나 개념에 대한 학습	5	4	3	2	1
•의사소통능력의 습득	5	4	3	2	1
•자기주도 학습(스스로 공부하기)	5	4	3	2	1
•수업 출석	5	4	3	2	1
•교수의 적극적 학습 정보 제공	5	4	3	2	1
•전공분야나 과목을 선택할 자유	5	4	3	2	1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학습이나 문제해결학습	5	4	3	2	1
•재학 중 일 체험	5	4	3	2	1
•수업 시간 외 교수와 학생간의 커뮤니케이션	5	4	3	2	1
•졸업 논문이나 졸업 과제물의 작성	5	4	3	2	1
•정기적인 학업성취도 평가	5	4	3	2	1

12. 귀하가 다닌 대학에서의 다음과 같은 교육 활동이나 교육 여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합니다? 귀하가 만족하는 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항 목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학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	5	4	3	2	1
•졸업 논문(또는 과제물·시험)에 대한 지도·조언	5	4	3	2	1
•전공 수업 내용	5	4	3	2	1
•교과과정의 체계성	5	4	3	2	1
•교과목의 다양성	5	4	3	2	1
•시험이나 성적 등의 평가 방법	5	4	3	2	1
•전공분야나 과목을 선택할 자유	5	4	3	2	1
•수업에서의 실용적 내용의 중시	5	4	3	2	1
•수업의 질	5	4	3	2	1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	5	4	3	2	1
•수업에서의 아카데믹한 내용의 중시	5	4	3	2	1
•일 체험 기회의 제공	5	4	3	2	1
•수업 시간 이외에 교수와 접촉할 기회	5	4	3	2	1
•학교 친구와 접촉할 기회	5	4	3	2	1
•대학의 의사결정에 대한 학생의 참여 기회	5	4	3	2	1
•도서관 시설 및 장서 보유	5	4	3	2	1
•교수·학습 자료의 제공	5	4	3	2	1
•교육 시설 및 기자재	5	4	3	2	1

13. 대학을 졸업할 당시 귀하의 컴퓨터 활용 능력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항 목	상	중상	중	중하	하	전혀 못함
•워드프로세서	5	4	3	2	1	0
•프로그래밍	5	4	3	2	1	0
•스프레드시트(예: 엑셀 등)	5	4	3	2	1	0
•데이터베이스	5	4	3	2	1	0
•전공 관련 소프트웨어(예: CAD, SPSS 등)	5	4	3	2	1	0
•인터넷 검색	5	4	3	2	1	0

14. 대학을 졸업할 당시 귀하의 외국어 능력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항 목		상	중상	중	중하	하	전혀 못함
•영어	독해 능력	5	4	3	2	1	0
	작문 능력	5	4	3	2	1	0
	회화 능력	5	4	3	2	1	0
•제2 외국어 ()	독해 능력	5	4	3	2	1	0
	작문 능력	5	4	3	2	1	0
	회화 능력	5	4	3	2	1	0

15. 귀하는 대학 재학 중 TOEIC, TOEFL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공인된 외국어 어학 시험에 응시하였습니까?

- ___ ① 예
___ ② 아니오 ☞ 16번 문항으로

15-1. (대학 재학 중 외국어 어학 시험에 응시하였다면) 귀하가 응시한 외국어 어학 시험의 종류와 가장 높았던 성적을 기재해 주십시오(예: TOEIC, TOEFL 등).

외국어명	외국어 어학 시험명	성 적
		점
		점
		점

16. 현재까지 귀하께서는 직업을 가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___ ① 예
___ ② 아니오

17. 다음은 모든 직업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능, 능력이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귀하는 이와 같은 지식과 기능, 능력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어느 정도 중요하며, 또 대학을 졸업할 당시 이와 같은 지식과 기능,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귀하가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대학 졸업 당시의 귀하의 지식과 기능, 능력에 대해서만 응답해 주십시오.

대학 졸업 당시의 수준				항 목	현재 직업에서의 중요도					
매우 잘 갖추춤	대체로 잘 갖추춤	보통	대체로 갖추지 않음		전혀 갖추지 않음	매우 중요함	중요함	보통	중요치 않음	전혀 중요치 않음
5	4	3	2	1	•폭넓은 일반적 지식·소양	5	4	3	2	1
5	4	3	2	1	•여러 전공 분야를 포괄하는 사고·지식	5	4	3	2	1
5	4	3	2	1	•전공 분야의 이론적 지식	5	4	3	2	1
5	4	3	2	1	•전공 분야의 분석 방법에 대한 지식	5	4	3	2	1
5	4	3	2	1	•외국어 능력	5	4	3	2	1
5	4	3	2	1	•컴퓨터 활용 능력	5	4	3	2	1
5	4	3	2	1	•복잡한 사회조직·기술체계를 이해하는 능력	5	4	3	2	1
5	4	3	2	1	•계획을 세우고 조정하고 조직화 하는 능력	5	4	3	2	1
5	4	3	2	1	•지식·기술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능력	5	4	3	2	1
5	4	3	2	1	•경제적 사고 능력	5	4	3	2	1
5	4	3	2	1	•정보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능력	5	4	3	2	1

대학 졸업 당시의 수준				항 목	현재 직업에서의 중요도					
매우 잘 갖추춤	대체로 잘 갖추춤	보통	전혀 갖추지 않음		매우 중요함	중요함	보통	중요치 않음	전혀 중요치 않음	
5	4	3	2	1	•문제해결능력	5	4	3	2	1
5	4	3	2	1	•분석능력	5	4	3	2	1
5	4	3	2	1	•학습능력	5	4	3	2	1
5	4	3	2	1	•자신의 일에 대한 객관적 평가능력	5	4	3	2	1
5	4	3	2	1	•창의력	5	4	3	2	1
5	4	3	2	1	•어떤 제약 하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정신력	5	4	3	2	1
5	4	3	2	1	•정확하고 면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5	4	3	2	1
5	4	3	2	1	•시간 관리 능력	5	4	3	2	1
5	4	3	2	1	•협상 능력	5	4	3	2	1
5	4	3	2	1	•일에 대한 적응 능력	5	4	3	2	1
5	4	3	2	1	•수작업 능력	5	4	3	2	1
5	4	3	2	1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5	4	3	2	1
5	4	3	2	1	•팀워크 능력	5	4	3	2	1
5	4	3	2	1	•자발성·자주성	5	4	3	2	1
5	4	3	2	1	•융통성	5	4	3	2	1
5	4	3	2	1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주장할 수 있는 능력	5	4	3	2	1
5	4	3	2	1	•일에 몰입하는 능력	5	4	3	2	1
5	4	3	2	1	•성실성	5	4	3	2	1
5	4	3	2	1	•비판적 사고 능력	5	4	3	2	1
5	4	3	2	1	•언어 구사 능력	5	4	3	2	1
5	4	3	2	1	•작문 능력	5	4	3	2	1
5	4	3	2	1	•다른 의견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능력	5	4	3	2	1
5	4	3	2	1	•리더십	5	4	3	2	1
5	4	3	2	1	•책임감	5	4	3	2	1

18. **(공학계열 졸업생만 응답)** 다음은 공학계열의 대학 졸업생이 갖추어야 할 공통적인 능력과 소양이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귀하는 이와 같은 능력과 소양이 현재하고 있는 일에서 어느 정도 중요하며, 또 대학을 졸업할 당시 이와 같은 능력과 소양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까? 만약 귀하가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대학 졸업 당시의 귀하의 능력과 소양에 대해서만 응답해 주십시오.

대학 졸업 당시의 수준					항 목	현재 직업에서의 중요도				
매우 잘 갖추 춤	대 체 로 잘 갖추 춤	보 통	대 체 로 갖추 지 않음	전 혀 갖추 지 않음		매우 중요 함	중 요 함	보 통	중 요 치 않음	전 혀 중요 치 않음
5	4	3	2	1	• 수학, 기초 과학, 공학 지식과 이론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	5	4	3	2	1
5	4	3	2	1	•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며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	5	4	3	2	1
5	4	3	2	1	• 요구된 필요조건에 맞추어 시스템, 요소, 공정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5	4	3	2	1
5	4	3	2	1	• 여러 전공분야로 구성된 팀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 낼 수 있는 능력	5	4	3	2	1
5	4	3	2	1	• 공학 문제들을 인식하며, 이를 공식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5	4	3	2	1
5	4	3	2	1	• 직업적·도덕적인 책임에 대한 인식	5	4	3	2	1
5	4	3	2	1	•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5	4	3	2	1
5	4	3	2	1	• 거시적 관점에서 공학적 해결 방안이 끼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5	4	3	2	1
5	4	3	2	1	• 평생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평생학습 능력	5	4	3	2	1
5	4	3	2	1	• 최근의 이슈에 대한 기본 지식	5	4	3	2	1
5	4	3	2	1	•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와 국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능력	5	4	3	2	1
5	4	3	2	1	• 공학 실무에 필요한 기술, 방법, 최신 공학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5	4	3	2	1
5	4	3	2	1	• 경영에 대한 마인드 및 기초 능력	5	4	3	2	1

18. 만일 귀하가 대학을 다시 다닌다면 동일한 전공을 선택하겠습니까?

- ① 동일한 전공 ② 유사 관련 전공 ③ 전혀 다른 전공

19. 만일 귀하가 대학을 다시 다닌다면 동일한 대학을 선택하겠습니까?

- ① 예 ☞ 20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19-1. (다른 대학을 선택하겠다면) 귀하는 어떤 대학을 선택하겠습니까?

- ① (다른) 일반 4년제 대학 ② (다른) 산업대학
③ (다른) 교육대학 ④ (다른) 전문대학
⑤ (다른) 기능대학 ⑥ 방송통신대학
⑦ 기타

20. 귀하는 우리나라 대학이 전반적으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4	3	2	1

21. 귀하는 향후 대학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가 생각하는 방향에 가까운 쪽의 숫자를 선택하여 기입하고, 학문과 직업능력을 균형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0'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학문 지향	3	-	2	-	1	-	0	-	1	-	2	-	3	직업능력 지향
-------	---	---	---	---	---	---	---	---	---	---	---	---	---	---------

22. 다음의 대학 교육 내용 중에서 향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항 목	매우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대체로 불필요	매 우 불필요
•기초교양교육	5	4	3	2	1
•전공기초교육	5	4	3	2	1
•전공심화교육	5	4	3	2	1
•실험·실습교육	5	4	3	2	1
•직업현장체험교육(현장실습, 인턴십 등)	5	4	3	2	1
•외국어교육	5	4	3	2	1
•국제화교육	5	4	3	2	1
•정보활용교육	5	4	3	2	1
•인성교육	5	4	3	2	1
•진로상담 및 지도	5	4	3	2	1

② 대학 졸업 전후의 구직활동

1. 2001년 2월 대학 졸업 전후로 구직활동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별다른 구직활동 없이 곧바로 취업됨. ☞ 6번 문항으로
- ③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곧바로 창업함. ☞ ③ 첫 일자리 문항으로
- ④ 학업을 계속함. ☞ ③ 첫 일자리 문항으로
- ⑤ 취업할 생각이 없어 구직활동을 하지 않음. ☞ ③ 첫 일자리 문항으로

2. 언제부터 첫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까?

- ① 졸업 ___ 개월 전에
- ② 졸업시점에
- ③ 졸업 ___ 개월 후에

3. 귀하는 대학 졸업 전후로 첫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구인 광고를 보고 응모
- ② 직접 기업에 구인 여부 확인
- ③ 인터넷 등에 구직 정보 게시
- ④ 기업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음
- ⑤ 공공취업알선기관(고용안정센터 등) 이용
- ⑥ 민간취업알선기관 이용
- ⑦ 대학의 취업정보센터 이용
- ⑧ 대학의 교수에게 도움 요청
- ⑨ 대학 재학 중 일을 했던 기업에 취업 부탁
- ⑩ 아는 사람(친인척, 선배, 친구 등)에게 취업 부탁
- ⑪ 취업박람회에 참여
- ⑫ 창업 준비
- ⑬ 기타(구체적으로: _____)

3-1. 위에서 시도했던 것 중에서 대학 졸업 후 첫 일자리 취업(아르바이트 성격의 일은 제외)에 가장 크게 도움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 ① ___번
- ② 졸업 후 일을 해본 적이 없음. ☞ ⑤ 계속교육훈련 문항으로

4. 대학 졸업 후 첫 일자리(아르바이트 성격의 일은 제외)를 얻기 전까지 몇 번이나 취업 지원을 했습니까?

- ___회

5. 대학 졸업 후 첫 일자리(아르바이트 성격의 일은 제외)에 취업하기까지 구직활동을 했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___개월

6. 첫 일자리(아르바이트 성격의 일은 제외)에 채용될 때 기업에서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생각합니까? 항목별 중요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항 목	매 우 중시함	대체로 중시함	보통	대 체 로 중시하지 않 음	전 혀 중시하지 않 음
•출신 대학	5	4	3	2	1
•전공 계열	5	4	3	2	1
•전공 학과	5	4	3	2	1
•대학 성적	5	4	3	2	1
•추천이나 소개	5	4	3	2	1
•근로 경험	5	4	3	2	1
•외국 생활 경험	5	4	3	2	1
•외국어 능력	5	4	3	2	1
•컴퓨터 활용 능력	5	4	3	2	1
•자격증 보유 여부	5	4	3	2	1
•팀워크 능력	5	4	3	2	1
•인성	5	4	3	2	1
•출신 지역	5	4	3	2	1
•외모	5	4	3	2	1

③ 첫 일자리

1. 대학 졸업이후 지금까지 모두 몇 개의 일자리(아르바이트 성격의 일은 제외)를 경험했습니까?

■ _____ 개

2. 대학 졸업 이후 처음으로 경험한 일자리(아르바이트 성격의 일은 제외)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 _____ 년 _____ 월부터

3. 언제 그만두었습니까?

- ① _____ 년 _____ 월
- ② 현재까지 하고 있음 ☞ 현재의 일자리에 대한 문항으로

4. 고용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 5번 문항으로
- ② 비상용직 임금근로자 ☞ 5번 문항으로
- ③ 종업원을 둔 고용주 ☞ 5번 문항으로
- ④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 6번 문항으로
- ⑤ 무급가족 종사자 ☞ 8번 문항으로

※ 용어 설명

- **임금근로자**라함은 국가, 공공기관 및 단체, 회사, 민간기업, 사회복지센터, 교회, 조합 또는 기타 비영리기관 등에서 일하고 그 대가로 월급, 봉급, 일당, 봉사료, 샅 등을 현금 또는 현물로 받는 취업자를 말합니다.
 - **상용직**이란 고용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이 원하면 현재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경우를 말합니다.
 - **비상용직**이란 ‘상용직’이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 **비임금근로자**란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자기 혼자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보수 없이 일하고 있는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합니다.
 - **종업원을 둔 고용주**란 한 사람이상의 유급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소규모라도 임금을 주는 종업원이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무급가족종사자**란 가족(혹은 친지)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말합니다.

5. 첫 일자리의 종업원수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 모두 합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① 10인 이하 ② 11인~49인 ③ 50인~299인
- ④ 300인~999인 ⑤ 1000인 이상

6. 첫 일자리 당시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였습니까?

※ 월평균 소득은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이자소득세 등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의료 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말하며, 임금근로자의 경우 초과근로수당, 특별 급여 등을 포함합니다.

■ _____ 만 원

7. 첫 일자리 당시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주당 총 _____ 시간

8. 첫 일자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4	3	2	1

9. 첫 일자리의 업무와 대학 때 전공이 어떻게 관련된다고 생각합니까?

- ① 이 일을 하기 위한 유일한(또는 가장 적합한) 전공 분야이다.
- ② 내 전공 이외에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전공 분야가 있다.
- ③ 내 전공보다 다른 전공 분야가 더 유용하다.
- ④ 특별한 전공이 필요없다.
- ⑤ 이 일을 하기 위해 대학교육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
-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0. 첫 일자리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수준
- ② 전문대학(또는 기능대학) 졸업 수준
- ③ 4년제 대학 졸업 수준
- ④ 대학원 석사 이상
-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3. 가장 중요한 일자리의 고용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가장 중요한 일자리란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일하는 일자리를 의미합니다. 만일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는 수입이 가장 많은 일자리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 【 임금근로자용 】 문항에 대해 응답
- ② 비상용직 임금근로자 ☞ 【 임금근로자용 】 문항에 대해 응답
- ③ 종업원을 둔 고용주 ☞ 【 자영업자용 】 문항에 대해 응답
- ④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 【 자영업자용 】 문항에 대해 응답
- ⑤ 무급가족 종사자 ☞ 【 무급가족종사자용 】 문항에 대해 응답

【 임금근로자용 】

4. 현재 다니는 회사에 언제 입사했습니까?

■ _____ 년 _____ 월부터

5.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 ⑮ 경남 ⑯ 제주

6. 어떤 업종에 속하는 회사입니까?

- ① 농업 및 임업 ② 어업 ③ 광업
- ④ 제조업 ⑤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⑥ 건설업 ⑦ 도매 및 소매업 ⑧ 숙박 및 음식점업
- ⑨ 운수업 ⑩ 통신업 ⑪ 금융 및 보험업
- ⑫ 부동산 및 임대업 ⑬ 사업 서비스업
- ⑭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⑮ 교육 서비스업
- ⑯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⑰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 ⑱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⑲ 가사 서비스
- ⑳ 국제 및 외국기관

7. 파트타임 또는 아르바이트 성격의 일입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8. 현재 다니는 회사의 종업원 수는 모두 얼마나 됩니까?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 모두 합하여 응답해주시시오.

- ① 10인 이하 ② 11인~49인 ③ 50인~299인
④ 300인~999인 ⑤ 1,000인 이상

9.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월평균 소득은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이자소득세 등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말하며, 임금근로자의 경우 초과근로수당, 특별 급여 등을 포함합니다.

■ _____ 만 원

10.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주당 총 _____ 시간

11. 현재의 직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	매우 불만
5	4	3	2	1

12. 이 회사를 계속 다닐 생각입니까?

- ① 예 ☞ 30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 30번 문항으로

【 자영업자용 】

13.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하였습니까?

■ _____ 년 _____ 월부터

14. 현재 하고 있는 사업체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 ⑮ 경남 ⑯ 제주

15. 어떤 업종에 해당됩니까?

- ① 농업 및 임업 ② 어업 ③ 광업
- ④ 제조업 ⑤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⑥ 건설업 ⑦ 도매 및 소매업 ⑧ 숙박 및 음식점업
- ⑨ 운수업 ⑩ 통신업 ⑪ 금융 및 보험업
- ⑫ 부동산 및 임대업 ⑬ 사업 서비스업
- ⑭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⑮ 교육 서비스업
- ⑯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⑰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 ⑱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⑲ 가사 서비스 ⑳ 국제 및 외국기관

16. 별도의 사무실이나 점포가 없이 집에서 일을 합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17. 기존 사업체를 인수한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창업한 것입니까?

- ① 기존 사업체 인수 ② 새로 창업

18. 현재 일자리에서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일하십니까?

■ 주당 총 _____ 시간

19. 월평균 매출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 월평균 _____ 만 원

20. 월평균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 ① 월 평균 _____ 만 원 ② 적자(손해)를 보고 있다

21. 현재의 일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	매우 불만
5	4	3	2	1

22. 이 일을 계속 하기를 희망합니까?

- ① 예 ☞ 30번 문항으로
- ② 아니오 ☞ 30번 문항으로

【 무급가족종사자용 】

※ 무급가족종사자: 일정한 보수없이 자기 가족(혹은 친척)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을 돕는 사람으로 1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23. 언제부터 일하였습니까?

■ _____ 년 _____ 월부터

24. 현재 일하시는 일자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 ⑮ 경남 ⑯ 제주

25. 어떤 업종에 해당됩니까?

- ① 농업 및 임업 ② 어업 ③ 광업
- ④ 제조업 ⑤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⑥ 건설업 ⑦ 도매 및 소매업 ⑧ 숙박 및 음식점업
- ⑨ 운수업 ⑩ 통신업 ⑪ 금융 및 보험업
- ⑫ 부동산 및 임대업 ⑬ 사업 서비스업
- ⑭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⑮ 교육 서비스업
- ⑯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⑰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 ⑱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⑲ 가사 서비스
- ⑳ 국제 및 외국기관

26. 현재 일자리에 대해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일하십니까?

■ 주당 총 _____ 시간

27. 현재의 일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	매우 불만
5	4	3	2	1

28.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이 일(사업체)을 물려받을 것이므로
- ② 관련 일자리에 종사하기 위해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어서
- ③ 마땅히 할 일이 없고 일손이 부족해서 당분간만 도울 예정
- ④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대학교육과 현재 일 간의 관계 】

30. 현 일자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4	3	2	1

31. 현 일자리의 업무와 대학 때 전공이 어떻게 관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이 일을 하기 위한 유일한(또는 가장 적합한) 전공 분야이다.
- ② 내 전공 이외에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전공 분야가 있다.
- ③ 내 전공보다 다른 전공 분야가 더 유용하다.
- ④ 특별한 전공이 필요없다.
- ⑤ 이 일을 하기 위해 대학교육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
- ⑥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32. 현 일자리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수준
- ② 전문대학(또는 기능대학) 졸업 수준
- ③ 4년제 대학 졸업 수준
- ④ 대학원 석사 이상
-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33. 귀하가 받은 교육수준이나 전공이 현 일자리의 업무와 잘 맞지 않는데도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해당사항 없음(내 전공이나 교육수준과 잘 맞음).
- ② 보다 적합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 ③ 앞으로의 전망이 좋아서
- ④ 내 전공과 밀접한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 ⑤ 처음에는 잘 맞았지만, 직장 내에서 부서가 바뀌는 바람에
- ⑥ 소득 수준이 높아서
- ⑦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 ⑧ 그 일이 재미있어서
- ⑨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일이어서
- ⑩ 내가 사는 곳에서 가까워서
- ⑪ 가족의 요구와 잘 맞아서
- ⑫ 내가 생각하는 커리어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초기에 내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⑬ 기타(구체적으로: _____)

34. 현 일자리의 업무가 대학 입학 당시의 기대와 잘 맞았습니까?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다
5	4	3	2	1	0

【 미취업자용 】

35. 언제부터 미취업 상태에 있었습니까?

■ _____년 _____월

36. 귀하는 지난 1주일 동안 수입이 되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 ① 예 ☞ 37번 문항으로
- ② 아니오

36-1. 지난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일거리나 직장을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37. 귀하는 지금 직장에 취업할 기회가 생긴다면 바로 취업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아무 직장이라도 취업할 생각 ☞ ⑤ 계속교육훈련 문항으로
- ② 현재 나의 상태(학력, 능력 등)와 맞는 직장이라면 취업할 생각 ☞ ⑤ 계속교육훈련 문항으로
- ③ 취업할 생각이 없음.

37-1. 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① 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취업준비가 필요해서
- ②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 ③ 일을 할 필요성이 없어서
- ④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 ⑤ 가사 일에 전념할 예정이므로
- ⑥ 상급학교에 재학 중(또는 진학 예정 중)이므로
- ⑦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5] 계속교육훈련

1. 귀하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이나 창업 또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5번 문항으로

1-1. 대학 졸업 후 취업이나 창업 또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이수한 교육훈련 중 주된 과정을 순서대로 3가지 골라 이수한 과정명과 이수 기간, 종료 여부를 기입해 주십시오. 귀하의 취업, 창업 또는 업무능력 향상과 관련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순서대로 응답해 주십시오(단, 학위 취득을 위한 정규 교육 과정은 제외). ☞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5번 문항으로

구분	과정명	이수 총 기간	종료 여부
첫번째 과정			___ ① 종료 ___ ② 이수중
두번째 과정			___ ① 종료 ___ ② 이수중
세번째 과정			___ ① 종료 ___ ② 이수중

2. 첫 번째 주된 과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2-1. 첫 번째 주된 과정을 이수한 기관은?

- ① 전문대학
 ② 4년제 대학
 ③ 기업 또는 기업 연수원
 ④ 공공 직업훈련기관(기능대학, 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 상공회의소 산하 인력개발원 등)
 ⑤ 민간 직업훈련기관(민간 직업전문학교, 학원, 문화센터 등)
 ⑥ 원격 통신훈련교육(e-learning) 기관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6. 이 과정이 이수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효과	대체로 효과	보통	대체로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5	4	3	2	1

3. 두 번째 주된 과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3-1. 두 번째 주된 과정을 이수한 기관은?

- ① 전문대학
- ② 4년제 대학
- ③ 기업 또는 기업 연수원
- ④ 공공 직업훈련기관(기능대학, 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 상공회의소 산하 인력개발원 등)
- ⑤ 민간 직업훈련기관(민간 직업전문학교, 학원, 문화센터 등)
- ⑥ 원격 통신훈련교육(e-learning) 기관
- ⑦ 기타(구체적으로: _____)

3-2. 이 과정을 이수하는데 든 비용은 주로 누가 부담했습니까?

- ① 무료 제공
- ② 주로 본인 부담
- ③ 주로 회사에서 부담
- ④ 주로 정부에서 부담
-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3-3. 이 과정을 근무시간 중에 이수했습니까?

- ① 해당사항 없음(미취업 상태였음).
- ② 과정의 전부를 근무시간 중 이수
- ③ 과정의 일부를 근무시간 중 이수
- ④ 과정 전부를 근무시간 외에 이수

3-4. 이 과정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① 전공분야의 최신 지식
- ② 인접 전공 분야의 지식
- ③ 일에 필요한 분석 방법의 습득
- ④ 기업 경영·리더십 능력의 육성
- ⑤ 수작업 기능의 습득
- ⑥ 외국어 능력의 육성
- ⑦ 컴퓨터 활용 능력의 육성
- ⑧ 의사소통능력 또는 프리젠테이션 능력의 육성
- ⑨ 대 고객 서비스
- ⑩ 법률 지식
- ⑪ 사회, 정치, 철학적 이슈
- ⑫ 생태 및 환경 문제
- ⑬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3-5. 이 과정을 이수하게 된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업무능력의 향상
- ② 업무능력 외 다른 능력의 향상
- ③ 승진 또는 보수의 향상
- ④ 취업, 창업 또는 타 업무분야로의 전직을 위한 재훈련

3-6. 이 과정이 이수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효과	대체로 효과	보통	대체로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5	4	3	2	1

4-5. 이 과정을 이수하게 된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업무능력의 향상
- ② 업무능력 외 다른 능력의 향상
- ③ 승진 또는 보수의 향상
- ④ 취업, 창업 또는 타 업무분야로의 전직을 위한 재훈련

4-6. 이 과정이 이수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효과	대체로 효과	보통	대체로 효과없음	전혀 효과없음
5	4	3	2	1

5. 현재 상태에서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별도의 교육훈련 이수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매우 필요함	대체로 필요함	보통임	대체로 필요하지 않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
5	4	3	2	1

6. 귀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학 교육 이후 별도의 교육훈련의 이수의 필요성에 대한 다음의 진술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매우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보통임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직업세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 이외의 별도의 교육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5	4	3	2	1
•대학 교육은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된다.	5	4	3	2	1

Ⅵ 공무원 채용시험 준비

1. 공무원 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7 개인적 사항 문항으로

2. 어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했습니까?(복수응답 가능)

- ① 국가직 5급 ② 국가직 7급 ③ 국가직 9급
 ④ 지방직 5급 ⑤ 지방직 7급 ⑥ 지방직 9급
 ⑦ 기타

3. 언제부터 공무원시험을 준비하였습니까?

- ① 대학1학년 ② 대학2학년 ③ 대학3학년 ④ 대학4학년
 ⑤ 졸업후 ☞ 4번 문항으로

3-1. 대학 재학중 공무원시험 준비를 시작하셨다면 재학중 전공 공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 ① 전공공부 우선 ② 양자 병행
 ③ 공무원시험 우선 ④ 공무원시험에 전념

3-2. 대학 재학중 공무원시험 준비를 시작하셨다면 전공 공부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 ① 매우 부정적 ② 약간 부정적 ③ 보통
 ④ 약간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4. 공무원시험을 준비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이상

5. 지금까지 공무원시험에 몇 회 응시하였습니까?

-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이상

6. 응시 동기는 무엇입니까? (순위별로 3가지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직업의 안정성 ② 유리한 보수 ③ 차별없는 공정한 기회 ④ 좋은 근무환경
 - ⑤ 국가에 봉사 ⑥ 민간기업에 취업할 기회가 부족 ⑦ 주위의 권유
 - ⑧ 공직의 자부심 ⑨ 기타

7. 향후 언제까지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계획입니까?
- ① 향후 1년내 ② 향후 2년내 ③ 향후 3년내 ④ 응시제한연령까지
 - ⑤ 응시할 계획이 없음 ☞ 8번 문항으로

- 7-1. 만약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제한이 폐지된다면 공무원시험 응시를 당초 계획보다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 ① 당초 계획대로 함 ② 당초 계획보다 (_____)년 더 하겠음

8. 공무원 시험 준비비용(교재비, 학원수강료 등)은 월평균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 월평균 _____ 만 원

9. 비용은 주로 누가 부담했습니까?
- ① 본인 ② 배우자 ③ 부모 ④ 형제자매 ⑤ 친지 ⑥ 기타

10. 공무원 수험준비는 하루 평균 몇 시간했습니까?
- 하루 평균 _____ 시간

[7] 개인적 사항

1. 귀하가 졸업한 고등학교는 다음 중 어떤 유형에 속합니까?
- ① 일반고 문과 ② 일반고 이과 ③ 일반고 직업과정
 - ④ 농업고 ⑤ 공업고 ⑥ 상업고
 - ⑦ 수산해양고 ⑧ 가사실업고 ⑨ 과학고
 - ⑩ 외국어고 ⑪ 예술고 ⑫ 체육고
 - ⑬ 검정고시 등을 통해 고졸학력 취득 ⑭ 기타

2. 귀하가 위 고등학교를 졸업한 연도(고졸학력을 취득한 연도)는?
 ■ _____년
3. 귀하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연도와 대학에 입학한 연도가 다른 경우 그 기간 동안 귀하는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복수 응답 가능)
 ① 대학입시를 위한 공부 또는 학원수강
 ②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이수
 ③ 구직 활동
 ④ 취업 또는 창업
4. 귀하가 대학에 입학할 당시 수능 점수는 몇 점이었습니까?
 ■ _____점
5. 현재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다음 중 어느 지역에 속합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남 ⑪ 충북 ⑫ 전남 ⑬ 전북 ⑭ 경남
 ⑮ 경북 ⑯ 제주
6.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① 미혼 ② 기혼으로 배우자 있음. ③ 사별 또는 이혼
7. 귀하 아버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단, 중퇴한 경우에는 그 이전의 학교 졸업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전문대학 졸업 ⑤ 4년제 대학 졸업 ⑥ 대학원 졸업 이상
8. 귀하 어머니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단, 중퇴한 경우에는 그 이전의 학교 졸업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① 초등학교 졸업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전문대학 졸업 ⑤ 4년제 대학 졸업 ⑥ 대학원 졸업 이상

9. 귀하 부모님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 ① 100만 원 미만 ② 100~200만 원 미만 ③ 200~300만 원 미만
④ 300~400만 원 미만 ⑤ 400~500만 원 미만 ⑥ 500만 원 이상

예금주 _____

은행명 _____

계좌번호 _____

(“-”를 생략하시고 숫자를 적어주십시오.)

입금확인 연락처

휴대전화 _____

일반전화 _____

◆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참고문헌

- 강무섭 외(2001).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 연구』. 대통령자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 강성원 외(2000). 『대학의 기업교육 만족도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주섭(2005).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과잉 실태」. 『교육과 노동시장 연구』. pp. 68-91.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김준영·전용석(2003). 「청년층의 노동이동과 노동시장 성과 - 초기 노동시장 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앙고용정보원 주최 제2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자료집』. 중앙고용정보원.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 나영선 외(2001).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안주엽 외(2000). 『학교교육에서 노동시장으로 - 실태 분석 및 정책방향』. 한국노동연구원.
- 어수봉(1995). 「우리나라 일공합의 실태와 노동이동」. 『노동경제론집』. 제17권. 제2호. pp. 89-124.
- 이병희(2001). 「청년실업과 경력형성」. 『산업관계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노사관계학회.
- _____ (2002). 「노동시장 이행 초기 경험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제2권 제1호.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2003).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안주엽·전병유·장수명·홍서연(2002).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이행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장원섭 외(1999).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I): 고등학교 단계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 (2001).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관한 연구(II): 고등교육단

- 계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채창균(2001). 「청년실업의 실태 및 원인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제4권 제2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 (2005). 「교육훈련기관 유형별 청년층 취업률 분석」. 『노동경제론집』. 제28권. 제2호. pp. 93-116.
- 채창균 외(2002). 『청년층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학교와 노동시장의 연계강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채창균 외(2004). 『청년층 교육·훈련과 고용(I) -교육·훈련기관 유형별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채창균·김미란(2003). 『청년실업 종합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5).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실태조사 원자료. 調査研究報告書(1995), “大卒者の初期キャリア形成 -「大卒就職研究会」報告”, 日本労働研究機構, No. 64
- 調査研究報告書(2001), “日欧の大學と職業 -高等教育と職業に關する12カ國比較調査結果”, 日本労働研究機構, No. 143
- Blanchflower, David G. and Richard B. Freeman(2000). “The Declining Economics Status of Young Workers in OECD Countries”. in David G. Blanchflower and Richard B. Freeman eds. *Youth Employment and Joblessness in Advanced Countrie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vans, K et al. (eds.)(2002). *Working to Learn: Transforming learning in the workplace*, London: Kogan Page.
- Gardecki, R. and D. Neumark(1998). “Order from Chaos? The Effects of Early Labor Market Experiences on Adult Labor Market Outcome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51, No. 2, Jan. pp. 299-322

- Goux, D. and Maurin, E.(1998). From Education to First Job: The French Green and Sakamoto(2001). Models of High Skills in National Competition Strategies, in Brown, P. et al. (eds.), *High Skills: Globalization, Competitiveness, and Skill Form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rtog, Joop(2000). “Over-education and Earnings: where are we, where should we go?”,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19 (2): pp. 131-147.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summer 2001). *The School-to-Work Transition of Post-secondary Graduates in Canada: Research Findings Based on the National Graduate Surveys, Applied Research Bulletin*. Special Edition.
- Korenman, S. & D. Neumark(1997). “Cohort crowding and youth labor markets: A cross-national analysis”. *NBER Working Paper*, No.6031
- Levin, H. M.(1983). “Youth unemployment and its educational consequences”.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5(2).
- Light, A. and K. McGarry(1998), “Job Change Patterns and the Wages of Young Ma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80, No. 2, pp. 276-286.
- Marsden, D. & P. Ryan(1986). “Where do young workers work? Youth employment by industry in various European economics”.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24(1).
- Nadler, Leonard and Zeace(1990). eds. *The Handbook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n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 Ryan, Paul(2001), “The School-to-Work Transition: A Cross-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39, pp. 34-92.
- Stern, D. et. als.(1995). *School to Work*. London: the Falmer Press.

▣ 저자 약력

- 채창균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최지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옥준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대졸 청년층의 대학교육 만족도

· 발행연월일	2005년 11월 29일 인쇄 2005년 11월 30일 발행
· 발행인	김 장 호
·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5-949,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2동 15-1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 화: (02)3485-5000, 5100 팩 스: (02)3485-5200
· 인쇄처	선우인쇄 (02)2272-6105, 6106
· 등록일자	1998년 6월 11일
· 등록번호	제16-1681호
· I S B N	89-8436-855-5 94370 89-8436-853-9(전5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가 7,000원>